

# 천로역정

**존 버니언 저 | 주요섭 역** 노벨상 수상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으로부터 '소설의 창시자'라고 까지 칭송받은 저자 존 버니언, 《사랑 손님과 어머니》《인력거꾼》으로 한국 현대소설의 한 획을 그은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인 번역자 주요섭 선생, 《천로역정》이 두 거인의 펜을 거쳐 독자들을 만난다. 성서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고전 중의 고전 《천로역정》은 후세 소설가들이 채택하는 줄거리의 모범으로도 꼽힌다.



# 천로역정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천로역정》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신영자산개발(주)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 해주신 강병인 캘리그래피연구소 숭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주신 고 주요섭 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북명 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신영자산개발(주)  
Shinyoung Asset Development Corporation



## 해설

존 버니언(1628~88)은 17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였다. 그러나 누구건 그를 위대한 소설가라고 치켜세운다면 그는 극력 부인하려 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소설을 쓴 목적은 명성을 얻으려는 데 있던 것이 절대 아니고, 또한 인간구원의 길은 물질적인 계급투쟁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 영혼의 투쟁에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체득한 그가 그 진리를 설교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1642년에 시작되어 1649년 찰스 1세가 단두대의 이슬이 되고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은 1653년에 국왕 대 국회의 권력 쟁투(爭鬪)·내란은 국회의 승리로 당분간 막을 내렸는데, 이 내란 소동 때 버니언은 국회 측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징집되어 마지못해 싸운 것이 아니라 국교신앙(國敎信仰) 강제에 항거하는 국회의 청교도와 승리를 위해 자진해서 열심히 싸운 것이었다.

1660년 찰스 2세가 등극하여 왕권이 복고되어 국교신앙이 다시 강요되고 국교 외의 탄종파 설교는 하지 아니한다고 선서하는 목사들에게만 목사 자격을 준다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많은 목사들이 선서에 응했지만, 선서를 거부하고 청교도 종파의 설교를 계속하던 버니언은 체포되어 십이 년간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옥중에 갇힌 그는 성경 읽는 여가에 《죄인의 두목에게 내리워진 신의 풍부한 은총》이라는 정신적 자서전을 썼다(1666년 출판).

1672년에 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청교도주의 설교를 하다가 재차 투옥(1675년)된 그는 《이승으로부터 장차 올 저승으로 가는 천로역정》 제1부를 집필했다(1678년 출판). 이 천로역정은 인간 생애의 환영을 여행하는 인간으로 분장시켜 비유법으로 쓴 소설이었다. 비유법 사용은 자칫하다가 가는 활기 없이 지루하기만 한 기교에 치우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버니언은 이 방법으로 그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

여 위대하고도 생생하고 활기 띤 소설을 쓰는 데 성공했다. 국교신앙을 끝까지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그의 입을 틀어막아 침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정자들이 그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감금 생활을 이용하여 영어로 쓰인 종교 소설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이 소설을 그가 썼다는 것은 하나의 기연인 동시에 계몽하는 점도 있다.

영국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존 버니언을 소설의 창시자라고까지 격찬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의 강한 신앙심과 겸손한 마음씨, 그리고 그가 여행하는 도중 겪는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모험은 후세 소설가들이 즐겨 채택하는 줄거리의 모범이 되었다.

《신의 풍부한 은총》과 《천로역정》 외 그의 명작들로는 《천로역정》의 보충적 소설이라고 할 만한 《악인의 생애와 죽음》(1680), 《성전》(1682), 《성시(聖市)》(1665) 혹은 《새 예루살렘》 등이 있다.

이 번역은 미국 뉴욕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 프레스에서 1961년에 간행한 완전본을 우리 글로 완역한 것이다. 본문에 성경 구절 인용 외 등장인물 대화에는 인용 부호를 달지 아니하였으므로 번역할 때에도 그 독특한 문체의 멋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인용 부호 없이 그냥 번역했다.

## 저자의 변명

이 작품을 쓰려고 맨 처음 펜을 들 때 이런 모양의 보잘것없는 책을 저술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판 종류의 책을 저술해 보려고 집필했었는데, 다 쓰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양의 저서가 된 것입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오늘 성현들의 행적과 그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그려 본다고 시작한 제가 별안간 그들의 행로와 또는 영광스런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로를 암시하는 비유문학 작품을 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애초 어림잡았던 사건에 스무 가지도 더 되는 사건들을 보탠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쓰고 나자 제 머리 속에는 또 다시 스무 가지도 더 되는 사건들의 생각이 떠올라, 마치 석탄 타는 불꽃이 튀어나오듯이 생각이 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상이 이렇듯이 빨리 떠오르는 것을 제멋대로 버려둔다면 그것은 견잡을 수 없이 무한정 자라나 제가 이미 써 놓은 저서까지 잡혀 먹힐 것 같아서 저는 구상을 밀어제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상은 다 밀어 두고 이 저서를 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서 이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고 싶어 쓴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공백 기간의 무료를 메우기 위해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빗나가려는 제 생각을 바로잡아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즐거운 심정으로 펜을 종이 위에 달리기 시작하자 제 생각은 금세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그다음 제가 사용해야 할 논제의 한 끄트머리를 붙잡고 끌어당겼더니 배열이 정연하게 되어 그 배열에 따라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은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가진 이 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맥도 가지런히 앞뒤를 맞추어 놓은 제 원고를 여러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 작품을 뚝먹지 않았다고 비난할지 혹은 또 잘됐다고 칭찬해 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여 버리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살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보시오 존, 이걸 출판하도록 하시오.” 하는데, 다른 분들은 출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출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군경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상 저로서는 출판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출판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주는데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 중 누가 가장 올바른 충고를 해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대 위에 올려 증명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출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만 족감을 주기 위해 출판하지 않는 경우, 출판하라고 권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판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손상시키기는 싫습디만 여러분의 형제들은 출판하는 것을 반가워하겠다고 하니, 출판되어 나온 책을 읽어 보실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 작품을 읽지 않으시려거든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살코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기가 별로 붙지 않은 갈비를 뜯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기분을 잠시 완화시키는 동시에 어떤 분에게는 타이르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문체로 글을 써서는 안 될까요? 이런 문체로 쓰기는 쓰면서도 제가 노리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보배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감응도 놓치지 않도록 쓸 도리는 없을까요? 이런 문체로 써 가지고는 목적 관철이 불가능할까요? 밝은 구름이 비를 못 내려 줄 때 검은 구름은 비를 뿌려 주지요. 검은 밝건 간에 구름이 은방울 같은 비를 뿌려 주면 땅은 곡식을 산출함으로써 두 가지 구름을 다 찬양하고 어느 한쪽에게도 트집을 잡지는 않지요. 검은 구름과 흰 구름이 합세하여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땅이 산출한 열매를 보고 어느 구름의 덕택이라고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굶주릴 때에는 두 가지 구름이 소용되고, 땅이 배부를 때에는 양자 다 역겨워 구름들이 내리는 은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모든 기지를 총동원하는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정, 낚시줄 · 낚시 · 그물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낚시건, 낚시줄이건, 함정이건, 그물이건, 그 밖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물고기가 제물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더듬어 찾고 뒤지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해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를 잡으려는 사람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루 해야될 수 없는 갖가지 방법! 엽총 · 새그물 · 끈끈이를 칠한 나뭇가지 · 등불 · 방울 등을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그는 살살 기어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며 가만히 서 있기도 합니다. 그가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취하는 자세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술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가 꼭 원하는 새를 산 채로 잡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피

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두꺼비 머릿속에 진주 한 알이 묻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굴 껍질 속에서 진주가 발견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값진 금이 어디 묻혀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그걸 캐려고 이리저리 쏘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쓴 이 책은 보잘것없는 책(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미문과 묘사가 결합되어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화려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용이 공허한 책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책을 능가하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는 당신의 책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째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책을 읽어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뜻을 명확히 포착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 “억지로 꾸며 만든 가공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나처럼 뜻이 명확하지 못한 가공적인 어휘로 글을 써도 진리가 광채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찬연히 빛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먹은 대로 실토하는 사람은 “독자들은 확실성 있는 글을 읽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정신력이 약한 자를 압도해 버리고, 우리들까지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고 명백한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인간에게 신성감을 주려는 저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은유적인 문장으로 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제 글이 뜻을 명백하게 전하지 못했다고까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 또는 복음서 등도 독특한 상징 · 암시 · 은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

니까? 세상에 가장 슬기로운 가르침을 무조건 공격하려 드는 자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옛날 성전들의 문체에서 결점만을 찾아낼 마음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도리어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늘과 둥근 고리, 송아지와 양, 어린 암소와 수양, 새와 풀,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등 어휘가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겸손한 태도로 공부에 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쓰신 은유 속에 숨은 뜻이 얼마나 명백하고 우아한지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글이 명백하지 못하고 문장이 거칠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너무 조금히 앞장서지는 말아 주세요. 겉으로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이 쓴 글이라고 모두 다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비유법을 사용한 글이라고 모두 다 멀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들을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아주 좋은 것들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 말입니다. 제 글이 애매하고 흐려 보이지만, 마치 금고 속에 금이 들어 있듯이 제 글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진술하기 위해 선지자들은 은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예수 또는 그의 사도들의 진술을 잘 고찰해 본 분들은 그들이 은유법으로 표현한 진리가 오늘날까지 진리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혜를 적어 놓은 성경 자체의 구절구절이 거의 다 어렵פות한 비유와 알레고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리라고 모두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성경으로부터 광채가 발산되고 광선이 흘러나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낮같이 밝혀 주는 것입니다.

제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에게 그가 쓴 글을 지금 자세히 읽어 보라고 권하겠습니다.

니다. 그리하면 그가 쓴 책 속에 제가 쓴 글귀보다 의미가 더 희미한 구절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그가 쓴 가장 훌륭한 글 안에도 비교적 나쁜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와 나 두 사람의 저서를 공명정대한 독자들에게 읽혀 문구의 명료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일 있다면, 그의 희미한 글귀 한 구절과 제 희미한 글귀 열 구절을 걸고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평한 독자들이라면 그들은 그의 능변적인 거짓말 한 마디를 이해하는 것보다 제 글 열 구절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진리를 진술하면, 그것이 비록 배내 바보의 말투로 진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력을 고치시키고, 마음에 먹은 생각을 수정시켜 주며, 이해하는 자를 즐겁게 해 주고, 의지력을 굴복시키며,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즐기는 상상으로 충만케 해 주며, 우리의 고통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제가 알기에는 명확한 어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그는 늙은 부인들이 말하는 우화는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고 엄숙한 사도 바울 자신은 비유법을 쓰는 문체를 금지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 · 진주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보석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이 보물들은 조심스럽게 캐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값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 말만 더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 저서가 목사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까? 제가 비유체 말고 다른 문체로 글을 쓰기를 목사님은 바라고 계십니까? 혹은 좀 더 명백하게 제 의사를 표시하도록 글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점을 여기 제시하여, 저보다는 훨씬 우수한 저술가들 앞에 제출해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전적으로 거부당한 예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휘에게나, 사건에게나, 독자들에게 욕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글에 비유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조잡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쓰건 간에 진리를 전진시키기 위한 글이라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부당했다고 제가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당하기는커녕 저는 이런 문체로 제 생각을 표현했고 당신네처럼 가장 우수한 분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려고 했습니다. (실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비유법으로 글을 쓰고 비유식으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 드렸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둘, 저로서는 쳐다보기에요 까맣게 우수한 분들도 글을 쓰는 데 있어 대화법 사용을 즐겨 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그들을 홍보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의 글로 그들이 만일 진리를 박해했다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진리를 박해하기 위해 사용한 문체도 저주받아 마땅하겠지만, 진리가 박해받을 없이 자유롭게 당신네들과 저를 감동시키는 글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다면 그 어떤 문체로 썼더라도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쟁기 잡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신 예수(역주: 누가복음 9:62) 외에 아무도 그의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생각 또는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더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비천한 것까지도 신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다른 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진술 수법을 사용한 대목이 성경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쓰인 그 수법은 제가 쓰는 수법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해서 진리

의 찬란한 광채가 은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진리의 광선을 사방으로 발산하여 세상을 낮같이 밝혀 주는 것입니다.

펜을 놓기 전에 제가 저술한 이 책의 이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끌어내리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에 당신네 독자들과 제 책을 부탁하겠습니다(역주: 시편 31:5).

이 책의 줄거리를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영원불멸하는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대략의 모습을 독자의 눈앞에 그려 놓은 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그가 실행하지 않고 버려두는 일은 무엇이며, 실행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독자에게 보여 줍니다. 그다음 영광의 나라 문 앞에 도달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걸음을 재촉해 달려가고 있나 하는 모습도 보여 줍니다. 영원불멸하는 왕관을 차지해 보려고 인생행로를 황급히 달리는 군중의 모습도 보여 주고, 그들의 노고가 보잘것없게 되고 바보들처럼 죽어 버리는 이유도 이 책이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독자인 당신을 하나의 여행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충고를 여행 노정(路程)으로 삼는 사람은 성지에 도달할 것이요, 이 책이 지시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여행자라면 아무리 굵든 자라도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며, 비록 소경일지라도 모든 즐거운 것들을 푹푹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귀하고도 이로운 것을 당신은 요구합니까? 우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건망증이 강한 분입니까? 정월 초하룻날 생긴 일부터 선달 그믐날까지 생기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제 기상 이 적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에 적힌 제 기상은, 마치 가시 돋친 우영 열매처럼 당신 기억에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력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

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위안을 줄 것입니다.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수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언뜻 볼 때 기이한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정직한 복음 계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만 담은 것이 이 책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딴 생각에 쏠리게 하여 기분 전환을 하기 바라십니까? 우둔이나 추태(醜態)와는 거리가 멀면서도 아주 유쾌한 기분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수수께끼들을 많이 읽고 또 그 해설까지 알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당신 자신의 묵상에만 깊이 잠겨 자족하고 싶으십니까? 남들과 논쟁하기를 가장 즐기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구름을 탄 어떤 사람이 당신께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잠자지 않으면서도 꿈을 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동시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경험을 가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아경에 빠지면서도 손해는 보지 않고 마술에 홀렸다가도 본디 제정신을 다시 찾는 경험을 가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같은 구절들을 되풀이해 읽으면서 무슨 소릴 읽고 있는지 잘 모르기는 하되,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을 얻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 만일 그러하다면 이리로 오셔서 제가 쓴 이 책과 당신의 머리와 가슴을 다 함께 이 자리에 묻어 주십시오.

존 버니언



## 차 례

해설 .....	5
저자의 변명 .....	7
제1부 .....	17
제2부 .....	184



## 제 1 부

## 제1부

이승으로부터 저승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기  
꿈을 가장하여 엮은 이야기  
순례자를 발견하는 장소  
그의 출발 광경  
위험한 여행  
그리고 소망하는 나라에 안착하는 광경

작자 존 버니언

“내가 비유를 사용했노라(호세아 12:10).”

## 꿈에 비유해 쓴 순례자의 편력(遍歷)

이 세상 사막지대를 헤매고 있었던 나는 한곳에 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다. 자는 동안 나는 꿈을 꿔다. 꿈속에서 나는 한 사나이를 봤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자기 집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울며 몸을 떨더니, 견디다 못한 그는 마침내 슬프게 통곡하면서 “난 어쩌면 좋아?” 하고 말했다.

곤경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고민을 눈치 채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자라는 데까지 자기 감정을 억눌렀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자꾸 늘어난 탓에 더 오래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참다못한 그는 결심을 깨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혈육인 아이들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나는 내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뿐 아니라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잿더미가 되리라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어. 그날이 오면 나는 물론 아내인 당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인 너희들까지 다 죽고 말 거야. 몰사(沒死)하지 않고 우리 끼리만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도망을 가야 할 텐데(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여태 발견 못 하고 있지만).”

이 말에 그의 가족은 크게 놀랐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광기로

미쳐 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것이었다. 잠을 재우면 그의 머리가 안정되리라고 생각한 그들은 밤이 깊기 전에 부랴부랴 그를 잠자리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밤에도 낮과 마찬가지로 심했다. 잠들기는커녕 한숨과 울음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 가족은 그가 지난밤을 어떻게 지새웠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말을 꺼내자 그 말은 더욱 이상아룻해졌다. 이에 가족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거칠고 까다롭게 대해 주면 미친 증세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를 비웃기도 하고 큰 소리로 야단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숨은 그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슬퍼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혼자서 들로 달려 나간 그는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며칠 간 세월을 보냈다.

어떤 날, 역시 길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던 그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외치는 것을 나는 봤다.

「크리스천(기독교인)」이 속세를 떠나자마자 「전도사」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하는 전도사는 천당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지상의 속세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방향으로 달아나면 좋을까를 찾듯이 두리번거리던 그 사람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나는 봤다. 그때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을 나는 봤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있소?” 하고 전도사가 묻는 것도 나는 봤다.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어 보니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구요. 그런데 저로서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싫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가 말했다. “이 세상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째서 죽기를 싫어한단 말ियो?”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저를 떨어뜨려 토베트(역주: 예루살렘 근처의 쓰레기 버리

는 곳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끊이지 않았음, 즉 지옥을 의미하는 것임)에 빠져 버릴까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감옥 생활만도 견뎌 내지 못할 제 몸이 심판까지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올 사형 집행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를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멍청하니 서 있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요.” 이때 전도사는 양가죽으로 만든 족자(簇子) 한 개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족자에는 ‘장차 올 천벌(天罰)을 피해 도망가라.’ 라고 쓰여 있었다.

이 글을 읽은 그 사람은 전도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저쪽에 뻗은 넓은 광야를 손가락질하면서 전도사가 말했다. “저쪽에 있는 작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데요.” 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그럼 저쪽에 빛나고 있는 광채는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그럼 저 광채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곧장 올라가시오. 그러면 문이 눈에 띄 겠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과히 멀리 가기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손으로 귀를 다 막은 그 사람은 그냥 달아나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 질렀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그는 평원 가운데로 향해 계속 달렸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달아나는 것을 보려고 뛰어 나왔다. 그가 뛰어 가는 것을 보는 그들 중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헐뜯고, 더러는 돌아오라고 고함질렀다. 그들 중의 두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를 끌어오기로 마음먹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유순(柔順)」이었다. 뛰어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상당히 멀리 갔지만 고집쟁이와 유순은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뒤따라 달려가 금세 따라잡았다. “여보, 이웃 친구들, 무슨 일로 오셨지요?” 하고 그 사람이 물어봤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을 설득시켜 집으로 도로 모셔 가

려고 왔소.” 그러나 그는 말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네가 사는 고장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장이기도 하지만 멸망해 버릴 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만간 죽을 몸인데 그곳에 살다가 죽으면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 유향불이 타고 있는 구렁텅이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판 마음 먹지 말고 나를 따라 같이 가기로 합시다.”

“무어라고?” 하고 고집쟁이가 말했다. “우리 친구들과 편안한 생활을 뒤에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소.” 하고 크리스천(그 사람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은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할 이유가 있지요. 당신네가 즐기는 술한 것들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즐거움, 사소한 즐거움이기기는 하지만, 그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누릴 복락을 당신도 꼭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것이 굉장히 풍부하여 실컷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 내 말을 증명해 보여 드릴 테니.”

고집쟁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까지 당신이 찾는 것은 도대체 뭐요?”

크리스천: “내가 찾고 있는 유산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스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물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쌓아 둔 것인데, 때가 이르면 그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꼭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세요.”

고집쟁이: “치! 그따위 책은 버리고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갈 테요, 안 갈 테요?”

크리스천: “안 가요. 난 집으로 안 돌아가요. 나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까요 (역주: 누가복음 9:62).”

고집쟁이: “그래요? 그럼 여보, 유순 선생,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분처럼 허풍떨기 좋아하는 자들은 한 번 어떤 환상을 붙들면 도리에 맞는 충고를 해 주는 사람 일곱 명의 말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유순: “그렇게 무턱대고 욕만 하진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천의 말이 진정이라면 그이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것보다 나을지도 알 수 없지 않소. 난 이분을 따라갈

생각이 드는데요.”

고집쟁이: “뭐라고요! 바보가 또 하나 생겼구먼! 내 말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로 끌고 갈지 알고 따라간단 말ियो? 돌아갑시다, 돌아가.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크리스천: “유순 선생, 날 따라오시오. 내가 가는 데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좋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여기 이 책을 읽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된 진리가 진리를 만드신 주님의 피로 증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요.”

유순: “글쎄요. 여보, 고집쟁이 선생, 나는 요령을 얻기 시작했어요. 난 이 착한 분과 동행해서 같은 운명에 내 몸을 던지겠소. 그런데, 크리스천 선생,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 “전도사라는 분이 내가 갈 길을 지시해 줬어요. 저 앞에 있는 작은 문까지 빨리 가면 거기서 어느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순: “자, 그럼 어서 갑시다.” 그리고 나서 그들 둘은 함께 걸어갔다.

고집쟁이: “그럼 난 집으로 돌아가겠소. 머리가 돈 별난 당신들과 동행할 순 없으니까.”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평원을 걸어 나가는 것을 나는 꿈에서 봤다. 그들 둘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

크리스천: “자, 유순 선생, 그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이 와 주니 참 기쁩니다. 고집쟁이도 내 기분과 같은 기분을, 즉 아직 당해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올 힘과 공포를 느낀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자, 크리스천 선생, 지금 우리 둘 밖에 탄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관절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즐기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가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크리스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요. 허나 당신이 꼭 알고 싶다니 이 책을 읽어 드려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게 해 드리지요.”

유순: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전부 다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 “그럼요, 절대 진실이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유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록돼 있습니까?”

크리스천: “끝없는 왕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왕국에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십니다.”

유순: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는?”

크리스천: “영광스런 왕관이 우리 머리에 씌워질 것이요, 창공에 뜬 태양빛처럼 빛나는 곤룡포(袞龍袍)를 우리 몸에 입혀 주어 우리 몸은 햇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유순: “정말 기분 좋은 일이군요. 그 밖에는 또 무엇이?”

크리스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다신 울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을 겁니다. 그곳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유순: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까?”

크리스천: “보기만 해도 우리 눈을 부시게 하는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되지요, 우리 보다 앞서 그곳으로 가서 사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에 우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친절하고 거룩한 분들일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걸어 다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선배들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요, 금 거문고를 타고 있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몸이 갈가리 찢기고 불에 타 죽고 야수들에게 물려 죽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온전한 몸을 도로 찾아 영원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순: “말만 들어도 가슴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즐길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천: “그 나라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뒀어요. 요점만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기만 하면 그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하사하신

다는 말씀입니다.”

유순: “참 즐겁기 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 발걸음을 빨리 합시다.”

크리스천: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얘기를 끝낼 때 평야 중심지에 있는 진흙 수렁에 아주 가까이까지 가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봤다. 수렁이 있는 줄 알 턱이 없는 그들은 무심코 걸어 가다가 돌 다 그 늪에 푹당 빠졌다. 이 수렁의 이름은 「절망」이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그들은 한동안 수렁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천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가기 시작했다.

유순: “아! 크리스천 선생,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요?”

크리스천: “바로 말하자면 나도 모르겠소.”

이 말에 기분이 상하기 시작한 유순은 골난 목소리로 동행자에게 대들었다. “여태까지 말해 준 소위 행복스런 곳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곳이요? 처음부터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고생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니오? 내가 여기서 목숨을 구해낼 수 있다면 당신 혼자 그 좋은 나라로 가 차지하십시오.” 한두 번 필사적으로 몸을 숙구친 그는 바로 자기 집 옆쪽에 면한 수렁 밖으로 몸을 빼냈다. 그는 집으로 가 버리고 크리스천은 그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다. 수렁 속에 혼자 남은 크리스천은 진흙 속에서 뒹굴면서 자기 집 쪽에서는 멀고 작은 문 가까운 땅 위로 기어오르려고 애를 썼다. 작은 문 쪽으로 뒹굴어 가기는 했으나 등에 진 짐 때문에 수렁을 빠져 나오지는 못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봤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도움」인데, 도움이 크리스천에게 그런 데서 뭘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크리스천: “선생님, 장차 파멸될 이 세상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이 길로 나아가, 저 쪽 문까지 가야 한다고 전도사라는 분이 알려 주어 제가 이 길로 가던 도중, 어쩌다가 이 수렁에 그만 빠졌지요?”

도움: “왜 길을 잘 살펴보지 않고 마구 걸어왔소?”

크리스천: “겁에 쫓겨 마구 달리다가 그만 이 꼴이 됐습니다.”

“손을 이리 내미시오.” 하고 도움이 말하자 크리스천이 손을 내밀었다. 손을 붙잡



아 크리스천을 마른 땅 위에 끌어올려 준 도움은 어서 여행을 계속하라고 일렀다. 크리스천을 끌어내 준 도움에게로 가까이 간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멸망의 도시로부터 피해 나와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간 길이기도 한 곳을 왜 수리하지 않았나요? 수리해 봤더라면 겁먹은 여행자들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텐데.” 내 질문에 도움은 설명을 해 주었다. “이 수령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 몸에 끼는 더께와 때가 모두 합쳐 이곳으로 계속 흘러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절망의 수령’이라고 지었지요. 그리고 범죄자가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그의 혼(魂) 속에 생기는 갖가지 두려움과 의혹과 낙망 등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계속 수령인 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도움은 말을 계속했다. “이 장소가 수령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 보낸 측량 기사들과 감독관들의 지시에 따라 지나간 천육백여 년간 계속해 술한 노무자(勞務者)들을 고용하여 이 수령을 메워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만도 천국(天國)의 각 지방으로부터 춘하추동 가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교훈 수백만 가지를 모아 적어도 이만 여대의 수레에 실어 이 수령에 쏟아 넣었지요. 좋고 그른 것을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수령을 메워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인정하는 재료를 그렇게 많이 갖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이곳은 절망의 수령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 봐도 이곳은 수령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령 속 곳곳에 아주 튼튼한 발판들을 세워 놓기는 했지만, 사시장철 수령 자체가 더러운 흙탕을 자꾸 게워 놓기 때문에 발판은 가려져 보기 힘들 뿐 아니라, 혹 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머리가 어지러워서, 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헛디뎈 수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문 앞에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 땅은 단단합니다.”

이때 유순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봤다. 그의 이웃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와 있는데, 더러는 집으로 돌아온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가 하면 더러는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한 그를 바보라고 놀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 더러는 그의 비겁한 행동을 비웃기도 했다. 비웃는 사람들은 일단 모험을 시작한 바에 사소한 난관 때문에 모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빈정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순은 친구들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차츰 용기를 얻은 그는 화제를 돌려 친구들과 더불어 미련한 크리스천을 비웃기 시작했다. 유순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 끝내기로 한다.

혼자 걸어가고 있던 크리스천은 평야 저쪽으로부터 마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봤다. 그들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엇갈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그와 마주친 사람의 이름은 「속세 현자」였다. 그가 사는 곳은 「현세정략」시(市)인데, 상당히 큰 도시로 크리스천이 살던 시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간 것이 그 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큰 화젯거리가 되었던 것이었다. 크리스천의 걸음걸이가 무척 고단하게 보일 뿐 아니라, 연방 한숨을 짓고 신음하는 모양으로 보아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일 거라고 짐작한 속세 현자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속세 현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딜 이렇게 가십니까?”

크리스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보인다고요? 나는 실로 가련한 신세올시다! 저 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니 대답해 드리지요. 선생님, 저쪽 작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문까지 가면 내가 진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속세 현자: “아내와 자식들은 없습니까?”

크리스천: “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전처럼 그들과 즐길 수가 없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내게는 생각됩니다.”

속세 현자: “내가 충고해 드리면 내 말을 귀담아 들겠소?”

크리스천: “유익한 조언이면 듣지요. 정말이지 나에게는 좋은 충고가 필요하니까요.”

속세 현자: “그럼 내 조언해 드리지요. 한시바빠 그 짐을 벗어 버리시오. 짐을 벗기 전에는 마음이 절대로 안정되지 못할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이득도 즐겁게 누리지 못할 것이니까요.”

크리스천: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내 고향에는 이것을 벗겨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짐을 벗어 버리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세 현자: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해 줍니까?”

크리스천: “매우 위대하고 귀하신 분같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분 이름이 전도사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세 현자: “그 사람의 조언을 나로서는 저주하지 않을 수 없소. 그가 당신에게 권고한 것처럼 위험하고도 성가신 방법은 세상에 둘도 없을 거요. 당신이 만일 그의 가르침대로 하다가는 성가시고 위험한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될 것이요. 당신 몸이 절망의 수렁 흡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벌써 어떤 곤경에 빠졌던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당면할 여러 가지 난관 중 그 수렁은 오직 첫 번째 시작에 불과하오. 나는 당신보다 나이 몇 살 더 먹은 사람이니 내 말을 명심해 들으시오. 이 길을 그냥 따라가다가는 싫증, 고통, 굶주림, 위험, 헐벗음, 칼, 여러 마리의 사자들과 용들, 암흑 등을 만나게 될 거요. 줄여 말하자면 죽음!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난에 당면하는 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이미 사실로 증명되어 있어요. 더구나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곧이듣고 자기 운명을 아무 데나 함부로 던질 필요가 어디 있소?”

크리스천: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위험과 곤란보다도 내 등에 지워진 이 짐이 내게는 한결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만나는 어떤 위험이나 고통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세 현자: “애초 어떻게 그 짐을 지게 됐소?”

크리스천: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지요.”

속세 현자: “내 그럴 줄 짐작하고 있었소. 모든 연약한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에 당신도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에 비해 너무나 고상한 일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별안간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마련이지요. 정신착란증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져서 저도 모르는 무엇을 손에 넣어보려고 결사적인 모험을 감행하게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당신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크리스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속세 현자: “짐을 가볍게 하려 한다고 해서 뻔히 보이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명심해 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충고해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그냥 따라가다가는 피하지 못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위험에 봉착하지 않고도 당신 소원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지요. 그렇습니다. 대책을 지금 곧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가시면 위험 대신 완전한 안전과 우정과 만족을 맛보리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 “선생님,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속세 현자: “저쪽을 보세요. 저기 저 촌락(『도의(道義)』라고 불리는 촌락)에 『합법(合法)』이란 이름을 가진 신사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판단력이 아주 강해 명성이 자자한 분인데, 당신처럼 짐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짐을 벗기는 기술이 절묘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경우만 보더라도 술한 사람의 짐을 벗겨 주어 착한 일을 참 많이 했지요. 그뿐 아니라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머리가 약간 돈 사람들의 미친 증세를 치료해 완치시키는 기술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한테로 가 보도록 하시오. 가시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의 집이 여기서 오리도 채 못 돼요. 혹 그이가 댁에 계시지 않거들랑 『예의』라는 분을 만나시오. 예의는 합법의 아드님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못지않은 기술자이니까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짐을 벗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 생각이 없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그 촌락으로 데려다 살면 됩니다. 그 촌에는 지금 비어 있는 집이

많고, 비싸지 않은 적당한 세를 내고 세 들어 살 수 있으며, 식량 값이 싸기 때문에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웃이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어서 서로 믿고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이고 있었으나, 이 사람의 말이 진정이라면 그의 충고를 좇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크리스천: “선생님, 그 정직한 분의 맥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속세 현자: “저쪽 높은 언덕이 보입니까?”

크리스천: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속세 현자: “저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언덕 넘어 첫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그가 가고 있던 길을 버린 크리스천은 합법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언덕 가까이 가 보니 언덕은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길이 풀린 바로 위로 커다란 바위가 삐죽 뻗어 나와 있었다. 그것을 바라본 크리스천은 그 바위 아래로 걸어가다가는 그것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않을까 겁이 나서 걸음을 멈추고 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디 가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설 때부터 등에 지워진 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언덕 위에 불이 활활 붙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올라가다가는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예수교인들이 속세 인간의 말에 귀가 솔깃해질 때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간 죄에 중벌을 받는다. 속세의 현자가 성도에게 지시하는 길은 오직 속박과 비애로 이끌어가는 길이니라.

속세 현자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을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전도사가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다. 그에게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와 마주 서자 전도사는 엄하고도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면서 크리스천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여보, 크리스천, 이런 곳에 뭘 하러 왔소?” 하고 전도사가 물었다. 이 물음에 무엇이냐고 대답할지 모르는 크리스천은 말 못 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때 전도사가 말을 이었다. “멸망할 도시 성문 밖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요?”

크리스천: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올시다.”

전도사: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속히 본디 결심을 다른 데로 돌렸소? 지금 보니 당신은 판 길을 걸어왔구려.”

크리스천: “절망의 수렁에서 기어 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저 언덕 넘어 촌락으로 가면 거기서 제 짐을 벗겨줄 사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그가 말해주더군요. 그 말에 결국 제가 설득된 거지요.”

전도사: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크리스천: “점잖은 신사로 보였고 능변가였어요. 어떻게나 말을 구수하게 하는지 제가 그만 굴복하고 길을 바꾸어 이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언덕을 쳐다보니 커다란 바위가 길 위에 저렇게 뻗어 나온 것을 보고 저 길로 가다가는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이 생각되어 여기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전도사: “그 신사가 무슨 말을 들려줍니까?”

크리스천: “저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바른 대로 말했지요.”

전도사: “그래 그가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 “제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묻기에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고는, 제 등에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가족들과 이전처럼 재미있게 살 수는 없노라고 말했어요.”

전도사: “그러니까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 “짐을 어서 속히 벗어 버리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짐을 하루 속히 벗어 버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이요, 그 문까지 가면 거기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짐을 벗는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의 말이 자기가 보다 더 좋고 더 가깝고, 선생께서 지시한 문께로 가는 길처럼 위험하지 않은 길을 알려주겠노라고 했어요. 그가 언덕 넘어 있는 집으로 가면 기술자가 제 짐을

쉽게 벗겨줄 거라고 했어요. 어서 속히 짐을 벗어 버리고 싶은 생각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저쪽 길을 버리고 이쪽 길로 들어섰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 보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바위에 눌러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는 더 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좀 더 서 있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 하고 전도사가 말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부들부들 떨며 그냥 서 있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이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역주: 히브리서 12:25).”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을 다시 계속 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역주: 히브리서 10:38).”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난 그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고를 거부하고 평화로 향하는 길에서 물러나 불행으로 향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당신은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이 때 죽은 듯이 전도사의 발아래 엎드린 크리스천은 소리 질렀다. “전 이제 다 틀렸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하옵니다!” 이 모양을 본 전도사는 그의 오른 손을 붙잡으면서 말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건 또는 하나님을 훼방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말고 꼭 믿으면 되는 겁니다(역주: 마태복음 21:31, 요한복음 20:27).” 이 말에 정신을 좀 차린 크리스천은 겨우 일어서서 아까처럼 전도사 앞에 떨며 서 있었다.

전도사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오. 당신을 속인 자가 누구며, 그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드리지요.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속세 현자라는 자인데, 그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자가 맞들이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세상 교훈이나 신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자는 늘 도의읍(邑) 안의 예배당에만 참석하지요) 그리고 그자는 속세 교훈을 무엇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그가 속세 신조만 좋아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메지 않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쳐

드린 바른 길에서 당신이 벗어나도록 기를 쓰고 권고한 이유 역시 그자가 가진 세속적인 기분 때문입니다. 그자의 권고를 전적으로 거절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 당신이 옳은 길을 버리게 만든 것. 둘,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게 되도록 만든 것. 셋,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해 당신이 걸어가도록 만든 것.

첫째로 그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버리게 했고, 또 당신은 그자의 말대로 행동한 것을 혐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세 현자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역주: 누가복음 13:24).’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더러 가라고 한 문이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역주: 마태복음 7:13~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은 당신이 작은 문을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 판길로 가게 만들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놈이 당신더러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라고 권고한 것과 당신이 그놈의 말에 추종한 것을 혐오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놈이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싫어하게 만든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보화보다 십자가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당신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의 임금이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역주: 마태복음 10:39).’라고 당신에게 일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역주: 누가복음 14:26).’고 이르셨지요. 죽지 않고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작은 문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테니 그리 가지 말라고 당신에게 권고한 것을 혐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그자 말을 끝이듣고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길로 발길을 옮긴 당신 자신을 혐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놈이 당신더러 가서 만나 보라고 일러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은 당신이 진 짐을 벗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사는 말을 계속했다. “짐을 가볍게 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당신이 찾아가던 사나이 이름은 합법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여종의 아들로, 어머니와 자식들 전부가 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지만 신의 계시에 의해 그녀는 당신이 당신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겁을 집어 먹은 이 시내 산(山)이 됐습니다(역주: 갈라디아서 4:22~6). 자, 생각해 보세요. 그녀와 그녀의 자식들이 다 종인데, 종들이 무슨 수로 당신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합법이란 자가 당신의 짐을 벗겨줄 힘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합법의 힘으로 짐을 벗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율법으로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증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벗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세 현자란 자는 짐 벗겨 주는 일에는 문외한이요, 합법이라는 자는 사기꾼이고, 그의 아들인 예의는 겉으로는 선웃음 치는 자이지만 실속은 위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이 들은 그 바보들의 지껄임은 모두가 다 허망할 뿐 아니라 당신이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내가 지시해 준 길에서 당신이 돌아서도록 만든 음모가들입니다.” 말을 끝낸 전도사는 소리 높이 하늘에 호소하여 자기 말을 증명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가련한 크리스천 앞에 있는 산 위에서 돌연 말소리가 나오고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 모양을 보는 크리스천의 머리는 쭈뼛하고 몸에는 소름이 끼쳤다. 산이 말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역주: 갈라디아서 2:10).”

죽음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슬프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속세 현자와 만났던 것을 저주하고, 그자의 꾀임에 속은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천 번도 더 부르고, 단지 육체적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자의 이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버린 자기 행동에 대해 커다란 수치감을 느꼈다. 슬픔이 좀 가라앉자 그는 전도

사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크리스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도로 돌아가서 작은 문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허락될까요? 이번 실수 때문에 저는 아주 버림받고 수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요? 그자의 꼬임에 넘어간 것은 후회막급입니다. 제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 “당신은 두 가지 죄악을 한꺼번에 범했기 때문에 죄가 매우 큼니다. 바른 길을 버린 것이 죄요, 금지구역인 이 길로 걸어온 것 역시 죄악이니깐요. 그러나 그 문 문지기는 인간에게 호감을 가진 마음씨 좋은 분이므로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더 딴 길로 들어섰다가는 문지기가 성을 조금만 내도 당신은 중도에서 죽을 것이니깐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그럼 도로 가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크리스천에게 키스해 준 전도사는 미소까지 지으면서 어서 도로 가 보라고 말했다. 그는 급히 걸었다.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누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다. 빨리 걷기는 하면서도 금지구역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 아까 속세 현자의 꼬임에 현혹되어 길 방향을 돌렸었던 그 지점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었다. 하여튼 얼마 뒤 크리스천은 작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설주 위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라’(역주: 마태복음 7:7~8).’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자는 지체 없이 문을 두드릴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의심 말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서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까닭에.

서너 차례 계속 문을 두드리며 그는 말했다.

이리로 제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반역자였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실는지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저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겠나이다.

잠시 후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가 문께로 왔다. 「인자(仁慈)」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크리스천: “가련하고 짐 진 죄인이 왔습니다. 멸망할 도시, 조만간 신의 진노로 망할 그 도시를 떠나 구원 받으려고 시온 산을 향해 가는 몸이옵니다. 시온 산(山)에 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가에 왔사온데 제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들어오시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자는 말하며 문을 열었다.

크리스천이 문턱에 발을 들여놓자 인자가 그의 팔을 와락 잡아끌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왜 이러십니까?” 인자가 말했다. “여기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서 있지요.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악마인데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 문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문 안에 들어서기 전에 죽이려고 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떨립니다.”

크리스천이 문 안에 들어서자 “누구의 지시에 따라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지기가 물었다.

크리스천: “전도사라는 분이 이리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군요.”

인자: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닫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천: “그럼 저는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수확을 거두는 셈이군요.”

인자: “그런데 왜 혼자 오셨나요?”

크리스천: “저는 위험을 느꼈지만 이웃 사람들은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자: “당신이 오시는 걸 안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을 맨 처음 발견한 아내와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저는 손으로 귀를 막고 그냥 달려왔어요.”

인자: “그래 뒤따라와 집으로 도로 가자고 권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나요?”

크리스천: “있었지요. 고집쟁이와 유순 둘이서 절 따라와 권고했지만, 절 설복시키지 못할 것을 깨닫자 고집쟁이는 절 조롱하고 욕하면서 돌아갔고, 유순은 한동안 저와 동행했었지요.”

인자: “유순은 왜 예까지 오지 않았소?”

크리스천: “절망의 수렁이 있는 곳까지 같이 와서 둘이 다 갑자기 그 수렁에 빠졌지요. 거기서 용기를 잃은 유순은 모험을 더 하기 싫어했어요. 그의 집 근처로 기어나간 그는 저에게 영광의 나라는 혼자 다 차지하라고 하면서 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집쟁이 뒤를 따라가고 저는 혼자서 이 문까지 온 겁니다.”

인자: “불쌍한 인간이로군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잘 모르고 그것을 얻는 데 따르는 몇 가지 난관을 겪기 싫어 영광을 포기하고 말다니.”

크리스천: “유순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지만, 제 행위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도중에 속세 현자의 꼬임에 솔깃해 바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한참 갔었으니까요.”

인자: “오, 당신도 그자를 만났었군요. 합법이란 자를 찾아가 안일을 구해 보라고 그자가 꾀었지요. 그놈들은 둘 다 사기꾼입니다. 당신도 그자의 꼬임에 넘어 갔었던 말입니까?”

크리스천: “예, 그렇습니다. 그자 말에 혹해 딴 길로 접어들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 봤어요. 합법을 찾아간다고 가다가 그의 집 옆에 솟은 산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질 것만 같은 걸 보고는 할 수 없이 우뚝 서 버렸지요.”

인자: “그 산에서 술한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당신만은 몸이 산산조각 날 것을 모면해 참 다행입니다.”

크리스천: “풀이 죽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궁리하고 있을 때 다행히 전도사님을

다시 만났기 말이지, 만일 못 만났더라면 제 신세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그이가 제게로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였어요. 그이를 못 만났더라면 제가 이리로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 와 있어요. 그 산에 치어서 죽어야 마땅했을 제가 지금 여기 와 서서 선생님과 말씀을 주고받게 되다니. 죄를 범한 제가 이 문 안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이 어인 은혜입니까!”

인자: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탓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역주: 요한복음 6:37). 그러니 착한 크리스천이여, 나하고 함께 저쪽으로 조금 가 봅시다. 이제부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테니. 앞을 내다보세요. 저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로 꼭 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등의 선조와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使徒)들이 쌓아 올린 길인데, 목수가 먹줄 치듯 곧장 뚫은 길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다.”

크리스천: “처음 가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셋길이나 돌아가는 길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인자: “있지요. 갈림길이 많지만 모두가 구부러지고 넓습니다.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는데, 바른 길은 곧고 좁습니다.”

크리스천이 자기 등에 지워진 짐을 내리는 데 조력해 줄 수 없는가 하고 인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는 아직 짐을 벗지 못했고 남의 도움 없이는 짐을 벗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구원 받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그 짐을 그냥 지고 가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에 다다르면 짐은 저절로 벗겨질 겁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꼭 매며 길 떠날 준비를 했다. 인자가 말했다. “이 문에서 얼마쯤 가면 「설명자(說明者)」라는 분이 사는 집이 보일 겁니다. 그 집 문을 두드리시오. 그러면 그이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 줄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인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인자는 그에게 성공을 빈다고 말해 주었다.

설명자의 집 앞에 다다른 그는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한참만에야 어떤 사람이

문으로 와 누가 왔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이 댁 주인님과 잘 아시는 분이 저더러 이리로 오면 제게 유익한 일이 있다고 일러주어서 온 나그네입니다. 이 댁 주인님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간에 나왔던 사람이 주인을 부르러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주인이 나와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크리스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 산으로 가는 길손이올시다. 이 길 어귀에 서 있던 분이 저더러 이곳으로 오면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 주는 이가 계셔서 제 여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기에 이처럼 온 것입니다.”

“들어오시오. 당신에게 유익할 것들을 보여 드리지요.” 하고 말한 설명자는 하인더러 쫓발 한 자루를 켜라고 명령하고는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크리스천을 데리고 내실로 들어간 그는 하인더러 저쪽 문을 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그 문이 열리자 맞은편 벽에 초상화 한 폭이 걸려 있는 것을 봤다. 초상화 주인공은 아주 점잖은 얼굴인데, 두 눈 다 하늘을 향해 치켜뜨고 있고, 손에는 가장 좋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쓰여 있고, 몸집 뒤에는 세계가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서 있는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인간에게 무엇을 탄원하고 있는 표정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크리스천: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설명자: “이 초상화는 천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인물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어 해산할 때의 진통을 알고 있으며(역주: 갈라디아서 4:19), 그가 낳은 자녀들에게 친히 젖을 먹여(역주: 고린도전서 3:2) 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뜨고 있고, 손에는 가장 좋은 책을 들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하는 일이 인간의 암흑면(暗黒面)을 미리 알아가지고, 죄인들에게 그 진상을 설명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도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인간에게 무엇인지 탄원하는 것 같은 표정을 띠고 서 있고, 그의 배경에는 세계가 그려져 있으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에게 봉사하는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 현세의 것들은 모두 다 업신여기고 경멸한 공이 인정

되어 내세에 가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명자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이 초상화를 맨 먼저 보여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도중에 만날지도 모르는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만 하는데, 당신이 가시는 곳 주인님이 여기 이분 하나만을 인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저 얼굴을 마음 깊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시는 도중에, 죽을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사칭하고 나서는 자가 많을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설명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끌어 굉장히 넓은 대청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방이라서 먼지투성이였다. 방안 꼴을 잠시 살펴보고 난 설명자는 하인에게 청소하라고 일렀다. 방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이때 설명자는 그의 옆에 서 있는 한 소녀에게 말했다. “물 좀 갖다 뿌리요.”라고, 그녀가 물을 뿌린 뒤 다시 쓰니까 먼지는 안 나고 기분 좋게 청소가 다 되었다.

크리스천: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자: “이 대청은 복음의 성스런 은혜로 정화된 일이 없었던 한 인간의 가슴인데, 먼지는 원죄인 동시에 인간 전체를 더럽게 한 내부의 부패입니다. 첫 번째 쓸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뿌린 아가씨는 「**복음**」이지요. 당신도 보드시피 처음 율법이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 방 하나 가득 채웠기 때문에 방은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할 뻔했지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법률은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근절시킬 수 있는 힘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도리어 영혼 속의 죄를 소생시키고 기운을 돋워 주고 증가시킬 따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가씨가 물을 뿌리고 나서 방을 쓰니 기분 좋게 깨끗해졌지요. 이것은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전해지자 성스럽고 존귀한 복음이 영향을 주어, 예, 그렇지요. 당신도 보드시피 아가씨가 방바닥에 물을 뿌리기만 해도 먼지가 가라앉듯이 복음은 능히 죄를 극복하고 근절시키며,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믿음

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명자가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 방안에는 제각기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두 소년이 있었다. 나이가 위인 소년의 이름은 「정열(情熱)」이요, 나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忍耐)」였다. 정열은 술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인내는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때 크리스천은 정열이 불만을 품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설명자가 대답했다. “소년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텐데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열은 지금 당장 달라고 하고, 인내는 꼭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물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정열의 발아래 보물을 쏟아 놓는 것을 나는 봤다. 그걸 집어 들고 낭비하면서 즐기는 정열은 인내를 비웃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보고 있는 동안 정열은 그 보물을 몽땅 다 낭비해 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조각뿐이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설명자: “이 두 소년은 상징적인 인물들이지요. 정열은 이승의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내는 저승의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보신 것과 같이 정열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금년에 이승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몫을 지금 꼭 가져야 마음이 풀리지, 내년 즉 저승에서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 새가 숲 속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더 값있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는 저승에서 맛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보다 더 큰 권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보드시피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삼시간에 낭비해 버려 남은 것이란 누더기 조각 밖에 없는 정열의 예처럼 이 세상 생명이 다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누더기뿐입니다.”

크리스천: “여러 가지 이유로 인내가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 “첫째로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고, 둘째로 정열은 누더기 밖에 가질 것이 없게 되는 데 반해 인내는 자기 자신



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요.”

설명자: “아니,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세상의 영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지만 현재의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먼저 가진다고 해서 정열이 인내를 흥분 이유가 없고, 나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인내가 도리어 정열을 흥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나중에 가질 사람은 때가 이르면 처음에 가진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나중에 가지는 사람은 그 뒤에 와서 그를 밀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몫을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말이죠, 처음 몫을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소비해야 할 기간이 있지만, 나중에 몫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을 영원토록 보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살아 있는 동안 너는 좋은 몫을 받았는데 반해 나사로는 나쁜 몫을 받았었지. 그러나 지금 와서는 나사로가 편안한 생활을 하고 너는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역주: 누가복음 16:19~25).’라고.”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승의 안락을 탐내지 말고 저승에서 누릴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설명자: “당신 말이 옳습니다. ‘목전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역주: 고린도후서 4:18).’ 그렇긴 하지만 이승의 안락과 육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저승의 복락과 이승의 감각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자와는 금세 우정을 느낄 수 있는 반면 후자와의 관계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설명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끌고 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 방 한쪽 벽에서는 불길에 피어오르고 있는데, 옆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이 많은 물을 연방 끼얹어 불을 꺼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불길이 더욱더 세차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설명자가 대답했다. “이 불길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꺼 버리려고 물을 끼얹는 자는 마귀인데, 당신도 보드시피 마귀가 아

무리 애를 써도 불길은 더욱더 세차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여 드리지요.” 하고 말한 설명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돌아갔다. 벽 뒤에는 기름통을 든 사람 하나가 서서 몰래 그 기름을 불길을 향해 계속 끼얹고 있었다.

이때 크리스천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다.

설명자가 대답했다. “여기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 준 은총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는 은총의 기름을 계속 불에 끼얹는 것이지요. 마귀가 아무리 그 은총을 없애 버리려고 애쓰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하여 인간들의 영혼이 언제까지나 자비심을 품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보다시피, 이 불을 보전하기 위해 벽 뒤에 숨어 서서 기름을 끼얹고 있는 이분의 행동으로 보아 마귀의 꼬임에 빠진 영혼에 은총을 보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명자가 또 다시 크리스천을 데리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나는 봤다. 무척 아름답게 보이는 웅장한 궁전이 서 있는 곳이었다. 이 건물을 보는 크리스천은 대단히 기뻐하는 모양이었다. 그 궁전 지붕 위에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것도 그는 봤다.

이때 크리스천은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설명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그 궁전 문 앞까지 갔다. 문 밖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으나 감히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을 그는 봤다. 문 밖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책상 한 개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책 한 권과 빨로 만든 잉크 담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책상 바로 옆에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 명단을 책에 적는 사람이었다. 감옷 입은 무사들이 문간에 지켜 서 있는 것도 그는 봤다.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방해하고 해치려는 결의를 품고 있는 무사들이었다. 이 광경을 보는 크리스천은 어지간히 놀랐다. 무장하고 서 있는 무사들 모습에 겁을 집어먹은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참에,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한 표정을 띤 한 사나이가 이름을 적는 사람께로 가는 것을 크리스천은 봤다. 그 사나이가 명단을 만드는 사

람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 넣으시오.” 책에 이름이 적히자 그 사나이는 길고 큰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문꺼로 달려가 무장한 문지기들에게 도전했다. 문지기들이 죽을 기를 쓰고 이 사나이를 공격했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구 달려들어 맹렬히 칼로 찌르고 난도질을 하는 것이었다. 자기도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길을 막고 있던 무사들을 무찌른 그가 궁전 앞에 가까이 가자 안으로부터 또는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분 좋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시오, 들어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오.

이때 문 안으로 들어간 그에게 사람들이 금빛 옷을 입혀 주는 것이었다. 얼굴에 미소를 띤 크리스천이 “이 광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알 듯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 “저도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설명자는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보여 드릴 것이 있으니 마저 다 보고 당신 갈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캄캄한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 안에는 쇠창살을 단 감방이 있고, 그 감방 안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다. 팔짱을 끼고 앉아 땅만 굽어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한숨만 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몹시 슬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고 크리스천이 물었다. 설명자는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크리스천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이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 꼴이 됐소이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크리스천: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이전엔 내나 남이 다 인정해 주는 아주 훌륭한 신자였지요. 그래서 그때 나는 하늘나라로 갈 가망성이 많다고 자부하면서 그리로 갈 생각만 해도 기뻐했지요.”

크리스천: “그럼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사람: “절망의 인간이 돼 버린 지금의 나는 이처럼 쇠창살로 둘러 감방 안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나갈 도리가 도무지 없습니다. 아! 나갈 도리가 없어요!”

크리스천: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소?”

그 사람: “항상 깨어 있지도 못하고 주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욕이 내 목을 움아맸고, 세상의 광명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내가 성령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 마귀에게 혹하자 마귀가 내게로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갔고,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하고 설명자에게 물어봤다.

“저 사람에게 직접 물어 보시지요.” 하고 설명자가 말했다.

“아니요, 차마 저는 더 묻지 못하겠어요. 당신이 물어봐 주세요, 제발.” 하고 크리스천이 말했다.

설명자: “절망의 감방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가망은 없습니까?”

그 사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설명자: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비심이 많으신데.”

그 사람: “내가 그분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요. 그분을 내가 멸시했고, 그이의 정의도 경멸했으며, 그이의 피를 모독했고, ‘은혜의 성령을 소홀히 했습니다(역주: 히브리서 10:28~9).’ 그러므로 나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나 자신을 스스로 끊어 버린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먹이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은 위협, 두려운 위협,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가혹한 분노의 무서운 위협만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설명자: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이런 꼴이 됐소?”

그 사람: “이 세상의 정욕과 오락과 이로운 것에 매혹되어 그것들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자: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제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제게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나를 이 감방 안에 가둔 분이 며, 세상 아무도 날 석방시켜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아! 영겁의 화! 영겁의 화!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이 영겁의 노괴(老怪)와 내가 어떻게 맞붙어 싸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불신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경고로 삼으시오.” 하고 설명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크리스천: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요! 저로 하여금 항상 깨 어 있고 주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빠 진 꼬임에서 피할 수 있기를 빕니다! 선생님, 제 갈 길을 갈 시간이 지금 되지 않았 습니까?”

설명자: “한 가지 광경만 더 보여 드릴 테니 잠깐만 더 기다리시오. 보고 나서 길 떠 나도 늦지 않으니깐요.”

그래 그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느 한 방으로 인도했다. 그 방 안에는 방 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으며 우들우들 떠는 것 이었다. 이것을 보는 크리스천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떨고 있습니까?” 하고 물 었다. 그러자 설명자는 떠는 사람더러 떠는 이유를 크리스천에게 설명하라고 말 했다. 그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칠흑처럼 새까매지면서 무서울 정도로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 소리가 소란하게 들려오르 로 나는 겁이 버럭 났습니다. 꿈속이지만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은 비상한 속 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가 요란히 나며 수천 명 이상의 무리들에 게 시중을 받는 사람 하나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 모두 다 화염 속에 들어 있고 하늘 자체가 온통 불꽃이더군요. 이때 ‘죽은 자들 아, 일어나 심판 받으러 오라.’ 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바 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려 파묻혔던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들 중 더러는 몹시 기뻐하며 위를 바라보는데, 더러는 산 아래로 숨어 버리려고 애를

쓰더군요. 이때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책을 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더러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무서운 불길의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들 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는데, 그 간격 넓이는 법정의 재판관과 형사 피고 간의 간격과 비슷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시종드는 수천 무리에게 ‘알곡과 쭉정리와 검불은 다 거두어 불붙는 곳에 던져라(역주: 마태복음 3:12, 누가복음 3:17, 요한계시록 20:15).’ 하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서 있는 바로 곁에 밑 없는 지옥이 열리면서 그 아가리에서 굉장한 역세고 많은 화염과 연기가 몸서리쳐지는 소리를 내면서 넘쳐 나왔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다시 시종들에게 ‘내 곡식을 모아 창고로 갖다 쌓아라.’ 하고 말했습니다(역주: 누가복음 3:17).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인도되어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나는 제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숨어 버리려고 해 봤지만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의 눈이 줄곧 내 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었고, 내 죄지는 생각이 새삼스레 떠올라 내 양심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잠이 깼어요.”

크리스천: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웠소?”

그 사람: “왜라니요. 최후심판 날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심판 받을 준비가 채 못 돼 있는 것이 무서웠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 하늘로 끌어올렸는데, 나만은 그 축에 못 들고 그냥 남아 있게 된 것과, 바로 내 옆에 지옥 아가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내 양심은 양심대로 나를 괴롭히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재판관은 격분한 표정을 하고 계속 나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겁이 난 것이지요.”

이때 설명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당신, 신중히 반성해 보셨소?” 하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크리스천: “예. 그런데 이것들이 저에게 희망과 공포를 일으켜 주었어요.”

설명자: “잘됐소. 이 모든 것이 당신 곁을 잠시도 떠나가지 않는 자극제가 되고,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데 박차를 가하는 힘이 되길 바라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졸라매 길 떠날 준비를 했다. 이때 설명자가 “착한 크

리스천이여, 위안자(慰安者)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여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역주: 욥기 16:2). 다시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희귀하고도 유익한 여러 가지 일을 나는 여기서 봤다.  
기분 좋은 일들과 두려운 일들을 봤는데,  
그것들은 내가 붙잡은 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었다.  
내가 본 일들을 지금부터 항상 염두에 둘 것이며,  
내게 그것들을 보여 주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 착하신 설명자, 당신에게 감사드리나이다.

크리스천이 올라가고 있는 길 좌우 쪽에 담이 쌓여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 담의 이름은 「구원(救援)」이다.

짐을 진 크리스천이 이 길을 달려 올라가고 있는데, 등에 걸머진 무거운 짐 때문에 뛰어가기 매우 힘든 것 같이 보였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향해 그는 뛰어 올라갔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는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 십자가 앞에 다다르자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지고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 짐은 내리 구르기 시작하더니 계속 굴러 무덤 입구까지 가서 그 속으로 굴러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됐다.

몸이 가벼워져 기쁨을 느끼는 크리스천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하여 내게 평강을 주셨고, 주께서 죽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무거운 짐이 저절로 벗겨져 몸이 가벼워진 데 무척 놀란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신기한 듯이 두리번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샘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두 뺨을 적시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 자리에 선 채 울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광채를 발산하는 세 사람이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중의 한 사람

이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소.” 하고 말해 주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역주: 스가랴 3:3~5),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붙여 주고는 도장이 찍힌 족자 한 개를 주면서 길 가면서 읽고 하늘나라 대문에 이르러 제시하라고 말했다(역주: 에베소서 1:13).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다 가 버렸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례자로군요. 어찌면!

낡은 것은 다 물러가고 새 것이 왔는데 이게 모두 진정입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이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걸 내가 보증합니다.

순수한 털이 순수한 새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너무 기뻐서 세 번 꺾충 뼉 크리스천은 노래 부르며 길을 걸었다.

지금까지 나는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여기까지 오도록 내 고통을 가볍게 하지 못했었거늘,

이곳은 과연 얼마나 좋은 곳이나!

내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곳에 와서야 내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다니?

이곳에 와서야 내 몸을 묶었던 사슬이 끊어지다니?

복된 십자가! 복된 무덤!

날 위해 육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을 돌리지 않을 소냐!

그다음 흥겨워하며 가던 크리스천이 언덕 밑에 다다라 길옆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는 것을 나는 꿈에서 봤다.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약자(弱者)」·「게으름뱅이」·「오만(傲慢)」이었다.

족쇄를 차고 누워 자고 있는 그들을 깨워 보려고 가까이 간 크리스천은 소리를 크



게 질렸다. “여보시오, 밑 없는 죽음의 바다 바로 가장자리에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배 뒤편 꼭대기에서 자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요, 얼른 깨서 이쪽으로 오시오.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족쇄를 풀어 드리리다. 그리고 만일 ‘으르렁거리는 사자(역주: 베드로전서 5:8)’가 오면 그 날 당신들은 그놈의 먹이가 될 것이 분명하오.”

크리스천의 말을 들은 그들은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대답하기 시작했다. 약자가 “난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소.” 하고 말하자, 게으름뱅이가 “잠 좀 더 자야지요.” 하고 말하고, 오만은 “통은 무슨 통이나 제각기 제 밑을 세우고 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남의 일 참견 말고 제 앞이나 잘 살피시오.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을 바랄 수 있소?” 하고 말했다. 말을 마친 그들은 도로 누워 다시 잠들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저 갈 길을 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치가 못했다. 위험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잠을 깨우고 충고하고 발에 묶인 쇠고랑을 풀어 주겠다고까지 친절하게 대해 준 데 대해 그들이 그토록 무례한 행동을 취한 것이 꽤 씁쓸하게 생각되었다. 그런 불쾌한 생각을 새기면서 걸어가던 그는 좁은 길 왼쪽 담을 뛰어넘어 오는 두 사람을 봤다. 그들은 금세 크리스천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이름은 「허례(虛禮)」와 「위선(僞善)」이었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크리스천 곁으로 다가선 그들과 얘기가 시작됐다.

크리스천: “여보시오, 두 분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허례와 위선: “우리는 「허영(虛榮)」이라는 동네에서 출생했는데, 영예를 구하려고 시온 산을 향해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 “이 길 어귀에 문이 서 있는데 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거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와 담을 넘어오는 자는 도둑이나 강도 같은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역주: 요한복음 10:1)”

허례와 위선은 함께 말하기를 자기네 뿐 아니라 그들 고장 사람들은 문까지 가서 들어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 지름길로 와서 담을 넘어오는 일이 보통 있는 일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하늘나라 주인이신 하

나눔이 밝히신 뜻을 무시하고 불법 침입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을까요?”

허례와 위선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지름길로 와 담을 넘는 일은 일반 풍속 습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이어서 습관화된 증거를 만약 대라고 하면 벌써 천여 년 전부터 풍습화된 증거를 제시하겠노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그러나 당신네 그런 행동이 법정에서 용인될까요?”

허례와 위선: “천여 년 동안 버젓이 용인되어 온 풍습이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관이 라면 누구나 이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단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어떤 경로를 밟아 들어섰건 상관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선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당신은 문을 통해 들어온 것 같이 보이고 우리는 담을 넘어 들어왔지만, 당신이나 우리가 일단 들어선 이상 당신의 행동이 우리 행동보다 나은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나는 주님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반해 당신들은 당신 멋대로 기분에 따라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이 길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도둑놈이라고 이미 규정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 당신들이 진정한 인간으로 인정될까가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지시 없이 함부로 이 길에 들어선 당신들인 만큼 목적지에 다다를 때 무자비하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은 아무 대답 없이 크리스천에게 저 볼 장이나 보고 남의 일에 참견 말라고만 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말없이 각기 저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봤다. 조금 뒤 두 사람이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고지식하게 따르고 있는 이상 그 점에는 당신과 다른 점이 별로 없고, 단지 당신이 걸치고 있는 그 코트만이 우리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필시 당신이 벗은 몸으로 다니는 부끄러움을 가려 주기 위해 당신의 이웃 사람들이 그런 옷 한 벌을 준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크리스천: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은 율법과 규례에 의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역주: 갈라디아서 2:16). 그리고 내가 등에 걸친 이 코트로 말하면 당신들

말대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하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더기 옷밖에 본 일이 없었던 나에게 이런 좋은 옷을 주신 것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친절의 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 앞에 다다를 때 그분이 주신 코트—내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기시던 그날 그분이 거저 주신 이 코트를 입고 있는 나를 보실 때, 나를 잘 알아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내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주의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나, 내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 있습니다. 내 짐이 흘러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친근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내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신 표지. 그 밖에도 또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분이 도장 찍힌 족자 한 폭을 주셨는데, 길가면서 그것을 읽는 것은 내게 위안을 줄 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 앞에 다다를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려 주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을 받지 못했으니 증거물 없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이 말에 아무 대답도 않고 두 사람은 마주 바라보면서 옷을 따름이었다. 광채를 발산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준 족자를 자주 읽어 기운을 돋우면서 가끔 한숨도 쉬고, 가끔 위안 받는 크리스천이 앞서고, 두 사람이 뒤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다.

그다음 그들이 곤고(困苦) 산 아래까지 도착한 것을 나는 봤다. 산 밑에는 샘이 있고, 문으로부터 곧장 뻗은 길 외에 산 밑에 두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산기슭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뻗어 있었다. 산꼭대기까지 곧장 뚫린 좁은 길 이름은 곤고로(困苦路)였다. 샘으로 가서 물을 마셔 기운을 돋운 크리스천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좁은 길을 잡아 올라가면서 말했다.

곤고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내 어이 못 올라갈쏘냐.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내 감정을 상하지는 못하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깨달았도다.

자, 용기를 돋우어 약한 마음과 두려움 다 물리치고,  
가기는 쉬우나 양화(殃禍)로 인도하는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가기는 곤란하나 행복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가자.

얼마 뒤 두 사람도 산 밑에 도착했다. 그러나 꼭대기로 뻗은 길은 너무 가파르고 높은 데 비해 좌우 쪽 길은 평탄한데, 그리로 돌아가더라도 산을 넘어서서는 크리스천과 다시 만날 것 같이 생각되어 그들은 좌우 쪽 길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 두 길 이름은 「위험」과 「파멸」이었다. 한 사람은 위험이라고 불리는 길로 들어섰다가 얼마 못 가서 무성한 산림으로 들어갔고, 파멸이라는 길로 곧장 가던 사람은 어두운 산맥이 중첩되어 있는 벌판을 비틀거리며 고꾸라지며 헤매다가 종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일을 시작한 자들이 올바른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자들이 친구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렇게 못 한다. 자기 고집대로 일 시작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고꾸라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산 위로 올라가는 크리스천에게로 나는 눈을 돌렸다. 뛰어 올라가던 그는 길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더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얼마 못 가서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중간 턱쯤 올라가 보니 보기 좋은 정자 하나가 서 있었다. 피곤해진 여행자들이 좀 쉬라고 산 주인이 지어 놓은 정자였다. 그래서 그리로 간 크리스천은 쉬려고 긴 의자에 앉았다.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가슴 안 주머니에서 족자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십자가 옆에 그가 섰을 때 갈아 입은 코트를 다시금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이 모양으로 즐기고 있던 그는 졸다가 종내 깊은 잠에 빠졌다. 거기서 잠들었기 때문에 저녁때가 다 되기까지 그의 여행은 지연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손에 들었던 족자를 떨어뜨렸다. 그가 잠자고 있는 참에 누군가 나타나서 잠을 깨우면서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 일하는 모습을 보아 지혜를 얻으라(역주: 잠언 6:6).’ 이 소리에 잠이 깬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 산꼭대기까지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꼭대기에 다다르자 황급히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회의(懷疑)」였다.

“아니, 웬일이십니까? 반대방향으로 뛰어들 오시니.” 하고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시온 성(成)으로 가려고 험난한 산길을 올라왔는데 저편 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길이라고 겁쟁이가 대답했다.

“그렇고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을 막고 누워 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까이 가면 그만 우리 몸을 그것들이 갈가리 찢어 버릴 것만 같아서 혼비백산한걸요.” 하고 회의가 말했다.

크리스천: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나도 무척 무섭습니다. 허나 안전을 찾으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예정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늘나라로 가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 확실하니 모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야지요. 집으로 돌아가면 죽음 밖에 남는 것이 없으나, 앞으로 가면 죽음에 대한 공포만 있을 따름이요, 공포를 극복하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앞으로 가려하오.”

이렇게 되어 회의와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고 크리스천은 저 갈 길을 그냥 갔다. 그러나 두 사람한테서 들은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되자, 족자를 읽으면 무서움이 가라앉으리라고 믿은 그는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족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안절부절못하는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 읽기만 하면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인 족자를 잃어버렸으니 몹시 당황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마침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들었던 일이 생각났다.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빌고 난 그는 족자를 찾으려고 정자로 다시 갔다. 족자

를 찾으러 돌아가는 크리스천이 도중에서 느끼는 구슬픔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울고,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쉬어 가라고 세워 놓은 정자에서 잠까지 잔 자기 망동(妄動)을 거듭 꾸짖는 것이었다. 여행 중 빈번히 그에게 위안을 주었던 족자가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에 길을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 좌우 쪽을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걸었다. 아까 쉬다가 잠들었던 정자가 눈에 띄자 거기서 잠까지 자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한 생각이 다시금 마음에 스며들어 그의 슬픔은 한층 더 커졌다. 그래서 그는 대낮에 잠을 자다니, “아 나는 비열한 인간이로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죄스런 낮잠을 후회하는 것이었다(역주: 데살로니가전서 5:6~8). 그는 이어서 “고행하는 도중에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巡禮者)들에게 정신적 휴양처를 주기 위해 주님이 지어 놓은 산허리 휴식처에서 나만이 육체적 평안을 탐내 잠을 자다니! 얼마나 먼 헛길을 나는 걸었는가!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범죄 때문에 홍해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역주: 출애굽기 14:1~31) 죄스런 낮잠만 안 잤더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갔을 길을 잠을 잔 죄로 이처럼 슬프게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앞으로 걸어갔던들 지금쯤 얼마나 멀리 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가면 될 길을 세 번 거듭 걸어야만 하게 됐으니, 그런데 날은 다 저물어 밤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울부짖으며 죄스러운 낮잠을 후회했다.

정자에 다다른 그는 잠시 앉아 울고 있었다. 슬퍼하며 마침 긴 의자 아래를 굽어보니 거기 족자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재빨리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들어 가슴 안주머니에 간직했다. 족자를 다시 찾은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족자는 그의 생명을 보장하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들어가고 싶은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이 족자를 간수한 그는 그것이 놓여 있는 자리로 그의 눈을 인도해 준 하나님에게 감사드린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다시 떠났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그가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을까! 그러나 꼭대기에 채 미치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 쓸데없는 낮잠 때문에 늦어졌다는 자책감을 새롭게 그의 마음

에 일으켜 주어 또 다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죄스러운 잠아, 너 때문에 내가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죄스런 잠 때문에 나는 햇빛 안 비치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둠이 내 갈 길을 가리고, 무시무시한 짐승들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야 하게 되었구나.” 이때 회의와 겁쟁이가 사자들 모습에 놀라 더는 못 가고 되돌아온다고 말하던 것이 다시금 기억에 떠올랐다. “그런 짐승들이란 밤이 되면 으레 먹이를 찾으러 나서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그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이나? 그놈들에게 내 몸이 갈가리 찢기지 않도록 피할 도리가 어디 있단 말이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거듭 혼잣말을 하면서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을 비탄하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아주 웅장한 궁전 한 채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길 한편 가에 붙어 서 있는 이 궁전 이름은 「아름다움」이었다.

그 궁전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크리스천이 그리 향하여 빨리 걸어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얼마 안 가서 그는 매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약 오백 미터 저쪽에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집이 있었다. 앞을 유심히 살펴보며 가다가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는 것을 그는 봤다. 회의와 겁쟁이가 놀라 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그는 사슬을 보지 못했다) 자기 앞에 죽음만이 가로놓였다고 생각한 그는 겁이 나서 겁쟁이와 회의처럼 자기도 되돌아갈까 하고 생각했다. 멈춰 선 크리스천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본 문지기, 「신중(慎重)」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소리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시오. 사자들을 거기 매어 둔 목적은 신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조금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가 산 위에 다다랐지만 사자들이 으르렁대니

뒤에는 곤고가 있고 앞에는 두려움이 있도다.

한 가지 무서움이 가면 또 다른 한 가지 두려움,

기독교도의 생활에는 안일이란 절대 없도다.

문지기가 가르쳐 준 대로 길 한가운데로 가기는 하면서도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울음소리에 질린 그가 몸을 떠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나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는 않았다. 그는 손을 깎지 끼고 문지기가 있는 집 문 앞까지 갔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가 하룻밤 여기서 묵어갈 수는 없을까요?” 하고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말했다. “이 집은 이 산 주인님이 지으신 것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하고 문지기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크리스천더러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길이나고 문지기가 물었다.

크리스천: “멸망의 도시에서 도망쳐 나와 시온 산을 향해 가는 길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져으므로 이 댁에서 오늘 밤 묵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지가: “이름이 뭐지요?”

크리스천: “지금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름은 「무은(無恩)」이었어요. 출생하기는 야벳 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썸의 천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데 응하는 자입니다(역주: 창세기 9:20~7).”

문지가: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소? 해가 질 때까지.”

크리스천: “좀 더 일찍 올 법도 했습니다만, 나아말로 비열한 인간입니다! 산허리에 있는 정자에서 자다가 늦어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잠 좀 잤더라도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을 것을 자는 동안에 증서를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그냥 산꼭대기까지 와서야 가슴에 손을 넣어 보니 증서가 온데간데없거든요. 그래 슬픈 마음을 품고 잠자던 데로 도로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문지가: “그래요, 그럼 이 댁 처녀를 불러 소개해 드리지요. 그녀가 당신 얘기에 반하는 경우, 이 댁 법규에 따라, 가족 전부와 만나도록 주선해 줄 겁니다.”

신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가 종을 한 번 치자 「근신(謹愼)」이라는 암전하고 어여쁜 처녀가 문 밖으로 나와 왜 불렀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 산을 향해 가는 행객이 왔는데, 몸



도 피곤하고 해도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서 묵을 수 없느냐고 묻는군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 얘기시켜 보겠다고 말했지요. 당신이 이 사람 얘기를 좋아하게 되면, 이 댁 법규에 따라, 당신 좋을 대로 처사할 것이라고 일러줬지요.”

그러자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간 곡절을 다 얘기해주었다. 오는 도중에 무엇을 봤고, 누구누구를 만났느냐고 그녀가 또 물었다. 그는 다 얘기해 들려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물었다. 자기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알려 주고 난 그는, 보아하니 이 집은 순례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은 것 같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바라노라고 말했다. 이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 그녀가 “우리 집 식구 두세 사람을 불러올게요.” 하고 말하고 문턱로 달려가 「지각(知覺)」·「경건(敬虔)」·「애정(愛情)」 등 세 처녀를 불러왔다. 세 처녀들과 더불어 잠시 더 얘기하고 나자 그녀들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문턱에 이르자 술한 처녀들이 몰려와서 일제히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다. 그녀들은 이어서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대접하려고 이 산 주인이 지은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는 그녀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이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특별한 얘기를 나누자고 제의했다. 크리스천은 동의했다. 그러자 그들은 경건과 지각과 애정을 지명하여 크리스천과 더불어 얘기하게 하여 얘기는 시작됐다.

경건: “그럼, 착한 크리스천 선생님, 오늘 밤 저희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 들이는 친절을 보여 드린 만큼 저희의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선생님이 여행 중 겪으신 모든 일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즐거운 기분으로 얘기하지요. 당신의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 것 참 반갑군요.”

경건: “순례자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처음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천: “내가 사는 고장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무서운 목소리가 내 귀에서 영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거지요.”

경간: “그러시다면 왜 하필 이 길을 택하셨나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거지요. 파멸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들오들 떨며 울며 해매는 참에 우연히 전도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작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분 아니었더라면 작은 문을 찾을 도리가 없었지요. 그 작은 문 안으로 들어와 걸어오니 자연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경간: “아니, 그러시다면 설명자의 댁엔 들리지 않고 곧장 오셨나요?”

크리스천: “그분 댁에 들렸지요. 그 댁에서 본 숭한 광경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광경이 가장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유지되는 광경, 그다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그다음 최후심판 날을 꿈에 본 사람.”

경간: “그럼, 그 꿈꾼 사람의 꿈 얘기를 들으셨나요?”

크리스천: “암, 듣고말고. 정말 무서운 꿈 얘기였죠. 그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 가슴은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그 얘길 들은 것이 잘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간: “설명자 댁에서 보신 것은 그것뿐이었습니까?”

크리스천: “그 밖에도 또 있지요. 황금 옷 입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설명자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장한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한 한 사나이가 마구 무찌르고 들어가자 집안사람들이 모두 그를 환영하여 그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광경도 봤지요. 그런 광경들이 가슴을 황홀하게 해 주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그 착하신 분 댁에 일 년 열두 달이라도 그냥 눌러 있고 싶었지만, 나로서는 역시 내가 갈 길을 더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요.”

경간: “그럼 오시는 도중에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보셨나요?”

크리스천: “보았다고! 굉장한 걸 봤지요. 그 댁을 떠나 얼마 안 와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들자 내 등으로부터 짐이 저절로 스르르 풀려 내렸어요. (그 순간까지 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고생했답니다) 생전 못 봤던 광경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차마 보기 죄송스러운 걸 꼭 참고 그냥 쳐다 보고 있노라니 몸에서 광채를 발산하는 사람 셋이 내게로 가까이 와서 한 사람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증언해 주고, 다음 사람은 그때까지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당신도 보다시피 이 수놓은 코트를 입혀 주었으며, 마지막 사람은, 당신도 지금 보고 있는 이 표지를 내 이마에 찍어 주고 다시 도장 찍힌 족자 한 개를 줬어요(이 말과 함께 그는 가슴으로부터 족자를 꺼내 보여 주는 것이었다).”

경간: “그 밖에도 더 보신 것이 있겠지요. 그렇잖습니까?”

크리스천: “물론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얘기한 거지요. 그 밖에 본 것들을 말한다면, 예를 들자면—내가 걸어오는 길에서 조금 비킨 곳에 약자·게으름뱅이·오만 등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봤지요. 내가 그 사람들의 잠을 깨울 수 있었다고 봅니까? 그다음, 말로는 시온 산으로 가노라고 하면서도 담을 넘어오는 허례와 위선도 봤는데, 담을 넘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내가 말해 주어도 믿지 않더니, 웰겔, 중도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일은 이 산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자들의 입을 피해 오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 못지않게 어려웠지요. 사실대로 말하지, 착한 문지기가 날 응원해 주지 않았던들 지금쯤 나는 되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동시에 당신네가 날 받아들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때 지각이 말참견을 하면서 자기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으니 묻는 대로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지각: “떠나오신 고향 생각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나가는 하지만 생각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싫어합니다. 떠나온 고향 생각이 정말 간절하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요. 그러나 난 고향보다도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싶거든요. 즉 하늘나라(역주: 히브리서

2:15~6).”

지각: “그 밖에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느끼는 때는 없습니까?”

크리스천: “없을 리가 있나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에 거슬리는 미련입니다. 그중에도 특히 나 자신뿐 아니라 고향 사람 전체가 희열을 느끼던 육체적 향락에 대한 미련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커다란 고통입니다. 과거의 모든 육체적인 향락을 지금에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내 마음먹은 대로 해보고 싶지만, 그럴 때에도 대개의 경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되니 참 괴로운 일입니다(역주: 로마서 7:15~20).”

지각: “그런 괴로움이 이전에는 선생님에게 혼란을 갖다 주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걸 모두 극복해 버렸다는 사실을 가끔이나마 발견하시는 때가 없습니까?”

크리스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지만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때만이 내게는 황금과 같이 귀한 시간이지요.”

지각: “어떤 때 혹은 무슨 방법으로 가끔이나마 괴로움을 극복하시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천: “예.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느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괴로움이 극복되었다 생각되고, 이 수놓은 코트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가슴에 품고 다니는 죽자를 들여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지요. 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각: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꼭 시온 산으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크리스천: “그곳에 가지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신 것을 뵈게 될 테니 꼭 가고 싶고요.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을 떨쳐 버릴 수 있겠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니 죽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지요. 더구나 그곳에 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분과 한곳에 살게 될 것이니 왜 가고 싶지 않겠소. 바른 대로 말이지 내 짐을 벗겨 준 그분을 나는 사모하고 있고, 또 나 자신은 마음속 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피로합니다. 죽음이 없는 곳, 쉴 새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서로 부르는 모든 신도들과 함께

살게 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는 무상의 기쁨입니다.”

이때 애정이 끼어들어, “선생님, 가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혼하셨나요?” 하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크리스천: “예, 아내와 어린 자식 넷이 있소.”

애정: “그럼 왜 그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크리스천은 울면서 말했다. “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만 그들은 모두 다 순례 길에 나서는 것을 절대 반대하니 할 수 없이 혼자 떠나왔지요.”

애정: “그렇지만 뒤에 남아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깨닫도록 열심히 권고해 설득시켰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 “그렇게 했지요,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까지 했건만 그들의 눈에는 내가 ‘농담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날 믿지 않은 거예요(역주: 창세기 19:14).”

애정: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권고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드려 보셨나요?”

크리스천: “그렇지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내가 극진히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애정: “하지만 멸망에 대한 선생님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던가요? 제가 보니 선생님은 멸망이 올 것을 분명히 아신 것 같은데.”

크리스천: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재차 말해 줬는데도 결국 소용없게 됐지요. 말뿐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눈물까지 흘리는 표정을 봐서라든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걸려 있는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부들부들 떠는 모양을 봐서라도, 내 가족이 내 심정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동행해 올 결심을 안 한 걸 보면 역시 설득력이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애정: “그럼, 그들이 안 따라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던가요?”

크리스천: “아내는 속세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릴까 봐 겁을 집어 먹었고, 자식들은 젊은 시절 어리석은 쾌락에만 정신이 팔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나 혼자만이

이렇게 방랑의 길을 떠나는 걸 내버려 둔 것이지요.”

애장: “글쎄요. 하지만 선생님 자신의 허영에 뜬 생활이 설득력을 좌절시킨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천: “그게 사실일 겁니다. 나 자신의 생활에 결함이 많은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변론도 하고 권유도 하지만, 권유하는 사람 자신의 능변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어떤 꼴사나운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 행각을 떠나기를 싫어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 나는 세심한 주의를 경주(傾注)했다는 것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의 이런 용의주도한 사려에 대해 남들은 내가 너무 빈틈없는 자라고 비난하더군요. 그리고 남들은 악이 아니라고 보는 일일까지,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나만은 악이라고 우기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더군요. 내 언행이 혹시 남들의 결심을 방해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나,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 과히 근심 걱정 해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혹 볼 수 있겠지요.”

애장: “옳은 말씀입니다. 카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이유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 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데’ 있었지요(역주: 창세기 4:1~8, 요한 일서 3:12).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만일 선생님의 의로우신 행위에 화를 냈다고 보면 그들은 착한 사람 되기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족의 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킨 분」이십니다(역주: 에스겔 3:19).”

저녁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그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저녁 준비가 다 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살찐 고기와 맛 잘든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식사 중 화제는 주로 이 산 주인에 관한 얘기였다. 그가 쌓아 놓은 여러 가지 공적,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지었는지 등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그는 본시 위대한 무사여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그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그분 자신도 큰 위험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됐다(역주: 히브리서 2:14).

처녀들의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입을 열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죽이면서 그이도 피를 많이 흘리기는 했으나 그의 피 흘리심은 오로지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나 다 은총에 영광을 부여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사는 몇 사람이, 그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도 그를 만나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의 말씀이 자기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극진히 사랑하노라 하더라고 간증했다.

그들의 증언을 확인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그들은 말했다. 즉 가난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영광을 스스로 벗어 버렸다고 그가 말씀하셨고, 시온 산에서도 자기 혼자만이 살기는 원치 않는다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 그들이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본시 거지로 태어나고 거름 무더기 위에 살던 술한 순례자들을 왕자와 같은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려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직접 들었노라고 그들은 증언하는 것이었다(역주: 사무엘상 2:7~8).

이렇게 밤늦도록 얘기하던 그들은 주님께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후 각각 잠자리로 들어갔다. 그들은 해 뜨는 편으로 창문이 난 이층의 큰 방으로 순례자를 모셨다. 이 침실 명칭은 「평화당(平和堂)」인데, 크리스천은 이튿날 동틀 무렵까지 숙면했다. 아침에 깨자마자 그는 노래를 불렀다.

지금 내가 유하는 곳이 어디인고?

예수께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집인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갖추어 놓은 집!

벌써부터 하늘나라 바로 이웃집에 유숙하게 되다니!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한자리에 모인 온 집안 식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하던 참에, 이 집에 비치되어 있는 희귀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나서 길을 떠나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처음 서재로 그를 데리고 가서 멀고 먼 옛날 일들을 기록한 책을 보여 주었다. 맨 먼저 그에게 보여 준 것은 무궁한 옛날의 아들이요, 영원한 세대

의 후예인 이 산 주인의 족보인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 책에는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불러 사역(使役)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무궁히 흐르는 세월이나 자연의 풍우한서(風雨寒暑)의 위력으로 도 분쇄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견고한 집에 그 사역자들을 거주시킨 기록도 적혀 있었다.

그다음 이 집 주인이 고용한 사역자들이 쌓은 공적을 기록한 책을 크리스천에게 읽어 들려주었다. 예를 들면 그 사역자들은 어떻게 왕국들을 정복했고, 어떻게 의를 행하였으며, 어떻게 언약들을 획득했고, 어떻게 사자들의 아가리를 막았고,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을 꺼 버렸으며, 칼날을 어떻게 피했고, 약했던 자들이 어떻게 강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어떻게 적군을 패주시켰는지에 대한 등등의 기록이었다.

그다음 다른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간 그들은 다른 기록들을 읽어 들려주었는데, 그 기록에는 세상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이 집주인과 그의 행위에 심한 모욕을 가한 자들까지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의 은혜 베푸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인의 관대한 마음씨가 적혀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크리스천에게 그걸 일일이 다 보여 주는 것이었다. 옛날 것이나 현대 것이나 막론하고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는 예언(豫言)들과 선견(先見)들을 수록했는데, 원수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요, 순례자들이 읽으면 위안과 위로를 받을 기록이었다.

그 이튿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병기고(兵器庫)로 갔다.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 주인이 갈무리해 둔 여러 가지 무기들—칼 · 방패 · 투구 · 가슴 받침 · 갑옷, 모든 기도문, 그리고 영원토록 닳지 않는 구두 등을 다 구경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무기는 주님을 위해 봉사할 무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더라도 넉넉히 무장시킬 만큼 많은 분량이었다.

그들은 다시 몇 가지 도구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였다. 이 도구들은 주님의 하인들이 여러 가지 신기하고 놀랄 만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역주: 출애굽기 4:1~5, 14:13~22), 시스라를 죽일 때 야엘이 사용한 망치



와 못,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기드온이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등불 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다시 육백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단숨에 때려죽일 때 삼갈이 사용한 발갈이 소를 모는 이 뾰족한 막대기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또 삼손이 위대하고도 눈부신 공을 세울 때 사용한 나귀 턱뼈도 보여 주었다. 그뿐 아니라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찌 죽일 때 다윗이 사용한 물매까지 보여 주고, 장차 주님께서 희생으로 불러일으키실 날에 죄인의 생명을 끊을 칼(역주: 예레미야 21:9, 요한계시록 19:11~21)도 보여 주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훌륭한 도구들을 구경하는 크리스천은 기쁘기 한이 없었다. 구경을 끝내자 그들은 제각기 잠자리로 갔다.

이튿날 아침 크리스천이 길을 다시 떠날 차비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만 더 묵어가라고 권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맥」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 산맥은 이 집에서보다도 목적지인 피난처에 더 가까운 곳인 만큼 그것을 바라보면 그의 위안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 더 묵어가기로 승낙했다. 아침이 기울 때 지붕 위로 그를 데리고 간 그들이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가 남쪽으로 눈을 돌리니 저 멀리 아주 보기 좋은 산맥이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삼림 · 포도밭,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서 있는 과수원들, 기화요초(琪花瑤草), 크고 작은 샘들—실로 아름답고도 기분 좋게 해 주는 절경이었다. 그 산맥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가 물었다. 그곳은 「임마누엘의 영지(領地)」라고 불리는 땅인데, 순례자들을 접대해 주는 데는 이 집과 꼭 같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저 산에 가서 바라보면 하늘나라 문이 보일 것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양치는 사람들도 눈에 띌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때 그는 길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도 즐겁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출발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병기로 한 번 더 가 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 그들은 창고로 갔다. 창고에 다다르자 그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꿰뚫을 수 없는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었다. 가는 도중에 혹시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중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사 복장으로 차린 그는 친구들과 함께 문계로 가 그동안 어떤 순례자들이 지나가지 않았는지 문지기에게 물어봤다. 문지기는 지나갔다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그이가 누군지 아셨습니까?”

문지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신의(信義)」라고 하더군요.”

크리스천: “아,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한 도시에 살았고 이웃에 살았으니 내가 난 고향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앞섰을까요?”

문지가: “지금쯤 아마 산 아래턱까지 내려갔겠지요.”

크리스천: “그래요. 착하신 문지기,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대단한 친절을 베풀어 주신 보상으로.”

그러자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신과 경건과 애정 등 세 처녀가 산 밑에까지 내려다준다고 우겼다. 동행하는 그들은 산 밑에 다다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크리스천이, “올라올 적엔 몹시 어렵더니 지금 보니 내려가기는 상당히 위태롭군요.” 하고 말했다. 지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검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을 내려다드리는 거지요.” 하고 세 처녀가 말했다. 그래 그가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야 말았다.

크리스천이 산 밑에 다다르자 세 사람의 착한 동행자가 그에게 식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과 포도 한 송이를 주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것들을 받은 크리스천은 혼자 여행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 검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난관에 봉착했다. 얼마 안 가서 어떤 추하게 생긴 괴물이 마주 오는 것을 그는 봤다. 이 괴물의 이름은 「아폴리온(Apollion)」이라는 마귀였다. 겁을 집어 먹은 크리스천은 돌아서서 피해 도망칠까, 그렇지 않으면 맞서 볼까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마음이 산란해졌다. 다시 생각해 보니 자기가 입은 갑옷이 등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면 마귀가 던지는 창에 제 등이 관통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맞서 대결해 보기로 결심했다. 지금 목숨을 건지고 싶은 생각 외에 딴 생각이 없는 만큼 맞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냥 마주 가다가 마귀와 마주 섰다. 이 요귀 모습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피부는 물고기 비늘 같은 데다(비늘 피부를 가진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용처럼 두 개의 날개가 등에 솟았고, 발은 곰의 발, 배에서는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크리스천에게로 가까이 다가선 마귀는 업신여기는 태도로 질문을 시작했다.

아폴리온: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놈이냐?”

크리스천: “악의 소굴인 멸망할 도시를 떠나 시온 산으로 가는 나그네이로다.”

아폴리온: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 중의 하나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온 땅은 내 나라요, 나는 그 땅의 왕인 동시에 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돼서 너는 네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느냐? 네가 다시 날 섬기도록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대로 너를 쓰러뜨려 버리련다.”

크리스천: “내가 네 나라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은 너무 힘들었고, 네가 주는 임금을 가지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의 품앗은 사망이다(역주: 로마서 6:23).’ 그러했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 되자 모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나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로 했다.”

아폴리온: “자기 백성을 쉽사리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왕이 없는 것과 같이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허나 네가 내 나라에서 일하기 힘들고 임금이 박하다고 불평을 하니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나라 경제 사정이 허용하는 정도 안에서 앞으로는 후하게 대우해 주라고 이 자리에서 내가 약속한다.”

크리스천: “그렇지만 나는 이미 ‘만왕의 왕’에게 바친 몸이다. 그러니 네게로 돌아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폴리온: “네가 한 짓은 마치 ‘나쁜 데로부터 더 나쁜 데로 옮겨 간다’는 속담처럼 어리석은 짓이었어. 하지만 내게 충성을 다 하겠노라고 서약하고 나서도 어찌다가 일시 살짝 도망갔다가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너도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테니 염려 마라.”

크리스천: “내가 이미 주님에게 몸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배신할 수 있으며, 만일 배신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 처형될 것이 아닌가?”

아폴리온: “네가 이미 날 배반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내게로 돌아온다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크리스천: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때는 내 나이 아직 어려 철모를 때 일어났으니까 책임이 없어.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임금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한때 내가 네 명령에 맹종했던 과오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뿐만 아니라, 아, 생명을 빼앗기만 하는 너 악마야. 듣거라, 사실 말이 지 나는 너를 섬기는 것보다 이분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분이 지혜해 주는 품삤, 이분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그의 정치를 더 좋아하며, 이분과 사귀는 것과 이분의 나라를 더 좋아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날 설득시켜 보려고 더 애쓸 필요가 없어. 나는 이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분만 섬길 테니까.”

아폴리온: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머리를 식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네가 길가는 도중 무슨 변을 당하게 될까를. 네가 말하는 그에게로 가는 자들은 모두가 나 자신과 내 생활 방식을 반대하여 떠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설혹 그의 백성이 되더라도 종말은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자들 중에 수치스런 사형 집행을 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거나 하나! 그뿐 아니라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좋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그의 기반을 벗어나 나에게로 온 자들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일이 그에게는 절대 없는 데 반해, 나는 내 권력 또는 부정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 기반을 벗어나 그에게로 넘어가 충성을 다하는 자들까지 구원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크리스천: “그분이 지금 당장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그에게 의존하고 또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비참하게 된다고 너는 말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로로 얻는 영광이거든. 그들의 임금님이 그 자신의 영광 또는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왕립하실 때 올 영광을 기다

리고 있는 그들이기에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폴리온: “네가 이미 그를 섬기는 데 불충성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나마 할 수 있는가?”

크리스천: “아, 마귀야, 내가 어떤 점에서 그에게 충성치 못했던 말인가?”

아폴리온: “네가 길을 떠나자마자 절망의 수렁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렸었고, 네 왕이 와서 네 짐을 벗겨 줄 때까지 한곳에 머물러 기다려야 했을 걸 기다리지 못하고 딴 길로 빠져들어 짐을 벗어 보려고 시도했으며, 사악한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물을 잃어버렸었고, 사자 모습을 보자 내심 도로 돌아갈 생각을 품었지 않았니. 그리고 또 여행하는 애기나 여행 도중에 듣고 본 것들을 늘어놓을 때의 네 모든 언행은 네가 품고 있는 지나친 허영심의 발로밖에 아무것도 아닌란 말이야.”

크리스천: “네 말이 다 옳다. 그리고 네가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과오도 나는 범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존경하는 임금님은 자비심이 많으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거든. 그뿐 아니라 내가 네 나라에서 너를 섬길 때 몸에 속속들이 배어 버린 여러 가지 악점 때문에 나는 늘 신음하고 슬퍼했었는데, 그런 악점들까지도 내 임금님은 용서해 주셨어.”

이때 지독히 고통을 낸 마귀가 말했다. “네가 섬기는 그 왕과 나는 원수야.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율법, 그의 백성까지 다 나는 미워한다. 그래서 너와 겨루어 한판 싸우려고 지금 일부러 온 거야.”

크리스천: “마귀야, 너 조심해, 괜히.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임금님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이때 길 너비를 거의 다 차지하고 떡 버티고 선 마귀는 말했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어. 여기서 네 영혼을 내가 멸망시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게 할 테니 죽을 것을 각오하라.”

이 말과 함께 마귀는 불붙는 창 한 개를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손에 방패를 들고 있었던 그는 그 창을 막아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자기도 분발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깨달은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여러 개의 창들을 우박 내리듯 한꺼번에 던지는 마귀가 결사적으로 공격해 왔다. 크리스천은 창을 피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었다. 그 때문에 그는 부득이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마귀는 전력을 다하여 습격해 왔다. 용기를 가다듬은 크리스천도 사내답게 기를 쓰고 대항했다. 이 치열한 전투가 반나절이나 계속되자 크리스천은 기진맥진해지고 말았다. 부상 입은 그의 기력이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회를 노린 마귀는 크리스천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렸다. 호되게 넘어지는 크리스천의 손에서 칼이 저절로 튀어나와 공중에 날았다. 이때 마귀는, “자 이제 넌 꼼짝 못하게 됐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를 타고 앉아 막 내리눌러 거의 죽게 만들었다. 크리스천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다. 타고 앉은 마귀가 막 그의 몸에 최후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의 손이 재빨리 움직여 칼을 도로 집어 들고는 말했다. “나의 대적이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니(역주: 미가 7:8).” 이렇게 외치는 그가 마귀를 칼로 냅다 찔렀더니 치명상을 입은 듯 마귀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 꼴을 본 크리스천은 다시 덤벼들면서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역주: 로마서 8:37).” 하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다시 덤벼들자 마귀는 용의 날개를 짝 펼치고 날아 달아나 버려 그 뒤로 크리스천은 마귀를 다시 보지 않게 되었다.

나처럼 이 전투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싸우는 도중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름이 끼치는 노호(怒號)를 질렀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마귀는 용처럼 으르렁대는 것이었다. 한편 크리스천은 또 그대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 소리를 계속 발하고 있었다. 양쪽 날을 세운 칼로 마귀를 찔러 부상 입힌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가 유쾌한 표정을 짓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 마귀를 찌르고 나서야 그는 미소 지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무서운 광경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크리스천이 천사처럼 싸워야만 하게 된 것은

힘의 균형이 안 잡힌 전투였다. 그러나  
그 용감한 사나이가 칼과 방패를 재치 있게 다루어  
용과 같이 힘센 놈을 패주시켰도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아가리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와의 대  
결에 도와주신 주님에게 감사드리노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악마 떼의 두목인 위대한 바알세불이  
날 망치려고 중무장하고 나서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맹렬히 나를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축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내 칼의 위력을 재빨리 발휘하여  
그놈을 패주시켰다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리.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 크리스천에게 주었다. 전투 중 부상당한 자리  
에 그 잎을 붙였더니 상처는 금세 아물어 버렸다. 그 자리에 앉은 채 그는 아침에  
치녀들한테서 받은 식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셨다. 원기를 회복한 그는 길을  
다시 떠났다. 앞으로도 어떤 원수들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빼든 칼  
을 그냥 들고 걸어갔다. 그러나 골짜기 끝까지 다 갈 때까지 마귀는 다시 습격해  
오지 않았다.

이 골짜기 끝에서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골짜기인데, 하늘  
나라까지 가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아주 호젓했다. 이 골짜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렇게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크리스천만은 다니지만)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역주: 예레미야

2:6).’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아까 마귀와 싸우던 것보다 더 심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 난관을 아래에 기록한다.

크리스천이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가장자리까지 가장 빠른 걸음으로 마주 오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 두 사람은 살기 좋은 하늘나라를 악평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크리스천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두 사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생명과 평안을 중하게 여기신다면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크리스천: “왜요?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당신이 가시는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그러나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올 수 있기는커녕 죽고 말았을 거예요. 더 갔더라면 이렇게 살아 돌아와 당신에게 이런 소식도 전하지 못하게 될 뻔했어요.”

크리스천: “대관절 무슨 일을 당했기에 그런 말을 합니까?”

두 사람: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 거의 다 가서 앞을 우연히 내다보길 참 잘 했어요. 앞에 굉장한 위험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크리스천: “아니, 무얼 봤기에?”

두 사람: “무엇이냐고요! 골짜기 자체가 역청(瀝靑)처럼 어두운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 도깨비·사티로스(역주: 말의 귀와 꼬리, 염소의 다리를 가지고 갓 난 뿔이 달린 주석을 좋아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숲의 신)·용들이 우글우글하는 걸 봤지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즉 고뇌와 쇠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앉아 있는 인간들이 단말마적(斷末魔的)인 신음과 고통을 지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빈틈없이 덮여 있어요. 그뿐 아니라 ‘죽음의 날개’가 골짜기 위에 항상 펼쳐져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질서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골짜기예요.”

크리스천: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직 내 눈에는 띄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피난



처로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지 않소.”

두 사람: “당신이 굳이 가시려면 가 보시구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화 끝에 그들은 작별하고 크리스천은 저 갈 길을 갔다. 그러나 무엇에게 건 다시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칼을 든 채 걸어갔다.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바라보니 골짜기 오른쪽에는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옛날부터 영원토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다가 둘 다 불행히 빠져 죽은 곳이 바로 이 도랑이다. 골짜기 왼쪽에는 아주 위험한 수렁이 있는 것을 나는 봤다.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발을 헛디뎌 빠지면 다리 세울 밑바닥을 도무지 발견 못하는 수렁이다. 이 수렁에 다윗 왕이 한 번 빠졌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던들 그는 그 속에서 숨막혀 죽었을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역주: 시편 69:14).

이 골짜기에 뚫린 길은 좁기 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크리스천도 걸어가기에 고생이 극심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발을 옮기면 저쪽 수렁을 밟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었고, 반대로 수렁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에 빠지기가 첩경 쉬운 것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걸어가는 동안 뼈아프게 탄식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위에 언급한 위험 외에도 어둠 속에 좁은 길을 걷자니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어디 또는 무엇을 디뎌야 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가련한 사람아! 지금 어디 있느냐? 날은 저물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지옥문 곁에 있는 것이므로  
착한 사람아, 그대가 아직 바른 길에 서 있으니  
비관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라,  
그대에게 성공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골짜기 어느 한 중간 길 바로 옆에 지옥문이 서 있는 것을 나는 봤다. 이때 크리스천은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서운 소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기끔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 위험은 아까 마귀처럼 크리스천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맥을 못 쓰게 되자 그는 칼은 거두고 부단히 기도(祈禱)라는 새로운 무기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역주: 에베소서 6:18). 그래서 그는 내게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아!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역주: 시편 116:4)”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오래 걸었지만 화염은 계속 그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처량한 소리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달리는 것을 그는 들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갈가리 찢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위 진흙처럼 밟히지나 않을까 하고 가끔 그는 생각했다. 몇 십 리를 가도 이 무서운 광경과 무서운 소음은 계속 보이고 들리는 것이었다. 한곳에 이르자 악마 한 무리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을 그는 느꼈다. 걸음을 멈춘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반쯤은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골짜기 한 절반은 지나온 것 같이 생각되면서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위험을 무찌르고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앞으로 밀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악마들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놈들이 바로 곁에 온 것을 느끼자 그는 가장 격렬한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나는 걸어간다!” 이 외침을 들은 악마들은 물러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사건이 생겼다. 정신이 혼란해진 가련한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불붙는 구렁텅이 옆을 그가 지나가게 될 때 악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 소리 안 나게 가만 가만 따라가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나는 봤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 말을 속삭임으로 들려주자 크리스천은 그 말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한 것이었다. 그가 이전부터 그렇게도 극진히 사랑해 온 하나님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비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것은 이때까지 그가 당해온 어떤 괴로움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비방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 버리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런 비방 소리가 어

다서 오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그는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울적한 마음을 품은 채 꽤 먼 길을 걸은 크리스천이 돌연 그보다 앞서 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역주: 시편 23:4).”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즐거웠다. 즐겁게 느끼는 이유는, 첫째, 이 골짜기를 자기 혼자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 하나가 역시 이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상태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만큼 자기와도 함께 계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와도 함께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

셋째, 앞서 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면 동행자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

그리하여 그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앞서 가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대답할 바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됐다. 이때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가 사망의 그림자로 아침이 되게 하셨다(역주: 아모스 5:8).” 아침이 왔으므로 그는 뒤를 돌아다봤다. 되돌아가고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걸어오면서 어떤 위험한 장소를 지나 왔는지를 밝은 빛 아래 푹푹히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길 좌우 쪽에 패어 있는 도랑과 수렁을 더 푹푹히 볼 수 있었고, 그 두 가지 위험지대 사이로 뚫린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푹푹히 봤다. 구렁텅이 안에 있는 도깨비 · 사티로스 · 용 떼들도 멀리 보였다. (날이 새자 그놈들이 가까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것이었다) 괴물들은 먼 곳에 있었지만 그는 푹푹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말대로이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 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는도다(역주: 욥기 12:22).’

어둠 속에서 위험에 부닥칠 때 물론 더 무서웠지만, 지금 밝은 달빛이 그 위험물들을 더 유난히 눈에 띄게 해 주어 더 푹푹히 볼 수 있게 되자, 그가 어둠 속에 혼자

걸어올 때 그를 노리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생각이 크리스천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때마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햇빛 아래 드러나는 광경을 보는 크리스천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절히 느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전반부가 위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후반부 길에는 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골짜기 꼬트머리까지에는 도처에 밧과 함정과 그물이 수두룩이 놓여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에 구렁과 유혹과 깊은 구멍과 경사진 곳이 산재해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골짜기 전반부를 걸어올 때처럼 어두웠던들 목숨이 천 개가 있다손 치더라도 모두 다 잃어버릴 도리 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방금 내가 말한 것 같이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물을 다 잘 볼 수 있어서 피해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어둠 속에서라도 능히 길을 갈 수 있도다(역주: 욥기 29:3).”

이 광명에 힘입은 그는 골짜기 끝까지 갔다. 이 골짜기 끝에 인간의 피와 뼈와 재, 그리고 산산조각 난 육체들이 너저분하게 굴러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전에 이 길로 걸어간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조각난 육체까지 널려 있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내 바로 앞에 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옛날에 교황과 이교도 두 거인이 이 굴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갖은 권세와 폭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시체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뼈와 피와 재 등등이 흩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자리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고 의아스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후에 알아보니 이교도는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고, 교황은 여태 살아 있기는 하나 너무 늙었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시절에 관절에 여러 가지 살을 에는 듯한 타박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와선 노망들고 관절이 모두 굳어져서 굴 어귀에 앉은 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기나 하고, 그들을 해치지 못하는 울화를 새기느라고 제 손톱이나 물어뜯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이 아무 사고 없이 교황 앞을 지나가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나 굴 어귀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고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더구나 노인이 그를 붙들지는 못하면서 욕지거리만 하는 데는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는 너희들은 잘못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교황은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도 크리스천은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을 지닌 채 교황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찬송가를 불렀다.

아, 얼마나 신기로운 세상인고!

(이 말보다 더 가벼운 말을 나는 쓸 수 없노라)

이곳에서 만난 지독한 재난에서 내가 지탱할 수 있었다니!

아, 그 재난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신 손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이 골짜기에 있는 동안 어둠 속 악귀와 지옥과 죄가 날 둘러쌌고,

땃과 구렁이와 함정과 그물이 내 앞길에 그득 놓여 있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어리석은 내가 땃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렁 밑으로 떨어져 내려갈 뻔했는데도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살아나다니

예수님께 영광 돌려 면류관을 씌워 드리세.

걸가던 크리스천은 조그만 언덕 아래 이르렀다.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올라가 앞을 내다보라고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에 크리스천도 언덕 위로 올라가 앞을 내다봤다. 그의 앞에 신의가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는 봤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 질렀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기 좀 서 계시오. 좀 기다려 나하고 함께 갑시다.” 이 말을 들은 신의는 뒤를 돌아다봤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 질렀다. “기다려요, 기다려. 내가 따라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줘요.” 그러나 신의는 “기다릴 수 없어요. 내 생명을 살리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의 복수자가 내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이 말에 다소간 화가 난 크리스천은 젖 먹던 힘을 다 내어 급히 달려가서 신의를 따라잡을 뿐 아니라 앞질러 버렸다. 그래서 앞섰던 자가 뒤서고 뒤섰던 자가 앞서게 되었다. 친구보다 앞서게 된 데 지나친 자만심을 품게 된 크리스천은 미소 지으면서 발아래를 잘 살피지 않다가 별안간 미끄러져서 길에 자빠졌다. 신의가 따라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 둘은 사이좋게 함께 가면서 여행 도중 지난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크리스천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크리스천: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 신의 씨, 내가 당신을 따라 만난 것이 내게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마음을 녹여 주셔서 이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의: “친애하는 친구여, 우리 동네서 첫 출발할 때부터 나는 동행하고 싶었는데, 어찌다가 당신이 그만 먼저 떠났지요. 그래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그 먼 길을 여기까지 혼자 오게 된 것이지요.”

크리스천: “당신은 나를 따라 여행을 떠나기 전 얼마 동안이나 멸망의 도시에 그냥 계셨나요?”

신의: “당신이 떠나자마자 굉장한 소문이 쏙 퍼졌지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도시는 하늘에서 내리붓는 유황불에 타 잿더미가 돼 버릴 거라고요. 그래 참다못해 나도 떠나왔지요.”

크리스천: “뭐라고요! 그래 이웃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까?”

신의: “그럼요. 한동안 그 얘기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크리스천: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어째 다른 사람들은 피해 나오지 않고 당신 혼자만 나왔소?”

신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말은 많이 돌았지만, 그 말을 꼭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돼요.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당신이 죽을 기를 쓰고 떠난 여행을 (당신의 이 순례 행각을 그들은 이런 말로 표현했지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나만은 우리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을 꼭 믿고, 지금도 믿

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크리스천: “우리 이웃 사람 유순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신의: “왜요, 들었지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 그는 당신을 따라 나섰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더군요. 자기는 그걸 숨기려 했지만 그의 몸 전체에 수렁의 흙탕물이 묻은 것을 보아 알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 “유순에 대해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의: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모두 다 지독히 비웃었지요. 더러는 비웃는데 그치지 않고 멸시해서 취직도 하기 무척 힘들었어요. 지금 그의 형편은 애당초 떠나오지 않았던 것 보다 배나 더 어렵게 됐지요.”

크리스천: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못살게 굴까요?”

신의: “아, 변절자니까 죽여 버리자고 그들은 말하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가 중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조롱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의 금언(金言)으로 만들었나 보지요.”

크리스천: “당신이 떠나 나오기 전에 그와 만나 얘기한 일은 없습니까?”

신의: “한길에서 한 번 만났지만 그가 부끄러운지 외면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요.”

크리스천: “참 딱하게 됐군요. 그와 함께 처음 길을 떠날 때 그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도시가 멸망하는 날 그도 죽게 될 것 같군요. 왜냐하면 참 속담에 말하기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더러운 구렁이에 도로 누운 격이 되었으니까요(역주: 베드로후서 2:22).’

신의: “나도 그가 그런 꼴을 당할 것 같아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자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천: “그이 얘기는 이만하고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얘기가 합시다. 신의 선생, 자, 당신이 오는 도중에 어떤 것을 보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당한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신의: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한 번 빠지셨던 모양인데, 난 요행으로 거기는 빠지

지 않고 좁은 문까지 무사히 왔어요. 단지 「음분(淫奔)」이란 여자를 만나 하마터면 화를 당할 뻔했지요.”

크리스천: “그 계집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요셉도 그 계집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가 당신처럼 피했지요. 요셉은 그녀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역주: 창세기 39:7~20), 그녀가 당신에겐 어떤 짓을 합니까?”

신의: “상상 밖의 일이지요. 그녀의 야양 떠는 기술은 당신도 짐작하겠지요. 온갖 쾌락과 만족을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길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덕지게 꼬더군요.”

크리스천: “그녀가 약속하는 것은 착한 양심의 만족과 쾌락이 아니지요.”

신의: “그렇지요. 당신도 아다시피 그녀가 약속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체의 쾌락과 정욕의 만족이지요.”

크리스천: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게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는 그런 계집의 함정에 빠지지요(역주: 잠언 22:14).”

신의: “잠깐, 내가 그녀의 유혹을 전적으로 피했는지 못 했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크리스천: “그게 무슨 말씀. 정말 이상한데요. 그래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진 않았을 텐데?”

신의: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진 않았지만 그건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내가 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녀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라고(역주: 잠언 5:5). 그래 나는 눈을 꼭 감았지요. 그녀의 용모에 매혹되지 않기 위해. 그랬더니 그녀는 나를 막 욕하고 조롱하면서 물러가더군요. 그래 난 나의 갈 길을 갔지요.”

크리스천: “오는 도중에 다른 공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신의: “곤고 산이라는 산 밑에 다다랐을 때 한 늙은 사나이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말했더니 그 늙은이 말이, “보아하니 정직한 사람 같은데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지불하는 품삯을 받으며 일할 생각은 없소?” 하더군요. 그래 내가 당신 이름은 무엇이며 사는 곳



은 어디냐고 물어봤지요. 그는 자기 이름은 아담 1세이고 사는 곳은 「기만의 도시」라고 함디다. 그래 나는 다시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며 품삯은 얼마 정도인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의 말이, 그가 시키는 일은 전부가 즐거운 것뿐이고 품삯은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뒤 재산 상속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다시 그가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자기 집에는 세상 맛난 것이란 다 갖추어져 있고 하인들은 전부 다 자기 자손이라더군요. 그래 자녀를 몇이나 거느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딸 셋 밖에 없는데, 이름은 「육체의 정욕」, 「안목(眼目)의 정욕」, 「금생(今生)의 오만」 등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지만 하면 그의 딸 셋을 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 나는 얼마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가 사는 날까지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크리스천: “그래요. 그럼 당신과 그 노인 간에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졌소?”

신의: “그의 말에 솔깃해진 나는 처음엔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기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수작하는 동안 그의 이마를 보니 ‘그의 행위를 보아 노인을 피하라.’라는 글이 씌어 있더군요.”

크리스천: “그래 그다음엔?”

신의: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의 말이 아무리 비위에 맞더라도 그의 집으로 따라가면 나를 노비로 팔아먹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타올랐어요. 그래 그가 아무리 꺾어도 나는 그의 집까지 따라가지 않을 테니까 말을 삼가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그는 내 뒤로 사람을 따라 보내 내 마음과 몸을 괴롭히겠다고 해요. 하지만 내 길을 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내 몸 한쪽을 붙잡은 그가 어찌나 세계 끄는지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역주: 로마서 7:24).” 하고 외치고는 산 위로 올라갔지요. 산 허리계까지 올라와 뒤를 돌아봤더니 바람처럼 빨리 따라오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정자 한 채가 서 있는 근방에서 그 사람이 날 따라잡았어요.”

크리스천: “내가 좀 쉬는데 그만 잠들어 자다가 이 족자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

리로군요.”

신의: “형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 주세요. 그 사람은 나를 따라잡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날 둘러메치는데 땅에 떨어진 나는 기절했어요. 정신이 좀 들자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지요. 세상의 첫 인간인 아담에게 비밀리에 마음을 기울였던 죄를 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한 번 더 내 가슴을 때리고 밀쳐 거꾸러뜨렸으므로 나는 한 번 더 죽은 듯이 그의 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때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방법을 모르노라고 말하는 그는 나를 한 번 더 떼밀어 자빠뜨렸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단념하는 참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를 만류했어요.”

크리스천: “만류시킨 분이 누구였나요?”

신의: “처음엔 몰라봤지만 옆으로 걸어가실 때 보니 양손 손바닥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레 난 산 위로 올라갔지요.”

크리스천: “당신을 따라잡고 때리던 사람은 모세입니다(역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데리고 나온 지도자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선포한 사람). 그는 누구건 용서해 주는 일이 없고, 그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요.”

신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날 만나 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집에 편히 있을 때 찾아와서, 만일 도망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가 들어 있는 동안 집을 태워 버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지요.”

크리스천: “모세를 만난 산꼭대기에 집 한 채가 서 있는 것은 못 보셨던가요?”

신의: “봤지요. 그리고 그 집 조금 못 미쳐 사자 두 마리가 있는 것도 보고요. 그때 마침 오정(午正)때였기 때문에 사자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질 때가 아직 멀었으므로 난 그 집 문지기 앞을 그냥 지나 산 아래로 내려왔지요.”

크리스천: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봤노라고 그 문지기가 말합디다. 허나 그 집을 방문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 집에 들렀더라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영 잇

지 못할 여러 가지 희귀한 것을 그 집 사람들이 구경시켜줬을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나 본 사람은 없습니까?”

신의: “만나 봤지요. 「불만」을 만났더니 함께 집으로 도로 가자고 자꾸 피더군요. 겸손의 골짜기에는 존경할 만한 것은 전혀 없으니 집으로 도로 가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그뿐 아니라 길을 그냥 가는 것은 「자만」·「불손」·「자부」·「속세 영화」 그 밖의 여러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타이르더군요. 그 골짜기를 그냥 헤어나가는 어리석음을 내가 범하면 그것은 우정을 몹시 상하는 짓인 줄로 자기는 역설하더군요.”

크리스천: “그래 뭐라고 대답했소?”

신의: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혈족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옳은 주장이지만, 내가 순례자가 되자 그들이 날 절연(絶緣)해 버리는 동시에 나도 그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에는 내 친척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뿐 아니라 이 골짜기로 말하면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글러 먹었다고 말해 줬지요. 왜냐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패망이 있기 전에 교만이 있다(역주: 잠언 15:33, 18:2).’고 말해 주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허욕을 채우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가 존중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 이 겸손의 골짜기를 꿰뚫어 가기 원한다고 나는 말했어요.”

크리스천: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은 만나 본 일이 없습니까?”

신의: “또 있지요. 「치욕」이라는 친구를 만났지요. 그런데 순례 도중 내가 만난 술한 사람들 중 이자처럼 격에 안 맞는 그릇된 이름을 가진 자는 둘도 없었다고 내게는 생각돼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간 이론을 깨고 나면 마음을 돌이키련만, 이 철면피인 치욕만은 막무가내였으니까요.”

크리스천: “왜요. 그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신의: “무슨 말! 그자는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련하고 비천하고 무기력한 일이라고 그는 말해요. 온유한 양심의 소유자는 사내답지 못한 줄자라고 그는 말하고, 어떤 시대이건 용감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습화된 빠기는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위대하거나 돈 많은 부자이거나 현명한 사람치고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자는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장차 얻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세상 모든 쾌락을 자진 포기하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한 사람이 그들 중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어느 시대에서건 순례 행각에 나서는 사람들이란 모두가 비천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들일 뿐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뿐이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배척하더군요. 그는 나를 그런 무식하고 비천한 자라고 놀렸고, 지금 다 말하려면 한이 없을 정도의 여러 말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설교를 들을 때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냥 한숨짓고 탄식하는 것도 수치이며,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든지, 사소한 남의 것을 빌려 썼다고 반드시 변상하는 것 등 모두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종교를 믿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조그만 악행, 악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더 세련된 말을 쓰기는 합디지만, 하여튼 조그만 과오를 범해도 비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형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귀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까지도 친애하고 존경하게 되니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떠들어 대더군요.”

크리스천: “그래 당신은 뭐라고 했소?”

신의: “뭐라고 하다니!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궁리가 안 나서 어리벙벙했었어요. 참말이지 그의 말에 상기되어 버린 나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역주: 누가복음 16:15).’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치욕이 인간에 관한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한 사실을 나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지요. 최후심판을 받게 되는 날 생사문제는 이 세상에서 빠지는 호기로 좌우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의 지혜와 법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옳다, 그렇지 참말로 가장 옳지 하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교를 무엇보다 더 즐겨 하시는 것과, 온유한 양

심을 그는 무엇보다도 더 즐겨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에서 바보 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큰 부자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치욕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훼방 놓는 원수로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섬기는 주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 수 있는가? 만일 그랬다가 그이가 강림하시는 날 나는 무슨 낯짝으로 그이를 대할 것인가? 지금 내가 만일 그의 도(道)와 그의 종 된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그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치욕이란 놈은 참말로 완강한 악한(惡漢)이었어요. 내가 극력으로 그놈을 떼어 버리려고 했건만 그놈은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내 귀에다 입을 바싹 대고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속삭여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업신여기는 것들을 나는 가장 존중하는 만큼 더 수작해봤댔자 소용없다고 나는 종내 선언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그 귀찮고 치근치근한 놈을 지나 앞으로 나갔지요. 그놈을 떼어 버리는 데 성공하자 나는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시련은 많고도 많구나.

육체에 알맞은 시험이 오고 가고

새로이 또 오는구나.

그리하여 지금 혹은 다른 때

그 시련에 못 견뎌 굴복하여 조난당하는구나.

아, 그러니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이여,

우리 다 같이 경계하고 일심하여 모든 시험을 사내답게 물리치자.

크리스천: “형님, 그 악한을 용감하게 물리치신 건 참 다행입니다. 형님 말씀대로 그가 치욕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거리로 우리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공중 앞에서 우리의 면목을 손상시키려고 시도하는 용기를 가진 완강한 자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선(善)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 보려고 노력했던 말입니다. 그

자신이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해 볼 엄두도 못 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합심해 그자의 꼬임에 항거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날뛰다 할지라도 그가 장려하는 것은 바보짓 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솔로몬 왕이 말했지요. ‘지혜 있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고 미련한 자는 망망히 욕을 취하느니라(역주: 잠언 3:35).’고.”

신의: “치욕에 항거하여 이 세상에 진리를 펴는 데 용감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 일은 없으십니까?”

신의: “없어요. 치욕과 헤어진 후 나머지 길은 해가 쨍쨍 나는 낮에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해가 났으니까요.”

크리스천: “그저 참 다행이었군요. 내가 겪은 바와는 아주 다르군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냄새 고약한 녀석과 죽기 살기로 투쟁을 꽤 오래 했어요. 그렇지요. 그놈한테 꼭 맞아 죽는 줄 생각 했어요. 특히 그놈이 날 넘어 뜨리고 깔고 있을 때 내 손에서 칼이 빠져 달아나, 그 놈이 내 몸을 갈가리 찢어 죽일 줄로 생각되었고, 그놈도 죽인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러나 그때 나는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내 호소를 들으신 그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다음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 들어섰는데 거의 중간 지점에 이를 때까지 어두웠어요. 그 골짜기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침내 날이 새고 해가 떠올라 나머지 절반은 쉽게 조용히 걸어왔지요.”

그들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 한 옆으로 눈을 돌린 신의가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곳 길은 꽤 넓었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수다쟁이와 두 사람의 거리는 꽤 멀었다. 수다쟁이는 키가 큰 사람으로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볼 때 풍채가 좋았다. 이 사람에게 신의는 아래와 같이 말을 걸었다.

신의: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는가요?”

수다쟁이: “예, 그곳으로 갑니다.”

신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 의종게 동행합시다.”

수다쟁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자가 되렵니다.”

신의: “그럼 이리 오셔서 같이 걸어갑시다. 길가면서 유익한 얘기로 무료를 덜기로 합시다.”

수다쟁이: “유익한 얘기를 한다는 건 당신 한 사람하고만 아니라 누구하고 간에 대 찬성입니다. 사실 말이지 (여행 도중에) 무료를 끄기 위해 무익한 잡담이나 하길 좋아하는 사람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도 유익한 얘기를 주고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항상 고민해 왔었는데, 지금 당신 같은 분을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신의: “무익한 잡담으로 소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혀와 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란 세상에 있을 수 없지요.”

수다쟁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반갑고 기쁩니다. 내가 한 마디 더 보태지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보다 더 유쾌하고 유익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이한 얘기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가령 역사에 관한 얘기이거나 혹은 신비스런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적 얘기나 기이한 일 얘기나 징조 얘기 등을 듣기 좋아한다면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책에서 즐겁고도 재미있게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얘기함으로써 최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수다쟁이: “그게 바로 내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속세 허영에 관한 지식과, 하늘나라에서 얻을 이익에 대한 지식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식을 얻게 되니 그것이 곧 최고의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하여 얻는 특수한 이익점을 들기로 한다면 거듭나야 하는 필요성, 우리 일의 부족, 그리스도의 정의의 필요성 등을 사람이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얘기를 통해 매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믿는다는 것, 기도하는 것, 수난당하는 것 등의 뜻을 배우게 되고, 복음이 주는 언약과 위로가 무엇인가까지도 배워 자아위

안(自我慰安)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통하여 사람은 왜 곡된 의견을 반박하는 견해도 배우고, 진리를 입증하고, 무식한 자를 가르치는 능력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신에게서 이런 말 듣는 것 참 기쁩니다.”

수다쟁이: “그러나 슬프도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마음속에 은총이 작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효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상의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법률에 의지해 살고 있는데, 법률에만 의존해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은 인간 자체의 노력과 근면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한 이야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그것은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 받게 되는 거지요.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 말씀 몇 백 구절이라도 인용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그럼 우리 지금 어느 한 가지만 화제로 삼아 얘기하면 어떻겠소?”

수다쟁이: “당신 마음대로 택하세요. 당신이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하늘에 관한 얘기, 속세에 대한 얘기, 도덕에 대한 얘기, 전도하는 일에 대한 얘기, 거룩한 얘기거나 혹은 세속적인 얘기, 과거 얘기 혹은 미래 얘기, 외국에 대한 얘기, 혹은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 보다 더 본질적이거나 혹은 부수적인 얘기, 무슨 얘기고 하고 싶습니다.”

수다쟁이를 놀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게 된 신의는 크리스천께로 가까이 왔다. (이때까지 그는 외따로 걸어가고 있었다) 신의는 크리스천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참 담대한 동행자를 가지게 됐소! 이 사람과 동행하는 한 참 유쾌하고도 유익한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조심스런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천이 말했다. “홀딱 반했구려. 그렇지만 감언이설



은 자기를 모르는 술한 모르는 사람을 속여 넘긴답니다.”

신의: “그이를 잘 아십니까, 그럼?”

크리스천: “알다 뿐이겠소! 그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그이를 더 자세히 알거요.”

신의: “어떤 사람인데?”

크리스천: “그 사람 이름은 수다쟁이고요, 바로 우리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를 모르는 것이 이상한데 결국 우리 도시가 상당히 크다는 증거겠지요.”

신의: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 어디쯤 사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천: “『능변』의 아들인데, 『지꼴이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지꼴이는 동네에 사는 수다쟁이로 알려져 있지요. 혀는 잘 놀리지만 하찮은 인간이지요.”

신의: “글쎄요, 내게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던데요.”

크리스천: “그와 진지하게 사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요. 타향에서는 잘나 보이거나 고향에서는 못난이니까요. 당신 말을 들으니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는 듯한 생각이 납니다. 멀리서 볼 때에는 아주 썩 잘 그린 그림으로 보이더니 아주 가까워서 보니까 보기 흉하더군요.”

신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보니 농담하는 것으로 내게는 생각되는데요.”

크리스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비록 미소를 짓기는 했으나) 농담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겁니다. 더구나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 자세한 걸 알려드리지요. 지금 당신과 더불어 말을 많이 한 것처럼 그 사람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건 붙들고 아무 얘기나 주절대는 사람입니다. 술집에 버티고 앉아서도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술이 머리께까지 오르면 그의 입에는 잔소리가 더 늘게 마련이지요. 그의 마음속이나 집 안에도 담화 안에도 종교가 들어왔을 자리는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고, 종교를 논하는 것도 횡설수설 지꼴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신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감쪽같이 속였군요.”

크리스천: “속다마다! 분명 속았지요. ‘말만하고 행치 아니한다(역주: 마태복음 23:3).’는 금언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역주: 고린도전서 4:20).’는 금언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한 말도 하고, 회개 · 믿음 · 거듭남 등에 관한 말은 하지만, 실속은 없는 겉치레 말만 할 줄 아는 겁니다. 나는 그의 가정으로 가 본 일이 있었고 해서 그의 고향에서나 타향에서 그를 관찰할 기회를 가졌었으므로 그에 대한 나의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그의 집에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달걀 흰자위가 맛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집에는 풍미가 없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 죄를 회개하는 징조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도리어 그보다 낮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는 종교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질책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역주: 로마서 2:23~4). 그가 사는 동네 어딜 가나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게 됐어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타향에서는 성현(聖賢)이요, 고향에서는 악마(惡魔)라고 부릅니다. 불쌍한 그의 가족이 그의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고 있지요. 자기 하인들을 너무 들볶고 너무 꾸짖고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와 상거래가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와 거래하기보다는 차라리 잔인무도하고 횡포하다는 터키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한결 낫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상인들과의 거래에서 도리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다쟁이는 (가능하지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거래에 부정 수단을 써서 상대방의 재물을 사기 · 횡령하기가 일쑤고, 협잡으로 굴리기도 하고, 감쪽같이 속여먹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자기 아들들까지 자기 본을 꼭 따르게 하는데, 아들 중 혹시 담력이 약한 자(온유한 양심을 가진 자를 바보스런 약자라고 그는 부르는 거지요)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식은 바보 · 천치 · 얼간이 · 멍청이라고 규정지어 일을 별로 맡기지도 않고, 남 앞에서 그런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악독한 생활로 인

해 술한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망했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던들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신의: “형님, 나는 형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고 해서 뿐 아니라 형님은 예수교인다운 정직한 평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품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꼭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천: “나도 그 사람을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지 못했더라면 당신처럼 처음엔 그 사람의 본색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의 명성과 직업을 악평하는 일이 많은 세상인 만큼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원수들이었던들 그들의 말은 중상모략에 불과하다고 나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친히 잘 알고 있는 그의 비행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여 그를 그들의 형제라거나 친구라고 부르기를 꺼려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지요.”

신의: “그렇군요. 말과 행위는 별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별을 명확히 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진실로 두 개의 별것들이지요. 영혼과 육신이 성질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행위를 수반하지 못하는 말만이면 그것은 생명 없는 시체에 불과하지요. 종교의 핵심은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지요(약: 야고보서 1:27). 그러니 수다쟁이는 그걸 인식 못하거든요.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것으로도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저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지요. 듣기만 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그의 마음속과 생활 안에 열매가 결실(結實)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 날에 이르러 심판 기준은 각자의 성과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날 심판자가 “너는 믿었느냐?” 물을 것이 아

니고 “너는 실천한 자냐, 혹은 말만 하고 돌아다닌 자냐?” 하고 물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날을 추수 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추수할 때 농부가 가리는 것은 결실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까지 용납되리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심판 날 가서 저 수다쟁이의 말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 “형님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깨끗한 짐승에 대해 말씀한 것이 새삼 기억에 떠오르는군요. 깨끗한 짐승이란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말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역주: 레위기 11:2~8)하셨는데, 수다쟁이는 바로 그 토끼같이 부정해요. 그는 지식을 추구하여 새김질하고 말을 새김질하지만 범죄자들의 행동과 갈라지지 않은 채 있는 것은 곧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수다쟁이는 토끼처럼 개 혹은 곰의 빛같이 통발로 있기 때문에 부정하단 말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잘은 모르지만 그 성경 말씀의 참뜻을 나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한 마디 보태지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와 같다(역주: 고린도전서 13:1).’고 말씀했고,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성경 그다음 장에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낸다.’고 말했지요(역주: 고린도전서 14:7). 생명이 없는 물건들, 즉 진실한 신앙과 복의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은 그들의 떠드는 빈 소리가 비록 천사들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사는 생명의 자손들 틈에 절대로 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의: “그렇지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리 달갑지 않았는데 지금엔 아주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자를 떼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 “내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는 한 그자도 당신과 동행하는 데 진절머리를 낼 것이니까요.”

신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크리스천: “그에게로 다시 가서 종교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해 보자고 제의하세요. 그러면 그가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그가 종교를 자기 자신의 가슴과 가정과 담화에 올려 세워 놓았는지 슬쩍 떠보세요.”

이때 수다쟁이에게 다시 간 신의는 “오랫동안 실례했습니다. 그동안 재미 좋으셨나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했다.

수다쟁이: “괜찮습니다. 우리 둘이 그냥 얘기를 계속했다라면 지금쯤 술한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되어 얘기를 중단한 것이 아쉽군요.”

신의: “글쎄요. 당신만 원하신다면 우리 얘기하기로 하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화제 선택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화제 하나를 제시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 때 은혜는 그 자체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수다쟁이: “아, 그러면 사물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는 말씀이군요. 그건 참 좋은 토론 문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해 드리지요. 요령만 말씀 드리자면 첫째로 인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요란하게 될 거고, 둘째로는...”

신의: “아니 잠깐만. 한 가지씩만 차례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죄를 비난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기울도록 만들어 주는 능력을 은혜가 보여 주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요.”

수다쟁이: “죄를 비난하는 소리와 죄를 미워하는 생각 사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의: “아, 큰 차이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단순한 정략으로 죄를 비난하는 수가 있지만 죄를 미워하려면 죄를 혐오하는 진실한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단 위에서는 죄를 비난하는 소리를 목청껏 크게 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담화에서는 그 발언을 준수할 용기가 부족한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나는 목도(目睹)했어요. 요셉의 주인 마누라가, 마치 자기는 정숙하고도 신성한 듯이 간음하는 죄를 소리높이 비난했지만 말만 그랬지

만일 요셉이 응했더라면 아주 즐겁게 그 더러운 짓을 행했을 겁니다(역주: 창세기 39:7~12). 무릎에 앉힌 자식을 못된 년이니 막된 계집애니 막 욕을 퍼붓던 어머니가 금세 그 아기를 꼭 껴안고 입 맞추는 것처럼 죄를 비난하기는 하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다쟁이: “내가 보기엔 당신은 억지로 남의 흠만 찾아내는 악취미의 소유자군요.”

신의: “아니지요. 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사물에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 것 뿐이지요. 당신이 발견한 마음속 은혜의 둘째 작용은 어떤 것입니까?”

수다쟁이: “복음의 깊은 뜻과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의 획득이지요.”

신의: “그것이 은혜가 작용하는 첫째 징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징조이건 나중 징조이건 불구하고 그것 역시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관한 지식, 아무리 많은 복음의 신비스런 지식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지식 그 자체가 마음속 은혜가 베풀어 주는 혜택은 아니니까요. 한 인간이 제 아무리 박학할지라도 학식으로 인해 얻는 바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학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축복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 하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은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있듯이’ 천사처럼 잘 알면서도 예수교인이 되지 못하는 자가 참 많지요. 그러므로 당신이 발견했다는 징조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얘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자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려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에 지식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물론 필요하고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 지식은 사물의 공론(空論)에 불과하고, 다른 한 가지 지식은 신앙과 사랑의 은혜와 동반하는 지식입니다. 이 둘째 종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충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첫째 종류의 지식의 소유자는 말만 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려면

둘째 종류의 지식을 가지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역주: 시편 119:34).”라고 하니까요.”

수다쟁이: “당신은 남의 흠만 자꾸 잡는구려. 그런 말은 교훈이 안 됩니다.”

신의: “그래요? 그럼 은혜가 처한 곳에서 발견되는 다른 징조를 제시해 보시오.”

수다쟁이: “아니요. 아무런 제시도 안 하렵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신의: “그래요. 당신이 말하기 싫으면 내 말을 좀 들으렵니까?”

수다쟁이: “그건 당신 자유지요.”

신의: “마음속 은혜의 작용은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물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즉 은혜의 작용으로 자기 죄의식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자기의 부정한 성격을 인식하는 동시에 죄를 인식하게 되지요. —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면 그의 불신은 반드시 정죄받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의 발견은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구세주가 그의 마음속의 형태를 나타내 평생 그가 구세주 가까이 살아야만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동시에 구세주의 언약을 기갈증(飢渴症) 들린 자처럼 간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한 인간이 구세주를 믿는 신앙심의 강약에 따라 그의 기쁨과 마음속 평화의 정도가 좌우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정열의 정도가 좌우되며, 구세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욕망의 정도가 좌우되며, 이 세상에서 주님에게 봉사하는 정열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자기 언행의 변화를 발견하기는 하면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은혜가 베풀어 주는 혜택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효는 매우 적습니다. 왜 적으나 하면, 그들이 현재 품고 있는 패덕(悖德)과 이론(理論)의 남용이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의 변화가 은혜의 작용에 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우선 건전

한 판단력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결의 사람들이 은혜의 혜택을 발견하는 방도는 이렇습니다.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위로써 고백하는 것.

둘, 그 고백에 적응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생활의 신성화, 마음의 신성화, 가정의 신성화(가정을 가진 사람이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대화의 신성화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을 신성화하면 비밀리에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따라서 자기 가정 내에서 죄를 진압시키면서 온 세계에 신성을 장려하되 위선자나 지껄이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을 믿고 그리워하는 복종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작용 과정의 설명과 그 혜택에 대해 내가 간단히 말했는데, 당신이 내 말에 반대 의견을 가졌다면 지금 반대하시고, 반대할 말이 없다면 둘째 질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수다쟁이: “지금 내가 반대할 입장에 서 있지 않고 오직 듣기만 하는 처지에 처해 있으니 둘째 질문이나 어서 하시오.”

신의: “둘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공작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 설명대로의 경험을 당신도 경험해 본 일이 있는지? 당신의 생활과 말은 내 설명과 부합됩니까? 당신의 종교는 말과 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심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천거하는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천거하는 사람이라야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명심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이라고 인정하실 것과, 당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는 참말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 자체 뿐 아니라 모든 이웃사람들까지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고 공박하는데, 나만이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려 드는 것도 죄악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말에 얼굴을 붉혔던 수다쟁이가 침착을 회복하여 대답하기 시작했다. “경험이니 양심이니 하나님이니 하는 말을 지금 당신은 늘어놓고 당신 말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구려. 당신이 이런 종류의 말을 꺼낸다는 것은 내 기대 밖의 것이고,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답할 기본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교리문답자가 아닌 이상 당신 질문에 대답할 의무를 내가 가질 리 없고, 설사 당신이 교리문답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간주하기를 나는 거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그런 질문을 골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인데 다 일반 개념 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자면 당신이 가진 종교라는 것은 말에만 근거를 두고 있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평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당신은 예수와 신자들 중 하나의 오점이요, 당신의 경건치 못한 지결임 때문에 종교가 타격을 받고, 당신의 악행 때문에 이미 거꾸러진 사람들이 많은 동시에 앞으로도 망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종교는 술집과 탐욕과 부정과 비방과 거짓과 허튼 소리만 하는 친구 등과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창녀가 여성 전체에게 수치를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신 하나가 신자 전체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남들의 증상모락을 에누리 없이 받아들여 그것으로 날 판단하는 당신과 같이 괴벽(乖僻)하고 답답한 사람은 나와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이때 신의에게 가까이 간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자와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과 그의 사음(邪淫)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자기 생활을 개선할 생각은 없고 그는 당신에게서 떠나가고 말았군요. 그러나 갈 사람은 가라지요. 가서 손해를 볼 사람은 그자 자신이니까. 그자 성격으로 기분 상하지 않는 한 얘기를 계속하려 들었을 건데, 그자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면하게 됐소이다. 그자와 계속 동행하게 됐더라면 우리에게는 오점만 남기게 됐을 테니 말이요. 예수의 사도들 중 한 사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역주: 디모데후서 3:5).’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의: “그러나 그자와 잠시 얘기한 것이 잘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가 가버렸지만 차차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요. 하여튼 나는 명명백백

하게 그에게 내 입장을 밝혔으니깐 그가 설혹 망한대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당신처럼 명백하게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얼마 없고, 말로만 종교를 믿는 바보들이 경건한 신자들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탐욕과 허영에 찬 말만 지껄이고 다니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지 못한 냄새를 피우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바보들이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예수교를 더럽히고, 성실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믿는 자들을 다룰 적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당신처럼 버젓하고 명백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다루어 줄 때 그자들이 행동으로까지 믿게 되거나, 그렇잖으면 성도들과 사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물러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신의가 말했다.

처음엔 날개를 짝 펼쳐 올리던 수다쟁이가!

처음엔 그렇게도 용감하게 말을 하던 수다쟁이가!

그렇게 도도한 웅변으로 남들을 굴복시킬 기세를 보이던 수다쟁이가!

신의가 흥금 터놓고 충심으로 얘기하자,

둥근 달이 이지러져 반달 되듯,

그의 기세도 이지러졌다오.

흥금 트고 충심으로 권고할 때,

누구나 다 것처럼 될 것이요.

사막을 걸어가는 크리스천과 신의는 그들이 각기 도중에서 본 여러 가지 광경 애기를 주고받아 무료를 끄면서 재미있게 여행을 계속했다.

사막을 거의 다 벗어나 나올 무렵 신의가 무심코 뒤를 돌아다봤다. 그가 아는 사람 하나가 뒤따라오는 것을 그는 봤다. “아! 뒤에 누가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는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뒤돌아보는 크리스천은, “전도사라는 좋은 친구가 오는 군요.” 하고 말했다. 신의도 덩달아서 “그렇습니까, 내게도 참말 좋은 친구이지요.

나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준 분이 바로 그이니까요.” 하고 말했다. 이때 그들을 따라온 전도사가 인사했다.

전도사: “사랑하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당신들을 도와준 분들도 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착하신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친절하고 끈기 있게 나를 도와주신 은혜가 지금 새삼스레 생각합니다.”

신의: “이렇게 오신 것 천만 번 감사합니다. 아, 착하신 전도사님, 당신과 이처럼 동행하게 되니 우리 두 가련한 순례자들이 어찌 반가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 “친구들, 우리가 작별한 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중도에 어떤 일을 당했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크리스천과 신의 둘이 중도에서 당한 모든 일을 다 얘기해 주고, 그 모든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여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얘기를 들려줬다.

전도사: “당신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승리한 것이 내게도 참 기쁩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오늘까지 계속 걸어오셨다는 데 감격합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들이 예까지 오신 것 참 기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쁩니다. 씨는 내가 뿌렸고 당신들이 거두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지탱하기만 하면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면류관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면류관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면류관을 차지하도록 담요질쳐 가세요. 이 면류관을 차지하려고 길을 떠나 꽤 멀리 여행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판사람이 중간에 뛰어 들어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도록 꼭 붙드세요. 당신들은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 내에서 아주 떠나지 못했고, 죄에 대해 싸우기는 했으나 피투성이가 되도록 결사적인 싸움은 아직 못 했으니까, 하늘나라를 언제나 목표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일로 내세(來世)를 그리는 마음에 동요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당신네 마음을 보살피며 육신의 정욕이 깃들지 못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욕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색을 추호도 변치 않는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당신네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전도사의 권고에 감사하고 난 크리스천은 그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좀 더 권고해 달라고 전도사에게 간구했다. 전도사가 예언자라는 것을 아는 그들인지라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만날 여러 가지 난관을 미리 알려 주고 그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그들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심한 전도사는 아래와 같이 말을 계속했다.

전도사: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술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복음에 기록된 진실된 말에 의하여 두 분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나 속박과 재난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속박과 재난 없이 긴 여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들이 이미 겪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미루어 보아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금세 또 재난이 당신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 분도 보시다시피 광야는 거의 다 벗어났는데 머지않아 하나의 읍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 읍에 다다르면 당신네를 죽이려 드는 원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네 둘 모두가 혹은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까지 당신들이 내세우는 증거를 도장을 찍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읍에서 죽는 사람은 횡사(橫死)임에 틀림없고 고통도 지독할 것이겠지만, 거기서 죽는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보다 더 다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읍에서 다시 떠나가는 도중에 맞바야 할 여러 가지 고통을 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읍에 도착할 때 지금 내가 말씀 드린 대로의 일이 생길 것이니, 그때 당신들의 절친한 벗인 나를 기억하여 사내답게 행동하고 영혼을 하나님, 즉 진실하신 조물주에게 부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 금세 앞에 있는 하나의 마을을 그들이 보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 마을 명칭은 「허영」이었고, 읍내에는 「허영의 저자」라고 불리는 장이 매일 서고 있었다. 이 장이 허영의 저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장이 서는 읍 자체가 허영보다도 더 경박한 곳일 뿐 아니라 이 저자에 물건을 팔려고 오는 사람들이나 사려고 오는 사람들은 모두 허영에 떠 있었고, 상품 전체가 허영이기 때문이었다. 슬기로우신 한 분이 “무릇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역주: 전도서 11:8).

그런데 이 시장은 요즈음 새로 연 것이 아니라 태고 때에 세워진 것인데, 그 내력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 두 정직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향해 가면서 이 길을 택해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오천 년 전에도 이 길로 여행하는 행객이 참으로 많았었다.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술한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본 바알세불과 아폴리온과 레지온의 세 악마와 그들의 동료들이 이 허영의 읍내에다 온갖 허영을 파는 저자를 세워 놓고 연중무휴로 장을 열면 한몫 톡톡히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저자에서 파는 상품으로는 가옥 · 토지 · 직위 · 명예 · 승급 · 귀족 칭호 · 국가 · 왕국 · 치정(寢情) · 향락, 그리고 매음녀 · 투쟁이 · 아내 · 남편 · 어린이 · 주인 · 하인 · 생명 · 피 · 육체 · 영혼 · 은 · 금 · 진주 · 보석 등 온갖 종류의 오락물과 상품이였다. 그뿐 아니라 이 저자에서는 언제나 요술사 · 사기꾼 · 도박꾼 · 연극 · 바보 · 원숭이 · 악한 · 장난꾼 등 온갖 못된 놈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기서는 도둑놈 · 살인자 · 간통하는 자 · 거짓 맹세하는 자 · 피처럼 붉은 얼굴을 가진 자들을 돈 한 톨 안 내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시로 열리는 장터들처럼 이 저자에도 같은 상품을 파는 특별한 골목과 거리로 구획되어 있는 동시에, 여기에는 특유한 이름의 광장이나 골목, 거리가 있어 (이를테면 각 주나 각 왕국) 어떤 특수한 물건을 사려면 그 특수 지대로 가 봐야 그 물건이 열른 눈에 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 골목, 프랑스 골목, 이탈리아 골목, 스페인 골목, 독일 골목 등을 찾아가면 거기서 그 나라의 독특한 여러 가지 허영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저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로마 제국의 생산품인데, 이 로마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국인이 제일 많고 그 밖의 나라 사람들 중에도 더러 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려면 이 욕욕의 상품으로 가득 찬 저자 거리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저자 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딴 길로 들어서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역주: 고린도전서 5:10).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자기 나라인 천국으로 향해 가실 때 이 장터를 지나가시다가 이 저자의 주인인 바알세불이란 마귀를 만나 허영을 사라 는 권고를 받았다. 그 마을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께서 그 마귀의 권고를 존중 하셨던들 그는 이 장터의 주인이 되셨을 것이다. 예수는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 라는 것을 아는 바알세불이 그를 모시고 허영의 저자 이 거리 저 거리를 구경시켜 잡 간 동안에 이 세상의 왕국을 보여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은 예수를 꺾어 허영을 사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그러나 이 허영의 저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신 예수께서는 그런 허영을 사기 위해서는 돈 한 톨 안 쓰고 그냥 그 저자를 떠나가셨다. (역주: 예수가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얘기하는 것임, 누가복음 4:1~13) 그러므로 이 저자는 옛날에 세워져 오랜 기간 유지해 내려온 아주 위대한 장터였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순례자들은 이 저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신의 두 사람도 이 읍에 발을 들여왔다. 그들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읍내 주민 전체가 법석을 떨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 두 순례자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는 아주 달랐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눈여겨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 더러는 이 두 순례자를 바보라고 놀리기도 하고, 더러는 미친놈들이라고 욕도 하고, 더러는 외국 사람이라고 했다.

둘째, 그곳 주민들은 두 순례자의 옷차림을 이상스럽게 볼 뿐 아니라 그들의 말도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순례자들은 물론 가나안(역주: 창세기 12:1~20)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세상 말을 그냥 사용하는 이 저자 주민들은 순례자들의 말을 못 알아듣

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순례자가 이 시장 한 끝으로 들어와서 다른 쪽 끝으로 나갈 때까지 피자 외국인인양 말이 통하지 않았다.

셋째, 두 순례자가 이곳 상품을 경시하여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이 이곳 상인들의 화를 자아냈다. 상인들이 사 달라고 소리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귀를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해 주옵소서(역주: 시편 119:37).” 하고 울부짖으면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그들의 거래는 하늘 나라에서 한다는 의사 표시였다.

두 순례자의 거동을 비웃는 한 상인이, “무엇을 사시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정색하고 그를 노려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 말 때문에 한층 더 멸시를 받게 된 그들은 상인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고 질책도 받았으며, 어떤 자들은 그들을 때려주라고 선동까지 했다. 그러는 동안 저자거리에는 야단법석이 나서 견잡을 수 없는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혼란을 들은 읍장이 급히 나타나 그가 가장 신임하는 친구들을 시켜 어떻게 해서 두 행객이 온 시장을 전복시켰는가 원인을 조사하게 했다. 두 순례자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간 조사관들은 우선 그들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가는 길이며, 그런 별난 옷을 입고 이 읍내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기네는 고향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고국을 향해가는 순례자들인데, 이 읍내에 들어온 이래 주민에게나 상인들에게나 아무런 물의도 일으키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 혹시 기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인이 무엇을 사겠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진리만을 사겠다고 대답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이 행객들이 미친놈이 아니고야 읍내에 그런 소동과 혼란을 일으킬 수 없었으리라고 믿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그들을 민중에게 내주어 매를 맞게 하고 옷에 흙탕 칠을 해 감옥에 가두었다. 옥사에 갇힌 그들은 읍내 주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히영의 저자거리를 보라! 그곳에 간 순례자들을  
돌로 때릴 뿐 아니라 사슬에 묶어 가두어 뒀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저자거리를 지나가셔서

갈보리 산 위에서 돌아가셨다네.

감옥에 갇힌 두 순례자는 얼마 동안 이곳 주민들의 놀림·악의 혹은 복수의 대상이 되었고, 읍장은 그들이 받는 수난을 재미있게 보며 웃기만 했다. 그러나 참을성 많은 순례자들은 옥지거리를 옥으로 갇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고, 옥설을 좋은 말로 대꾸해 주고, 가해자들을 친절히 대우해 주는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 중 남들보다는 좀 더 사리 판단을 할 줄 알고 편견을 덜 가진 사람들은 자중하기 시작하고, 순례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읍내 사람들이 순례자보다 더 악질이라고 분개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다수 주민은 그들을 가리켜 옥중에 갇혀 있는 자들과 꼭 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그들도 공모자인 만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다. 반대로 두 순례자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언행이 온전하고 침착하여 누구나 해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상거래 경험으로 보아 지금 부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두 사람보다도 더 혹독하게 옥에 가두거나 공중 앞에서 칼을 씌워 망신당해 마땅할 악인들이 이 시장에 얼마든지 있다고 대들었다. 두 순례자가 어디까지나 아주 슬기 있고 침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자기네들끼리 두 패로 갈려 서로 욕지거리 하던 주민들은 들어붙어 싸우고 때려 부상자까지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읍내의 최근 소동까지도 두 순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관리들이 두 사람을 옥으로부터 불러내다가 흠뻑 두드려 주고는 쇠사슬로 묶어 읍내 아래위로 조리를 돌렸다. 주민 중 이 두 순례자를 변호하거나 순례에 가담할 자들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본보기로 보이게 위한 것이었다. 조리를 돌리는 동안 크리스천과 신의는 그 수치스러운 욕을 겸손하게 또한 참을성 있는 현명한 태도로 받아들었다. 이런 태도에 주민 중 그들 편을 드는 사람들의 수효가 늘어갔다. (전체 주민 수에 비해 물론 적은 수였지만). 주민 중에 두 순례자 편을 드는 자가 많아지는 데 더 화가 난 관리들은 두 사람을 죽여 버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자 주민을 모욕한 죄와 또 많은 주민을 속여 자기네 편을 만든 죄의 처벌은 감금이나 결박 정도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관리들은 위협했다.



최종적인 명령이 내릴 때까지 도로 옥에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 그들은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 발에 고랑을 쳤다. 감방에 갇혀 있는 그들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전도사가 이 읍에서 어떤 고초를 겪게 되리라고 예언해 준 것을 새삼 회상했다. 고초를 더 많이 겪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더 유리한 만큼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자고 피차 위로하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제가 더 심한 고초를 받기 빌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현명하신 하나님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기로 하고,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관리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당한 날이 오면 두 순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재판을 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관리들은 때가 이르자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 그들을 고발하는 원수들 앞에 세웠다. 재판장의 이름은 「증선(憎善)」이었다. 고발자들의 고발 형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내용은 꼭 같은 것이었다. 고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피고들은 고소인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 영업의 방해자이다. 피의자들은 읍내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주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기 나라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는 가장 위험한 의견을 가진 당파를 만들어 그들과 합세시킨 죄’였다.

신의여, 악한 자들의 원한이나 매를 두려워 말고  
그대가 믿는 하나님을 대변해 말하라!  
진리는 그대 쪽에 있으니 사내답게 용감하게 말하라.  
진리를 위해 죽으라. 그러면 승리의 생명을 얻으리라.

신의가 대답하기 시작했다. 최고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을 자기는 대적했노라고 그는 말했다. 또 나더러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평화를 삶의 신조로 하는 내가 소동을 선동할 리 만무하고, 우리가 우리 쪽 파당을 꾸미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 편을 들게 된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함과 무죄인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만큼, 그들은 오직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네의 왕을 내가 무시했다고 말하지만 당신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사도들에 내가

반향한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자 바알세불 왕을 옹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있는 형사 피고인들을 정죄할 증언을 할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다 나와 증언하라는 영이 내려왔다. 이때 세 명의 증인이 나섰다. 그들의 이름은 ‘질투’·‘미신’·‘아침’이었다. 재판장은 이 세 증인에게 지금 법정에서 있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나서 그들의 왕을 옹호하기 위해 이 죄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다 말하라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질투는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이 사람을 안지는 썩 오래되었습니다. 이 존엄한 공판정에서 저는 맹세하고 바른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판장: “잠깐. 선서부터 먼저 하고.” (그리하여 그는 정리(廷吏) 앞에서 선서했다) 선서하고 난 그는 말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이 그럴듯한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자가 말하는 소위 믿음이니 거룩한 것이니 하는 충성스럽지 못한 사상을 남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왕이건 인간이건 법률이건 풍습이건 모두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중에도 특히 말씀드릴 것은 언젠가 제가 제 귀로 분명히 들었사온데, 이자가 신봉하는 기독교 교리와 풍속은 우리 허영의 저자 그것들과는 정반대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화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입니다. 재판장님, 이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건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비난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까지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 할 말 있소?” 하고 재판장이 질투에게 물었다.

질투: “재판장님, 재판을 지루하게 만들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만 았다면 말할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외에 다른 증인들도 있는 이상, 그들의 증언으로도 이 자를 죽일 증거가 혹시 불충분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더 보충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질투에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했다.

그다음 미신을 불러 세운 재판장은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들의 왕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다 하라고 명했다. 선서하고 난 미신은 증언을 시작했다.

미산: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과 사귀어 본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사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읍에 들어온 며칠 전 잠시 얘기해 본 결과 그는 악질이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자 말이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을 즐겁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님도 통촉하시겠지만, 그자의 말이 만 일 옳다면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허사인데다가 죄는 그냥 범하고 있 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것뿐이올시다.”

그다음엔 아침이 나서서 선서했다. 이 읍내 주민이 섬기는 왕을 옹호하기 위해 피 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라고 재판장이 아침에게 명했다. 아침: “재판장님, 그리고 만장하신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안지 상당히 오래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자는 우리 숭고하신 임 금님인 바알세불을 공연히 욕할 뿐 아니라, 폐하의 영광스러운 친구인 노인(老人) 각하, 음락(淫樂) 각하, 호사(豪奢) 각하, 허영(虛榮) 각하, 호색(好色) 각하, 탐욕 (貪慾) 각하 등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귀족들을 업신여기는 망령된 말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 읍내 주민 전체가 모두 자기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 기만 한다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살지 못하도록 쫓아낼 것이라고까지 극 언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자를 재판하기 위해 우리 상감님이 임명하신 재판 장님까지도 이자는 죄 많은 악한이라고 횡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 밖의 여 러 가지 비방하는 어귀를 써 우리 마을의 수다한 양반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말했다. “변절자요, 이단자 요, 반역자인 이놈아, 정직한 증인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걸 다 잘 들었느냐?”

신의: “내 자신의 변호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 “이 자식 좀 봐. 넌 더 달려둘 수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죽여 마땅한 놈이 야. 하지만 우리가 너 같은 놈에게도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더러운 변 절자의 말이라도 들어보기로 한다. 자, 말해 봐.”

신의: “첫째, 질투가 말한 데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떤 규칙이

나, 법률이나, 풍속이나, 인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기독교 교리와는 절대 상반되는 것이라는 말을 했을 따름입니다. 내 말에 틀린 점이 혹 있다면 나를 납득시킬 만한 잘못을 깨우쳐 주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들 앞에 내 말을 취소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신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해서는 단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신성한 묵시 없이 신성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만큼 신성한 묵시에 기꺼이 응하지 않고 억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은, 신성한 묵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영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셋째, 아침이 말한 데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나더러 욕을 한다니 어떻게든 자꾸들 그러니 적당치 않은 용어는 쓰지 않도록 하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 선생이 말하는 이 마을 왕과 그의 시종들 등 어중이떠중이는 이 나라나 또는 이 마을에 살 자격이 없고 지옥에 가서 살아야만 될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배심원들은 대기하면서 재판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아주 커다란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덕이 높은 신사들이 이 피고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자기 변호와 자백도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교수대로 보내느냐, 그렇잖으면 살려주느냐 하는 판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 법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임금님의 신하들 중 하나인 바로 왕이 제정한 법령에 의하면, 우리의 고위 종교와 반대되는 판 종교 신앙자 수가 번식하고 자라나 너무 강해지는 때, 그 이단교도들 간에 탄생한 사내 자식들은 모두 강에 던져 죽이기로 되어있습니다(역주: 출애굽기 1:1~22). 그다음 역시 우리 임금님의 신하들 중 하나인 느부갓네살 대왕의 치세 중,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그가 금을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타 죽게 하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역주: 다니엘 3:6). 그다음 다리우스 왕 때의 법령을 보면, 어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역주: 다니엘 6:7). 그런데 지금 이 반역자인 피고는 그런 여러 가지 법령의 취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거역하는 것도 물론 용서할 수 없지만) 말과 행동으로 법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옛날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그런 범죄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미연방지책으로 그런 사태를 가정하고 제정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자의 범죄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의 법령들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가 우리의 종교에 반항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고, 반역죄는 그가 자백한 만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배심원들은 퇴정했다. 그들의 이름은 맹인 씨, 무사 씨, 악의 씨, 호색 씨, 방탕 씨, 성급 씨, 오만 씨, 승악 씨, 거짓말쟁이 씨, 잔인 씨, 광명혐악 씨, 무자비 씨 등인데, 제각기 마음속에 유죄 판결에 투표할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결정짓고 재판장에게 보고했다.

배심원 원장인 맹인 씨가 맨 먼저, “이 사람은 사교도임이 분명하다고 나는 봅니다.” 하고 말하자, 곧 이에 무사 씨가 “이런 놈은 세상 밖으로 내쫓읍시다.” 하고 말했다. 악의 씨는, “그렇지요, 추방해 버립시다. 그자 상판대기도 나는 보기 싫소.” 하고 말했다. 호색 씨가, “그자 언동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참을 수가 없었소.” 하고 말하자, 방탕 씨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자는 내 행동을 언제나 무조건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성급 씨는, “교수형에 처합시다, 교수형.” 하고 말했다. 오만 씨는, “불쌍한 놈팡이”라고 말했다. 증오 씨는, “그놈 보기만 해도 적개심이 끓어오릅니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쟁이 씨는, “그놈은 사기꾼입니다.”라고 말했다. 잔인 씨는, “그런 놈은 목매 죽이는 것도 오히려 경한 형벌이지요.”라고 말했다. 광명혐오 씨는, “그놈 어서 죽여 없애시다.” 하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 씨가, “이 세상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놈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립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신의는 법정에서 끌려 나가 이전 있었던 감옥으로 이송되고 거기서 새로 발명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들의 법률대로 처형하려 드는 그들은 먼저 신의의 몸에 몽둥이 매질을 가하고, 그다음 손으로 때리고, 그다음 그의 피부를 칼로 찌르고, 그다음 돌로 때리고, 그다음 환도로 난도질을 하고나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에 태워 재가 되도록 버려두었다. 이렇게 신의의 목숨은 종말을 고했다. 그런데 그 군중 뒤에 쌍두마차 한 대가 신의를 태워가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나는 봤다. 그의 환난이 끝나자마자 그를 태운 마차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가르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나라 문에 다다른 지름길이였다.

용감한 신의 그대의 언행은 용감하였도다.

재판장과 증인들과 배심원은 그대를 이기는 데 실패하고

도리어 광란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은 뒤에도 그대만은 영원토록 살리라.

신의의 사형 집행은 즉각 실시되었으나 집행 연기가 허락된 크리스천은 감옥으로 돌아와 갇혔다. 그는 감방 안에 한동안 감금되어 있었으나 세상 만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관리들의 광란을 억제했으므로 크리스천은 탈옥할 수 있게 되었다. 길을 다시 떠난 그는 아래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었다.

장하도다. 신의여,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그대는 공공연히 잘도 선포했도다.

허망한 이승의 희열 때문에 지옥에 빠진 불신자들이

지옥의 고통에 울부짖을 때

찬송할지어다. 신의여, 찬송하라,

그들이 그대를 죽였다고 하지만  
그대는 그냥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니  
그대의 이름 영세토록 남으리.

크리스천이 혼자 가지 않고 어떤 동행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 사람의 이름은 「희망」인데 (허영의 저자에서 크리스천과 신의가 지극한 곤고를 용감한 언행으로 이겨내는 것을 목도하고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은 것임) 크리스천에게로 가까이 간 그는 형제 언약을 맺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진리를 증언하다가 불타 죽은 한 사람의 재로부터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에 동조하게 된 것이었다. 허영의 저자 주민 중 많은 사람이 조만간 순례에 따라 나설 것이라고 희망이 크리스천에게 알려주었다.

그들 둘이 빨리 허영의 저자 경계선을 벗어나오자 그들보다 앞서 가는 사람 하나를 따라잡는 것을 나는 봤다. 앞서 가는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크리스천과 희망이 사심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며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사심은 자기 고향은 「교언(巧言)」이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교언에서 오신다고요. 그곳 주민으로도 착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하고 크리스천이 말했다.

사심: “글쎄요. 말하기 거북한데요.”

크리스천: “선생님 성함이 무엇이지요?”

사심: “나나 당신 둘이 다 지금 초면이지만 당신도 이 길로 가신다면 나도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드릴 거고, 딴 길로 가신다면 나 혼자만 가도 무방합니다.”

크리스천: “교언이란 곳은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한 부자촌이라면서요.”

사심: “그렇습니다. 사실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척 중에도 큰 부자가 참 많지요.”

크리스천: “실례올시다만 당신 친척들은 대개 누구입니까?”

사심: “마을 주민 거의 전체가 다 내 친척이지요. 그중에도 특히 우리 영합(迎合)

경, 우리 기회주의자 경, 우리 교언(巧言) 경(이 어른의 조상 성을 따서 우리 마을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팔방미인 씨, 표리부동 씨, 무관심 씨,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목사로 일을 보시는 거짓말쟁이 씨는 바로 나의 외삼촌이시지요. 그리고 사실 말이지 지금 나는 당당한 신사가 됐지만 증조부님께서는 본디 뱃사공이었습시다. 증조부께서 배를 저으실 때 한눈을 팔면서도 배를 저어 돈을 모으셨지요. 그래서 내가 유산으로 받은 재산 거의 다그런 직업으로 번 재산일겁니다.”

크리스천: “결혼하셨소?”

사심: “예. 매우 현숙한 어머니의 딸인 내 아내는 매우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허위 마님의 딸인 만큼 명문거족(名門巨族)의 후예에 틀림없고, 게다가 최고의 교양과 예의범절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높게는 왕자와 귀족, 낮게는 농부에게까지 예의 방정한 태도로 대하여 교양을 보급시키고 있지요. 종교 신앙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점은 두 가지 뿐, 그것도 아주 근소한 것입니다. 첫째 차이점이 무엇이나 하면 우리는 시대사조에 역행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장 열심히 믿고, 명랑한 날 만인이 종교를 찬양할 때 종교와 함께 거리거리로 돌아다니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희망에게로 가까이 간 크리스천은 말했다. “저기 저자는 교언이란 마을에서 오는 사심에 틀림없다고 내게는 생각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됐군요.” 그때 희망이 말했다. “그럼 그자 이름을 물어보시지요. 제 이름이 부끄럽다고 숨길 자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심에게로 도로 간 크리스천이 사심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 말씀을 들으면 당신이 세상만사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내 추측이 과히 틀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누군지 얼추 짐작은 갑니다. 교언에서 오신 사심 선생이 아니십니까?”

사심: “그게 내 정말 이름은 아니고요, 나와 우정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어 부르는 별명이지요. 별명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착한 분들이 별명으로 불리는 데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걸 치욕으로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지요.”



크리스천: “남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 부르도록 만든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심: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내게 이런 별명을 그들이 지어 주도록 나쁜 일을 만 일 내가 했다면 그건 언제나 현실을 빨리 판단하는 재주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 임기응변으로 이득을 남들보다 더 본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재주를 가지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일 따름이지 내가 무슨 악의를 품고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비난이나 질책을 받을 건터기는 절대 아니지요.”

크리스천: “내가 이전부터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던 분이 혹시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당신이 분명 그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이야 좋아하건 말건 우리가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내게는 생각됩니다.”

사심: “글쎄요. 당신이 꼭 그렇게 상상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나 하고 좀 사귀어 보면 꽤 좋은 벗이 될 수 있을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크리스천: “만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역경을 돌파하며 전진해야 되는 데, 그런 고생을 당신은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는군요. 그뿐 아니라 종교를 참으로 믿으려면 종교가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거나,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거나 가리지 않고 줄곧 믿어야 하며, 종교가 환영을 받으며 대로를 활보할 때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을 때에도 믿어야 됩니다.”

사심: “내 신앙에 대해서 당신이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를 구속하려 들지 말고 함께 길이나 갑시다.”

크리스천: “내 제의에 좇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심이 말했다. “내가 가진 고유의 원리가 무해할 뿐 아니라 유리한 것인 만큼 나로서는 그걸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동행하기 싫으면 그만 두세요. 아까처럼 혼자 건다가 누구건 날 따라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즐겁게 동행하지요.”

사심을 뒤로 떨어뜨리고 크리스천과 희망 둘이서 앞서 걸어가는 것을 나는 꿈에서 봤다. 그러나 한 사람이 뒤를 돌아다보니 세 사람이 사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 셋이 따라잡자 사심은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고 그들도 절로 답례하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물욕(物慾)」 씨, 「애전(愛錢)」 씨, 「구두쇠」 씨였다.

이 세 사람과 사심은 어렸을 때부터 사귄 절친한 벗들이었다. 북방에 위치한 「탐욕도(貪慾道)」 내의 상업 도시인 「애리(愛利)」 마을에 있는 소학교 동창들로 「불평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선생 아래 수학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폭력 행사건, 사기 횡령이건, 아첨이건, 속임수건, 심지어는 종교의 탈을 써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교육을 받은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선생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과 기술까지 넷이 다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교육을 베푸는 학교를 제각기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의 소유자들이었다. 내가 아까 말한 바처럼 그들 넷이 인사를 교환하고 나자 애전 씨가 사심 씨에게 말을 걸었다. “앞서가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천과 희망은 이때까지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사심: “어디 먼 고향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고집대로 순례의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애전: “그저 참, 그들도 우리도 그리고 당신까지도 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참인데, 그들이 좀 기다려 우리와 동행했으면 얼마나 유쾌한 여행이 되었겠는지, 왜 그걸 몰라?”

사심: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서 가는 저 사람들은 너무나 강직할 뿐 아니라 자기네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경시하여,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난관을 그들처럼 뛰어넘지 않는 한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패입니다.”

구두쇠: “그건 좋지 않은 성미입니다. 의(義)를 너무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역주: 전도서 7:16)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읽었거니와, 너무나 강직한 사람들은 인물 판단에 자기들 기준을 고집하여, 그들보다 덜 강직한 인간들은 모두 정죄해 버리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몇 가지 사건에 얼마만큼의 견해 차이가 그들과 당신 사이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심: “그들은 자기네 고집대로 풍우설한(風雨雪寒) 다 무릅쓰고 여행을 강행해야 한다고 우기는 데 반해, 나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여행하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단숨에라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데 반해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하여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드는 것이 또 하

나의 차이점이지요. 종교 신앙에 있어서도 남들이 모두 다 그들의 종교관을 반대할 때에도 그들은 자기네 주관을 고집하는 데 반해 나는 시대 조류에 적응하면서 내 신앙 안전을 보장하는 종교관을 내세우지요. 종교가 누더기를 입고 일반의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들은 종교를 옹호하는 데 반해 나는 종교가 비단옷을 입고 만인의 환호를 받으면서 쾌청한 날 길을 걸을 때에만 종교 편을 들지요.”

물욕: “사심 형, 형은 형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간직할 자유를 가지고도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는 현명치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규정짓고 싶어요. 성경 말씀 중에도 지혜는 뱀같이 가지라는 대목이 있으니, 우리는 뱀처럼 현명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속담도 우리는 명심합시다. 벌의 행동을 참고 해 봅시다. 겨우내 가만히 놓고 있다가 봄이 와야만 움직이기 시작하여 유쾌한 기분으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내려 주시고 때로는 청명한 날씨를 점치해 주시는데, 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도 강행하는 바보들이라면 우리 그들에 동조하지 말고 청명한 날만 골라 행동하는 데 만족합시다.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착하신 은총의 안전 지대에 서서 종교를 믿는 것이 상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승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간직하라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솔로몬 왕이 종교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고, 욥은 착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진토처럼 간직해 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가는 저 두 사람에 대한 형의 묘사가 정확하다면 욥은 그 사람들과는 판판으로 다른 사람이지요.”

구두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되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도리도 믿지 않는 자(우리는 두 가지 다 믿고 있지만)는 자신의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도 찾지 못하는 자이니깐요.”

사심: “형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순례 도중에 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를

물리치고 기분 좋은 얘기로 무료를 끄기 위해 나에게 한 가지 문제 제안을 하게 해주세요. 가령 이승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어떤 한 사람, 예를 들면 목사나 상인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행복을 차지하는 수단 방법으로 그가 과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종교의 어떤 요점에, 적어도 외양만으로도 비상한 열성을 표시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 그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해도 올바르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애전: “당신이 제시한 문제의 핵심을 나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떤 형식의 대답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목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 훌륭한 목사 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놓고, 그가 받는 봉급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현재의 봉급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욕심을 낸다 합시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 자주 열렬하게 하며, 사람들의 변하는 기질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가 고집해 오던 주의 주장들도 더러 수정하거나, 아니 그보다도 더 애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사명에 충실한 이상) 그를 정직치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수를 더 받고 싶어 하는 그의 심정은 합법적(비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으니까)인 동시에 신의 섭리인 만큼 가능한 한 소득을 더 얻는 것이 비양심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보수를 더 받고 싶은 욕심이 그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 주어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개선된 교직자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일입니다.

셋째, 그다음 사람들의 변덕에 따르는 봉사를 하기 위해 자기 주의 주장과 원칙들을 배반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첫째 그의 성질이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둘째로 애교가 있고 사람을 이끄는 힘을 그가 가진 것을 보여주며, 셋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사의 직책을 맡기에 더 적격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을 보기

시작한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 그 자체를 탐욕스런 행동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을 개선시키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인정하여 직무 수행을 더 잘하는 동시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에 도리어 찬사를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당신이 언급한 바 상인에 대한 문제에 대답하지요. 본디 가난하던 한 상인이 종교를 믿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들을 자기 상점으로 끌 수 있게 되는 것을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떤 수단을 위해서건 종교를 믿게 되면 믿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덕행입니다.

둘째, 돈 많은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이나 자기 상점으로 더 많은 고객을 끄는 것은 하등 비합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셋째, 그뿐 아니라 종교를 믿어 그런 좋은 것들을 얻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니 좋고, 그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니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인 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좋은 아내를 얻으니 좋고, 좋은 고객들을 많이 끄니 좋고, 많은 이득을 보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고 이로운 계획 달성을 위해 종교를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심 씨의 물음에 대한 애전 씨의 이런 대답이 그들 전체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를 믿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 결론이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천지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소리 질러 부르면 넉넉히 들을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희망을 따라잡아 공박하기로 작정했다. 앞서 가는 그들이 조금 전 사심 씨의 말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데 중론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가는 두 사람을 향해 좀 기다려 동행하자고 그들은 소리 질렀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빨리 걸어오는 그들은 사심 씨를 시켜 두 사람과의 논쟁을 다시 벌이도록 하지 말고 물욕 씨가 나서서 따지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사심과 두

사람이 작별할 때 그들 간에는 적개심이 발발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때 사심이 같은 화제를 꺼내면 냉정하고 공정한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두 사람 곁으로 오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즉시 물욕 씨가 예의 문제를 크리스천과 희망에게 제시하면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따졌다.

크리스천: “종교 생활을 하는 인간이면 삼척동자라도 그런 문제는 만 개라도 대답할 수 있을 거요. 단지 밥을 얻어먹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역주: 요한복음 6:26~7) 이승의 쾌락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종교를 사냥말(역주: 사냥꾼이 짐승에게 가까이 갈 때 몸을 숨기려고 사용하는 말 또는 말 모양의 물체)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더 밍살스런 일이겠소! 그런 주견(主見)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이단자·위선자·악마·요부 등 뿐입니다.

첫째,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단자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요. 옛날 하물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탐을 냈으나, 그들에게 접근하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알게 되자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 밖에 짐승들 모두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했지요(역주: 창세기 34:22~23). 야곱의 딸과 가축을 노리는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사냥말로 내세웠단 말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소. 성경을 펴 그 대목 전장을 읽어 보시오.

둘째, 선지자들인 바리새 교인 역시 종교를 악용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드리는 긴 기도는 겉치레에 불과했고, 궁극적인 목적은 과부의 집을 빼앗아 가지는 데 있었지요(역주: 누가복음 20:46~7). 그런데 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죄 판결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 더 중했지요.

셋째, 악마 유다 또한 이런 유의 종교 악용자였지요. 그자가 종교를 믿은 동기는 돈이 들어 있는 돈주머니 소유욕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자아를 상실하고,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지요(역주: 마태복음 27:3~5).

넷째, 마귀같이 악한 시몬 역시 종교를 악용하려 든 자였지요. 돈을 주고 성령

의 권능을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저주 받았으니까요(역주: 사도행전 8:18~20).

다섯 째,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승의 재물을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또한 이승의 재물을 위해서 종교를 버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같은 사람은 분명히 이승의 재물이 탐나 종교를 믿었다가 또한 분명히 이승의 재물을 위해 종교와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게 된 것이지요. 그런 만큼 당신의 말처럼 그런 식의 종교를 믿는 것도 옳다고 시인하는 대답을 하거나, 그런 대답의 신빙성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이단자의 망상이요, 위선이요, 악마나 할 생각일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자는 소행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서 있을 따름으로 크리스천의 말을 뭐라고 반박할지 몰라 잠잠했다. 희망만은 크리스천의 대답의 확실성을 시인하노라고 말했다. 오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잠잠할 뿐 아니라 크리스천과 희망이 앞서 가기를 바라는 사심 씨 일행은 뒤로 떨어지려고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걸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동료에게 말했다. “인간의 선고에 맞서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고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소? 질그릇 밖에 더 안 되는 나같은 사람의 말도 반박 못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삼켜 태우는 불의 책망을 받을 때 어떤 꼴이 되겠소?”

사심 씨 일행보다 훨씬 앞서 걸어가던 크리스천과 희망은 ‘안일’이라고 불리는 유쾌한 평야에 다다랐다. 평탄하고 아름다운 평야를 편하게 걸었지만 상당히 좁은 평야였기 때문에 금세 지나가고 말았다. 이 평야 저편 쪽 끄트머리에는 ‘탐욕’이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는 은광이 있었다. 은은 희귀한 귀금속이었으므로 이전에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은광을 구경하려고 발길을 돌려 광갱(鑛坑) 가장자리까지 너무 가까이 갔다가 발 디딘 땅이 꺼져 빠져 죽은 사람이 많고,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어 평생 불구자로 여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다. 은광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꺾는 ‘데마스’라는(신사처럼 차린)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데마스가 크리스천과 그의 동행자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보여 드릴 것이 있으

니.”

크리스천: “무슨 물건이기에 가던 길을 떠나서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까?”

데마스: “이 위에 은광이 있고 은을 캐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당신네도 그리 가면 일을 별로 앓고도 큰 재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희망: “그리 가 봅시다 그려.”

크리스천: “아니요, 난 안 가 보겠어요.”

그는 말을 이었다. “이전부터 이 광산 얘기를 나는 듣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광  
쟁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재물은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하는 함정입니  
다. 그다음 크리스천은 데마스에게 말했다.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술한 순례  
자들의 여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데마스: “조심만 하면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얼굴  
을 붉히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이 희망에게 말했다. “저쪽으로는 한 걸음도 내밀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그  
냥 가기로 합시다.”

희망: “사십이 여기까지 온 때 지금 우리처럼 저쪽으로 오라는 초대를 받게 되는  
경우 그쪽으로 가 보려고 걸음을 돌릴 것은 뻔한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천: “그자가 가진 주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  
지요. 그러나 그리로 가면 십상팔구(十常八九) 죽고 말 것입니다.”

이때 데마스가 두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이리 올라와 구경하지 않으렵니  
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노골적으로 말했다. “여보시오, 데마스 씨. 당신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길 주인의 원수로군요. 당신 자신이 이미 바른 길을 벗어나 판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재판관들의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  
람인데, 우리들까지 당신처럼 유죄 판결을 받을 잘못을 저지르기를 노리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  
면 그는 틀림없이 우리 비행을 아시게 될 거요. 그렇게 되면 장차 그이 앞에 담대  
하게 서야 할 우리를 수치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데마스는 다시 소리 질러 자기도 순례자들 중의 하나이니만큼 잠시 기다려 주면 동행하겠노라고 말했다.

이때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데마스가 당신 이름이 아닙니까?”

데마스: “예,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데마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천: “그러니 내가 당신을 알고 있어요.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요, 아버지는 유대인데, 당신은 그들 선조가 걸어온 길을 그냥 밟아왔지요. 당신의 행위는 악마 같은 장난에 불과하지요.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 몰려 목매달려 죽었는데, 당신도 아버지보다 나은 대우는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의 지금 행동을 사실대로 꼭 고해바칠 테니 그리 아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크리스천과 희망은 제 갈 길을 다시 갔다.

이때 다시 시야에 나타난 사심의 일행은 데마스의 한 마디 꼬임에 혹해 은광으로 물려갔다. 그들이 광갱 가장자리에 서서 구덩이를 내려다보다가, 선 자리 땅이 무너져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는지, 은을 캐려고 내려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 새 없이 발산되는 독기에 숨이 막혀 죽었는지, 어찌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들이 길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만은 내 눈으로 확실히 봤다. 이때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

사심과 데마스 두 사람은 의기 상통하여  
탐욕을 나누어 가지자고 한 자가 부르니  
다른 자 줄달음쳐 갔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할 뿐,  
천국 향해 가는 길에서 영영 떠나가 버렸네.

평원 바로 이쪽 큰 길가에 아주 오래된 비석 한 개가 서 있는 곳까지 두 순례자가 다다른 것을 나는 봤다. 이 비석처럼 생긴 물건 모양이 하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 한 여자가 기둥으로 변모된 것처럼 보이

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 서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으나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희망이 이 기둥머리에 무슨 글이 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문체로 쓴 글인데, 언어학자가 아닌 희망이 그 글을 풀어 볼 수 없어 크리스천(그는 글을 알기 때문에)에게 풀어보라고 했다. 이 글자 저 글자 한동안 맞추어 보던 크리스천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뜻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는 동행자에게 그 글의 뜻을 읽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기둥같은 물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임박한 소돔 마을을 떠나 안전지대로 가던 롯의 아내가 집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을 못 이겨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된 유적임을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역주: 창세기 19:26). 뜻밖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그들은 아래와 같은 얘기를 주고받았다.

크리스천: “아, 노형! 참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이걸 보게 됐군요. 탐욕의 은광 구경을 하라고 데마스가 꼬일 때 당신이 가 보고 싶어 한 대로 우리가 만일 갔더라면 우리도 여기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 있어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니 참 아슬아슬했군요.”

희망: “제가 어리석었던 걸 후회합니다. 하마터면 롯의 아내 꼴이 되었겠는데, 모면한 것이 기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죄와 내가 지은 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봤을 따름이었고, 저는 가 보고 싶어 했으니. 신의 은총에 감격하여 마지않으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깃들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크리스천: “장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을 명심합시다. 소돔의 멸망 틈바구니에는 끼지 않았으니 이 여인은 한 가지 심판은 모면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형벌을 받았으니까요.”

희망: “바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둘의 경고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그녀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범하기를 극력 피해야 할 것이요, 이 경계심으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내린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외 이백 오십 명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몰살당한 것 역시 후세 사람들을 경고하는 귀감과 예가 되는

것입니다(역주: 민수기 26:9~10).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있어요. 무엇이나 하면, 재물을 탐내는 한 여인이 단지 한 번 뒤를 돌아다본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가 분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가지 않고 돌아다보기만 했는데) 죄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눈만 쳐들면 소금 기둥이 눈에 띄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데마스와 그의 동료들이 어찌면 그렇게 태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은광에 있는 재물을 노리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재물을 탐내는 데 결사적이 되어 감각이 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 행위를 무엇에 비교하면 적합할까요. 재판정 안 판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매치기하는 패나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찢는 패와 같다고나 할까요. 소돔 주민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악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역주: 창세기 13:13).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께서 그 때까지 소돔 성을 에데 동산처럼 좋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던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커서 하늘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의 형벌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하나님 목전에서까지 죄를 범하는 자들, 그리고 귀감이 될 실례들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 두고 죄 지으면 저 꼴이 된다는 경고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형벌의 대상이 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희망: “바른 말씀하시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중에 저 같은 놈까지, 이런 유의 예가 되지 않고 무사하게 됐다는 것은 지대한 하나님의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의 앞에 항상 두려워하며, 롯의 아내의 경우를 언제나 기억하게 해 줄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 그들이 상쾌한 강가에 다다른 것을 나는 봤다. 이 강을 가리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강」(역주: 시편 65:9)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강가에 면해 있었으므로 크리스천과 희망은 아주 즐겁게 여

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강물을 마시니 피곤한 심신에 생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강 좌우 쪽 강변에는 여러 가지 푸른 과수들이 서 있어 과실은 그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나뭇잎들은 좋은 약초가 되어 그것을 먹으면 식상(食傷)이 예방되기도 하고, 오랜 여행에 지친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해 주는 것이었다. 양쪽 강변에는 초원이 있어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백합화가 사시장철 만개되어 있고, 초원도 사시장춘이었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한잠 잘 수 있는 이 초원을 발견한 그들은 마음 놓고 풀밭에 누워 한잠 잘 잤다. 잠이 깨자 과실을 따먹고 강물을 마신 후 다시 누워 잤다. 이렇게 며칠 밤낮을 쉬고 즐긴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보라, 순례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이 큰 길가로 수정처럼 맑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푸른 초원은 향내를 풍길 뿐 아니라  
순례자들을 먹이려고 맛있는 과실까지 산출해 주는구나.  
이 나무들이 산출하는 청신한 과일과 잎사귀에  
맛을 한번 들인 사람이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전원(田園)을 살 것이다.

다시 길을 떠날 마음을 먹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 못 했으므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는 길을 떠났다.

그들이 얼마 멀리 안 간 곳에서 당분간 길이 강에서 멀어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걷는 것을 그들은 몹시 섭섭해 하기는 하면서도 길을 벗어나 딴 길로 갈 엄두는 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강에서 떨어져 나온 이 길은 몹시 울퉁불퉁한 데다 오랜 여행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발로 길을 걷자니 ‘이 순례자들의 마음은 길로 인하여 몹시 상했다(역주: 민수기 21:4).’ 그랬기 때문에 험한 길을 그냥 가기는 하면서 좀 평탄한 길이 나타났으면 하고 그들은 바랐다. 그러자 바로 그들의 앞길 왼쪽에 목장이 나타나고, 그 목장을 둘러친 울타리 한쪽에 층계

가 있었다. 이 목장의 이름은 「삿길」 목장이었다. 크리스천이 동행자에게 말했다. “이 목장이 우리가 가는 길과 나란히 뻗었다면 그리로 들어가서 걷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목장 안을 들여다보려고 층계까지 간 그는 울타리 바로 안에 바깥 큰 길과 평행해 뻗은 소로를 봤다. 크리스천은 말했다. “내가 바라던 그대로군요. 가장 평탄한 길이 이 안에 있으니 우리 들어가 그 길로 걸읍시다, 희망 씨.”

희망: “하지만 그 길로 들어섰다가 혹시 정로(正路)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크리스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저 소로(小路)가 이 큰 길과 평행해 뻗어 있지 않소?”

동행자에게 설득된 희망은 뒤따라 층계를 넘어갔다. 층계를 넘어 울타리 안 소로에 발을 들여놓자 발이 가볍도록 길이 평탄한 것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를 봤다. 앞서 가는 사람의 이름은 「허신(虛信)」이었다. 이 소로가 어디로 가는 길이나고 그들은 큰 소리로 앞서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허신: “천국 대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 “거보시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말로 보아 우리가 길을 옳게 택했소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허신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금세 밤이 되어 캄캄하게 어두워졌으므로 그들은 앞서가는 사람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순례자들은 지금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켰도다.

그러나, 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비탄의 구렁이로 몸을 던졌으니,

육체를 기쁘게 해주는 자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을 망쳐 버리는 것이로다.

앞서 걸어가던 사람(허신이란 이름을 가진 사나이)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

은 구렁에 풍덩 빠져버렸다. 이 구렁은 허영에 뜬 바보들이 빠지라고 이 목장 주인이 일부러 파놓은 구렁이었다. 거기 빠진 허신의 몸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 허신이 빠지는 소리를 크리스천과 희망은 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그들이 소리 질러 물었으나 대답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단지 신음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때 희망이 말했다. “지금 우린 어디 있는 거요?” 정로를 떠나 길을 잘못 인도했나보다고 자책을 느끼는 크리스천은 잠잠했다.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금세 무서운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뇌성벽력이 귀청을 때리며 대단한 물이 불어 올랐다.

그러자 신음 소리를 내는 희망은, “아, 정로를 그냥 지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탄식했다.

크리스천: “이 소로가 정로에서 멀리 떨어질 줄 누가 예측했겠소?”

희망: “처음부터 난 그걸 염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주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좀 더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했을 것을. 그래도 형님이 저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만.”

크리스천: “착한 아우님, 너무 책망하지 말아 주시오. 정로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당신을 이런 절박한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것 참 미안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무슨 악의를 품고 한 일은 아니니.”

희망: “용서해 드리니 안심하세요, 형님.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크리스천: “인자한 형제와 함께 있게 된 것 참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멍청히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되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희망: “그러지요, 형님. 그럼 제가 앞서 가지요.”

크리스천: “아닙니다. 내가 앞서야지요. 나 때문에 정로를 떠나 당신까지 이 지경에 빠졌으니 만일 어떤 위험이라도 있다면 내가 먼저 당해야 마땅하니까요.”

희망: “아닙니다. 형님이 앞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산란한 당신이 또다시 길을 잘못 들기 쉬우니까요.”

이때 마치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나 하려는 듯이 “길을 다시 잘못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을 정로로 향하라(역주: 예레미야 31:21).” 하는 목소리를 그들은 들었다. 그러나 어느새 물이 너무 불어서 돌아가기가 무척 위험하게 되었다. (정로로 가다가 결길로 빠져나가기는 쉬우나 결길로 나갔다가 정로로 도로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이때 내게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가는 위험을 강행했다. 그러나 밤이 너무 어둡고 홍수 사태가 나서 그냥 돌아가다가는 물에 빠져죽기가 십상팔구(十常八九)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재주를 피워도 그날 밤 안에 올타리 층계까지 돌아가는 것만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마침내 작은 한 안식처를 발견한 그들은 그 아래 앉아 쉬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친 그들은 그만 잠들고 말았다.

그들이 누워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혹의 성」이라고 불리는 성곽이 있었는데, 이 성의 주인은 「절망의 거인」이었다. 이 절망의 거인 영지 내에 지금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지 이곳저곳을 살피며 다니던 성주가 자기 영지 내에서 크리스천과 희망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납고 거친 목소리로 그들의 잠을 깨운 성주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며, 이 영지 내에 무엇을 하러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다. 자기네는 순례자로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성 주인 거인은 말했다. “어젯밤 당신들은 내 영토 안에 무단 침입하여 내 땅을 짓밟고 다니다가 누워 잠까지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 해.”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더 셸으므로 그들은 억지로 끌려갔다. 그들은 자기네가 잘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뭐라고 변명할 말도 없었다. 그들을 몰고 성까지 간 거인은 그들을 아주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가두었다. 이 지하실은 더럽기 짝이 없고 고약한 냄새가 나 그들에게는 큰 고역이었다. 식빵 한 조각 못 먹고 물 한 방울 못 마시며, 어떻게 된 셈인지 물어볼 사람 하나 없이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독한 곤경에 처해, 친구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런 곤고 속에서 크리스천은 희망에 비해 배나 더 큰 고민에 잠겼다. 자기의 경솔한 소견 때문에 자기 뿐 아니라 희망까지도 고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절망의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시기」였다. 잠자리에 들자 거인은 그날 생긴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즉 자

기 영토 내에 불법 침입한 두 사람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얘기가 었다. 그리고는 그자들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을까를 아내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 자들인가 하고 물었다. 그는 사실대로 아내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에게 권고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자들을 무자비하게 마구 때려 주라는 권고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 곧 굶직한 능금나무 몽둥이 한 개를 들고 지하실 감방으로 내려가 두 사람이 아무 불평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개(犬) 꾸짖듯 욕을 퍼부었다. 욕을 하고나서는 달려들어 얼마나 지독하게 매질을 했던지 두 사람은 운신할 수도 없어 방바닥에 누운 채 몸을 뒤칠 수도 없었다. 이렇게 흠씬 때리고 난 거인은 매 맞은 두 사람이 자기네끼리 괴로움을 슬퍼하고 불행을 한탄하라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 둘은 한숨과 쓰라린 비판만으로 온종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남편과 얘기하던 끝에 옥에 가둔 두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아내는 그들에게 자살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進言)했다. 아침이 되자 이전과 같이 험악한 표정을 띠고 그들에게로 간 거인은 어제 매 맞은 자리가 쓰라려서 고생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죽기 전에는 석방되지 못할 것이니 각오하고 칼로 찢러 자살하거나, 목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자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해 주었다.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만 더 겪을 것이 뻔한데 삶을 택할 필요가 어디 있나?”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석방해 달라고 그에게 빌었다. 이 말에 화가 난 그는 자기 손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만일 그에게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던들(헛별이 짹 짹 나는 날이면 그는 가끔 경련에 걸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손에 타살당했을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경련에 걸린 그의 손이 쓸모없게 되자 그냥 물러나가는 거인은 그들더러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의 말대로 자살해 버리는 것이 상책일까 아닐까를 서로 의논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크리스천: “아우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이 속에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겠소. 나로선 결정짓기 힘든 문제군요. 이런 생



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숨 막혀 죽어 버리는 걸 택할 생각이오만(역주: 욥기 7:15).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이 이 지하실에 사는 것보다 편안할 것 같소. 이곳 거인의 지배 하에서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소?”

희망: “지금 이런 생활은 정말 진절머리 나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런 고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지요. 하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고장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자면 남의 목숨을 살해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거인이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엄하게 금지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뿐 아니라 살인하는 경우에는 육체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살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형님. 무덤 속이 편안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살인자들이 반드시 가는 지옥은 잊어버리셨나요?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모든 법률이 절망의 거인 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여기 감금되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인의 손을 벗어나 탈출했으리라고 내게는 생각됩니다. 절망의 거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이 거인의 운명을 알 자가 누구니까? 그자가 혹시 옥문 잠그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우리 앞에서 그가 경련을 다시 일으켜 수족을 쓰지 못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경련이 그에게 다시 엄습할 때가 있다면 그때엔 내가 사내답게 용기를 내고 전력을 다해 그자 손아귀에서 내 몸을 빼내도록 최선을 다해 볼 결심입니다. 지난 번 그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 도망갈 엄두를 못낸 것은 바보천치 짓이었고 후회막급합니다만, 형님, 우리 좀 더 참고 한 동안 기다려 봅시다. 다행히 석방되어 나가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니 자살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희망이 이런 말로 당장만이라도 크리스천의 마음을 완화시켜 그날 종일 (어둠 속에) 슬프고도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때가 거의 되자 수인(囚人)들이 자기 말을 받아들여 자살했나 안 했나 보려고 거인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살아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몸에 매 맞은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들인지라, 숨이 겨우 붙어 있는 정도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숨을 아직 쉬고 있는 그들을 본 거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죄로 받을 형벌은 그들이 세상에 애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될 만큼 아주 지독할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다.

이 말에 그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은 기절한 것 같이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신을 다시 차린 그는 동료와 더불어 거인의 권고에 응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다시 의논했다. 자살하는 것이 상책이나 아니냐를 논하던 끝에 크리스천은 한 번 더 차라리 자살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은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희망: “형님, 이때까지 형님이 다시없이 용감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폴리온이란 악마도 형님을 짓밟아 죽이지 못했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에서 형님이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이 형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지독한 난관과 공포와 경악을 이미 극복해 온 형님이 어쩌다가 지금 공포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기운이 형님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약한 저도 지금 이 지한 감옥에 함께 갇혀 있지 않습니까. 거인이란 놈이 형님을 때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저도 때렸고, 저도 역시 여태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입에 대보지 못했고, 이 어두운 옥에서 형님과 함께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인내력을 발휘합시다. 허영의 저자에 잠시 계실 때 그 고을 주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회상해 보시고, 그곳에서 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을 때나 옥에 감금되었을 때나, 아니 피비린내 나는 죽음에 대면했을 때까지 형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기로 하십시오.”

밤이 다시 오자 거인과 그의 아내는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수인(囚人)들이 그의 권고에 따라 자살했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참말로 완강한 악당들이야. 자살하는 것보다 모든 고난을 그냥 견뎌가고 싶은 모양이란 말ियो.”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엔 그놈들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세요. 마당

에 널려 있는 뼈와 해골들을 놈들에게 보여 주고 이 주일이 끝나도록 자살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완고쟁이들의 몸을 갈가리 찢어 마당에 헤쳐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놈들 몸도 갈가리 찢어 죽이겠다고 근사하게 협박하세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수인들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어젯밤 아내가 하라는 대로 산 채해 있는 뼈와 해골들을 보여 주면서 말했다. “이것들은 말이지, 한때는 너희들 같은 순례자였던 사람들의 뼈야. 너희들처럼 그들이 내 영토 내에 불법 침입했기 때문에 내 말대로 놈들 사지를 찢어 죽여 이 마당에 버려둔 거야. 앞으로 열흘이 다 가기 전에 너희들도 이처럼 찢어 죽여 버릴 테니 그리 알아. 자, 지하 감방으로 돌아가자.”

수인들을 앞세우고 지하 감방으로 도로 내려가는 거인은 길을 가는 동안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그들에게 매질을 가했다. 이전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토요일 온종일 옥에 누워 있었다. 밤이 되자 시기란 이름을 가진 거인의 아내와 거인은 잠자리에 들어 수인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다. 수인들이 어떻게나 완강한지 매질로도, 자살해 버리라는 협박으로도, 그들을 조금도 꺾을 수 없으니 참 이상한 일이라고 늙은 거인은 아내에게 고백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의심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들을 석방시켜 주려니 하는 희망을 품고 살고 있거나, 그렇잖으면 그들이 자물쇠 여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 기회를 보아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거나요.” 거인이 말했다. “당신 말이 근사하오. 그럼 내 내일 아침 그놈들 몸수색을 해보리다.”

토요일 밤 자정께부터 기도드리기 시작한 두 수인은 동틀 무렵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날이 새기 조금 전에 거의 실신하다시피 된 크리스천은 발작적인 독백을 시작했다. “지금쯤 자유로이 걸어 다닐 수도 있었을 내가 이런 악취 풍기는 지하실에 갇혀 있게 되었으니 이 어인 어리석은 일이고! 의혹의 성 안 어떤 자물쇠든지 열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언약이라는 열쇠를 품에 품고 있으면서 이 무슨 꼴이람.” 이 말에 희망이 말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 어서 그 열쇠를 꺼내 시험해 봅시다.” 품으로부터 열쇠를 꺼내든 크리스천은 지하 감방 문 자물쇠부터 열어 보았다. 열

쇠를 돌리자 걸림쇠가 물려 나가면서 옥문이 쉽게 열리는 것이었다. 크리스천과 희망은 함께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나가는 문도 열쇠를 넣어 돌리자 쉽게 열렸다. 그다음 철문까지 열어야만 되겠으므로 철문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 돌렸으나 자물쇠가 너무 뻑뻑해서 열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철문 역시 여는 데 성공했다. 빨리 도망쳐 나가고 싶은 욕심에 철문을 활짝 열 때에 삐걱 소리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절망의 거인의 잠을 깨우고 말았다. 도망가는 수인들을 추격하려고 거인이 달려 나오기는 했으나 그때 경련이 다시 생겨 수족을 쓰지 못하게 되어 더 쫓아오지 못했다. 걸음을 빨리 한 그들은 다시 정로에 들어섰다. 절망의 거인의 관할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되었다. 울타리 층계를 넘고 나선 그들은 이 층계를 막을 궁리부터 시작했다. 그들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층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절망의 거인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층계 옆에 기둥을 한 개 세우고 그 기둥 한 편에 ‘이 층계 넘어 길은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혹의 성으로 가는 길이요, 절망의 거인은 천국의 왕을 멸시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하는 문구를 새기기로 합의했다. 그 뒤부터는 이 근처를 지나가던 많은 여행자들이 이 문구를 읽고 층계를 넘어서지 않아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 기둥을 세워 놓은 후 그들은 아래와 같이 노래 불렀다.

정로를 버리고 곁길로 돌아가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소.  
뒤로 오는 행객들 조심하시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겪은 고생 겪게 될 것이니.  
절망이 웅거하고 있는 의혹의 성 안에  
무단 침입하면 영락없이 그의 수인이 되고 마오.

「기쁜 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걸어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산 주인은 하나님이다.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밭과 샘물을 구경하러 그 산으로 올라간 그들은

샘물을 마시고 샘물에 몸을 씻고 마음대로 포도를 따 먹었다. 이 산꼭대기에는 양 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때마침 정로(正路) 변에 서 있었다. 두 순례자는 목자들에게로 가까이 가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서서 (오랜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이 도중에 서서 누구와 얘기할 때에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서 있는 것이 보통인 만큼) 물었다. “이 기쁜 산맥의 주인은 누구이며, 이 산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양 떼는 누구의 것입니까?”

순례자들은 지금 기쁜 산맥 위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 있는 목자들이 설혹  
순례자들에게 매혹적인 인상과 신중한 인상을 주더라도  
순례자들은 신앙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동요 없이 끝까지 지탱하리라.

목자: “이 산맥은 임마누엘의 소유로 그의 성은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양 떼 역시 그의 것이지만, 양 떼를 살리기 위해 그는 자기 생명을 버리셨지요(역주: 요한복음 10:11).”

크리스천: “이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까?”

목자: “바로 그 길입니다.”

크리스천: “여기서 얼마나 멀지요?”

목자: “진실로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가깝고, 진실치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멀지요.”

크리스천: “이 길이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목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지만 ‘범죄하는 자는 이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요.’(역주: 호세아 14:9).”

크리스천: “오랜 여행에 피로해지고 쇠약해진 순례자들을 구제해 주는 휴식처 같은 것이 여기는 없습니까?”

목자: “이 산의 주인님이 저희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역주: 히브리서

13:2).’고 명령하셨으므로 당신네에게 좋은 곳이 얼마든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객인 것을 깨달은 목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나는 꿈에서 봤다. “어디서 왔지요?”,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지요?”, “이 길로 들어서서 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산까지 온 사람은 극히 드문데 어떻게 용히 오셨지요?” 등등 질문에 두 사람은 도중 여러 곳에서 대답한 그대로 대답했다. 그들의 대답에 기쁨을 느끼는 목자들은 매우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쁜 산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식·경험·경계(警戒)·성실 등 네 목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때마침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목자들은 두 사람더러 며칠간 묵으면서 피차 친근히 사귀는 동시에 기쁜 산 산맥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위안을 얻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두 사람도 머물러 있겠다고 하고 밤이 이미 매우 늦었기 때문에 그 천막에서 자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희망을 데리고 산맥 여기저기를 산보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사방의 좋은 풍경을 즐겁게 감상하며 한동안 거닐고 나자, 목자들 끼리 두 순례자에게 몇 가지 기이한 광경을 보여 주면 어떨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다. 구경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목자들은 두 손님을 데리고 맨 먼저 「오신(誤信)」이라고 불리는 봉우리로 올라갔다. 이 봉우리 저쪽은 가장 가파른 벼랑이었다. 꼭대기에 다다르자 목자들이 두 손님에게 벼랑 밑을 내려다보라고 권했다. 크리스천과 희망이 내려다보니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져 몸이 산산조각 난 몇 사람의 시체가 밑에 널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육신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후메내오와 빌레도의 그릇된 말에 현혹되어 오신한 자들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역주: 디모데후서 2:16~8)” 두 손님은 들어본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다. “그릇된 말을 오신한 자들이 이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져 저렇게 산산조각이 난 것인데, 보시다시피 아직 묻히지도 못하고 노출된 채 있는 것입니다. 이 산꼭대기에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봉우리 가장자리 변두리까지 너무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 조심하게 하기 위해 저렇게 버려둔 것이지요.”

그다음 그들은 다른 산봉우리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나는 봤다. 그 봉우리 이름은 「죽음」인데, 멀리 앞을 바라보라고 그들이 말했다. 먼 곳에 묘지가 있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로 오라카락하고 있는 몇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끔 무덤 위에 고꾸라지기도 하고 저희끼리 마주치기도 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소경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때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산 아래 이쪽 왼편에 있는 목장에 올타리가 둘러쳐 있고 한 군데에 올타리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층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고 그들은 대답했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다. “그 층계를 넘어서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혹의 성까지 곧게 뻗은 소로가 있지요. 그런데 저기 저 사람들은 (무덤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한때 당신들처럼 순례 행각에 나선 사람들인데, 저 층계까지 와서는 정로가 험악해진 것을 보고 길을 떠나 목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의혹의 성 지하실 감방에 얼마간 감금되어 있다가 거인이 그들의 눈을 빼고 저 묘지에 풀어놔 줬지요. 눈알이 빠져 소경이 된 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현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즉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고 한 말씀 말입니다(역주: 잠언 21:16).”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과 희망은 마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다음 목자들이 두 순례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산 밑 한쪽 벼랑에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을 연 목자들은 두 사람을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라고 권했다. 목자들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니 속은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와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유황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이 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셋길입니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목인데, 예를 들자면 만아들 권리를 팔아먹은 에서 같은 자(역주: 창세기 25:29~34), 자기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 같은 자(역주: 마태복음 26:47~50), 복음을 비방한 알렉산더 같은 자(역주: 디모데후서

4:14),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인 삽비라 같은 자(역주: 사도행전 5:1~10)들이 들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때 희망이 목자들에게 말했다. “그런 자들도 모두 한결같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자 모양으로 차렸던 자들이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잖습니까?”

목자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차림으로 행세했던 자들이지요.”

희망: “순례자 차림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이런 비참한 곤경에 빠졌으니 참 딱하군요. 그들이 살아생전 순례의 길을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목자들: “좀 더 가는 자도 더러 있을 것이지요, 더러는 이 산까지 와서 여행이 끝나버리지요.”

이때 두 순례자는 서로 말했다. “능력 있는 분에게 부르짖어 우리 둘이 다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군요.”

목자들: “그렇고말고요, 힘을 얻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얻은 그 힘을 이용할 필요도 있지요!”

이때 순례자들은 여행을 다시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목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可)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산맥 끝을 향해 걸었다. 목자들끼리 말했다. “이쯤에서 이 순례자들에게 하늘나라 광경을 보여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그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는 재주를 가졌다면 말입니다.”

목자들의 제의를 두 순례자는 반갑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 사람을 높은 봉우리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다. 「맑은 봉우리」라고 불리는 봉우리 꼭대기에 다다르자 목자들이 망원경을 두 사람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망원경으로 하늘나라 풍경을 보고자 시도했지만 목자들의 알선으로 방금 보고 온 지옥 광경이 기억에 새로워 손이 와들와들 떨려서 망원경의 초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문처럼 보이는 물체와 그 안에 전개된 영광스런 광경의 일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쁜 산맥을 떠나가면서 그들 둘은 노래를 불렀다.

남들에게는 숨겨둔 여러 가지 비밀을



목자들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었도다.  
의미심장한 것, 감추어둔 것, 구리고  
신비스런 것을 보기 원하는 자는  
목자들에게로 가라. 그러면 보여줄 것이니.

그들이 떠나갈 무렵 목자들 중의 하나가 노정표(路程表)를 그들에게 주었다. 다른 목자 하나는 아침하는 자를 삼가라고 충고해 주었다. 셋째 목자는 요술에 걸린 지역 내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넷째 목자는 평안히 가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때 나는 잠이 깼다.

다시 잠든 나는 이어 꿈을 꾸기 시작하여 두 순례자가 산맥을 걸어 내려가 하늘나라로 가는 정로로 들어서는 것을 봤다. 산 아래 머지않은 곳 왼편에 「자만국(自慢國)」이 있었다. 정로에서 그 나라로 가는 셋길은 좁고 꾸불꾸불했다. 무척 쾌활하게 보이는 소년 하나가 그 셋길로 달려 나오다가 두 순례자와 만났다. 소년의 이름은 「무지(無知)」였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어느 지방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무지: “왼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나라에서 저는 출생했어요, 선생님.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크리스천: “하늘나라까지 가더라도 문 안으로 들어서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무슨 방법으로 문을 통과할 속셈인가?”

무지: “다른 착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요, 뭐.”

크리스천: “너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 줄 문지기에게 보여 줄 무슨 증서라도 가지고 가니?”

무지: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한 생활을 해왔어요. 남에게 갚을 돈은 다 갚고, 기도를 올리고, 단식도 하며, 십일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남을 구제하고 그래서 저는 제 나라를 떠나 지금 저 갈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 “허나 자네는 이 정로 머리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꼬부라진 소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네는 자네 멋대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

지만, 선악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때 하늘나라 입국 허락을 받는 대신 도둑놈이요, 강도라는 고발을 받으리라고 내게는 생각되네.”

무지: “두 분 선생님은 저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들이고 저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두 분께서는 선생님 나라 종교를 따르는 데 만족하시는 것 같이 저는 제 나라 종교를 따르겠어요. 그리하여 다 잘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길을 알건 모르건 우리에게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오는 길은 푸른 풀로 깔린 유쾌한 길인데다 또 지름길이니깐요.”

이 소년이 자기의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간파한 크리스천은 희망에게 속삭였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지요.” 하고 말했다(역주: 잠언 26:12). 그는 다시 말을 이어 “우매한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며 다니지요.”라고 했다(역주: 전도서 10:3). 그리고는 다시 그는 말했다. “저 소년과는 더 할 말이 없으니, 이제 우리 앞서가면서 그가 이미 우리에게 들은 바를 혼자 생각할 기회를 주고 나서 좀 있다 다시 만나 우리말이 그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었는지 타진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자 희망이 말했다.

우리가 한 말을 꼼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무지에게 줍시다.  
최대 이득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채  
그냥 무지에 빠져있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는 했지만,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으니 말ियो.

희망이 덧붙여 말했다. “한꺼번에 모든 말을 다 해주면 그것이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니, 형님 말대로 지금 앞서가다가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다시 말해 주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앞서가고 무지가 뒤를 따르게 되었다. 무지보다 상당한 거리를 앞서 가던 두 사람은 무척 어두운 좁은 길로 들어섰다. 일곱 악마의 일곱 개 튼튼한 밧줄에 꿰뚫힌 한 사람이 산 아래 있는 지옥문계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역주: 마태복음 12:45). 착한 크리스천은 물론 그의 동행자인 희망까지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떨기는 하면서도 악마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크리스천은 자세히 바라봤다. 배고춤에 사는 ‘변절(變節)’일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끌려가는 사람이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자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뒤 그의 등을 바라보던 희망은 ‘변덕스런 신앙 고백자, 저주받은 배신자’라고 쓴 종잇조각이 그의 등에 붙어 있는 것을 봤다.

이때 크리스천이 동행자 희망에게 말했다. “이 근처 어떤 착한 사람에게 생긴 어떤 얘기를 들었던 것이 지금 회상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소신(小信)」이기는 했으나 착한 사람이었고 성실존에 살고 있었대요. 그가 당한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길 초입에 「죽은 사람 골목」이라는 골목이 있는데, 대로문(大路門) 골목과 연결된 길이지요. 죽은 사람 골목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 골목에서 살인 사건이 너무 흔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순례의 길을 떠난 소신이 어쩌다가 이 골목에 앉아 쉬는데 그만 잠이 들었대요. 때마침 대로문 골목으로부터 세 명의 건장한 망나니가 이 골목으로 내려오고 있었대요. 세 놈의 이름은 「겁쟁이」·「의심」·「범죄」(삼형제)였대요. 소신이 길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본 세 놈은 그에게로 향해 달음박질해왔답니다. 그때 착한 소신은 잠을 막 깨어 일어나 여행을 계속하려던 참이었대요. 바로 이때 세 놈이 함께 달려들어 협박조로 일어서라고 호령했대요. 이 통에 얼굴이 접시 닮은 행주처럼 창백해진 소신은 그들에게 대들어 싸

을 기운도, 도망갈 기운도 없었대요. 그러자 겁쟁이가 “네 돈지갑 이리 내놔.” 하고 말했대요. 돈을 빼앗기기 싫은 그가 주저하자 의심이 달려들어 손을 소신의 주머니에 넣어 은전이 든 지갑을 끄집어냈대요. 그러자 그는,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질렀대요. 손에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범죄가 소신의 머리를 갈기자 그는 땅에 엎어져 피를 흘렸대요. 그대로 두면 다량의 출혈로 죽을 것인데도 도둑놈들은 우두커니 서서 보기만 했대요. 얼마 뒤 길에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들은 세 늙은 독신촌에 사는 「대은혜(大恩惠)」가 혹시 오는 것이나 아닌가 겁을 먹고 날 달려라 도망쳤대요. 그레 한동안 착한 소신은 혼자서 자활책(自活策)을 강구하고 있었대요. 얼마 뒤 정신을 차린 소신은 일어나 지척지척 간신히 걸음을 옮겼대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희망: “도둑놈들이 그가 가진 온 재산을 다 털었나요?”

크리스천: “아닙니다. 보석류를 감추어 둔 장소를 도둑놈들이 샅샅이 뒤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석은 그가 그냥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노잣돈을 거의 다 강탈당한 착한 사람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금방 내가 말한 것 같이 빼앗기지 않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보석이었어요. 잔돈푼도 얼마 남기는 했으나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끝낸다는 것은 어렵도 없었대요. 내가 들은 소문이 틀림없다면 여행 도중 보석은 팔 수 없고 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구걸까지 했나 봐요. 빌어먹기도 하고 그 밖의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도 나머지 길 여행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겨우 했대요.”

희망: “하지만 하늘나라 입국에 필요한 통행증은 도둑맞지 않았다니 그저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크리스천: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걸 빼앗기지 않은 것이 그의 기민한 행동으로 인한 것은 아니래요. 도둑놈들이 달려들 때 그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저항해볼 힘도 없었고 무엇을 숨길 경향도 없었다니까요. 도둑놈들이 그 좋은 통행증을 놓친 것은 소신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지요(역주: 디모데후서 1:14, 베드로후서 2:9).”

희망: “그건 그렇고 보석을 빼앗기지 않은 것 역시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겠지

요.”

크리스천: “그 보석을 적당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더라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겠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 보석을 팔아 쓰지 못하고 그냥 묵혔대요. 하기가 돈을 강탈당한데다 너무나 질려 버린 그인지라, 보석은 그냥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행 도중 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혹시 그 생각이 펄떡 나 위안을 느끼기 시작하다가도 돈 잃어버린 생각이 불쑥 다시 나곤 해서 그 생각만이 다른 모든 생각을 집어 삼켰나봐요.”

소망: “아, 가엾은 인간! 그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없지요.”

크리스천: “슬픔! 아,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런 이상한 장소에서 강도를 만나 돈을 강탈당하고 부상까지 입게 될 때 누군들 소신처럼 슬프지 않겠소?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그 당장에 죽지 않은 것만도 기이한 일이지요, 불쌍한 인간! 나머지 여행 도중 그는 무엇보다도 음울하고도 쓰라린 불평만을 줄곧 퍼뜨렸나 봐요. 그를 앞지르는 사람들, 혹은 그가 앞지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일일이 자기가 어떻게 어떤 놈들한테 무엇을 강탈당했으며, 중상을 입어 하마터면 죽을뻔 했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대요.”

희망: “여행 도중 빈궁을 탈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은 것은 참 이상한데요.”

크리스천: “머리가 꺾질만 있고 속은 빈 사람들 말하듯 하시는구려. 무엇 때문에 보석을 저당 잡히며, 누구에게 보석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도둑맞은 나라에서는 그의 보석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신 자신도 보석을 팔아서까지 자기의 괴로움을 경감시킬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하늘나라 대문에 도달한 때 자기 소유의 보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에서 제외되는 일은 만 명 이상의 악독한 도둑놈을 만나는 것보다 더 불행할 것이니까요.”

희망: “이렇게까지 신랄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형님? 에서에게는 가장 큰 재산인 장자상속권을 그는 팔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는데, 소신도 보석을

팔아 노잣돈을 구했다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에서가 자기 상속권을 팔아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에서 외에도 자기 상속권을 팔아먹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한 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올 가장 큰 축복을 스스로 물리치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에서와 소신 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재산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서가 가진 장자상속권은 상징적이지만 소신이 가진 보석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배가 그의 하나님이었지만 소신에게는 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서의 주된 욕망은 육체적인 식욕이었는데, 소신의 주된 욕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식욕 만족 이상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았거든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역주: 창세기 25:32).”라고 에서는 말했지요. 그런데 소신의 경우에는, 적은 신앙심을 가진 것이 그의 운명이기는 하지만, 적은 신앙 그 자체가 에서가 상속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린 그런 허망한 일을 하는 대신, 그가 가진 보물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고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지요. 에서가 신앙심을, 극히 적은 믿음이나마 가졌었다고 기록된 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체만이 그의 전부를 지배하여 (육욕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지 못한 자는 누구나 다 으레 그런 것처럼) 타고난 장자의 상속권을 팔아먹을 뿐 아니라 영혼과 기타 모든 것까지 다 지옥의 마귀에게 팔아 버린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지요. 그의 그런 행위는 아내 난 암나귀가 성욕이 동해 혈떡거릴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우지요(역주: 예레미야 2:24). 마음이 정욕에 미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정욕의 만족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의 기질은 그런 사람들의 기질과는 달리 신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 그의 생활조차 정신면에 더 치중하고 있는 동시에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요. 그런즉 이런 기질을 가진 그가 무슨 목적으로 자기의 보물을 팔아 (살 사람이 혹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헛된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배를 말린 풀로 채우겠다고 한 톨인들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비둘기 보고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유물을 전당포에 전당(典當) 잡히거나 저당(抵當)에 넣어 빚을 내 쓰거나 팔아먹기도 할 것이고, 즉석에서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팔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생각의 착오가 바로 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 “내 착오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형님의 비난은 도를 넘기 때문에 난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크리스천: “뭐 그렇게 까지. 겉치레만 하고 활개 치며 전인미답의 길을 우왕좌왕하는 어떤 종류의 새와 아우님의 말을 비교해 말했을 따름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리시오. 허나 그런 건 이제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사건만 고려해 보기로 하면 우리들 사이의 논의는 원만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소신의 돈을 강탈해 간 그 세 놈의 도둑은 모두 비겁한 놈들이었다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비겁하지 않고서야 근처에서 인기척이 난다고 허겁지겁 출행량을 쳤겠어요? 소신은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적어도 한 번쯤 부딪쳐보고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을 때 굴복했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크리스천: “그놈들을 비겁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당해 보지 않고는 그놈들이 비겁한자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든 겁니다. 소신 자신 역시 그리 담대한 사람이 못 되었거든요. 아우님이 만일 그런 경우에 처했다라면 한바탕 맞부딪쳐보고야 굴복했으리라고 보입시다만, 그러나 말이지요, 지금 배부르니까 큰 소리 칠 수 있고 또 도둑놈들이 멀리 있으니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도둑놈들이 목전에 들이닥친다면 아우님도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그 도둑놈들은 밭 없는 지옥 왕의 명령에 움직이는 품팔이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옥 왕의 외치는 소리는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데(역주: 베드로전서 5:8), 필요를 느낄 때에는 언제나 부하들을 도와주려고 마귀 자신이 달려올 겁니다. 이 소신이 당한 것과 비슷한 곤경을 나 자신도 겪어 본 일이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어요. 세 놈의 악한이 내게 덤벼들 때 나는 기독교인답게 저항했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단 한 번 소리 지르자 그들의 주인인 마귀가 달려오더군요

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내 목숨은 속담 그대로 한 톨어치도 안 되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나는 창검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든든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튼튼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건만, 사내대장부답게 싸우기는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귀와 단병 접전(短兵接戰)을 못 해 본 사람은 그 투쟁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없어요.”

희망: “그러나 말이지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대은혜가 거리에 나타나는 기미를 보이자 도둑놈들은 질겁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그렇지요. 대은혜가 자태만 나타내도 도둑놈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인 마귀까지도 도망가곤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은혜는 곧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는 용사이기 때문에 악당들이 도망가는 것은 이상할 것 없지요. 그러나 말이지요, 소신과 하나님 대신 싸우는 용사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를 대신해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없고, 싸움이 벌어질 때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용사들처럼 무훈을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년이라고 모두 다 다윗처럼 용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굴뚝새가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더러는 강하고, 더러는 약하며, 더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더러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소신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지에 빠진 것이지요.”

희망: “도둑놈들 대신에 대은혜가 소신 앞에 먼저 나타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크리스천: “대은혜가 먼저 나타났더라도 악한들과 대항해 싸우기엔 벅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 다루는 데 능한 그가 칼을 뽑아 적 앞에 내밀고 있을 때에는 적의 공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그가 손도 쓰기 전에 적이 달려드는 경우 아무리 미미한 적이라도 겁쟁이나 의심이나 범죄가 합력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수라도 일단 넘어지게 되면 꼼짝 못할 것이 아닙니까. 대은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다한 상처와 칼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이 내 말이 옳다는 걸 쉽게 증명해 줄 겁니다. 한참 싸우던 그가 결국 살 희망조차 끊어졌다고 말하더라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완강한 악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 왕까지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게 만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렇지요. 그들이 살고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 대신 싸우는 용사였던 헤만과 히스기야도 마귀들의 공격을 받아 대전하다가, 갑옷을 입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지요. 사도들 중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베드로까지도 자기 탄원 최선을 다 하느라고 했지만 마귀들의 공격을 못 막아 결국 어느 한 초라한 계집애까지 두려워했던 일이 있었지요(역주: 누가복음 22:56).

그뿐 아니라 악당의 왕은 부하들의 휘파람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입장이 불리하게 되는 때에는 언제나, 가능한 한 곧 도와주려고 쫓아오는 마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요. 그것(마귀)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움을 비웃으며, 겁내지 않고 맹렬히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개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 하겠고 물매 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겨지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는구나(역주: 욥기 41:25~7). 이런 마귀와 대결해야 하는 경우 사람이 무슨 수로 대항할 수 있겠소? 보통 인간이라 할지라도, 혹시 욥이 타고 달리던 말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기술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비대한 일도 능히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말의 목에는 훔날리는 갈기가 입혀져 있고, 메뚜기가 두렵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며, 위엄 있는 콧소리가 두렵고, 골짜기에서 헤집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진동과 빛나는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역주: 욥기 39:19~25).

그러나 아우님이 나 같은 보병은 아예 적을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싸우다 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같으면 더 잘 싸웠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도 말고, 우리는 대장부답게 용감한 사내라고 자처하는 허영심을 버립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시련에 걸릴 때 가장 비겁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

지만 베드로의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허영이 그의 마음을 충동하자 그는 뿔뿔히요. 그렇지만 남들이야 다 무어라고 하건 자기만은 주님을 남보다 더 굳세게 모시겠노라고(역주: 누가복음 22:33) 호언장담하고도 얼마 못 가서 마귀들과의 싸움에 참패해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로 가는 정로에 강도 사건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길에 나설 것. 「레비아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짐승 악어와 겨누어(역주: 이사야 27:1) 힘써 싸우고도 그것을 항복시키지 못한 용사가 있었는데, 성공 못한 원인은 갑옷과 방패로 무장하지 않고 나선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장이 결핍된 것을 보는 적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했지요. 즉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라. 악한 자가 쏘는 악착같은 모든 화살을 방패로써 능히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역주: 에베소서 6:16).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좋은 일입니다. 다윗 왕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호송을 받는 것이 그를 즐겁게 해주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 단 한 발자국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선 자리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까지 생각했지요. 아, 아우님, 주께서 만일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를 대항하려 드는 천만 명의 적이 있은들 무엇이 무섭겠소? 하지만 주께서 동행해 주지 않는 때에는 아무리 뿔내는 조력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지요(역주: 시편 3:6, 이사야 10:4).

나 자신도 이전에 마귀와 싸운 일이 있었으나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아우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용감한 덕분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내 생각엔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지대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나 곰이 여태 나를 잡아먹지 못한 이상 앞으로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역주: 성지 팔레스타인 남쪽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히던 호전적인 종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크리스천은 아래와 같이

노래 불렀다.

가련한 소신이여!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돈을 강탈당했다고?  
이것을 기억하라, 믿음을 가진 자가 더욱 믿으면  
천만 명의 적과 싸우더라도 승리를 거둘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단 세 놈의 적도 이기지 못함을.

이리하여 두 순례자가 앞서 걸어가고 무지는 뒤따라가고 있었다. 한 곳에 이르러 보니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갈라져 나간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도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평행으로 곧게 뻗어 있었다. 이 두 길이 다 그들 앞에 곧게 뻗어 있었으므로 어느 길을 택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망설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때 검은 피부 위에 흰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그들에게로 가까이 와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거기 서 있느냐고 물었다.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길인데, 지금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나도 그리로 가는 길이니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그들은 곁길로 들어서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길은 차차 꼬부라져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방향이 달라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갔다. 얼마 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동안 한 개의 그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물에 얹매이게 된 그들 둘은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검은 사람의 등으로부터 흰 옷이 떨어져 나갔다. 이때에야 정신을 차린 그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스스로 그물을 헤치고 나올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들은 한동안 울부짖었다.

크리스천이 마침내 동행자에게 말했다. “지금 난 잘못을 깨달았소. 아침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목자들이 일러주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역주: 잠언 29:5).’라고 말한 바 있었

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구려.”

희망: “길을 바로 찾아가라고 목자들이 우리에게 지도까지 그려 주었는데, 그걸 꺼내 볼 생각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소 그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이 우리들보다 더 현명했군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 여정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여주: 시편 17:4~5).’라고 다윗이 말했으니까요.”

그물에 말려든 그들은 이렇게 애통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언뜻 그들은 광명한 사람 하나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 손에는 가는 노끈으로 꼰 회초리 한 개가 들려 있었다. 그들 앞으로 다가선 그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그물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시온 성(여주: 옛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시온 언덕 위에 다윗 왕이 궁전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사용됨)으로 가는 보잘것없는 행객들이온데, 자기도 시온 성으로 가노라고 하면서 나서는 흰옷 입은 검은 사람의 꼬임에 속아 길을 잘못 든 가엾은 몸들이올시다.”

그러자 회초리를 든 사람이 말했다. “그자는 ‘아침’이라는 놈인데, 본디는 거짓 사도로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변형하고 다니며 속이는 자입니다.”

그물을 찢어 그들을 나오게 한 후 그는 다시 말했다.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줄 테니 날 따라오시오.” 아침을 따라가려고 정로를 버렸던 그들을 정로까지 도로 데리고 온 그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어젯밤 어디서 잤소?” 기쁨의 산에 사는 목자들과 함께 잤다고 그들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목자들이 바른 길을 명시한 노정표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럼 갈림길 머리에 섰을 때 그 노정표를 꺼내 봤느냐고 그가 물었다. 그들은 안 봤다고 대답했다. 왜 안 봤느냐고 그가 물었다. 잊어버리고 못 봤노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다시 목자들이 아침하는 자를 주의하라 하고 일러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구변이 능한 그가 아침쟁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어요.”

이때 그가 그들더러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들이 땅에

엎드리자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기 위해 그는 회초리를 휘둘러 세계 갈겼다.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는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몇이든지 책망하여 징계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역주: 요한계시록 3:19).”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는 목자들에게서 받은 지시를 잘 기억하라고 타일렀다. 그의 모든 친절에 감사하노라고 말한 그들은 정로를 따라 가볍게 걸어가면서 노래 불렀다.

길가시는 행객들, 이리 와 보시오,  
길 잃고 헤매는 행객들이 어떤 별을 받는가를!  
좋은 권고 경솔히 잊어버린 죄로  
엷힌 그물에 걸렸다가 요행 놓여나긴 했지만  
덤으로 회초리 매를 맞았어요.  
이것으로 당신네 훈계로 삼으시오.

얼마간 길을 가던 그들은 멀리 혼자서 마주 오고 있는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크리스천이 동행자에게 말했다. “시온 성을 등지고 오는 사람이 있구려. 우리를 만나러 오는 모양인데.”

희망: “내게도 보이는군요. 그 사람 역시 아첨쟁이인지도 모르니 우리 조심합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던 그 사람이 그들과 딱 마주섰다. 「무신론자」라는 이름의 그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나고 물었다.

크리스천: “시온 성을 향해 갑니다.”

이 말에 무신론자는 크게 웃었다.

크리스천: “왜 웃는 거요?”

무신론자: “아무리 지루하게 여행해도 피로만 남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할 당신네 무식과 어리석음을 보고 웃지요.”

크리스천: “우리를 받아들일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신론자: “받아들일 곳! 당신네가 꿈꾸는 그런 곳이 이승에는 없어요.”

크리스천: “저승에는 꼭 있지요.”

무신론자: “나도 고향에 있을 때 당신 말과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성을 찾으려고 곧 집을 떠나 이십 년이나 두루 다녔어요. 그러나 내가 집을 떠나던 첫날과 마찬가지로 여태 그런 곳을 발견 못 했어요.”

크리스천: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을 우리 둘이 다 들었고, 우리는 꼭 발견하리라고 믿어요.”

무신론자: “집에서 들을 때 내가 믿지 않았던들 이렇게 오래 찾으러 돌아다니질 않았을 거요. 그곳을 찾으려고 내가 당신네 보다 훨씬 더 오래, 더 멀리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못 찾았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나는 지금 집으로 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없는 것을 찾느라고 공연한 희망을 품고 집을 떠나면서 버리고 왔던 모든 향락을 도로 찾아 즐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동행자인 희망에게 말했다. “이 사람 말이 정말일까요?”

희망: “이 사람 역시 아첨쟁이들 중의 하나이니 우리 조심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자의 말을 끝이들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합시다. 무어라고요! 시온 성이 없다고! 기쁜 산맥 위에서 바로 우리 눈으로 시온 성 성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 든 사람이 우리를 다시 따라잡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 교훈을 형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야 할 텐데 도리어 내가 형님 귀에다 대고 들려드려야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라고요(역주: 잠언 19:27). 그러니 형님,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크리스천: “아우님 내가 아우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나 자신이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우님의 마음에 열매 맺은 정직의 과일을 아우님에게로부터 끌어내어 증거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승의 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압니다. 우리는 둘이 다 진리를 믿는 사람으

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역주: 요한일서 2:21)’는 것을 아는 이상 아무님도 그리고 나도 어서 그냥 길을 걷도록 합시다.”

희망: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희망으로 감격에 잠겨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희망은 무신론자를 뒤로 두고 저희들 갈 길을 가기 시작했고, 무신론자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저 갈 길로 갔다.

자연적으로 공기가 탁하여 외지에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을 으레 졸리게 만드는 한 지역에까지 다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나는 꿈에 봤다. 여기서 희망은 머리가 매우 둔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졸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지금 나는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립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누워 한잠 자기로 하지요.”

크리스천: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가는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이니까요.”

희망: “형님, 왜 그러세요? 지친 사람에게 수면은 포근한 맛을 주는 것입니다. 잠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질 텐데요.”

크리스천: “요술에 걸린 지역 내에서 조심하라고 목자들 중의 한 사람이 일러준 걸 잊어버렸습니까? 그가 조심하라고 한 말은 이곳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근신해야 돼요 (역주: 데살로니가전서 5:6).”

희망: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일 저 혼자였다라면 여기서 자다가 죽음의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역주: 전도서 4:9)’고 말한 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형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고, 형님의 수고에는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자, 이곳에서 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 우리 좋은 얘기나 주고받읍시다.”

희망: “그것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크리스천: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요?”

희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지요. 허나, 지금은 형님이 시작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크리스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노래를 불러 드리지요.”

성도들이 졸릴 때에는 이곳으로 와  
두 순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듣도록 하시오.  
그렇소, 졸린 성도들은 아무래도 이 두 순례자를 배워  
졸린 눈을 뜨고 있도록 하시오.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를 원만하게 다루기만 하면  
지옥이라도 아랑곳없이 꾸준히 깨어 있게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난 크리스천은 얘기를 시작했다. “한 가지 질문부터 하렵니다. 지금  
아우님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행을 떠날 생각이 처음 어떻게 났소?”

희망: “내 영혼의 행복을 추구할 생각이 처음 어떻게 생겼는가를 묻는 말씀입니  
까?”

크리스천: “예, 그걸 묻는 것입니다.”

희망: “내가 살고 있던 허영의 저자에 진열되어 매매되는 여러 가지 향락에 나는  
오랫동안 도취되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만일 그냥 도취되어 있었던들 지옥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주었을 향락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향락에 파묻  
혀 있었다면 나는 멸망했으리라 믿어요.”

크리스천: “향락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망: “이 세상 모든 보화와 풍부한 재산, 그리고 방탕 · 난봉 · 폭음 · 욕설 · 거짓  
말 · 불결 · 안식일의 무시와 위반, 기타 여러 가지 향락, 즉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  
는 온갖 향락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형님의 말씀 그리고 허영의 저자에서  
까지 신앙을 지키고 착한 삶을 영위하다가 사형을 당한 신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  
고 나서 거룩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그런 향락의 종착점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향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않는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역주: 에베소서 5:6)’을 깨닫게 됐어요.”



크리스천: “그러면 그런 걸 깨닫게 되자 즉시 이 믿음의 힘 아래로 들어왔소?”

희망: “아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처음으로 동요되기 시작하자 광명으로부터 눈을 감아 버리려고 기를 쓰면서 죄의 악한 것과 범죄에 따르는 형벌을 얻은 알기를 거부하려고 애썼지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이 아우님에게 처음 정하신 걸 그토록 부정하려고 기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희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첫째, 제 마음에 동요를 느끼게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는 작업의 첫 단계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둘째로 내 육체적 생활에 있어서 죄악이 그때까지도 유쾌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기가 싫었어요. 셋째로 옛 친구들과 모여 재미있게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과 절교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넷째로 죄의식에 사로잡히던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 조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견뎌 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요. 죄의식이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천: “때로는 죄의식의 괴로움을 몰리친 적도 있던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희망: “그럼요, 있었지요. 하지만 번번이 마음속 죄의식의 괴로움이 다시 일어나고, 그때마다 제 행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 나빠지곤 한 걸요.”

크리스천: “그래요? 죄의식을 아우님 마음속에 도로 가져다주는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희망: “여러 가지였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 길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둘,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들을 때,

셋,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넷, 이웃사람들이 앓는다는 소문을 들을 때,

다섯, 죽은 사람을 위해 중치는 소리를 들을 때,

여섯, 나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할 때,

일곱, 남들이 별안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덟, 무엇보다도 특히 얼마 안 되어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온다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크리스천: “그런 몇 가지 원인으로 죄의식을 다시금 느끼곤 할 때 그 의식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때가 더러 있었습니까?”

희망: “쉽게 물리칠 수는 절대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걸 물리치려고 하면 물러가기는커녕 도리어 제 양심을 더 굳게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제 마음과는 반대로) 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죄의식의 고민은 배가 되곤 했어요.”

크리스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망: “제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한 나는 생활 개선에 온갖 힘을 다 기울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천: “그래서 생활 개선에 노력하셨나요?”

희망: “예, 저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치려 했을 뿐 아니라 죄 많은 친구들로부터도 피해 나와, 기도 올리기, 성경 읽기,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는 일, 이웃 사람들에게 바른 말만 하는 것 등 종교적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런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종교적 임무를 수행할 때 원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희망: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됐지만, 얼마 못 가 죄의식의 고통이 다시 엄습해 와서 그동안 이룩한 모든 개선된 생활 위에 군림하곤 하더군요.”

크리스천: “개선을 이룩한 후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데요. 어떻게 된 셈일까요?”

희망: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특히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역주: 이사야 64:6).’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제정한 법으로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역주: 갈라디아서 2:16)’느니, 또는 ‘너희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역주: 누가복음 17:10)’느니 등등,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죄의식을 소생시키곤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과 더

불어 이론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만일 나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옷 같고, 인간이 제정한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고, 명령 받은 것을 모두 다 행한 후에도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면 법에 의거한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따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상점에 외상 거래를 터서 백 파운드에 달하는 빚을 졌다가 얼마 뒤 그 빚을 다 청산했지만 상점 장부에 올린 채무 기록을 말소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는 그걸 증거로 삼아 상점주가 고객을 고발하는 경우에 그 고객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점입니다.”

크리스천: “그래요 그럼 그 이론을 아우님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했소?”

희망: “나 혼자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 거액의 빚이 하나님 의 치부책(置簿冊)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생활을 개선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채무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생활의 모든 면을 개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종전에 지은 술한 죄로 인하여 형벌 받을 위험을 자초한 이상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나 자신에게 단단히 타일렸어요.”

크리스천: “그저 참 훌륭한 적용입니다. 자, 어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희망: “내가 늦게나마 생활을 개선한 후에도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내 행위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때 내 행위에는 아직 범죄 행위가 그냥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름 아니라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새로운 죄악이 섞여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혹 종전에 내가 내 임무를 잘 완수했다고 지나친 자랑을 일삼아왔다 하더라도, 또 설사 종전에는 내 생활이 흠 잡힐 데 없이 깨끗했었다 할지라도, 죄를 너무 많이 범했기 때문에 지옥행을 모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크리스천: “그래 어떻게 하셨소?”

희망: “어떻게 하다니요! 신의라는 분에게 내 심정을 고백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의와 나는 절친한 친구였지요. 일찍이 죄를 범한 일이 절대로 없

는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의를 내가 획득하지 못하는 한 나 자신의 의는 문제도 되지 않고 온 세상이 가진 의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어요.”

크리스천: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소?”

희망: “나 자신의 생활 개선에 내가 만족하며 기뻐할 때에 그가 그러한 말을 들려 주었다면 애쓴 보람 없이 그의 말은 바보 천치의 잠꼬대쯤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 지도 않았겠지만, 내 약점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로서 는 최선을 다하느라고 하는데도 죄가 악착같이 달라붙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크리스천: “하지만 평생 죄를 지은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처음 그가 말할 때, 그런 인물이 정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 나요?”

희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그런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와 사귀면 서 좀 더 자세히 듣게 되자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에게도 납득되었어요.”

크리스천: “그럼 그 인물이 과연 누구며, 어떻게 하면 그 인물의 힘을 빌어 아우님 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셨나요?”

희망: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인물은 가장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그가 말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생까지 하신 것을 믿음으 로써 그의 힘에 의지하여 제 행위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 주었 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의가 어떻게 남을 의롭게 하는 효험까지 가질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그의 말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세상에서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죽으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요. 즉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기 만 하면 그의 행위와 그 행위의 가치를 나에게까지 돌려 주어 구원받을 수 있게 만 들어 준다는 말이었어요.”

크리스천: “그래 그다음 어떻게 했소?”

희망: “내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믿어도 예수가 날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더 믿

어 소용없다고 투정했어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신의가 무어라고 합니까?”

희망: “예수에게로 가 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가 뵙는 것은 주재님은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의 말이 나 같은 놈도 찾아가는 것을 반기는 예수니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자유스럽게 그를 찾아볼 용기를 북돋아 주느라고 그의 행적을 기록한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일점일획(一點一劃)이 천지보다 더 튼튼한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역주: 마태복음 5:18). 그래 내가 예수에게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심성의로 아드님을 뵙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춘하추동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데,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간구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역주: 히브리서 4:16).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무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했더니 신의는 아래와 같이 말하라고 일러주었어요. 즉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게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만일에 예수의 의가 없었거나 혹은 그 의에 대한 제 믿음이 없었던들 저는 전적으로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세주가 되는 성직에 임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오라 저같이 가련한 죄인(예, 저는 정말로 죄인이옵니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지금 이 기회를 택하시어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어 신의 은총을 한층 더 찬송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크리스천: “그래 신의가 하라는 대로 기도드려 보셨습니까?”

희망: “그럼요. 기도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했지요.”

크리스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우님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희망: “아니요. 첫 번 기도에도, 둘째 번 기도에도, 셋째 번 기도에도, 넷째 번 기

도에도, 다섯째 번 기도에도 아니 여섯 번째 기도에도 보여 주시지 않았어요.”

크리스천: “그래서 어떻게 했소?”

희망: “어떻게 하다니요! 어떻게 할지 몰라 찢찢맸지요.”

크리스천: “기도를 집어치워 버릴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희망: “그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기도를 그만둘 생각이 몇 백 번도 더 난 걸요.”

크리스천: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망: “신의가 말해 준 것이 바른 말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지요.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는 세상에서 제가 구원받을 판 도리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했어요. 기도를 그만두면 나는 죽는다. 죽을 바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밖에 또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역주: 하박국 2:3).’ 그래서 기도를 그냥 계속했더니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게 보여 주셨어요.”

크리스천: “어떤 방법으로 예수가 아우님 앞에 나타났습니까?”

희망: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역주: 에베소서 1:18).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날 나는 무척 슬펐어요. 평생 그렇게 슬픈 때는 없었다고 생각되도록 몹시 슬펐어요. 이 커다란 슬픔의 원인은 그날 새삼스레 더 선명하게 회상되는 제가 범한 죄악의 거대함과 비열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지옥 그리고 내 영혼의 영원한 별뿐이었는데, 별안간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려다보시고 있는 것이 내게 보이는 것 같이 생각되는 동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역주: 사도행전 16:31).’ 하는 말이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대답했어요. ‘주여, 저는 크고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리라(역주: 고린도후서 12:9).”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주여,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의 말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역주: 요한복음 6:35).”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 믿는 것과 오는

것이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바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 달음질해 오는 사람이면 그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다시 물었어요. “그러나 주여, 저처럼 큰 죄인이라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지요?” 그의 대답을 나는 들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역주: 요한복음 6:37).”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는 다시 “그러나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가서 당신을 더 자세히 뵈고 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함이라(역주: 디모데전서 1:15).”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역주: 로마서 10:4).” “그는 우리의 죄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느니라(역주: 로마서 4:25, 요한계시록 1:5).”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시니라(역주: 디모데전서 2:5).”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역주: 히브리서 7:25).” 등등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추론해 본 바 의를 구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구해야 되겠고, 내 죄를 씻어 주는 것은 그의 피라는 것을 알아야겠고, 그가 자기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걸 깨닫게 되자 내 가슴은 희열로 가득 차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찼으며, 내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백성과 길에 애정을 느끼는 데 여념이 없게 됐어요.”

크리스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아우님 영혼 앞에 그의 자태를 나타내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아우님 가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말해 주세요.”

희망: “이 세상이 제아무리 의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자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받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론 어디까지나 공평하시지만 죄인이 그에게로 오는 것까지도

공평한 판단으로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내 종전 생활이 너무나 악했었다는 데 대한 수치심을 나 자신이 느끼게 만들어 주어, 과거의 내 무식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듯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품어 본 일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고, 주 예수의 이름에 명예와 영광을 드리기를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 나더러 피를 흘리라고 한다면 내 몸 속에 천 겔런의 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 전부를 지금 당장 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희망이 뒤를 돌아다보다가 여태 뒤따라오고 있는 무지의 모습을 보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무지를 본 그는 크리스천에게 그 젊은이가 무척 멀리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크리스천: “아, 그렇군요. 내게도 그가 보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진 않은 모양이군요.”

희망: “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왔더라면 그에게 해로울 것은 전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크리스천: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그자는 달리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희망: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가 따라오기를 기다려 서 있었다.

얼마 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말했다. “어서 와요, 젊은이. 왜 그렇게 멀리 뒤떨어져 오고 있소?”

무지: “내가 좋아하는 일행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엔 혼자 다니는 것을 나는 즐기는 걸요.”

크리스천이 희망에게 (고즈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가 우리와 동행하길 꺼린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다려 봅시다. 그자와 함께 걸으면서 이 적적인 행로의 무료를 끄기 위해 얘기나 하게.” 그리고 무지에게로 고개를 돌린 크



리스천이 말했다. “어서 오시오. 어떠시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떤 지위에 놓여 있소?”

무지: “좋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언제나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걸어가는 동안에도 나를 편케 해 주려고 좋은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니까요.”

크리스천: “좋은 생각들이라니 무엇입니까? 어서 말해보시오.”

무지: “무엇이라니요. 하나님과 천당 생각이지요.”

크리스천: “악마들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하나님과 천당 생각을 하지.”

무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천당을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천: “그거야 천당에 가기 싫어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과 천당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가 참 많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라는 구절과 같이(역주: 잠언 13:4).”

무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천당을 생각하며 그들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크리스천: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당신이 버렸다는 말은 믿을 수 없소. 그렇소.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왜 혹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과 천당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었소?”

무지: “내 마음의 지시로.”

크리스천: “현명한 분 하나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했지요 (역주: 잠언 28:26).”

무지: “그런 말을 한 것은 악한 마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제 마음은 착하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다.”

크리스천: “당신 마음이 착하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소?”

무지: “천당 갈 희망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걸요.”

크리스천: “사람의 마음이란 희망을 걸 근거가 없는 것에도 헛된 희망을 걸고, 위안을 느끼는 수도 있는 법이니까, 당신은 속아서 위안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도 있

지요.”

무지: “그러나 제 마음과 생활은 일치되어 있는 만큼 제 희망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일치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무지: “내 마음이 내게 알려 주지요.”

크리스천: “당신 마음이 알려 준다고! 내가 도둑놈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친구에게 물어봐야지요! 그런 일의 진정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 밖의 증거는 모두 무가치한 것이지.”

무지: “그러나 말씀이죠. 좋은 생각을 품은 마음은 착하다고 볼 수 있고, 착한 생활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십계명을 준수하는 생활이 아닐까요?”

크리스천: “그렇지요. 좋은 생각을 품은 마음은 착하고 착한 생활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생활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걸 생각만 하는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무지: “아니,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크리스천: “좋은 생각에는 성질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우리 자신에 관한 좋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생각, 기타 여러 가지.”

무지: “우리 자신에 관한 좋은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

무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크리스천: “우리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시는 판단과 일치되는 때이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즉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역주: 로마서 3:10).’ 또 이렇게도 말하지요, 즉 ‘사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역주: 창세기 6:5).’ 또 다시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하다’(역주: 창세기 8:21).’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열거한 하나님의 말씀

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합치된다는 말입니다.”

무지: “내 마음이 것처럼 악하다고 믿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에 대한 좋은 생각은 한 번도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내 말씀 더 들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시는 판단과 합치될 때 비로소 그 합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행위 두 가지가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잘 설명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그러지요. 무슨 말이나 하면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곧지 못하고 구부러졌고 비틀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요(역주: 시편 125:5).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바른 길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그 사실을 행위 자신은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야 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판단과 합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는 자기의 독자적인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란 대관절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내가 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지요. 우리와 연관시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기로 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자신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

리 인간의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의로운 것이란 무엇이건 다 하나님의 코에는 악취 밖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 “하나님께서 내 속을 나보다 더 잘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보라고 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갈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크리스천: “그럼 이 일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소?”

무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크리스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당신이 그를 꼭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참 이상한데요? 타고난 약점이건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이건, 자기 약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변명하기 위해 그리스도 일신의 의를 힘입을 필요를 절대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해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말할 수 있소?”

무지: “누가 뭐라고 하던 내 믿음은 충분한데 왜 그러세요.”

크리스천: “무엇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무지: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다는 걸 믿고요, 그리고 내가 그의 법에 복종하면 그는 나를 용납하는 은혜를 베풀어 내가 심판 받으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주를 면하고 옳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 믿어요. 바꿔 말하자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임무를 내가 수행하도록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어서 그의 공덕을 힘입어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 용납되고, 따라서 형벌 대신 옳다함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대답해 드릴 말이 있습니다.

하나, 당신 식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당신의 믿음이란 하나의 변덕스런 믿음에 불과합니다.

둘,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믿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당화는 그리스도 일신의 의로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신의 경우에는 당신 자신의 것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셋, 믿음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한 인간성을 정당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임에 반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인간성을 정당화하려고 꾀하고 있으니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란 말입니다.

넷, 참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영혼(율법에 의해 존재가 상실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자각하는 영혼)으로 하여금 피난처인 그리스도의 의의 품속으로 도망쳐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에게 용납되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은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맡아 행해 주시고 고생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믿음을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인정되고 용납되어 받은 의로움이라야 그 의롭게 된 영혼은 깨끗한 옷자락에 싸여 아무런 흠 없이 깨끗한 채 하나님 앞에 제출되고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사 형벌을 면제해 주십니다.”

무지: “뭐라고요! 그래 우리를 도외시키고 그리스도 혼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우리더러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해도 좋고, 단지 그리스도 한 분의 행위만을 신뢰하면 된다는, 그런 엉뚱한 사상이 만일 퍼진다면 인간의 정욕 발작을 어거(馭車)하던 고삐가 풀어져 사람들은 모두 제멋대로 사는 것이 허용될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의 의로움만으로도 우리 모든 행위가 옳다고 인정된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짓을 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이 아닙니까?”

크리스천: “당신 이름이 무지이지요. 과연 당신은 이름 그대로 무지한 인간이군요. 지금 당신의 말이 무지를 탄로시켰으니까요. 옳다함을 인정받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엄하신 진노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려면 믿을

을 통해야 된다는 방법도 모르고 있군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에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와 그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 등입니다. 무식한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란 말이지요.”

희망: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 주셨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시지요.”

무지: “뭐라고요! 당신은 계시를 믿는 사람인가 보군요! 당신네 두 분 뿐 아니라 계시 따위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돌았다고 나는 믿어요.”

희망: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여보시오!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품안에 숨겨져 있으므로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도와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지: “그런 걸 믿는 건 당신 식의 신앙이요, 나는 나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릿속은 당신네처럼 술한 환상으로 차 있지는 않지만 내 믿음도 당신네 믿음만큼 좋은 것이어요.”

크리스천: “한 마디만 더 들어 주시오. 계시문제(啓示問題)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친구가 말한 것을 나도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단언해요. 그렇고말고요, 인간의 영혼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정당한 믿음이지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의 작용 없이는 예수를 볼 수 없어요(역주: 마태복음 11:27, 고린도전서 12:3). 이 믿음의 작용을 무식한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내게는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 자신의 졸렬함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예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니니까)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무지: “당신들 걸음이 너무 빨라 나는 따라갈 수 없으니 먼저들 가시오. 난 잠깐 떨어져 갈 테니.”

이때 두 사람은 말했다.

무지라는 인간  
열 번 권고도 냉대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의 좋은 권고를 끝내 거부하면  
거부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미구(未久)에 알게 되리.  
좋은 권고 두려워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람아, 너무 늦어지기 전에  
우리 권고 듣고 기억하라.  
좋은 권고 끝내 냉대하면  
무지여, 당신은 패배자가 될 것을 우리가 장담한다.

그리고 나자 크리스천이 동행자에게 말했다. “자, 희망 형, 갑시다. 다시 우리 둘  
이만 동행해야 할 것 같이 보이니.”

그리하여 그들은 앞서 걸어가고 무지는 뒤로 절뚝거리며 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  
다. 얼마 뒤 크리스천이 동행자에게 말했다. “그 청년 결국 잘못될 것이 확실하니  
참 가엽게 생각되는군요.”

희망: “참 불행해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온 가족, 아니  
온 동네 통틀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례자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고향에  
도 그런 자가 많으니 그 사람 출생지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크리스천: “성경 말씀에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니 그들이 눈으로 볼까  
두려워함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끼리니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진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두려워할 때가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 “글쎄요. 형님이 연장자이시니 형님이 대답하세요.”

크리스천: “그럼 내가 말하지요. 그들에게도 죄를 깨닫고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때가 가끔이나마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배 안의 무지로 태어난 그들  
이라, 죄를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걸 이해 못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  
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사적으로 억누르면서 그들 마음이 쏠리는 대로 행동하  
면서 자기들 사상이 옳다고 외람된 주장을 고집하여 자위(自慰)하고 있는 거지요.”

희망: “죄의 벌을 받을 두려움이 인간을 착하게 만들어 주고, 순례를 떠나기 시작  
할 때 바른 길을 잡아 준다는 형님의 말에 저도 동감이고 또 그렇게 믿어요.”

크리스천: “두려움을 올바르게 느낀다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건 의심할 여지조차  
없지요.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역주: 잠언 1:7).’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 “올바른 두려움이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 “참된, 즉 올바른 두려움은 세 가지 점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 두려움이 생기는 동기, 즉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깨달음 때문에 두  
려움이 일어나는 점.

둘, 두렵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점.

셋,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적을 대단히 존경하기 시작하고 또 계속 존경하게 만들어 주는 데서 두려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존경심을 암전히 지키도록 만들어 주  
고, 평화를 파괴하거나 성령을 괴롭히거나, 혹은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하  
는 언사를 토하게 하는 등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겁이 나  
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막론하고 탄 데로 돌리지 않으려  
고 애쓰는 것이 곧 죄를 깨닫는 데서 생기는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희망: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형님은 진실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요술  
에 걸린 지역을 지금 열추 다 지나온 건 아닐까요?”

크리스천: “글쎄요. 우리 얘기에 실증하셨나요?”

희망: “아니요, 절대로 실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고  
싶군요.”

크리스천: “십리도 채 못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의 토론을 계속합니다. 죄를 깨달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죄의식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희망: “어떻게 죄의식을 억누르려고 하는 걸까요?”

크리스천: “첫째, 두려운 생각이 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은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오해하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착각하여 기어이 반항하는 거지요. 둘째,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이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요. 하지만 가련하게도 그들은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대항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지라, 실은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님께 자신만만한 척 자랑하려 드는 거지요. 넷째, 두려움이 그들의 보잘것없는 옛 자아신성(自我神聖)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한사코 두려움에 저항하는 거지요.”

희망: “그런 심경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크리스천: “자, 무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이쯤 끝내고 다른 유익한 문제의 토론을 하기로 합시다.”

희망: “진심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역시 형님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천: “그럼 내가 시작하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십 년 전에 아우님 고향 마을에 「임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종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희망: “기억하느냐고요! 알고 말고요. 「정직」 마을에서 약 십 리 떨어진 「변덕」이란 마을에 사는 「겁쟁이」라는 사람의 집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지요.”

크리스천: “웁습니다. 겁쟁이와 한 지붕 아래서 그가 살았지요. 그 당시 한때나마 그는 상당히 껌 사람이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또 죄에 따르는 벌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믿어저요.”

희망: “저도 형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집이 그의 집에서 십 리

조금 더 떨어진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주 저에게로 찾아와서는 서럽게 울고는 했어요. 사실 말씀이지 나는 그 사람을 매우 불쌍히 여겨 주었고, 희망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요.”

크리스천: “지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도 순례를 떠나기로 결심했노라고 한 번 나한테 말해 주었지요. 그러나 별안간 「자유」라는 사람과 그가 사귀기 시작하자 그는 판사람이 돼 버렸어요.”

희망: “그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그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이유부터 좀 캐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천: “유익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 아우님이 시작하세요.”

희망: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 내려요.

첫째, 그런 사람들이 양심은 각성되었다고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의 힘이 쇠잔해지면 그와 동시에 종교심을 격발시켰던 힘조차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연 옛날 본성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개가 먹은 것에 체해 병들게 될 때 그 병이 계속되는 동안 별 수 없이 위장 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 전부를 토해 버리지요. 그런데 개가 토해 버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개 자신의 자유스런 마음(개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한 음식이 위장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토해 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 토해 내서 배가 아프지 않고 위장이 편해지면 자기가 토해 낸 음식도 가리지 않고 오직 식성에 못 이겨 방금 자기가 토해 낸 음식물을 말끔히 다 먹어 버리지요. 성경 말씀에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여주: 베드로후서 2:22). 이와 같이 단지 지옥에서의 고생살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하나로 천국에 가려고 열성을 내던 자들의 지옥에 대한 인식과 형벌에 대한 공포심이 식어질 때 천국과 구원에 대한 그들의 욕망 역시 식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당과 행복에 대한 욕망도 사라져 없어지고 말아 옛 본성으로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한 가지 두려움에 그들은 비굴할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역주: 잠언 29:25), 그래서 지옥에서 타는 화염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는 동안만은 천당을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옥 불 공포가 조금만 식어져도 그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모험을 감행(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이므로)하거나, 혹은 그렇잖더라도 적어도 피할 수 없는 불필요한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하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 세상 물욕에 도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에 대한 수치감이 그들 행로 위에 거추장스런 장애물로 놓여 있습니다. 건방지기 그지없고 오만불손한 그들의 눈에는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저속하고 야비한 것으로 밖에 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한 인식이나,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소멸될 때 그들은 옛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넷째, 죄의식의 감득(感得)이나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곤고에 직접 당면하기 전에는 그들은 곤고를 생각하기조차 싫어하지요. 곤고가 닥쳐 오는 것을 처음 볼 때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던들 그들은 의로운 인간들이 한 것처럼(역주: 욥기 2:2) 그 곤고 속으로 달려 들어가 거기서 안전을 얻을 수 있었으려면, 그들은 곤고는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비친 것처럼 죄의식이나 공포감을 느끼기는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공포 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각성이 제거되면 제거되자마자 즐겁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완고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주는 행위만 골라 행하여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실에 거의 가까운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자기네 마음과 의지력을 변경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판장 앞에서 있는 중죄범(重罪犯)인 것처럼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떨고 회개하는 척하는 이유가 범죄를 다소나마 꺼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목매어 죽이는 밧줄이 무서워서 그러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무죄 석방해 주는 경우 그는 다시 도둑놈이 되고 악한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본질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마음이 정말 변했다면 석방된 후 그의 처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희망: “사람들이 옛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으니, 형님은 그들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크리스천: “그러지요.

첫째, 하나님과 죽음과 장차 올 최후 심판 등에 대한 기억을 가능한 한 그들 생각으로부터 후퇴시키지요.

둘째, 그다음에는 은밀한 개인적 기도드리기, 정욕의 억제, 경계심, 죄에 대한 뉘우침 등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적 임무 수행을 차차 등한히 하지요.

셋째, 그다음엔 기운차고 열렬한 기독교인들과의 교제를 꺼리지요.

넷째, 그다음엔 설교 듣는 것, 성경 읽는 것, 경건한 교회 집회 등 공적인 임무 수행에 냉담해지지요.

다섯째, 그다음엔 몇몇 독실한 신자들의 흠을 악착같이 지적해 내어 얼마간의 약점을 꼬집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종교를 저버리는 구실로 삼지요.

여섯째, 그다음엔 육체적이고 방종하고 음탕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탁하기 시작하지요.

일곱째, 그다음엔 비밀리에 음담패설에 열중하면서,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도 음담패설을 즐기는 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기뻐 날뛰면서, 정직한 사람들 본을 반드라고 사칭하며 방종한 생활을 더 용감하게 하지요.

여덟째, 그리고 나서는 조그만 죄를 공공연히 범하기 시작하지요.

아홉째, 그다음엔 더욱더 담대해지고 완강해진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지요. 그리하여 은총의 기적이 방지해 주지 않는 한 그들은 재난의 구렁텅이로 다시 빠져들어가, 결국에는 그들 자신의 자아기만(自我欺瞞)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하고 말지요.” 이때쯤 되어 요술에 걸린 지역을 벗어난 두 순례자가 뿔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을 나는 꿈에 봤다. (역주: 뿔라는 비국교도의 예배당을 말하는 것인데,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청교도파 교인이 되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저자인 존 버니언은 영국 국교에 반기를 들고 목사로 안수받음 없이 설교한 죄로 체포되어 감옥살이할 때 이 책을 저술했음) 천국으로 곧장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이 뿔라 지역의 공기는 맑고 시원하여 그들은 이곳에서 꽤 오래 쉬며 즐겼다. 여기서 그들은 새 노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었고, 매일 매일 땅 위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고장 산비둘기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해가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비치고 있었으므로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절망의 거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며, 의혹의 성도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그들이 가고 있는 하늘나라 시야 내에 들어 있으며, 이곳에서 그들이 만나는 주민은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이곳은 하늘나라 접경이었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또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새로 맺게 되었으니, 곧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역주: 이사야 62:5)는 성경 말씀대로였다. 이곳에서는 식량과 음료가 부족됨이 없어 여행 도중 그들이 줄곧 부족을 느꼈던 물자를 여기서는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오는 커다란 소리도 여기서는 잘 들을 수 있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느니라 (역주: 이사야 62:11).”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곳 모든 주민은 서로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와 목장을 건져 주신 백성이요, 여호와가 찾은 백성이다(역주: 이사야 62:12).”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지금 이 지역을 걸어 다니는 그들은 목적지인 천국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방을 여행할 때보다 무척 더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천국을 더 자세히 완전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늘나라 건물들은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되어 있고, 길은 전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었다. 천국이 가진 천연적 영광에 기가 질렸을 뿐 아니라 보석과 황금을 반사하는 햇빛 광선에 눈이 부서진 크리스천은 그만 병에 걸렸다. 같은 병에 걸린 희망도 한두 차례 경련을 가졌다. 그래서 한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은 누워서도 고통을 못 참아 울

부짚었다. “누구든 내 사랑하는 이를 보거든 나는 상사병에 걸려 있다고 말을 전해 주오.”

그러나 얼마 후 좀 기운을 차리고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된 그들은 갈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국 가까스로 걸어가며 보니, 큰 길가 여기저기 많은 과수원과 포도밭과 회원들이 산재해 있었고, 그 동산들로 들어가는 문은 큰 길에 면해 있었다. 한 과수원 앞에 당도하니 길가에 과수원지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순례자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훌륭한 포도밭들과 회원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과수원 지기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지요. 과수들을 심어 놓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길손들에게 휴식과 위안도 주기 위한 것이지요.”

포도밭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 지기는 그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얼마든지 맘대로 따 먹어 기운을 돋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산보하시는 산책로와 편히 휴식하시는 정자들도 그들에게 구경시켜 줬다. 한 정자에 좀 머물렀던 그들은 잠들어 버렸다.

잠자는 그들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잠자며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 많은지 그들 둘은 함께 여행하면서 이때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을 눈치 챈 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둘이 자면서 얘기하는 걸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이상스러울 것 없어요. 이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이 포도를 먹는 사람들의 입술은 자연 움직이게 되어 자면서도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이 깨자 그들은 천국으로 어서 올라가자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천국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깔린 도시였으므로) 햇빛이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특별히 만든 기구를 끼고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그들이 마주 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나는 봤다. 마주 오는 두 사람이 입은 옷은 금빛으로 빛났고 얼굴에서도 광채가 발산되었다.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더러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오는 도중에 어디 어디서 묵었으며, 어떤 난관과 위험에 봉착했으

며, 어떤 위안과 즐거움을 맛보았는가 물었다. 그들은 이 물음에도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을 만난 두 사람이 다시 말했다. “앞으로 두 가지 난관만 돌파하면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과 그의 동행은 천국까지 동행하자고 그들에게 제의하니 그들은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가 동행해 준다고 당신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신네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갈 권리를 획득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은 말했다. 이리하여 그들 네 사람이 천국 성문이 보이는 데까지 동행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천국 성문과 그들 사이에 강 하나가 가로놓여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도 없고 강물은 매우 깊은 것같이 보였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강을 건너야지, 건너지 못하면 성문까지 가지 못합니다.” 순례자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문까지 갈 수 있는 판 길은 없는가 하고 묻기 시작했다. 동행자들이 대답했다. “있기는 있지만 세상 창조 이후 지금까지 그 길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 받은 분은 두 분 즉, 예녹(역주: 창세기 5:24)과 엘리아(역주: 히브리의 담대한 예언자)뿐이었고, 앞으로는 최후 심판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허락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례자들의 마음속, 그중에도 특히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짓들기 시작하여 이리저리 두루 살피봤으나 그 강을 피할 길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강 깊이가 일률적으로 깊으냐고 동행자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요. 강물이 깊으냐 얕으냐 하는 문제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당신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지요.” 순례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못 주는 말이었다.

하여튼 그들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금세 물에 잠기기 시작한 크리스천은 절친한 친구인 희망에게 크게 소리 질렀다. “난 지금 깊은 물에 빠졌소. 파도가 내 머리 위로 넘실거리고 온 몸이 물결에 휩쓸리고 있어요! 아, 아.”

이때 희망은 말했다. “안심하세요, 형님. 강바닥이 밟혀지는데요. 정말이에요. 안

심하세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 아우님, 죽음의 고통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죽는 거예요.” 이 절규와 함께 커다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리하여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자 정신까지 거의 다 잃어버린 그는 기억을 잃어 여행 도중에 맞본 바 여러 가지 상쾌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두서 있는 말을 못 하게 되고, 아직 말 할 수 있는 것은 강물에 빠져 죽을 공포와 성문 안에 들어서 보지도 못 할 공포감뿐이었다. 옆에 서 있는 동행자들 눈에는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은 죄와 여행을 시작한 뒤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 역력히 보이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가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 그는 지금 여러 종류의 꼬마 도깨비들과 악마들의 허깨비에 놀라 신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희망은 크리스천의 머리만이라도 물 위에 떠 있도록 해주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폭 잠겨 한동안 있다가 반 죽음이 되어 겨우 솟아오르곤 하는 것이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희망은 이런 말을 했다. “형님, 저기 성문이 보여요. 우리 둘 다 받아들이려고 여러 사람이 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건 아우님을, 아우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우님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아우님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자 희망은 크리스천에게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희망을 가지고 계셨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외쳤다. “아! 아우님! 내가 만일 옳았다면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날 건져 주실 것이 확실한데, 지금 나를 이 함정에 빠뜨려 놓고 방치해 두시는 걸 보니 나는 구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분명해요.” 이때 희망이 말했다. “형님, 악한 자에 대하여 성경에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역주: 시편 73:4~5).’라고 쓰여 있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신 모양이군요. 지금 형님이 이 물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재앙은 주님께서 형님을 저버리시는 표시가 아니라 형님이 이때까지 받아온 주의 은혜를 기약하면서 고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여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때 희망이 덧붙여 말했다.



“안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님을 완전케 해 주실 것이니.” 이 말에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주님을 내가 다시 뵙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라고요(역주: 이사야 43:2).”

그러자 용기를 가다듬은 두 순례자는 물 위로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부터 원수는 돌같이 굳어져 버려 그들의 도강(渡江)을 방해하지 못했다. 얼마 안 가 크리스천도 강바닥을 밟게 되고, 거기서부터 건너편 가까이 물은 얕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었다. 건너편 가에 다다르자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서 있던 두 빛나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들이 강에서 올라오자 빛나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신(神)이온 바, 구원의 상속권자가 될 분들에게 봉사하라고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 함께 문가로 걸어갔다. 하늘나라는 높고 높은 산꼭대기에 서 있었지만 순례자들은 별로 힘 안 들이고 쉽게 올라갔다. 왜 쉬웠느냐 하면 빛나는 사람들이 팔을 붙들어 길을 인도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이 강에 들어서기 전까지 입고 있었던 필멸(必滅)의 옷을 입은 채 강으로 들어갔지만 강 속에서 그 옷을 벗어 버리고 나와서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었다. 천국을 세운 터가 구름보다 더 높은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첩하고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공중 지역을 올라가는 그들은 위험한 강을 무사히 건넌 안도감과, 붙들어 주며 동행해 주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에 위안을 느끼며 즐거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자, 보라. 거룩해진 순례자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구름 타고 가는 모습.  
이승의 생활이 끝날 때 이런 대접 받는다면  
누군들 천만 가지 위험 다 무릅쓰고  
순례의 길 떠나지 않을소냐?

그들이 빛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화두는 천국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다. 천당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만든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다. 그곳이 바로 시온 산이요, 하늘 위의 예루살렘인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완전함을 얻은 선인들의 영혼이 섞여 사는 곳이라고 그들은 알려 주었다. 그들은 다시 말했다. “지금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낙원인데, 거기서 당신들은 생명의 나무를 볼 것이요, 그 나무에 열리는 영영 시들지 않는 과일을 따 잡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흰옷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매일 그곳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담화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 질병 · 고통 · 죽음 등 땅 위에서 보던 고된 것들을 그곳에서는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은 ‘옛것들이 다 갔기 때문’입니다(역주: 요한계시록 21:3~4). 당신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장차 올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그곳으로 데려다 그들 침대에서 편히 쉬게 하고, 각기 자기 의로움 안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때 순례자들이 물었다.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에 빛나는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겪어 온 모든 고난 대신 안위를 받게 될 것이요, 모든 애통 대신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어야 할 것이니 여행 도중 왕이신 하나님에게 기도드린 것, 하나님을 위해 눈물 흘린 것, 고생한 것 등 모든 것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들도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역주: 요한일서 3:2).’라는 성경 말씀대로 기록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항상 뵈옵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당신들도 찬송과 갈채와 감사로 항상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들 육체의 궁핍 때문에 잘 섬기지 못하는 못 하면서도 섬기기를 갈망하던 주님을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마음껏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뵈옵는 동시에, 그의 인자하시고 유쾌하신 목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들보다 먼저 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동시에 당신들의 뒤를 따라 나중에 그 거룩한 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두 분 다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

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타고 다니기에 손색이 없는 수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바람 날개를 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세상에 강림하실 때 당신들도 동행하게 될 것이요, 그가 최후 심판하는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당신들도 그의 곁에 앉게 될 것이며, 그가 악행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실 때 당신들도 그 심판에 참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고 받은 악행자들의 신분이 천사건 인간이건 가릴 것 없이 악행자는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당신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선고에 참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또한 동행하게 될 것이니, 당신들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자 천군 한 중대가 그들을 영접하러 문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때 두 빛나는 사람이 천군에게 말했다. “여기 이 두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다 저버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셔 오라는 주의 분부를 받은 우리가 이분들이 원하는 여행에 동반해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구주의 얼굴을 즐겁게 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환성을 올리는 천군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역주: 요한계시록 19:9.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비교함)

이때 희고 빛나는 제복을 입은 하나님의 나팔수 여러 명이 또한 그들을 맞이하려고 문밖으로 나오며 나팔을 불었다. 유쾌한 가락을 어떻게나 크게 연주하는지 하늘 전체에 메아리가 가득 찰 정도였다. 크리스천과 그의 동행인 희망이 속세를 떠난 것을 천만 번 치하하고 난 나팔수들은 환성과 나팔 소리로 환영하는 것이었다.

치하하는 환성과 환영곡 연주를 끝낸 나팔수들은 두 순례자를 호위하여 보다 더 높은 지역으로 모시고 가려는 듯이 전후좌우로 둘러싸고 행진하면서 상쾌한 가락 나팔을 계속 불어 대는데, 그 광경은 하늘 자체가 그들을 영접하러 내려온 것같이 보였다. 이렇게 그들이 함께 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나팔수들은 즐거운 음악을 계속 연주할 뿐 아니라 극진히 환영하는 얼굴 표정과 몸짓까지 음률에 섞여 크리스

천과 그의 동행자를 모시고 가게 된 것이 얼마나 즐거우며, 영접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두 순례자가 아직 천당에 이르지 못하는 못 했지만, 그들이 천군 천사들에게 호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다운 음률로 에워싸여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천당 자체가 그들의 시야 안에 들어 왔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천당 안 모든 종이 다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그들을 감격시킨 것은 이렇듯이 훌륭한 인사들과 함께 이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었다는 벅찬 즐거움이었다. 지금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필설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성문에까지 다다랐다.

성문 앞에 다다라 문 위를 쳐다보니 금자로 ‘하나님의 성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도다.’라고 쓴 액자가 걸려 있었다(역주: 요한계시록 22:14).

빛나는 사람들이 두 순례자더러 문을 향해 소리 지르라고 일러주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들이 소리치자 문 위로 예녹 · 모세 · 엘리야 등 몇 사람이 내다봤다. 두 순례자가 말했다. “이곳에 계시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할 도시를 버리고 여기까지 여행해 온 자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그들은 각기 여행 시작 때 받았던 증명서를 제시했다. 두 장의 증명서는 왕에게로 전달되고 그것을 읽은 왕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문밖에 서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문을 열라고 왕이 명령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라(역주: 이사야 26:2).”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아! 그들이 문 안에 들어서자 그들 모습은 변하고 황금빛같이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프와 면류관을 들고 마주 와 그들에게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프는 주를 찬송하는 음악을 연주하라고 주는 것이고, 왕관은 존대의 표시로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온 시내 종이 모두 한꺼번에 기뻐 울리는 소리를 나는 꿈에 들었고, “들어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역주: 마태복음 25:21).” 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그때에 두 순례

자 자신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 소리를 나는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역주: 요한계시록 5:13).” 두 순례자가 들어가기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그들 뒤로 성 안을 들여다봤더니 도시 전체가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거리는 모두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하프를 든 술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주를 찬송하는 음악을 하프로 연주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날개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주 하나님이며(역주: 요한계시록 4:8).” 하고 쉴 새 없이 서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때 문이 닫혔으나 닫기 전에 본 광경이 내 눈에 선하여 나 자신도 그곳으로 들어갈 살고 싶은 생각이 불 일듯이 일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광경을 눈여겨보고 있던 내가 머리를 돌려봤더니 무지가 그때 강저쪽 가에 도착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는 아까 강을 건너온 두 사람이 겪은 고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쉽게 강을 건너오는 것이었다. 어찌하여 쉽게 건널 수 있었느냐 하면 때마침 나룻배를 가진 허망이라는 뱃사공이 있어 그를 배에 태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강 이쪽 가에 내린 그는 아까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당 문으로 향해 언덕길을 걸어 올라오기는 하나 오는 사람은 그이 하나뿐, 그에게 용기나 위안을 주기 위해 마중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문에 다다라 문 위에 걸려 있는 액자를 쳐다보고 난 그는 곧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리기만 하면 그를 들여보내려고 즉시 문을 열어줄 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문 위에서 내다보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리고 뭘 하러 왔소?” 그는 대답했다. “저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요(역주: 누가복음 13:26).” 그렇다면 증명서를 주면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겠다고 그들이 말했다. 그래 그는 제 가슴 속에 손을 넣어 더듬어 봤으나 증명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증명서를 못 가지고 왔소?” 무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대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무지를 만나보려고 내려오실 생각은 않고, 아까 크리스천과 희망을 데리고 성까지 온 두 빛나는 사람을 불러 문밖으로 나가 무지를 체포하여 묶어가지고 다른

데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를 체포한 빛나는 사람들은 그를 끌고 지상으로 내려와 산허리에 뚫린 어떤 다른 문 안으로 들이밀어 버렸다. 멸망할 도시 근처에만 지옥문이 있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천당 문 근처에도 지옥문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잠에서 깼다. 지금까지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맺는 말

자, 독자여 지금까지 나는 꿈 얘기를 하였소.  
내 꿈 얘기를, 내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혹은  
이웃사람에게 해몽해 줄 수 있는지요.  
해몽하되 그릇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오.  
만일 오해하면 이익 대신  
손해를 가져오기 십상이니까 말입니다.  
오해는 악을 결과 맺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내 꿈의 외형만 가지고 장난치거나  
반대로 내가 사용한 비유를  
조소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극단 행동은 삼가 주세요.  
그런 것은 어린이나 바보더러 하라고 버려두고  
당신일랑 내 얘기의 실질(實質)을 포착해 주세요.  
커튼을 걷어치우고 베일에 가린  
내 참 모습을 찾아봐주시고,  
내가 사용한 비유의 뜻을 발굴해 보아  
거기서 무엇이고 찾아보는 일을  
계율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하면 정직한 마음에는 도움이 될

그 무엇을 발견하시게 될 것이니.

이 책에서 혹시 쇠똥이 발견되거들랑  
쇠똥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금덩이만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잡쇠 속에 순금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씨가 싫고 사과를 버리는 사람은 없으니  
그러나 내 꿈 얘기가 전혀  
허망한 것이라 여겨 모두 던져버리신다면  
내게는 꿈을 한 번 더 꾸는 도리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 제 2 부



## 제2부

이승으로부터 저승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기.  
제2부 꿈을 가장하여 엮은 이야기.  
여행출발 경위,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식들이 여행 떠나는 모습,  
위험한 여행,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나라에 안착하는 광경.

작자 존 버니언

“내가 비유를 사용했노라(호세아 12:10).”

### 천로역정 제2부를 내놓으면서

내가 쓴 작은 책아, 가라.  
내가 그려낸 첫 순례자가 얼굴만이라도 비친 곳이면  
모두 다 찾아가 문밖에서 주인을 찾으라.  
누구냐고 묻는 이가 있거들랑  
크리스티아나(크리스천의 아내)가 왔노라고 말하라.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청하거들랑  
아들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들어가서는 소년들이 누구며  
어디서 오는 길이라는 것을 재주껏 설명하라.  
소년들의 생김새를 보고 이름을 들으며  
그 집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라는 걸 알지도 모른다.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하는 집이 있거들랑  
얼마 전에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를  
대접해 보낸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라.  
그런 일이 있었노라 하며  
그의 여행담을 재미있게 읽었노라고 하거들랑

바로 그의 아내와 자녀가 찾아왔다고 알리라.  
장차 올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집과 가정을 버리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리라.  
여행 도중 갖가지 난관에 봉착했고  
밤낮없이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라.  
술한 뱀을 밟아 넘고, 마귀들과 싸운 일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악을 극복해 온 일 등을 다 말하라.  
그렇다. 그다음에는 순례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여행을 보호해 주는 대담하고  
용감한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라.  
그 보호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이승은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알려 주라.

순례자가 되었기 때문에 맞볼 수 있는  
진미도 알려 주라.  
순례자의 왕이신 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함께 알려 주라.  
순례자들이 가 살기 위해 얼마나  
훌륭한 저택들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알려 주고,  
그들이 아무리 거친 바람과  
거센 풍랑을 만나 고생할지라도,  
주님과 그의 도를 믿는 그들이  
최종에 맞볼 쾌락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침착성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품에 안아 줄는지도 모른다.  
내 첫 번째 책을 아껴준 것처럼 당신도 아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평안을 빌어주어,  
자기네는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 줄 것이라.

### 이의 1.

그러나 제가 선생님이 쓴 진짜 책이라는 걸  
그들이 믿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리까?  
순례자와 그의 이름을 위조해 가지고  
진짜처럼 가장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 대답

내가 쓴 천로역정 책을 위조해 가지고  
꼭 같은 제목을 붙여 유포하는 자들이  
요사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팔기 위해  
내 이름과 내 책을 제목 반을 딴 책에다  
박음질해 가지고 팔아먹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위조를 묘하게 할지라도  
위조품들이 가진 특징이  
내가 쓴 책이 아니라는 건 내 스스로가 증명한다.

하나 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너 자신의 독특한 어휘와 문장으로 해명하라.  
지금에는 사용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동시에

쉽게 거짓 꾸며낼 수 없는 독특한 말을  
사용하여 해명하라는 말이다.  
해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심하는 자가 있을 때  
너를 집시라고 생각하고 집시 무리처럼  
무엄하게 돌아다니며 전국을 더럽히거나,  
그렇잖으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행위로  
착한 사람들을 속여 먹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곧 내가 쓴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터이니.  
그렇지, 너만이 지금에 내가 쓴 책이요.  
앞으로도 내가 쓴 책은 너 하나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터이니.

## 이의 2.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고,  
순례자가 되라고 권고하기 위해  
제가 그의 문을 두드린다 치고  
제 말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격심한 고통을 내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대답

내가 쓴 책아, 그런 경우 네가 직접  
대들어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겁쟁이들은 근거 없는 공포에

공연히 떠는 자들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번 내가 써낸 천로역정은  
바다 건너 육지 건너 여러 나라로 가 읽혔지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어떤 나라에서도  
그 책이 푸대접받았다거나 쫓겨났다거나 하는  
소식이 나에게 온 바 절대로 없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프랑스나 플랜더스에서도  
내가 쓴 천로역정은 친구 또는  
형제처럼 존중되고 있다.

내가 듣기에는 네덜란드에서는 그 책이  
금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고지 주민이나 난폭한 아일랜드 사람들도  
그 책은 낮익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

선진국인 뉴잉글랜드에서도 그 책을  
무척 반가운 표정으로 받아들이 뿐 아니라  
그것의 용모와 체구를 좀 더 잘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새 뚜껑을 씌워 주기도 하고 모양을  
다듬어 주기도 하고, 보석으로 장식까지 해 준다.  
그렇게 되어 내 책이 보다 더 활개치며  
대로를 활보하게 되었고,  
수천 명 인간들이 날마다 내가 그려낸  
순례자를 칭송하고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고향 가까이 와 보더라도 내가 그린 순례자가  
수치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아무런 근거도 없다.  
도시에서나 촌락에서나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대접해 주며, 모여 있는 사람들  
근처로 가거나 그들 가운데 얼굴만 나타내도  
그들은 미소 짓지 않고는 못 배기거든.

용감한 무사들도 천로역정을 껴안고  
사랑해주며 존경해 준다.  
그렇지, 부피가 더 큰 어떤 책들보다도  
조그만 내 책을 더 높이 평가해주거든.  
그렇다. 그들은 커다란 솔개보다 조그만 내 종달새가  
더 좋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들 하지.

그리고 신사 숙녀들도 내 책에 대해  
남들보다 적은 친절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천로역정이 신사 숙녀 독자들의 사실과  
가슴과 심정 속에 여러 가지 훌륭한 수수께끼들을  
아주 진전한 가락으로 전달해 주어  
읽는 수고의 갑절 되는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들이 내 책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내 책을 금덩이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길거리에서 장난치는 어린이들까지도  
내가 그려낸 거룩한 순례자를 만나면  
꼭듯이 경례하고 축복을 빌며

그날 만난 유일한 좋은 젊은이라고 말하지.

내가 그린 순례자를 한 번 만나지도 못한 이들까지도  
그의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 그를 숭앙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  
그가 잘 아는 순례자 얘기들을  
들어봤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지.

그리고 처음엔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보 천치 얼간이라고 홍보던 사람들도  
그를 직접 보거나 혹은 그에 대한 얘기만 듣고도  
대단히 좋게 보아,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추천해 보내지.

그러므로 천로역정 제2부인 네가  
네 자태를 남 앞에 나타내는 데 두려워 말라.  
너보다 앞서 간 제1부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왜냐하면 뒤따라 가는 너도 제1권 못지않게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나,  
비틀거리는 자들에게나, 안정된 자들에게나  
좋고 풍부하고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의 3.

하지만 순례자가 웃을 때 너무 크게 웃는다고  
홍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의 머리가 구름 속에 잠겨 있다고  
책잡는 이도 있으니 이를 어이 하지요?

또 그리고 더러는 그의 말과 얘기들은  
모두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 대답

순례자의 웃음과 울음은 눈물 고인 눈을 봐  
누구나 잘 짐작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물의 성질에 따라 한 가지 일이 한 사람에게  
선웃음치는 공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 주는 수도 있지.  
양치는 라헬을 본 야곱이 그녀에게 키스해 주는 동시에  
또 소리 내어 운 일이 있었느니라(역주: 창세기 29:10~12).

그의 머리가 구름 속에 잠겨 있다고  
어떤 자들이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총명이 저 자신의 망토를 둘러쓰고 있으면서  
그가 가까이 찾고 싶어 하는 것을 찾기 위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고,  
애매한 문구 속에 숨겨둔 것처럼 보이는 뜻은  
신앙심이 두터운 마음을 한층 더 매혹시킬 뿐이지.  
애매한 가락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문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참 뜻을 연구하는 일에  
신앙심 두터운 사람들이 한층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거든.

그뿐 아니라 애매한 문구로 쓴 비유가



독자의 공상에 많이 침입하면 할수록  
비유법을 차용하지 않은 글의 뜻보다  
비유로 쓰인 뜻이  
독자의 가슴과 머리에 한층 더 굳게 들러붙는 법이지.

그러니까, 내 책아  
낙담이 네 여행을 훼방놓지 못하게 하라.  
네가 원수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알아라.  
너와 네 속에 그려져 있는 순례자들과  
그리고 네가 품고 있는  
글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줄  
친구들에게 가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뿐 아니라 내 첫 번째 책이  
숨겨둔 채로 가버린 것을 밝혀낼 책임이  
나의 용감한 둘째 번 책인 너에게  
지워져 있는 사실을 알라.  
제1부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숨겨놓고  
문 닫고 쇠까지 채워놓고 가버린 것들을  
그의 상냥한 아내인 너여,  
내 책 제2부의 주인공인 크리스티아나,  
네가 열쇠를 들고 가면서 열어 주어야 된다는 말이다.

#### 이의 4.

하지만 첫 번째 책 쓰실 때 사용하신 당신의 수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들은 당신 책을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하고 티끌처럼 던져 버리거든요.  
만일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저를 멸시하고 냉대하듯  
저도 그들을 멸시하고 냉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 대답

크리스티아나 여사여, 행여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에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여  
친절한 인사로 대할 것이지,  
그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설로 대들지는 마시오.  
만일 그들이 얼굴을 찡그리거들랑  
그것은 그들이 타고난 성질이 나쁘거나  
그렇잖으면 잘못된 전언을 듣고  
무조건 당신을 멸시하거나 책잡는 것이니  
당신은 어디까지나 미소로 대하도록 하시오.

어떤 자는 치즈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자는 그들의 친구들 뿐 아니라  
자신의 집과 가정까지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돼지고기 싫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닭고기를  
싫어하는 자도 있고, 새고기를 싫어하는 자도 있는데  
그런 자들이 도리어 빼꾸기나  
부엉이 고기를 좋아하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 여사여, 그런 자들은 자기네  
맛대로 선택하라고 내버려두고  
당신에게로부터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찾아다니시오.  
순례자 차림을 한 당신은 누구하고 간에  
시비를 걸거나 논쟁할 생각은 아예 말고  
어디까지나 겸손한 태도로 남들 앞에 나타나시오.

그러니까, 내 작은 책아, 가라.  
너를 환영하고 대접해 주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라.  
그리고 너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동시에  
너나 나보다도 더 훌륭한 순례자들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너에게 가라고 거듭 나는 말한다.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여사, 말하시오.  
나는 크리스티아나인데 지금 아들 넷을 데리고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하고 말하시오.  
그리고 순례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려고 내가 왔어요  
하고 말하란 말이오.

그다음 지금 당신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어떤 인물이라는 것까지  
그들에게 알려 주시오.  
여기 이분은 내 이웃에 살던  
「자비심」이라는 아가씨인데,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온 지가 무척 오래되었어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이 동정녀의 순결한 얼굴을.  
그리고 게으른 자들과 순례자들 간의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도록 하세요  
하고 말하시오.  
그렇소. 장차 올 세상을  
이 자비심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다른 젊은 여자들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시오.  
하나님의 별 받아 마땅한 노망들린 죄인들을 저버린  
경쾌한 처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때야말로,  
늙은이들은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호산나! 를 부르는 시대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늙은 「정직」도 그들에게 알리시오.  
순례자가 가는 길에 혼자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는 머리 흰 정직을  
당신이 발견하던 때 얘기를 해 주란 말입니다.  
그렇소. 이 노인의 마음이 굉장히 솔직담백하다는 것,  
착하신 주님을 본받은 그가 얼마나 굳세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려 주란 말이오.  
정직의 얘기를 듣는 머리 흰 늙은이들이

혹시 그 얘기에 감화받아 죄를 슬퍼하는 나머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설복될지도 모르니.

그리고 「불안」이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알려 주오.  
고독을 느낄 때마다 그가 얼마나  
불안과 비통에 신음했다는 얘기와 결국  
어떻게 즐거운 보상을 쟁취하게 되었다는 사연까지  
얘기하시오. 용기가 너무나 부족한 그였지만  
실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연을 그들에게 들려주오.

그리고 또 남보다 앞서 가지는 못 하지만  
뒤따라가는 「심약」에 관한 얘기도 들려주시오.  
그가 참살당할 위기에 임해 있을 때  
「아람」의 손에 의해  
목숨을 도로 찾게 된 얘기도 그들에게 들려주오.  
마음이 무척 약한 그이기는 했지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맑은 인격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도 말하시오.

그다음 「망설임」에 대한 얘기도  
그들에게 들려주오.  
망설임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끼고 나서야 걸음을 걸었지만  
별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 주시오.  
심약과 망설임,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로  
둘의 의견이 오래 일치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오.  
그들 둘이 다 성공할, 기회가 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춤을 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리시오.

「진리의 용사」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직 약관의 젊은 사람이지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나이.  
그의 투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를 후퇴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들려주시오.  
그리고 의혹의 성이 그냥 서 있는 꼴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된 그와 아량이 합세하여  
「의혹의 성」을 함락시키고 「절망」을  
죽여 버린 사실도 널리 전하시오.

「낙심」과 그의 딸인 「겁쟁이」의 행적 얘기도  
간과하지 마시오.  
그들이 입은 옷 꼴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사뿐사뿐 걸어 끝내는

그들도 순례자의 주인인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을 발견한 얘기도 말하시오.  
내 책아, 온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다 전한 후에는 돌아서서 현금 줄을 건드리라.  
건드리기만 해도 절름발이가 춤을 추고  
거인이 떠는 음악을 연주해 주는 현금 줄을.

내 책아, 네 가슴 속에 도사리고 누워 있는  
여러 수수께끼들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자유롭게 해설하여라.  
그리고도 남아 있는 신비스런 문구들은  
해설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현명한 공상력을 가진 독자들이 스스로 풀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말이다.

나의 조그만 책과 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조그만 책이 복을 내려주기 나는 바라노라.  
그리하여 내 책을 산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돈만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던져 버렸다는 불평을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 바라노라.  
그렇다. 착한 순례자라면 누구든지  
그의 공상을 만족시켜주는 열매를  
나의 천로역정 제2부가 맺어주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옳은 길을 버리고  
결길로 들어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설복하여

바른 길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기능을  
이 책이 가져다주기를 나는 바라노라.  
이것이 저자의 간절한 소원이다.

존 버니언



## 꿈에 비유해 쓴 순례자의 편력(遍歷)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위험천만한 여행 모습을 꿈에 본 대로, 얼마 전에 얘기하여 드렸는 바, 그것이 나에게서는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는 이득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 멸망할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멸망당하는 위험에 반드시 직면하리라는 공포를 느낀 그는 꼭 떠나고 싶었으나 가족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부득이 혼자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 결국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떠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었다.

그 뒤 여러 가지 분주한 잡무에 시달리던 나는 내가 늘 산책하던 곳, 즉 방황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봤던 그 장소에 다시 가 볼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뒤에 남기고 간 가족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은 생각은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 볼 기회를 못 얻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그 지방에 가 볼 일이 생긴 나는 그곳으로 갔다. 그 장소에서 약 일 마일 떨어진 삼림 속 여관에 들어가면서 나는 꿈을 한 번 더 꾸었다.

내가 누워 있는 옆으로 어떤 늙은 신사 한 분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런데 그이도 내가 여행하는 방향으로 얼마간 간다고 하기에 그이와 같이 갈 생각으로 나는 일어났다. 그리하여 나는 그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여행자들이 흔히 하는 대로 말을 주고받게 되고, 화제는 어찌다가 크리스천과 그의 여행에 대한 얘기로 발전됐다. 그 노인에게 내가 아래와 같은 말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했다. “선생님, 저 아래 왼쪽에 깔려 있는 마을은 무슨 동네입니까?”

그러자 「현명」 씨(그의 이름이 현명이었으므로)가 말했다. “「멸망의 도시」라는 마을인데, 상당히 변화한 곳이기는 하지만, 주민 대다수가 무척 심술궂고 또 게으르지요.”

내 생각에도 그곳이 멸망의 도시같이 보였으므로 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언젠가 나도 저 마을을 찾아가 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명: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호평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못하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내가 말했다. “선생님, 그 말씀을 들으니 선생님은 마음이 착하신 분이군요. 남의 좋은 점만 골라 듣기 좋아하시고, 또 좋은 점만 말하기를 즐기시는 훌륭한 분이 란 말입니다. 그 고장에 살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보다 더 높은 고장으로 갈 목적으로 얼마 전에 고향을 떠나 순례의 길에 오른 일을 혹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현명: “듣다 뿐이겠소! 그이가 떠나갔다는 말뿐 아니라 그가 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방해와 받고, 고난을 겪고, 싸움도 하고, 포로가 된 일도 있고, 울고불고, 신음하고, 놀라고, 무서워 떨고 했다는 소문까지 다 들었지요. 그뿐 아니라 그에 대한 소문이 우리 지방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알려 드리지요. 그의 이름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소문까지 자자하게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순례 기록을 분명히 알려고 하는 자나 그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별로 없지요. 그리고 그가 고향에 있을 때에는 주민 모두 다 그를 바보라고 훔쳤었지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감행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모두들 그의 소행을 크게 칭찬하는 동시에 그에게 행복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크리스천이 현재 전국에서 행복스럽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그들은, 자기네는 위험을 무릅쓰는 여행을 엄두도 못 내면서도 남이 잘 산다는 소문에는 군침을 삼키는 거지요.”

내가 말했다. “지금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곳은 생명의 샘이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슬픔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일도 하지 않고 슬픔도 느끼지 않으면서 지금 편히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그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지요.”

현명: “그들의 말을 들어 보면 굉장하지요! 그의 현재 생활에 대해 이상야릇한 소릴 하거든요. 그가 지금 흰옷을 입고 거리에 나다닌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더러는 진주알 총총 박은 금면류관을 쓰고 다닌다고까지 말하는 걸요. 또 더러는 그의 여행 도중에 가끔 나타나곤 했었던 빛나는 사람들이 지금엔 그의 친구가 되어 이 세상 이웃들 간에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는 빛나는 사람들을 이웃 삼아 친하게 지내고 있다

고 말하지요. 그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의 발언에 의하면 그곳 왕께서 궁전 안에 있는 호화찬란하고 기분 좋은 대궐 한 채를 그에게 이미 하사하셔서 거기 살면서 매일같이 임금님과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산책하고 말을 주고받는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자면 그곳을 주재하시고 다스리는 왕의 총애를 그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나라 왕자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에 강림하사 크리스천이 순례자가 되려고 할 때 이웃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깔보고 비웃었는지 그 이유를 (주민들이 이유를 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따지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가 지금 왕자님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순례자가 되려 할 때 받은 수모는 곧 왕자 자신이 받은 모욕이나 마찬가지로 여겨 왕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천이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끝까지 왕자님을 사랑했으니 왕자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지요.”

내가 말했다. “그 불쌍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잘 된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고역을 치른 대가로 그는 안식을 얻었고, 눈물을 흘린 대가로 쾌락을 거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원수들의 공격권 바깥 지대에 자리 잡아 살게 되었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도 미치지 못할 곳에 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이 근방에 파다하게 퍼진 것을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문이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만 몇 명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크리스천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 한 마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소문은 혹 들으신 일이 없는지요? 가련한 인간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꼭 궁금합니다.”

현명: “누가 가련하단 말입니까!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들 말입니까? 그들은 크리스천을 본받았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가장을 바보로 취급하여 그의 눈물로서의 호소까지도 듣지 않고 거부했지만, 그 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는 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그들도 짐을 싸가지고 가장의 뒤를 따라 이미 길을 떠났지요.”

내가 말했다. “그것 참 잘 됐군요. 잘 됐어요. 그럼,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길을 떠났단 말이지요!”

현명: “그렇지요. 그때 마침 내가 그들 가까이 있게 되어 그들의 행동을 잘 봐서 알고 있으니, 그때 생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드리지요.”

내가 말했다. “그게 정말입니까? 선생님 말씀만 믿고 남에게 이 소식을 전갈해도 되겠습니까?”

현명: “염려 없어요. 절대로. 그 착한 여인과 네 아들은 함께 이미 순례의 길을 떠났으니까요. 당분간 우리 둘은 동행할 것 같으니 그 사연을 차근차근 다 말해 드리지요.

남편이 강을 건너가자 소식이 끊어져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게 된 크리스티아나(그녀가 아들들을 데리고 순례자 생활을 시작하는 날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나로 불리게 됐지요)의 마음속에는 슬한 생각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지요. 처음 생각난 것이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곧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렸다는 생각이었지요. 당신도 알다시피 사랑하는 친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슬한 추억이 생각을 괴롭히는 것이 생존해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잃어버린 남편 추억에 그녀는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지요. 그뿐만 아니었지요. 남편에 대한 자기의 무정한 행동이 남편을 영 못 보게 된, 남편을 빼앗기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생각이 들자 사랑하는 남편을 불친절하게, 부자연하게, 불경하게 대했던 여러 가지 일이 꼬리를 물고 그녀의 마음에 모여들어 양심을 엮매오고 죄의식이 무거운 짐처럼 내리눌렀지요. 그뿐 아니라 남편이 떠나가기 직전 그렇게도 안절부절못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자탄하면서 (그녀와 아들들을 보고) 함께 떠나자고 애원도 하고, 사랑의 호소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묵살하려고 자기 마음을 더 완강하게 했던 기억이 살아나 간증이 다 녹는 것 같았지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천이 그녀 앞에서 그때 말하던 것, 행하던 것이 모두 번개처럼 그녀의 기억에 되살아나 가슴을 갈가리 찢어 주었지요. 무엇보다도 특히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울부짖던 남편의 목소리가 새삼 그녀의 귀에 슬프게 울리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

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린 이제 다 틀렸다.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혼자 가버리신 거다. 우리도 함께 가자고 아버지가 자꾸 조르는 걸 내가 불응했고, 그래서 너희 생명까지 내가 훼손 놓은 셈이 됐다.”

이 말을 들은 소년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따라가자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대요. “아!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갔던들 운이 좋았을 걸. 그랬던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 수 있었을 걸. 그때 너희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시는 것을 나는 단지 어리석은 공상, 그렇잖으면 우울증에 걸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원인은 딴 데 있었어. 즉 아버지 머리가 돌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죽음의 함정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광명의 빛을 하사받고 그랬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자 아들들은 다시 울면서 “아, 화 있을진저, 그날이여!” 하고 소리 질렀대요.

그 이튿날 밤 크리스티아나는 꿈을 꾸었대요. 넓은 양피지 한 장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어떤 때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전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 전부가 아주 부정한 짓으로 기록되어 있더라요. 잠결에 그녀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역주: 누가복음 18:13).”라고 소리 질렀대요. 이 잠꼬대를 소년들이 다 들었더군요.

그러자 두 명의 악한이 자기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같이 생각했대요. 악한들이 말하더라요.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자나 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만일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도 영 잃어버리고 말테니 무슨 수단 방법이든지 써서 장차 어떤 일이 생기리라는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겠소. 그냥 버려두었다가는 이 여자도 순례자가 되는 걸 막을 재간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니.”

땀에 폭 젖어 잠을 깼 그녀는 전신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녀는 다시 잠들었대요. 그러자 남편인 크리스천이 복된 곳에 여러 영생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서 있는 것을 그녀는 본다고 생각했대요. 더구나 하프를 손에 든 그는 머리에 무지

개를 두르고 보좌에 앉아 있는 어떤 분 앞에서 하프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엔 왕자의 발아래 놓여 있는 등상(凳床)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남편이 아래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봤대요.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대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거기 둘러 서 있는 술한 사람들이 하프를 켜면서 무어라고 소리들을 지르는데 그 소리의 뜻은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 외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튿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고 나서, 아들과 애기를 잠시 하고 있노라니 누군가가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면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녀가 말했더니 “아멘.” 하는 남자 목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역주: 요한복음 20:26).” 하고 인사하며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아나여, 내가 왜 왔는지 짐작하시겠소?”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빨개지고, 몸은 떨렸대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사명을 띠고 왔는지 알고 싶은 욕망으로 그녀의 가슴은 흥분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비밀’입니다. 높은 데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높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그곳에 나돌기 시작하는 동시에, 이전에 당신이 마음을 완강히 하여 남편이 길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을 뿐 아니라, 아들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죄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크리스티아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언제나 용서해 주실 용의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죄인을 용서하는 데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저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로 가기만 하면 환영하여 기름진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의 선조인 야곱의 유산을 분배해 주실 것을 알려 드리려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인 크리스천은 지금 높은 곳에 무수한 동료와 같이 살면서 우러러보는 자에게 생명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우러러보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문지방을 넘어서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그곳 주민 전체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방문객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아나여, 당신의 남편이 섬기는 임금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받아 펴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고 사연은 금상으로 씌어 있었대요. 그 편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남편인 크리스천이 행한 것처럼 그녀도 하늘나라로 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기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연이더라요. 이 편지에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한 그녀는 방문객을 향해 외쳤대요. “선생님, 이 임금님을 우리도 섬기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저와 이 어린것들을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방문객이 말했대요. “크리스티아나, 쾌락이 오기 전에 고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당신보다 앞서 간 그이처럼 난관들을 돌파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남편 크리스천이 겪은 모든 난관을 돌파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 평원 저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 머리에 그 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급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품에 품고 가면서 내용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물론 아들도 읽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순례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이 편지를 노래로 불러야 하기 때문이며(역주: 시편 119:54), 저쪽 문에 도달할 때 이 편지를 내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노인이 퍽 흥분되어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보았다. 그는 얘기를 계속했다. “아들들을 불러온 크리스티아나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이미 눈치 챌겠지만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해 그동안 나는 상당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불행하실까 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나와 너희 생활이 너무나 불행하게 된 데 대해서도 골똘히 생각해 왔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고민에 빠져 계실 때 내가 취한 태도가 양심에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이 동행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너희까지 부추겨서 거부하게

만든 것이 양심에 거리긴단 말이다. 이런 생각에 나는 그만 죽고 싶었다. 그러나 어젯밤 꿈을 꾸고 나서 내 생각은 달라졌다. 더구나 오늘 아침 이 손님의 격려를 받고 나는 결심한 바가 있다. 자, 애들아, 우리 행장을 꾸러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 머리에 서 있는 문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면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 뵈 수 있고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아버지의 친구들 사이에 끼어 평화스런 생활을 하게 될 테니 말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결정된 것을 보는 아들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자 방문객은 작별을 고했고 그들은 여행을 떠날 준비에 착수했대요. 그러나 그들이 막 출발하려는 무렵 크리스티아나의 이웃 부인 둘이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까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면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대요. 이 말에 두 여인은 어리둥절했대요. 그 말은 생전 들어본 일이 없는데다 그런 말이 크리스티아나의 입에서 튀어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녀들은 들어갔대요. 들어가 보니 착한 그녀가 집을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녀들은 말을 시작했대요. “아니, 여보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두 여인 중 나이 많은 겁쟁이 부인 (곤고산 근처에서 크리스천을 만나 두 마리 사자가 무서우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한 일이 있는 겁쟁이의 딸)에게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어요. 여행 떠날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고.

겁쟁이 부인: “여행이라니? 어디로?”

크리스티아나: “착하신 남편 뒤를 따라가는 거지요.”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대요.

겁쟁이 부인: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식들 생각을 해서라도 스스로 몸을 망치는 일은 삼가세요.”

크리스티아나: “아이들도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도 뒤떨어져 있길 싫어하니까요.”

겁쟁이 부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

크리스티아나: “아, 당신들도 나만큼만 알게 된다면 나와 동행하려 들 것입니다.”



겁쟁이 부인: “친구들을 저버리고까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상으로 갈 생각을 준 새 지식이란 대관절 무엇입니까?”

크리스티아나: “제 남편이 집을 떠나자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특히 그이가 강을 건너가신 뒤부터 마음의 고통은 더 컸어요. 제일 마음을 괴롭힌 것은 그이가 고민하고 있을 때의 제 인색한 행동을 후회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의 내 고뇌는 그때 그이의 고뇌와 다를 것이 없어요.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길 심경 그것 말입니다. 어젯밤 꿈에 나는 그이를 봤어요. 아, 제 영혼이 그이와 더불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 앞에서 사시는 그이는 왕의 밥상에 마주 앉아 왕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영생하는 분들의 동료가 되시고, 왕께서 하사하신 집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이 세상에 있는 대궐도 그 집에 비하면 쓰레기통 정도밖에 더 안 될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나에게도 그런 대우를 해 줄 테니 꼭 오라고 하는 초청을 그곳 왕자가 보내왔어요. 그의 초청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조금 전까지 우리 집에 계셨는데, 그가 준 편지에 나더러 오라는 초청 사연이 적혀 있어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어 들려주고 다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걸 보고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겁쟁이 부인: “아! 당신 내외가 다 미쳤구려! 그런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하려고 드는 것을 보니, 당신 남편이 길을 떠나자 첫 발자국부터 벌써 얼마나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는 것을 지금에도 증명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우리 이웃에 사는 고집쟁이와 유순, 두 분 말입니다. 그이들도 처음엔 당신 남편과 얼마간 동행했지만 앞으로 더 가는 것이 무서워서 되돌아왔지요. 현명한 처사였어요. 그뿐 아니라 당신 남편이 중도에서 두 마리의 사자, 아폴리온이라는 마귀, 죽음의 그림자, 기타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만났다는 얘기는 우리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이가 허영의 저자라는 마을에서 겪은 고생 얘기는 당신도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인 그이도 그런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약한 여자인 당신이 그런 고생을 어떻게 견딜 셈입니까? 그리고 여기 이 사랑스러운 네 소년은 당신의 살과 뼈를 나누어 가진 자식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 몸 하나만은 설혹 아무렇게

나 내던지는 지각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당신의 몸의 열매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지금 내 손에는 복리를 얻을 수 있는 상금이 잡혀 있는데 이 기회에 만일 내가 분발하지 못 한다면 그건 나에게 가장 큰 바보짓이 되겠어요. 내가 길을 떠나면 노상에서 만날 온갖 고난을 들어 말해 주고 있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내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따름 나의 용기를 꺾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말씀입니다. 쾌락이 오기 전에는 고뇌가 반드시 있는 법이요, 고생 뒤에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보다 더 즐거운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셔서 날 이 이상 더 불안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에 맞받아 크리스티아나에게 욕설을 퍼부은 겁쟁이 부인은 함께 온 「자비심」에게 말을 걸었대요, “여보, 이 여인이 우리의 충고뿐 아니라 방문 온 것까지 비웃고 있는 이상 제멋대로 하라고 버려두고 우린 갑시다.”

그러나 망설이는 자비심은 겁쟁이 부인과 동조할 수 없었대요. 동조할 수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첫째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크리스티아나에게 쏠렸기 때문이래요. 근래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타일렀대요, ‘이분이 꼭 떠난다면 당분간이라도 같이 가 주면서 도와드려야지.’ 둘째 이유는 그녀의 관심이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쏠리기 때문이었대요(크리스티아나의 말이 얼마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므로). 그래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대요, ‘크리스티아나와 더 얘기해 봐서 그녀의 말에서 만일 진실과 생명이 발견된다면 나도 진심으로 그녀를 따라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자비심은 겁쟁이 부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자비심: “여보시오, 오늘 아침 당신과 더불어 크리스티아나를 만나보러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보드시피 이 부인이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을 고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상 이 청명한 아침에 잠시나마 그녀와 동행하면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첫째 이유만 설명한 그녀는 둘째 이유는 입 밖에 내지 않고 비밀을 지켰답니다.

겍쟁이 부인: “홍,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행을 떠나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고 시기를 봐 현명한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위험 밖에 있는 동안엔 위험 밖에 있는 것ियो, 위험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 속에 있게 되는 법이니까요.”

이리하여 겍쟁이 부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티아나는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겍쟁이 부인은 「박쥐 눈」 부인, 「무분별」 부인, 「경박」 부인, 「무지」 부인 등 여러 이웃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대요. 그 여인들이 다 모이자 겍쟁이 부인은 크리스티아나가 여행을 떠나간다는 얘기를 꺼내 아래와 같이 말을 시작했대요.

겍쟁이 부인: “여러분, 오늘 아침 좀 한가하기에 크리스티아나 댁을 방문했어요. 그녀의 집 문 앞에 다다른 나는 우리나라 풍속대로 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면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뭐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나는 들어가 봤지요. 들어가 봤더니 그녀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어찌된 일이나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이, 요약해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녀의 남편이 한 것처럼 자기도 순례의 길을 떠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 밖에 또 꿈 얘기도 하는데 자기 남편이 가서 사는 나라 상감님이 그녀도 그 나라로 오라는 초청장을 꿈에 받았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무지 부인이 말했대요. “그래요? 그럼 그녀는 어떻게 할 것같이 생각됩니까? 정말 같까요?”

겍쟁이 부인: “물론 같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길을 떠날 것이라고 내게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행 도중 만날 여러 가지 난관을 생각해서 떠날 생각 말고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누누이 권고했는데 그게 도리어 역효과를 내서 그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녀는 간단히 이런 말을 했어요.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요. 그뿐 아니라 고생이 있기 때문에 낙이 더 즐거워진다고까지 말을 하던 걸요.”

박쥐 눈 부인: “아,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여인! 남편이 겪은 쓰라린 경험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못 된다는 말인가? 그녀의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여행을 하느라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한 번 더 겪을 생각 없이 여기서 편히 사는 데 만족하리라고 나는 꼭 믿는데요.”

무분별 부인도 아래와 같은 말로 대답했다. “그런 미친 여자는 이 마을에서 떠나가고 버려둡시다! 그따위 미친 여자가 떠나가면 우리는 한 시름 놓는 것이지요. 미친 그녀가 만일 이 마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런 여자 옆에서 누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소? 그녀는 어리석은 언동을 하거나 그렇잖으면 이웃끼리의 친선을 손상시킬 것이요. 그렇잖으면 현명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허튼수작만 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나는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떠나보내고 그녀 살던 집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변덕쟁이가 그 집에 그냥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이니까요.”

그다음엔 경박 부인이 아래와 같이 말을 덧붙였대요. “자, 그런 얘기는 이제 집어 치웁시다. 내 얘기가 들어 보세요. 어제 내가 「음분(淫奔)」 마담 덕에 놀러 갔었는데 우린 모두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처럼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와서 같이 놀았는지 짐작하세요? 나뿐 아니라 「호색」 부인, 「색골」 선생, 「음담」 부인, 그 밖의 몇몇 남녀가 모여 음악과 춤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락을 즐겼지요. 그리고 보니 그 마담은 참으로 교양이 높은 숙녀시고, 색골 선생은 참 미남이더군요.”

이때쯤 크리스티아나는 길을 떠났고 자비심이 동행했어요. 아들들도 다 데리고 길을 걷는 크리스티아나는 말을 시작했대요. “자비심 씨, 얼마 동안만이라도 날 바래다주려고 집을 떠나 동행해 주니 참 고마워요. 내게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젊은 자비심(그녀는 매우 젊은 여자였으니까요)이 말했대요. “제가 아주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따라나선 이상 마을 근처에는 절대로 되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크리스티아나: “그럼, 자비심 양, 나와 운명을 같이 합시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남편이 계시는 곳은

노다지 쏘아지는 스페인 금광과도 바꾸지 못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초대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에서 당신을 거절하지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나와 내 아들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나라 상감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걸 최상의 낙으로 삼고 있는 분이니까요. 그뿐 아니라 정 무엇하다면 내가 당신을 하녀로 고용해 데리고 가도 좋아요. 하인으로 고용했다고 노상에서 무슨 차별대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공통으로 쓰면서 그냥 동행해 주면 그뿐이요.”

자비심: “하지만 그 나라에서 저까지 받아들인다는 확실성은 없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 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분 말씀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무런 주저도 없이 가는 길이 아무리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그냥 가겠습니다만.”

크리스티아나: “그래! 귀여운 자비심 양.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지요. 작은 문까지 우리 함께 가서 거기서 당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물어 보기로 하지요. 거기서 만일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이 없으면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도 나는 막지 못하겠소.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나쁜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까지 보여주는 당신의 친절은 보답할 테니 그리 아시오.”

자비심: “그럼 작은 문까지 가 보기로 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복종하기로 하지요. 허나 제가 바라기는 하늘나라의 상감님께서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 운명을 결정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는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동행자가 생긴 것이 기쁠 뿐 아니라 이 가련한 처녀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도록 설복하는 데 성공한 것이 기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던 자비심이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대요.

자비심: “가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죄로 가득 찬 우리 마을에 아직 그냥 머물러 있는 불쌍한 친척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할 때 어찌 비통한 감이 들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더 비통하고 가슴이 무거운 것은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나 그 마을에 장차 어떤 화가 오리라는 것을 알려 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크리스티아나: “자비심으로 말미암아 순례자가 된 자비심 양이 친구들을 위해 걱정하는 것은, 내 착한 남편인 크리스천이 날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때 걱정하던 것과 신통히도 같군요. 그때 내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돌봐 주지도 않는 것을 그가 얼마나 통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이 흘리는 눈물을 받아 모아 그의 병 속에 담아 두었을 것이고, 지금 나와 당신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다 그가 흘린 눈물로 맺힌 열매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심 양,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보람 없는 눈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노래 부르라고 한 구절이 있는가 하면, 다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구절도 있으니까(역주: 시편 126:5~6).”

그러자 자비심은 이렇게 말했대요.

“가장 복되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 경계선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며, 거룩한 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무상으로 내려 주시는 은총과 거룩한 방향으로부터 제가 벗어나 가거나 빗나가는 것은 절대로 방임하지 않으시길 비나이다. 그리고 제가 뒤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사 그들의 온갖 감정과 이성과 함께 주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기원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는 노인은 계속 말했다. “크리스티아나가 절망의 수렁 앞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췄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 질식해 죽을 뻔한 곳이 바로 여기인데.” 하고 그녀가 말했대요. 그리고 순례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수렁을 메워 보수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을 그녀가 봤대요.”

노인이 이런 말을 하기에 나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는 다짐했다. 그리고 더 나빠지게 된 원인까지 설명해 주었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수렁을 메우고 보수하는 작업에 고용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도 배반하는

자들이 많아서 보수용 돌을 나르는 대신 쓰레기와 오물을 더 많이 날라다 부어 넣기 때문에 보수를 망쳐 놓는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나와 아들들은 수렁 앞에서 발을 멈췄지요.” 그러나 자비심은 이렇게 말했대요. “자, 모험해 보기로 해요. 단지 조심해서 건너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크리스티아나와 아들들은 앞으로 조심조심 살피 징검다리를 찾아 비틀거리면서 건너갔대요.

그러나 건너가는 동안 크리스티아나가 하마터면 미끄러져 빠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들이 수렁을 건너가자마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그들은 들은 것처럼 생각했대요. 즉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역주: 누가복음 1:45).’

그들이 다시 길을 가게 되자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말을 걸었대요. “아주머니처럼 작은 문에서 환영받을 확실한 근거가 저에게도 있었다면 저로서는 절망의 수렁 따위 위험으로 용기를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에게는 당신대로의 근심이 있을 거고 나는 나대로의 근심이 있지요. 그건 그렇고 우리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수다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각오는 가져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훌륭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도달할 계획으로 여행을 떠난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을 걸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샘만 낼 뿐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려고 어떤 공포와 공갈, 어떤 번민과 재난으로 습격해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요?”

이때 현명 노인은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꿈을 끝까지 꾸도록 버려두었다. 그래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소년들이 다 함께 작은 문 앞까지 올라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문 앞에 걸음을 멈춘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할는지, 문이 열리는 경우 문지기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상의하느라고 잠시 시간을 보냈다. 가장 나이 많은 크리스티아나가 문을 두드리고 문지기가 나타나면 그녀가 대표로 말을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크리스티아나는 앞서 간 가련한 그녀의 남편이 했던 대로 여러 번 두드리고 또 두드렸

다.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 대신 개 한 마리가 짖으면서 달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생각됐다. 짖는 소리로 보아 굉장히 큰 개라고 생각한 그들은 여인들, 소년들 할 것 없이 다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문을 더 두드리다가는 그 사나운 집 지키는 개가 달려나와 물 것 같이만 생각되어 한동안 문을 못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만 갈팡질팡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개가 무서워서 문을 또 두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문지기가 노하여 꾸짖을 것 같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망설이다 못 한 그들은 문을 다시 두드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아까보다는 더 힘 있게 두드리었다. 그때에야 문지기가 말했다. “누구요?”라고. 그러자 개는 짖기를 그치고 문지기는 문을 열었다.

허리 굽혀 겸손하게 인사하고 나서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 고귀한 문을 함부로 두드린 이 계집종에 노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합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이전에 크리스천이란 분이 사시던 마을에서 왔사옵고, 온 목적은 그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하되올 것은 저는 지금에는 높은 곳에 가서 사는 크리스천의 이전 아내였던 몸이올시다.”

깜짝 놀란 문지기는 말했다. “뭐라고요? 얼마 전까지 순례자의 생활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여자가 지금 순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머리를 푹 숙인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들은 제 귀여운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안으로 이끄는 문지기가 말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역주: 마가복음 10:14).”

어린이들까지 문 안에 들어서자 문을 닫아버린 그는 문 누각 위에 있는 나팔수를 불러 나팔도 불고 소리도 질러 크리스티아나가 문 안에 들어온 걸 즐겁게 대접해



주라고 했다. 명령에 복종하는 나팔수가 부는 그윽한 곡조가 공중에 가득 찼다.

이러는 동안 문밖에 혼자 서 있는 자비심은 자기만이 입문(入門)을 거부당할 두려움을 느껴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을 위해 간청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아나는 말했다. “주여, 저와 꼭 같은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동행해 와서 아직 문밖에 서 있는 처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섬기는 상감님이 보낸 초청장을 받고 온 데 반해 그녀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낙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더 견딜 수 없는 자비심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단 일 분의 시간이 한 시간만큼 길게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요란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나가 그녀를 위해 주께 간청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그녀의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웠던지 그것이 크리스티아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문밖에 누가 있나?”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저와 함께 온 친구입니다.”

그래 문지기는 문을 열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밖에 서 있던 자비심은 기절해 넘어져 있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것 같지 않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기절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을 붙잡은 문지기가 말했다. “아가씨, 일어나시오.”

자비심이 말했다. “아, 선생님 저는 기절했었어요. 제게 생명이 그냥 붙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역주: 요나 2:7).”라고요. 무서워 말고 일어서시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까지 왔는지 말해 주시오.”

자비심: “제 친구인 크리스티아나는 초청받고 왔지만 저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왔사옵니다. 그녀는 상감님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저는 단지 그녀의 청함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람되다는 책망을 들을까 봐 무섭습니다.”

문지기: “당신은 크리스티아나가 당신과 같이 이곳으로 오길 바랍니다?”

자비심: “예,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온 것이옵시다. 만일에 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유가 계시다면, 주여, 주께서 이 불쌍한 계집종으로 하여금 복락한 귀퉁이에라도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정답게 문 안으로 이끌고 들어온 문지기는 말했다. “나를 믿고 나에게로 오는 자는 어떤 경로를 밟아오긴 상관없이 그를 위해 나는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그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처녀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무엇이든 갖다 코에 맡여주라.”

그러자 그들이 몰약 한 즙을 가져다 그녀에게 주자 잠시 후 그녀는 원기를 회복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 머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과 자비심은 주님의 친절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해 주시옵소서.”

그는 말했다. “말과 행동으로써 당신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오. 말로 용서한다는 말은 죄 사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뜻이요, 행동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뜻하는 거외다. 첫 번째 용서는 입맞춤으로써 내 입술에서 취할 것이요(역주: 아가 1:2), 두 번째 용서는 내 몸에 입은 상처를 보임으로써(역주: 요한복음 20:20) 취하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주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다음 그들을 문루(門樓) 꼭대기로 데리고 간 그는 어떤 행위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들을 위안하기 위해 보여줄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아래 있는 서늘한 방으로 데리고 간 그는 거기서 서로 얘기하라고 얼마간 버려두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기쁘오!”

자비심: “아주머니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저는 너무도 기뻐서 깡충깡충 뛰어 보고 싶어요.”

크리스티아나: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을 때 우리 수고가 다 허사였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더구나 그 사나운 개가 우릴 향해 맹렬하게 짖어댈 때 난 낙망했어요.”

자비심: “제가 제일 큰 공포를 느낀 때는 저 혼자만 남겨두고 아주머니 식구는 다 문 안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그때 저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다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다할 것이니라(역주: 마태복음 24:41).’라는 성경 말씀이 이행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난 이제 틀렸다, 틀렸어.” 하는 울부짖음 소리가 나오는 걸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문을 더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설주 위에 쓰여 있는 문구를 읽어 보고는 용기를 다시 얻었어요. 그뿐 아니라 문을 다시 두드리거나, 그렇잖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두드렸어요. 그때 제 심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름이었기 때문에 문을 얼마나 어떻게 두드렸는지 기억도 못 하겠어요.”

크리스티아나: “얼마나 어떻게 두드렸는지 기억 못 한다고? 당신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나 열성적이고 컸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지요. 그렇게 결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는 생전 처음이었소. 그래서 당신이 폭력을 써서라도 문 안으로 들어와 천국을 강제로 침노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요 (역주: 마태복음 11:12).”

자비심: “누구든 저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도 보시다시피 저 혼자 밖에 남겨둔 채 문은 닫혀 버리고 아주 사나운 개는 날뛰고 있고 저같이 심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 죽을 힘을 다해 두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제 무례한 행동에 대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던가요? 주님께서서는 무척 노하셨겠지요?”

크리스티아나: “당신이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주님의 얼굴에는 신기롭고 또 우아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의 얼굴에 성난 빛이 떠오르지 않은 것을 보아 당

신이 그를 기쁘게 해 주었다고 믿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이가 왜 그런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 개가 여기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던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문을 두드렸을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문 안에 들어와 있소. 들어와 있어요. 정말 기쁘군요.”

자비심: “주님께서 다시 이리로 내려오시거든 왜 그런 굉장하 사나운 개를 기르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런 걸 물어봐서 주님께서 언짢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으련만.”

이때 소년들이 한꺼번에 말했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개를 목매달아 죽이라고 간청하세요. 그놈 가까이 가면 물릴까 봐 겁이 나요.”

이렇게 되어 주께서 그들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자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난 자비심이 말했다. “주님께서 지금 송아지 제물 대신 제 입술을 제물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서시오.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리니.”

그러나 땅에 엎드린 채 그냥 있는 그녀는 말했다. “주여, 제가 탄원할 때 주님께서 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하오나 당신의 판단에 대한 한 가지 이의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역주: 예레미야 12:1). 저희와 같은 여자와 어린 이들은 짚는 소리만 듣고도 겁이 나서 문 앞에는 얼씬도 못 해 보고 도망칠 사나운 개를 이 뜰 안에 기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사옵지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개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집 뜰과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의 집 뜰에 그 개가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순례자들은 그 개가 짚는 소리만 들을 뿐이지요. 저 멀리 보이는 성주가 그 개를 기르는데 그 성을 둘러싼 성곽이 이 집 뜰과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순례자이건 참되지 못한 순례자이건 막론하고 수많은 순례자가 그 개 짚는 소리에 놀라 도망갔지요. 사실 말이지 그 개의 임자가 개를 기르는 목적은 나와와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요. 내 집 문 앞까지 온 사람들이 개 짚는 소리에 겁이 나서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 하고 도망치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한때는 그 개를 풀어 놔

두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몹시 괴롭힌 적도 있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지요. 그렇지만 그 흉악한 짐승이 본능적으로 해치려는 사람들을 때맞춰 내가 보호해 주기도 하요. 그런데 참! 내가 귀여워하는 당신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들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겠지요. 이집저집 다니며 문전걸식하는 거지들도 동냥을 놓칠까 봐 겁이 날 때는 으르렁거리는 개이거나 짖는 개이거나 무는 개를 개의치 않고 위험 무릅쓰고 구걸을 다니지 않소, 그런데 개 한 마리 그것도 우리 집 개가 아니라 남의 집 뜰에 있는 개가 짖는다고 무서워서 내게로 못 온다는 것이 말이 되요? 그 개가 짖는 것을 버려두는 내 의도는 순례자들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더 유익하게 하는 데 있는 거요. 순례자들을 사자들의 아가리에서 구원해 주는 내가 그래 내 사랑하는 자들을 개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겠소?(역주: 시편 22:20)”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제 무식을 고백하나이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지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행 이야기를 꺼낸 크리스티아나는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 주께서는 앞서 간 그녀의 남편에게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와 소년들과 자비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들이 길 떠나는 것을 보살펴 주었다. 청명한 날씨를 즐기며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크리스티아나는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복 되도다,  
내가 순례의 길 떠난 날  
복 되도다,  
나를 감화시켜 이 길 떠나게 만들어 주신 분.

영생을 찾으려고 길 떠난 지 이미 오래지만  
목적지에 영 못 가는 것보다는  
늦게 가도 가는 것이 좋겠기에

지금 나는 내 힘껏 걸음을 빨리하리.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 믿음이 되었다네.

우리 출발이 이르렀으니

종말이 어찌리라는 걸 으레 알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동행자들이 가는 길을 끼고 쌓아올린 성벽이 하나 있었다. 이 담 안마당에는 아까 언급한 바 있는 개 임자가 소유한 마당이 있었다. 이 마당 안에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의 가지 더러는 담 밖으로 뻗어 나와 있고 그 가지에 열린 과일이 잘 익었으므로 그 길로 지나가는 행인 중에는 그 과일을 따 먹고 병드는 자가 상당히 있었다. 과일나무들과 가지에 달린 열매에 마음이 쏠린 소년들은, 소년들이란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로 버릇이 있으므로, 가지를 휘어 잡고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다. 어머니인 크리스티아나가 야단은 쳤지만 소년들은 말을 안 듣고 그냥 따먹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얘들아, 저 과일은 우리 것이 아니니 따먹으면 남의 재산 침해 범죄가 된다.”

그러나 그 과일나무가 원수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만일 알았다면 그녀는 무서워 죽을 뻔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과수 나무들이 있는 곳을 다 지나간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부터 화살이 닿는 거리 두 배쯤 되는 데까지 왔을 때, 아주 흉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마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봤다. 그 사나이들을 본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 두 여인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소년들을 앞세우고 여행을 계속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마주 오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두 사나이는 곧장 두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비키세요, 어서 갈 길이나 조용히 가세요.” 하고 말했지만, 두 사나이는 귀머거리인양 크리스티아나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다가들어 두 여인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때 극도로 분노한

크리스티아나는 그 사나이들을 발로 밟다 찾다.

자비심도 재간껏 그 사나이들을 피했다. 크리스티아나는 다시 말했다. “비켜 가세요. 당신네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선을 베푸는 친구들의 혜시(惠施)를 받아 살며 여행하는 순례자들인 만큼 당신들에게 빼앗길 돈이 없어요.”

그러자 악한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극히 적은 요구에 응해 주시지만 하면 영원토록 두 분을 당당한 여성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을 하려고 모처럼 찾아뵙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본 크리스티아나는 다시 말했다. “당신들의 말을 우리는 듣지도 않을 것이요, 염두에 두지도 않을 것이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렵니다. 우린 너무 바빠서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니까요.”

그러고 난 그녀와 동행자들은 그 사나이들을 뿌리치고 지나가 버리려고 다시 시도했다. 그러나 사나이들은 그들의 길을 막았다.

악한들이 말했다. “당신네 생명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차지하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럴 목적으로 당신들이 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위협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겠어요.”

말을 마치자 두 여인은 소리 질렀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이렇게 소리 질러 그들은 법으로 보장된 여성보호법에 호소하는 것이었다(역주: 신명기 22:23~7).

그러나 두 여인을 육보이려고 마음먹은 두 악한은 그냥 그녀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한 번 더 목청껏 크게 소리 질렀다.

조금 전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들이 승강이하고 있는 장소가 얼마 전 그들이 떠난 좁은 문에서 얼마 멀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비명 소리가 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다. 크리스티아나의 비명 소리라는 것을 눈치챈 몇 사람이 그녀를 구하려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다. 현장이 시야 안에 들자 두 여인은 두 사나이와 격

투를 계속하고 있고, 소년들은 옆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구원하려고 달려오는 사람 중의 하나가 악한들을 향해 소리 질렀다.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주님의 백성을 침범하려 드는 거냐?”

그리고는 그가 두 악한을 붙잡으려 하자 그놈들은 담을 뛰어넘어 흉악한 개 임자의 소유인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개가 두 악한의 보호자가 되었다. 두 여인에게로 가까이 온 구조자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었다. 두 여인은 대답했다. “주님의 은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놀랐을 따름 별 피해는 없습니다. 우릴 구조해 주려고 오신 당신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구조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연약한 여자인데 저쪽 문에서 대접받고 있을 때 어찌하여 안내자 하나를 팔려 보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는지 참 이상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안내자를 팔려 달라고 요청만 했더라면 주님께서 으레 허락했을 텐데, 그렇게 되었다라면 여기서 이런 괴로움은 넉넉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을.”

크리스티아나: “맙소사! 그때엔 그 당장 받는 복에 너무 취해서 앞으로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왕궁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악한들이 잠복하고 있을 줄이야 꿈이나 꾸었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내자를 팔려 달라고 주님께 부탁했더라면 만사가 다 잘 되었겠지만 안내자를 팔려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안내인을 팔려 주시지 않으셨는지 참 이상합니다.”

구조자: “청구하지 않는 것을 줄 필요는 없지요. 청구 않는 것을 주면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자진해서 안내자를 당신에게 팔려 보냈던들 미리 요청 못한 실수를 지금처럼 통절히 느끼지는 않았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보다 더 세심해졌으니까.”

크리스티아나: “그럼 제가 주님께로 다시 가서 제 잘못을 고백하고 안내자를 팔려



달라고 빌어야 되겠군요.”

구조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리석었던 것을 고백한 사실은 내가 주님께 전할데 드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만큼 당신이 문까지 되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순례자를 위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세상 어떤 방해물들도 다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충족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주님께 먼저 요청해야만 응해 주시도록 되어 있고(역주: 에스겔 36:37) 인간이 요청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까지 제공해 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구조자는 문으로 되돌아가고 순례자들은 갈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 길을 가면서 자비심이 말했다. “참 맹랑한 일로군요! 좁은 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런 위험도 남아 있지 않아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여행하리라고 저는 생각했더랬는데요.”

크리스티아나: “천진난만한 당신은 많은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나로 말하면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중한 과오를 범했어요. 사실 말이지,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벌써 아까 겪은 것 같은 위험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떠났어야 할 곳에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떠나는 과오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자비심: “택을 떠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좀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티아나: “그럼 이야기하지요. 내가 집을 떠나기 전 어떤 날 밤 잠자리에 누웠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아까 그 사건의 경고였어요. 아까 만났던 악한들과 꼭 같이 생긴 사나이 둘이 내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을 훼방놓을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꿈결에 들은 말이지는 하지만 그놈들의 말을 지금 그대로 옮길 테니 들어 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거나 하는 듯이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

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자나 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만일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도 영 잃어버리고 말테니. 자, 그러니 이런 꿈을 꾸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떠났어야 할 곳에서 준비를 갖추지 못 한 채 떠나왔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비심이 말했다. “이번 저지른 소홀함이 우리의 불완전한 점을 깨닫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됐군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풍부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도 보다시피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친절을, 단지 착하신 그의 뜻을 기쁘게 이루기 위해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약한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여행하던 그들은 길가에 서 있는 집 한 채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 집은 순례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 지은 집인데, 이 집 에 대한 더 자세한 묘사는 천로역정 제1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집(설명자의 집)을 향해 가까이 걸어가다가 문 앞에 당도한 그들은 그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애기를 듣게 되었다. 집 안에서 새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크리스티아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엿들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네 아들을 다 데리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소문은 그녀를 앞질러 사방에 퍼져 있었다. 이 소문은 듣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크리스티아나라는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몇 해 전 남편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한사코 반대했던 크리스천의 아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화제의 주인공이 지금 바로 문밖에 와 있는 것을 모르는 집안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듣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얼마 전 좁은 문을 두드리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두드리고 있을 때, 문으로 어떤 아가씨가 와서 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두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가씨가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누굴 찾아오셨지요?”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집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순례자들인 우리가 지금 이 집 문까지 온 만큼 여기서 좀 쉬어 갔으면 합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해도 꽤 기울었고 밤길은 걷기 싫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에 계신 우리 주인님에게 말씀드리게.”

크리스티아나: “내 이름은 크리스티아나요. 몇 해 전 이곳을 지나 여행하신 크리스천이란 이의 아내가 곧 나요, 애들은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내 친구인데 역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간 ‘천진’(그 처녀의 이름이 천진이었다)은 말했다. “여러분, 문 앞에 누가 오셨는지 짐작하실 수 있어요?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자식들, 그리고 친구 하나가 오셔서 여기서 대접받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 날뛰며 주인에게로 가서 고했다. 그러자 문 앞으로 나온 주인은 크리스티아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착한 크리스천이 순례자 생활을 시작할 때 뒤에 두고 나선 그의 아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크리스티아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편이 떠나실 때에는 제 마음이 완강해서 그이의 고통도 알보고 혼자 떠나시도록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애들은 그이의 네 아들이구요. 지금 저는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길로 가는 것만이 올바른 행위라고 확신하게 되어서 떠나온 거예요.”

설명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아들이 “싫소이다.”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성경 말씀(역주: 마태복음 21:28~31)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크리스티아나: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마지막 날에 아무런 흠 없이 아무런 꾸지람 없이 기쁘게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 “아니, 왜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당신인 만큼 어서 들어오시오. 당신이 순례자가 되셔서 길을 떠나셨다는 소문이 당신보다 먼저 와서 방금 당신 얘기를 하던 참입니다. 자, 애들아, 너희도 어서 들어온. 아가씨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여 그는 그들을 다 집에 받아들였다. 그들이 방안에 들어가자 편히 앉아서 쉬라고 그가 말했다. 그들이 앉자마자 순례자들을 접대하는 그 집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그들을 만나 주었다. 크리스티아나가 순례자가 된 것을 반가워하는 그 집 사람들 중의 하나가 미소를 띠자 다른 사람 하나가 따라 미소를 띠고 나중에는 모두 다 미소를 띠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소년들을 대견스럽게 보며 손으로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환영한다는 표시를 했다. 자비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여 그들 모두 극진히 환영한다는 표시를 했다.

잠시 휴식한 뒤,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설명자는 그들을 여러 개의 '뜻깊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에서 그들은 얼마 전 크리스티아나의 남편인 크리스천이 본 바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구경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도 보고, 무서운 꿈꾸는 사람, 원수를 무찌르고 나아갈 길을 얻 사람, 여러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의 초상, 기타 여러 가지를 구경했다.

이런 것들을 다 구경하고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구경한 모든 것의 뜻을 대강 이해하기를 기다려 설명자는 그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방에는 거름을 헤치는 갈퀴 한 개를 손에 든 사람이 있는데 머리를 숙이고 아래쪽만 노려볼 뿐, 다른 곳을 쳐다보는 일이라곤 절대로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사람이 지켜 서서 갈퀴 대신 면류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었지만, 갈퀴를 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흥미 없다는 듯이 방바닥에 쌓인 짚과 조그만 나무토막들, 먼지만 굵고 있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 광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승에 사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습니까, 선생님?”

설명자: “바로 해석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거름 헤치는 갈퀴는 인간의 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보는 바와 같이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그를 부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방바닥에 널려 있는 짚과 잔나뭇가지들과 먼지 굵는 데 더 열중하고 있는 저 인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 중에는 하늘나라는 다만 한 우화에 불과하고 이승에 있는 물건들만이 실질적이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아래만 내려다보고 탄 곳을 볼 엄두도 안 내는 것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이 세상 물질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물욕이 너무 강하여 물욕의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오, 이 거름 헤치는 갈퀴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설명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여서 그런 기도는 녹이 슬지 경으로 돼 있습니다. “부유하게 마옵시고(역주: 잠언 30:8).”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지요. 인간의 절대 대다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여겨 추구하고 있는 물품은 짚과 잔나뭇가지들과 먼지 따위거든요.”

이 말에 울음을 터뜨린 자비심과 크리스티아나는 말했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구경시키고 난 설명자는 이 집의 가장 좋은 방(아주 화려하게 꾸민 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 방안에서 유익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찾아보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이 두리번두리번 살펴봤으나 벽 위에 달려 있는 굉장히 큰 거미 한 마리 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거미 따위가 무슨 교훈을 줄 것같이 생각되지 않아 그들은 그 거미를 간과하고 말았다.

자비심: “선생님,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침묵을 지켰다.

설명자: “좀 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자비심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말했다. “벽 위에 발로 매달려 있는 흉측한 거미 한 마리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그러자 설명자가 물었다. “이 넓은 방에 거미 한 마리밖에 없단 말입니까?”

이 물음에 크리스티아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해력이 빠른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한 마리만이 아닙니다. 그렇고말고요. 거미가 발산하는 독보다도 더 해로운 독을 품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거미 여럿이

지금 이 방 안에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설명자가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에 자비심은 얼굴을 붉혔고 소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도 이 수수께끼의 뜻을 해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설명자가 다시 말했다. “당신들도 보는 바와 같이 ‘손을 줄에 걸고 기어 다니는 거미까지도 왕의 궁전 안에 들어와 살 수 있지요(역주: 잠언 30:28).’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아무리 독기로 가득 찬 인간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손을 줄에 걸고 하늘나라에 있는 왕궁 안 가장 좋은 방에까지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혹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짐작은 했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과 같은 뜻을 가졌다고는 상상조차 못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한 방에 살고 있다고 해도 본색이 거미 같은 자들인 만큼 아무래도 흉측한 짐승 꼴 밖에 더 안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이 거미, 독을 품은 흉악한 동물이 이런 방에 거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 했었어요. 이 흉측한 거미가 발을 줄에 걸고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사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모두 다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서로 바라보던 그들은 일제히 설명자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 방에는 암탉 한 마리와 병아리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 닭들 노는 꼴을 한참 구경하라고 설명자가 말했다. 병아리 한 마리가 모이통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는 번번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때 설명자가 말했다. “이 작은 병아리가 하는 모양을 보고 배울 점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미미한 병아리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을 번번이 쳐다보아 은혜를 받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잘 살펴보세요.”

이 말에 그들은 눈여겨 살펴보았다. 암탉이 네 가지 방법으로 병아리들을 다루는 것

을 그들은 발견했다. 하루 종일 보통 꼬꼬꼬 부르는 소리, 가끔 특별히 부르는 소리,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을 때 발하는 자애로운 소리, 크게 외치는 소리 등이었다(역주: 마태복음 23:37).

이 때 설명자가 다시 말했다. “이 암탉을 당신네 임금님과 비교하고 이 병아리들을 순종하는 인간들과 비교해 보시오, 당신네 왕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해 행하시는 방법이 어미 닭이 병아리들에게 대해 행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보통 목소리도 부르실 때에는 백성들에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끔 특별한 목소리로 부르실 때에는 주실 것이 반드시 있으며, 그의 날개 아래로 백성들을 품으실 때에는 자애 가득한 소리를 발하시고 원수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실 때에는 크게 소리치셔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특히 두 분 여성을 이 방으로 모셔 온 이유는 어미 닭과 병아리들의 생태를 보아 누구보다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는 말했다. “선생님, 좀 더 구경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데리고 도살장으로 갔다. 거기서는 도살자 하나가 양 한 마리를 죽이고 있었다. 죽는 양이 요동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죽음을 다하는 것을 그들은 봤다. 이때 설명자가 말했다. “어떤 부당한 박해를 받더라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참고 받는 미덕을 이 양의 행동에서 배우도록 하십시오. 저 양이 얼마나 고즈넉이 죽음을 다하고 있으며, 귀 뒤로부터 가죽을 흘랑 벗기는 것까지 아무런 반항도 없이 견디나 자세히 보세요. 당신네 임금님께서 당신들을 자기의 양이라고 부르신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는 정원으로 그들은 갔다. 거기서 설명자가 말했다. “이 꽃들을 다 보십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설명자가 다시 말했다. “꽃들 모양이 다른 걸 유의해서 보세요. 키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향내가 다르고, 효능도 달라, 어떤 꽃이 다른 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꽃나무들은 정원사가 심어준 자리를 각기 지키고 서 있으면서 자리다툼하는 일이 결코 없지요.”

그다음 그는 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밀밭과 보리밭인데 이삭은 다 잘리고 쭈

대만 남아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 설명자가 말했다. “이 밭에 인분 거름을 주고,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르고 남아 있는 이 짚은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까?”

크리스티아나: “더러는 불이나 때고 나머지는 퇴비나 만들어야겠지요.”

그러자 설명자가 다시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곡식인데, 이삭 잘린 짚대에 곡식이 없는 것은 불을 때거나 거름을 만들어 사람들의 밭에 밟히게 하는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들도 짚대처럼 정죄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로빈 새 한 마리가 커다란 거미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 설명자가 “저걸 좀 봐요.”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새를 봤다. 자비심은 어리둥절해 가만히 있는데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새, 더구나 여러 종류의 새들 중 고상하다고 알려져 있는 로빈 새, 그리고 인간과 친밀하게 지나기를 좋아하는 저 새가 저런 끔찍한 벌레를 잡아먹다니 이걸 너무도 부조리한 일인데요. 로빈 새들은 빵 부스러기를 먹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별로 해 없는 먹이를 먹고 사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걸 보니 정이 똑 떨어지는군요.”

그러자 설명자가 설명했다. “이 로빈 새는 신앙 고백자들의 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길으로 볼 때, 그들은 이 로빈 새처럼 목소리가 곱고 빛깔도 곱고 거동도 의젓하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진실한 다른 신앙 고백자들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진실한 신자들과 친히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이 먹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척하지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독실한 신자의 집들을 자주 방문하고 주님의 임명을 받은 자처럼 가장하고 다니지만, 그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에는 저 로빈 새처럼 거미들도 마구 잡아먹고 죄를 물마시듯 꿀꺽꿀꺽 마시지요.”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저녁 준비가 아직 덜된 것을 발견한 크리스티아나는 설명자에게 무엇이든지 판 것을 더 구경시켜주든지 유익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설명자는 말을 시작했다. “암탉지는 살이 찢수록 진흙구덩이를 더 좋아하고, 황소는 살이 더 찢면 찢수록 도살장으로 먼저 끌려가게 되는 것이며, 인간은 건강할수록 정욕이 더 왕성하고 악에 더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깨끗하고 곱게 단장을 하기 좋아하는 법인 만큼 하나님 앞에 보러 나갈 때에도 깨끗하고 곱게 단장하고 나가는 것이 귀염성 있고 큰 가치가 있는 행위지요.

하루 이틀 밤잠 새우면서 망보기는 쉽지만 일 년 내내 밤을 새우고 앉아 있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기는 쉽지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물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폭풍에 시달리는 배 주인은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 중에서 제일 값 안 나가는 것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보통이지요. 제일 값나가는 물건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면 그런 일은 못할 것입니다. 새는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 죄가 죄인을 멸망 시키지요.

친구를 저버리는 자는 친구에 대한 의리를 버리는 자에 불과하지만 구주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용서 못 하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죄에 파묻혀 살면서 저승에서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깎부기 씨를 심고 나서 가을 추수할 때 곳간을 밀이나 보리로 가득 채우려는 생각을 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착한 생활을 영위해 보려는 사람은 자신의 임종 날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수군거리는 것과 생각을 변경하는 것은 세상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는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추천하시는 하늘나라 생활은 얼마나 더 가치 있을까요?

술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승 생활을 포기하기 싫다면 천당 생활은 얼마나 더 포기하기 싫을까요?

누구나 다 인간의 선함을 추켜올리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실컷 먹고도 남길 때가 가끔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상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가치와 의가 있지요.”

이런 말을 하고 난 설명자는 손님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한 번 더 나갔다. 속은 다 썩어 없어졌으나 그냥 살아 자라면서 잎사귀를 무성하게 피운 나무 한 그루를 그들에게 구경시켰다.

이때 자비심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자가 말했다. “겉은 훌륭하지만 속은 썩은 이 나무를 하나님의 정원 안에 사는 인간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극히 칭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자들, 육체만은 훌륭하지만 마음은 소용없는 것뿐이어서 마귀의 부식깃 통에 들어 있는 부식깃 밖에 더 될 것이 없는 자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저녁 준비가 마침내 다 되었다. 밥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졌다.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중의 하나가 기도드린 후 모두들 먹기 시작했다. 그의 집에 와 유숙하는 손님들 식사 때에는 음악으로 손님들을 접대하는 버릇을 가진 설명자는 음유시인들을 불러 악기를 타게도 하고 시를 읊게도 했다. 노래하는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 아주 고운 목소리로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주님만이 나의 부양자  
나를 먹여 살리시고  
부족함 하나도 없는데  
이 이상 무엇을 요구하랴?

노래와 음악 연주가 끝나자 설명자는 크리스티아나에게 어떤 동기로 순례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물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첫째 동기는 남편을 잃은 것이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슬픔은 자연스런 감정에 불과했고, 다음에는

남편이 얼마나 고민하다가 급기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가 길을 떠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든가 하는 생각에 죄의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죄의식의 가책을 받은 저는 차라리 못에 빠져 자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지만 때마침 남편께서 하늘나라에서 행복스럽게 지내시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또 그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임금님께서 저도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편지도 한 장 받게 됐어요. 꿈과 편지의 힘이 제 마음에 크게 작용하여 이 길을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설명자: “댁을 떠나시기 전 방해받은 일은 없었나요?”

크리스티아나: “왜요, 있었지요. 제 이웃에 사는 겁쟁이 부인(사자가 무섭다고 제 남편을 꼬여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한 분의 친척이었어요)이 찾아와서 제가 감행하려고 하는 결사적인 모험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하면서 만류하려 들었어요. 길을 떠난 제 남편이 노상에서 겪은 온갖 난관과 고난을 쥐 제 용기를 잃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방해를 용케 넘겼지요. 그러나 꿈에 본 두 악한, 제 계획을 좌절시킬 음모를 꾸미는 것같이 생각되는 그 악한들이 절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래요. 그놈들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저를 해칠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지금도 일으켜 주어 길 방향을 돌이키고 싶은 생각이 나게까지 했어요.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길로 들어서는 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간 저희가 너무나 무서운 기습을 받아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 지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습격해 온 두 사나이 모습이 제가 꿈에 본 악한들과 비슷했어요.”

그러자 설명자가 말했다. “시작이 좋았으니까 종말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비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말했다. “어떤 동기로 당신은 길을 떠났소, 아가씨?”

얼굴을 붉히고 몸을 떠는 자비심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설명자가 말했다. “겁내지 말고 오직 믿으며 당신이 마음에 먹은대로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경험이 제 종말을 불완전하게 해 줄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몸에 가득 차 있어요.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께서는 계시와 꿈 말씀을 하시지만 제게는 계시건 꿈이건 통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더기를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머니가 하셨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한 친척들의 권고를 거절한 것을 슬퍼하는 심정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자: “그렇다면 아가씨, 당신이 길을 떠나도록 설득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자비심: “글쎄요. 여기까지 동행해온 이분이 우리 마을을 떠나시려고 짐을 꾸리고 있었을 때 저와 또 한 여자가 우연히 이분 댁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댁 문을 두드리고 우리 둘이 함께 들어갔지요. 우리가 들어서자 이분이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짐은 왜 꾸리느냐고 물어봤지요. 그러자 이분 말씀이, 자기 남편한테로 오라는 전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영생하는 사람들과 섞여 이상한 곳에 사시면서 면류관을 쓰고 하프를 켜며 상감님과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를 그곳으로 불러들이신 주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여러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었노라고 길게 늘어 놓으시더군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제 마음이 끓어 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분 말씀이 정말이라면 나도 부모님과 고향을 다 버리고 이분이 허락하신다면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은 흔적도 없이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이 세상에서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는 이분에게 더 많이 알려 달라고 조르고, 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이냐고 다짐받고, 저도 데리고 떠날 수 있느냐고 졸랐어요. 그래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길을 떠나기는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기 한이 없었어요. 떠나기 싫은 길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남겨두고 오는 슬픈 친척들 생각에 가슴이 아픈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해 이미 떠난 길인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를 따라 그분과 남편, 그리고 임금님에게로 가기로 했어요.”

설명자: “사실을 신뢰하고 떠나 온 만큼 당신의 출발은 참 잘된 겁니다. 당신은 롯과 같은 여자입니다. 나오미를 사랑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

은 자기 부모와 고향을 떠나 이제까지는 알지도 못 했던 백성을 따라간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역주: 룻기 2:11).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역주: 룻기 2:12).”

저녁 식사가 끝나자 잠자리 준비가 시작되었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소년들은 소년들끼리 격리되어 한 방씩 차지하게 됐다. 자비심은 자리에 눕기는 했으나 너무나 마음이 기뻐 잠들 수가 없었다. 목적지까지 다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의혹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었다. 그래서 자리에 누운 채 그녀는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축복과 칭송을 노래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튿 날 아침 해가 뜨는 때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은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설명자는 부디 좀 더 머물러야 한다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순서를 밟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다. 어제 저녁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준 아가씨에게 그는 말했다. “정원에 있는 목욕탕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 목욕하시도록 해라. 여행 도중 뒤집어 쓴 먼지와 때를 말끔히 씻어 드리도록 해라.” 그러자 천진이란 이름을 가진 처녀가 그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 목욕탕까지 모시고 갔다. 순례의 길을 가는 길손들이 이 집에 들어왔다가 떠나갈 적에는 반드시 목욕시키는 것이 주인의 명령인 만큼, 그들도 몸을 깨끗이 씻고 떠나야 한다고 천진이 얘기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물론 소년들까지 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나왔다. 몸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졌을 뿐 아니라 사지 관절이 다 피로를 회복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목욕하러 가기 전보다 목욕하고 나온 뒤 그들의 모습은 한결 더 아름답게 보였다. 목욕탕에서 나와 뜰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맞이하는 설명자는 그들더러 달처럼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들 몸에 으레 찍어 주기로 되어 있는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도장을 가져오자 그는 그들의 얼굴에 그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들이 앞으로 어딜 가거나 가는 곳마다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찍어 주는 것이었다. 이 도장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 먹은 유월절 떡의 알맹이요, 총체인데 이 도장을 그들의 미간에 찍어 주는 것'이었다(역주: 출애굽기 13:8~10, 요한계시록 7:2~3). 얼굴 미간에 찍힌 이 도장이 얼굴의 장식 구실을 해서 그들의 얼굴은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품격까지 더 높여주어 그들의 용모가 천사들 같이 보이게 되었다.

두 순례자 여인을 시중드는 처녀에게 설명자는 다시 말했다. “제복 보관실로 가서 이분들 입힐 의복을 꺼내 오너라.”

제복 보관실로 들어갔던 그녀는 흰 옷들을 가지고 나와 설명자 앞에 놓았다. 그러자 그들더러 입으라고 명령했다. 그 옷은 순수한 삼베로 만든 깨끗하고 흰 옷이었다. 두 여인이 그런 몸차림을 하자 서로 마주 보며 둘이 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차 상대방의 영광스런 모습에 놀란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아름답다고 피차 존경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비심이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 여인은 “아니, 당신이 나보다 더 어여뻐.”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자비심의 모습이 훌륭해진 것을 소년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러자 설명자는 ‘용감’이라는 남자 하인을 불러 긴 칼과 투구와 방패로 무장하고 손님들을 아름다운 궁전까지 호송해 드리라고 명령했다.

아름다운 궁전은 행객들이 그날 밤 투숙할 집이었다. 그리하여 무장한 용감이 앞서고 행객들이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러자 설명자가 편안히 가라고 작별인사를 하고 그 집 식구 전부가 다 나와서 기원하는 말로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길을 다시 떠나게 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우리 여행의 둘째 번 발판인 이곳에서  
천만 년 남들에게는 숨겨 두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만이 보고 또 들었대요.  
저를 헤치는 갈퀴 · 거미 · 암뱀 그리고 병아리 등이

한 가지 교훈을 주었으니  
그 교훈을 나는 따르렵니다.  
도살자, 정원과 밭, 로빈 새와 그의 먹이  
그리고 속이 썩은 나무 등 무게 있는  
교훈의 개요가 나를 굴복시켜  
성실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성취하려면  
언제나 경계하고 또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우쳤어요.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나는 결심했소.

용감이 앞서고 그들이 뒤따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얼마 전 크리스천의 집이 등에서 굴러 떨어져 무덤 속으로 굴러들어간 일이 있었던 장소에 그들은 도달했다. 이곳에서 걸음을 잠시 멈춘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문간에서 우리가 들은 말이, 지금 새삼 생각나는군요. 즉 말과 행위로써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인데, 말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약속으로 용서받는다는 뜻이요, 행위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받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속으로 용서받는다는 뜻은 저로서도 얼추 이해가 가나, 행위로 용서받는 방법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용감 선생님께서는 그 뜻을 잘 아시고 계실 듯하니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감: “행위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 자신의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탄 사람이 행한 행위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니, 그것이 곧 용서받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당신과 자비심 양과 그리고 이 소년들이 용서받게 된 것은 당신이나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고하니 당신들이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신 분인 동시에 당신들의 죄

를 감싸주기 위해 의를 행하시고 당신들의 죄를 씻어 주는 피까지 흘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쓰신 것이지요.”

크리스티아나: “그 분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분 자신이 가질 의가 남아 있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용감: “그 분의 의는 너무나 풍부하여 당신들이 요구하는 의를 나누어 주고, 그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의를 충족하고도 얼마든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얼른 이해하기 힘드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감: “예,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지요. 그러나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내세워야 할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무엇이나 하면 이 화제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그이와 짝지어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하나도 없는, 특수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분은 한 몸에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성격을 식별하기는 매우 쉽지만 서로 분리할 수는 절대로 없는 성격들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 따로따로가 제각기의 의(義)를 소유하고 있고, 그 각개 의가 그 성격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격의 의를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그 성격 자체가 사감(死滅)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의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첫째 의와 둘째 의를 합친 의거나 혹은 첫째나 둘째 중 하나의 의거나, 인간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그 분의 두 가지 성격이 합쳐 하나가 되어 있는 까닭으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의밖에 또 한 가지 다른 의를 그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의는 인간성과 구별되는 신성의 의가 아닌 동시에 신성과 구별되는 인간성의 의도 아니요, 인간성과 신성 두 가지 성격의 연합체 위에 세워진 의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의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위촉한 사명, 즉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융화시키는 조정자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이분에게 내려주신 의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호칭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첫째 의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신성의 의를 나누어 주는 셈이 될 것이요, 둘째 의를 만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순수한 인간의 의를



나누어 주는 셈이 될 것이며, 셋째 의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은 조정자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의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실천으로 옮기거나, 혹은 그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의 죄를 감싸주시기 위해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는 바로 이 셋째 의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역주: 로마서 5:19)”

크리스티아나: “그럼 첫째와 둘째 의는 우리에게는 소용없는 의라는 말씀이신가요?”

용감: “반드시 소용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 의는 그분의 성격과 사명에 필수 불가결한 의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 의가 가진 힘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는 셋째 의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신성의 의는 순종의 힘이 되어 주고 그분의 인간성의 의는 순종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며, 그분이 맡은 바 사명으로 인해 두 가지 성격의 연합체 위에 세워진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일을 수행하는 의로운 일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다음 신격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의가 또 있지요. 왜 필요하지 않은가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의도 또 있지요. 왜 필요치 않냐 하면 의로움 없이도 그분은 완전무결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하나님 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의도 또 있지요. 왜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아무런 의로움 없이도 그분은 완전무결하신 하나님 겸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나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로나, 하나님 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로나, 그분 자신에 연관되는 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의롭게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진 의가 자기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남에게 나누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에게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 ‘의의 선물(역주: 로마서 5:17)’

이라고 성경에서는 불렀지요.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라, 율법이 정한 대로 그가 가진 의를 남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의로운 일을 공명정대하게 해야 할 의무가 그분에게 지워져 있을 뿐 아니라, 의를 남에게 분배해 주는 자선도 베풀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일 옷 두 벌을 가지고 계시다면, 율법에 규정지어 있는 대로 한 벌은 옷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입으실 옷 한 벌과 남에게 줄 옷 한 벌, 두 벌을 분명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분은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무상으로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 당신과 자비심 양과 그리고 이 소년들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힘은 당신네 행위가 아니라 그 분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네 죄를 사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신 분은 당신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바를 그가 만나 거지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위로 인한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고, 그 밖에 또 우리 죄를 감싸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율법이 인간의 죄에 상당한 저주를 이미 내린 만큼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속죄 방법으로 우리가 저지른 해독의 대가를 물어야 하는데, 이 속죄로 물은 대가는 당신네 주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인간을 속죄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주님께서는 죄인인 당신들 대신 법정에 출두하셔서 죄인인 당신들이 죽어야 마땅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써 당신들의 죄에 대한 속전(贖錢)을 무신 주님께서는 역시 흘리신 피로써 당신들의 더럽고 추한 영혼을 의로 감싸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속죄받은 당신들을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불문에 부쳐 처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참 좋은 말씀이군요. 말과 행위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뜻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비심 양, 이 뜻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 두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애들아, 너희도 이 뜻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선생님, 제 남편인 크리스천이 지고 오던 짐이 이 자리에서 벗겨져 너무 기뻐 세 번 뛰었다는 것도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용감: “그렇지요. 주님이 흘리신 피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당신 남편 등에 지워졌던 짐의 끈을 잘라 버린 것이지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끈을 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이 십자가 앞까지는 짐을 진 채 걸어 오도록 만든 이유는, 주님의 피가 가진 속죄의 힘을 그가 명백히 깨닫도록 하려고 한 데 있는 것이지요.”

크리스티아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도 제 마음이 얼마간 가볍고 즐거웠지만 지금 제 마음의 상쾌함과 기쁨은 전보다 열 배나 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로 절실히 느끼지 못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라도 이 자리에 다다라 지금 제가 깨닫고 믿게 된 것처럼 깨닫고 믿게 된다면 그의 마음도 한층 더 기뻐지고 쾌활해질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용감: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생각하는 것이 집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위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속죄받은 데 대한 감격스런 애정까지 우리나라에 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대신 흘리신 피로 속전(贖錢)을 지불하는 행위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피 흘리심으로 속죄해 주신 분에 대한 경모(敬慕)의 마음을 억제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크리스티아나: “옳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도 출혈하게 된다고 생각돼요. 아, 사랑하시는 주님! 아, 성스러우신 주님! 속전을 물고 저를 사신 당신은 저를 소유하실 권리를 가지셨고 제 몸값의 만 배도 더 되는 값을 치르고 저를 사신 당신은 저의 전부를 소유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옵니다! 주님의 그런 행위가 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동시에 괴로운 길을 민활하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 조금도 이상할 것 없사옵니다. 제 남편이 저와 동행하기를 그렇게도 바랐건만 기어이 혼자 떠나게 한 제가 얼마나 천한 동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자비심 양, 당신의 부모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리고 또 그 겁쟁이 마나님. 아, 그렇지 그 음분(淫奔) 마담까지도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군요. 그녀들이 예까지 오기만 했던들 겁쟁이 마나님의 겁이나, 음분(淫奔) 마담의 심한 정욕까지

도 그녀들이 착한 순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결심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감화를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용감: “지금 당신은 뜨거운 감격을 느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의 감격을 언제나 지탱해 갈 수 있으리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진 못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감격이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광경을 본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런 감격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심장으로부터 피가 흘러 내려 땅 위에까지 번지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두 가지 극단의 반응을 보였지요. 감격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슬퍼하기는 고사하고 예수를 비웃고 제자가 되는 대신 반대하는 마음을 더 굳게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특히 감격을 느끼게 된 원인은 내가 들려주는 말을 깊이 생각하여 독특한 인상이 머리에 남아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신의 섭리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어미 암탉이 하루 종일 보통 부르는 소리는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찾아 먹이려는 소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것을 명심하시오. 지금 당신들이 특별한 감격을 느끼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냥 꿈을 꾸고 있었다. 얼마 전, 크리스천이 혼자 여행하던 도중 「약자」와 「게으름뱅이」와 「오만」 세 사나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곳까지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도달한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철사로 목을 매고 길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

거룩한 길가기를 거절한 게으른 자들이  
목매어 달려 있는 것을 보라.  
그러나 용감히 선두에서 길을 인도해 갈 때에는  
어린이가 어른처럼 부지런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도 또한 여기서 보라.

그들의 보호자 겸 안내자인 용감에게 자비심이 말했다. “저 세 사람은 누구인가

요? 왜 그렇게 목매달려 있을까요?”

용감: “저 세 사람은 본디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 자신이 순례자 될 마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들이 순례자 되는 걸 방해했지요. 그들 자신이 게으르고 어리석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꼬여서 자기네처럼 만들려고 애쓰면서 종말에는 잘 살게 된다고 가르쳤지요. 크리스천이 이곳을 지나갈 때는 잠자던 그들이 지금 당신들이 지나갈 때에는 그렇게 목매달려 있군요.”

자비심: “하지만 그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용감: “있지요. 그들의 꼬임에 속은 여러 사람이 정로에서 떠나 판 길로 들어갔지요. 「만보」라는 사람이 설득되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지요. 그다음 또 「단기」·「무심」·「색광」·「멍청이」 등의 여러 사나이들과 그리고 젊은 여자—「우둔(愚鈍)」이라는 이름을 가진—를 설득시켜 정로에서 떠나게 만들어 저자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했지요. 그뿐 아니라 당신네 주님을 악평하여 일꾼들을 혹사하는 엄격한 공사감독이라고 악선전해 남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 주었지요.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악평만 늘어놓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곳이 아니라고 선전했지요. 또 그들은 주님의 사도들을 중상모략하여 사도들 중 가장 우수한 자들을 남의 일 참견하기 좋아하는 귀찮은 인간들이라고 규정지었지요. 그뿐 아니라, 그자들은 하나님의 식빵을 깎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락이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순례자들의 여행과 노고는 아무 목적도 없는 헛일이라고 비꼬았지요.”

크리스티아나: “그들이 정말 그런 자들이었다면 저렇게 비참히 죽은 걸 저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꼴을 당해 마땅하니깐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인들에게 경고가 되니까요.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런 악독한 장난을 한 장소에 그들의 죄상을 날같이 새긴 철판이나 동판을 세워 두었던들 더 좋을걸 그랬군요. 다른 악한 놈들에게 큰 경고가 되게.”

용감: “그런 게 세워져 있어요. 저 담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보일 것입니다.”

자비심: “저놈들을 저렇게 그냥 달아두어 그들의 이름이 썩도록 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상은 영원히 살아 그들을 괴롭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

지 오기 전에 저놈들 목을 매단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놈들이 그냥 살아 있었더라면 연약한 여인인 우리에게 무슨 몫쓸 짓을 했을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러자 그녀는 노래 한 수를 지어 불렀다.

지금 저기 매달린 세 사람 꼴  
진리를 거역하는 모든 인간을 경고하는 표지roda.  
우리 뒤에 오는 사람 중에 순례자의 친구가  
되지 않는 자는 저 꼴 될까 봐 겁을 먹겠지.  
내 영혼아, 그리고 모든 인간들아,  
신성을 거역하는 자들은  
저런 꼴이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 일행이 곤고 산 밑에 다다르자 그들의 착한 벗인 용감은 이전에 크리스천이 이곳을 지나갈 때 겪은 일을 다시금 그들에게 얘기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먼저 샘터로 그들을 인도한 그는 말했다. “자, 보시오. 크리스천이 이 산을 올라가기 전에 물을 마신 샘이 여기 있소. 그 당시에는 이곳 물이 깨끗하고 맑았었는데 지금 이 물은 더러워졌소. 순례자들이 이 샘물로 마른 목을 축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발로 밟고 다녀 흐려 놓은 것이요.”

이 말에 자비심이 말했다. “왜 그런 샘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감이 말했다.” 허나 염려할 건 없어요. 물을 떠서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아두면 더러운 흙이 밑으로 가라앉고 물은 자연 맑아지니까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물을 길어 질그릇에 담아가만히 놔두어 흙이 밑으로 가라앉은 뒤 그들은 물을 마셨다.

그다음 용감은 산 밑에 두 갈래로 뻗은 새길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전에 허레와 위선, 두 사람이 잘못 들었던 길이다. 그는 말했다. “두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크리스천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이 잘못 들어갔다가 망한 길이지요. 보다

시피 지금 쇠사슬과 기둥과 개천으로 이 길을 막아 났지만 웬일인지 요새도 이 산을 기어오르는 고생이 하기 싫어 이 두 길로 접어드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크리스티아나: “유사(有邪)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요(역주: 잠언 13:15). 가장 힘든 곳을 헤매야 하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셋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요.”

용감: “그러나 무턱대고 모험하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판길로 들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도들이 혹시 보고 길을 잘못 들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주면 그들은 도리어 반발하여 욕지거릴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녕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역주: 예레미야 44:16~17). 이상하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둥과 개천과 쇠사슬을 사용하여 이 두 길을 막아왔을 뿐 아니라 울타리까지 쌓아 못 가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사코 그 길을 택하는 자 있으니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나: “모두 게으르기 때문이지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불유쾌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고생길을 택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택하는 거지요. 이 현상은 곧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이룩하는 것이지요(역주: 잠언 15:19).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뻗은 길인 이 산길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함정이 놓인 길을 택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그들은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 그러나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가기 전에 험뎠거리기 시작한 크리스티아나는 말했다. “이 산은 정말로 숨찬 산이로군요. 영혼의 구원보다 육체의 안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택한 것이 별로 괴이할 게 없습니다.”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저는 좀 앉아 쉬어야 하겠는데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울기 시작했다.

용감이 말했다. “자, 자, 어서가요. 여기 앉아 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왕자님의 정자가 서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용감은 막내 아들 손을 붙들고 그냥 걸어 올라갔다.

정자에 다다른 그들은 모두 앉고 싶었다. 모두 심한 더위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자비심이 말했다. “고된 사람들에게 휴식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군요!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이런 휴식처를 마련해 주신 순례자의 왕은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 이 정자에 관한 얘기는 저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처럼 와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은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앞서 가신 크리스천께서 여기서 잠드셨다가 가없게도 큰 손해를 보셨다는 소문을 저도 들은걸요.”

그러자 소년들에게 향해 용감이 말했다. “귀여운 어린이들아, 이리 온. 지금 좀 어떠냐? 순례의 길 떠난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막내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진맥진 했을 때 손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 참 고마워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것이 지금 새삼 생각나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사닥다리 디디고 올라가는 것과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덕을 내려가 죽는 것보다, 사닥다리를 디디고 올라가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은 쉽다는 속담이 있지.”

그러자 야곱(막내의 이름)이 말했다. “하지만 언덕을 내려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날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자 용감이 말했다. “참 영리한 아이로군. 그래, 자비심의 말에 네가 제일 바른 대답을 했다.” 그러자 자비심은 방긋 웃고 어린이는 얼굴을 붉혔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자, 우리 다리를 쉬는 동안 입맛이라도 다시게 이것 좀 먹어보지 않으런? 설명자의 댁 문밖을 나설 때, 그분이 내 손에 쥐어 주신 석류 한 알이 여기 있으니 말이다. 그 밖에 꿀 한 조각과 작은 병에 든 술 한 병도 주시더라.” 자비심이 말했다. “그때 그분이 당신을 옆으로 잠시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아마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분이 주셨어요.”라고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여행 떠난 때 약속한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기로 하겠소. 당신이 자진해서 내 동반자가 돼 준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나가 나누어 주는 음식을 자비심과 소년들은 다 받아먹었다.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용감에게 말했다. “선생님도 좀 잡수실래요?”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그만두지요. 당신들은 여행을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고 난 곧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니. 그걸 잡수시면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그런 음식을 매일 먹는 걸요.”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잠시 잡담을 하고 나자, 용감이 말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 웬만하면 길 떠날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가려고 일어서고 소년들이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술병을 잊어버린 채 떠나 온 것을 발견한 크리스티아나는 막내를 시켜 가서 찾아 들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이곳은 잊어버리기 잘 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여기서 크리스천 선생님이 책을 잊어버리고 떠났었는데, 지금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께서는 술병을 잊어버리고 떠났으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자 그들의 안내자인 용감이 대답했다. “그 이유는 잠꾸러기 혹은 건망증에 있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만 될 시각에 잠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가 하면 더러는 기억해야만 될 때에 잊어버리기가 일쑤지요. 이 휴식처에서 때때로 순례자들이 무엇이고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가장 즐거운 때 받은 물건들을 잘 간수하고 또 기억해야 할 순례자들이건만, 그렇지 못하여 잊어버릴 때, 그들의 환희는 눈물로 끝나고 그들이 누리던 명량한 햇빛이 검은 구름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장소에서 크리스천이 당한 얘기가 내 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회의와 겹쟁이, 두 사람을 만나 더 가다가는 사자 밥이 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았던 장소에 그들은 다다랐다. 처형대 하나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 이 처형대 앞 길가에는 넓은 게시판 하나가 서 있는

데 게시판 윗면에는 시 한 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이 자리에 처형대를 세우게 된 이유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 한수는 아래와 같았다.

이 처형대를 보는 자  
마음과 혀를 삼가라.  
만일 삼가지 않으면  
옛날에 벌받은 자들처럼  
사형에 처함받을 것이니

이 시 아래 쓰인 문구는 이러했다. “이 처형대를 세운 목적은 겁을 집어먹거나 혹은 회의를 느껴 순례의 길을 더 가기 두려워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다. 크리스천의 여행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회의와 겁쟁이 두 사람이 이 처형대 위에서 처형당했는데, 불에 달군 쇠막대로 그들의 혀를 지저 죽인 것이다.”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이 문구는 다윗의 시로 노래한 글귀와 거의 같군요. 즉 ‘너 궤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 탬나무 숯불이로다.’(역주: 시편 120:3~4)”

다시 떠나 길을 가던 그들은 사자 두 마리가 보이는 데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용감 씨는 위낙 힘이 센 사나이였으므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자 있는 곳까지 다다르자 앞서 가던 소년이 사자가 무서워 뒤를 돌아보며 서있다가 어른들이 앞선 뒤 뒤를 따랐다. 이 모양에 빙그레 웃음 짓는 안내자는 말했다. “애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위험이 없을 때에는 앞서 가기 좋아하고 사자 모습에 보이자 꿈무늬를 빼고 뒤를 따라가기 좋아하니.”

사자 있는 데로 가까이 간 용감 씨는 큰 칼을 빼들었다. 사자 두 마리를 무찌르고라도 순례자들에게 길을 내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때 사자들을 지원하려고 나서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 용감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뭘 하러 왔소?”

이 사나이는 순례자들을 많이 죽인 자였기 때문에 이름을 「홍한(兇漢)」이라고 부르

기도 하고 「살벌한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는 거인 족속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순례자들의 안내인인 용감이 말했다.

“이 부인과 소년들은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만큼 사자들이 있긴 없긴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해야겠소.”

흥한: “이 길은 그들의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길로는 절대로 못 가요, 그들이 가는 걸 막으려고 내가 왔고, 막기 위해서 나는 사자들을 지원하겠소.”

사실 말이지 이 길목을 지키는 사나운 사자들, 그리고, 사자들을 지원하는 이 흥한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동안 없어서 길 위에는 풀이 자라 있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때까지 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 길 대신 셋길로 걸어가도록 강요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일어난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소. 우리는 이 길로 가야겠어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지만,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고 다.’(역주: 사사기 5:6~7)”

그러자 흥한은 사자들을 빙자하여 이 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테니 물러가라고 호통 쳤다.

그러나 이때 선수를 써 흥한을 습격하는 용감이 칼로 힘껏 내리치니 흥한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사자들을 지원하려고 시도하는 흥한이 말했다. “내 영지 내에서 그래 날 죽이려는 거냐?”

용감: “우리가 가는 이 큰 길은 우리 임금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에 너희 사자들을 배치했던 말이야. 이 부인들과 소년들이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사자 따위는 무서워 않고 이 길을 갈 것이니 그리 알라.”

이 말과 함께 그가 한 번 더 내리치자 흥한은 풀썩 주저앉았다. 그다음 일격에 흥한이 쓰고 있는 투구가 부서지고 다음 일격에 그의 팔 하나가 잘려 버렸다. 죽는 비명을 지르는 흥한의 목소리가 여인들을 놀라게 했지만 죽어 땅에 엎어져 있는 흥한의 꼴을 보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두 마리 사자는 다 사슬에 매어 있었으므로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자들을 지원하려고 하던 늙은 흥한이 이

미 죽었으므로 용감 씨가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자, 날 따라오시오. 사자들이 해치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하면서도 사자들 곁으로 지나갈 때 여자들은 몸을 떨고, 소년들은 죽은 시늉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사자 앞을 지나갔다.

수위실이 보이는 데까지 간 그들은 걸음을 재촉했다. 밤중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줄 알기 때문이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누구냐?”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나요, 나.” 하는 용감의 목소리를 들은 문지기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지를 이내 알고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용감이 자주 들렸었기 때문에) 문루에서 내려왔다. 문루에서 내려온 그는 문을 열고 내다봤다. 문을 가리고 서 있는 용감을 보는 문지기는 그가 혼자 온 줄 알고 (여인들과 소년들은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 용감 님, 밤늦게 웬 일이요?” 용감이 말했다. “몇 사람의 순례자들을 모시고 왔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서 묵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사자들을 지원하러 온 거인과 맞붙어 싸우느라고 늦어졌지요. 한참 지루하게 싸운 끝에 그놈을 죽이고 순례자들을 예까지 무사히 모시고 왔지요.”

문지기가: “하룻밤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떠나면 안 됩니까?”

용감: “안돼요. 이 밤에 내 주인님께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크리스티아나: “아,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와 동행해 오시면서 그렇게도 성실하게 또는 자애스럽게 우리를 대해 주셨고, 저희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도 용감하게 싸워 주셨고, 그렇게도 진심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저로서는 지금 선생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자비심: “아, 저희가 여행을 끝맺을 때까지 선생님이 동행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 까요! 이렇게 험악한 길로 여행해야 할 저희 연약한 여자들로선 친구 겸 보호자이신 선생님 없이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올시다.”

그러자 막내인 야곱도 한마디 했다. “선생님, 저희와 꼭 함께 가 주세요. 저희는 모두 너무 연약한데 길은 한없이 위험하니까요.”

용감: “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네의 안내자

가 되라고 주님께서 임명하신다면 즐거이 동행하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당신네가 실수했어요. 주님께서 나더러 이곳까지 당신들을 호송하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내하도록 해 달라고 주님에게 빌었던들 주님께서 승낙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니 착하신 크리스티아나 부인, 자비심 양, 그리고 용감한 소년들아, 안녕.”

용감이 떠나자 「경계」 씨(문지기의 이름)가 그의 고향은 어디며, 친척은 누구냐고 크리스티아나에게 물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제 고향은 멸망할 도시이므로 그곳을 떠나 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부입니다. 남편은 순례자인 크리스천이었어요.”

문지기가 말했다. “뭐라고요, 그이가 당신 남편이라고?”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이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비심을 가리키면서) 우리 동네 이웃집 딸입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종을 올렸다. 손님이 오면 그가 종을 올리는 것이 습관이었다. 종 소리가 울리자 이 집에 사는 여러 처녀들 중의 하나인 「겸손」이 문계로 왔다.

문지기가 겸손에게 말했다. “크리스천의 부인이신 크리스티아나 여사께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순례의 길을 떠나 지금 예까지 오셨다고 안에 들어가 알려 주어요.”

그래서 겸손이 안으로 들어가 이 소식을 알렸다. 아, 겸손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에서는 너무 즐거워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크리스티아나는 여태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으므로 집안사람들이 통틀어 문으로 급히 나왔다. 그 집 사람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먼저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크리스티아나 부인. 착하신 크리스천의 부인이시여, 어서 들어오세요. 축복받은 여인이시여, 어서 들어와 데리고 오신 사람들 다 데리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리하여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고, 아들들과 자비심도 뒤따라 들어갔다. 아주 넓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라는 청을 받고 그들이 앉자, 집주인에게 알려 주인이 와서 손님들을 만나보고 영접하도록 하라고 했다. 손님들이 누군지 알고 들어온

주인은 키스로 인사하고 나서 말했다. “잘 오셨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신 당신, 그리고 당신 친구들도 다 환영합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모두 여행에 지쳤을 뿐 아니라, 용감과 흥한이 싸우는 광경과 무서운 사자들 모습에 기가 죽었던 순례자들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 집 사람들은 말했다. “주무시기 전에 우선 요기나 해서 기운을 차리시도록 해야지요.”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이곳을 향해 오는 도중에 있다는 소문을 미리 들은 문지기가 집사람들에게 미리 부탁하여 양고기 요리와, 양고기 요리에 으레 따르는 양념장까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참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저녁을 먹고 나서 찬송과 기도를 드린 그들은 어서 속히 자리 가길 원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대단히 당돌한 요청이옵시다만 가능하다면 요전 제 남편이 여기 묵으실 때 들었던 방에서 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녀의 요청이 수락되어 그들 일행 전부 그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자리에 들자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크리스티아나: “남편이 길을 떠나시던 때에는 내가 이처럼 뒤따라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더랬어요.”

자비심: “지금 이처럼 그이가 묵고 간 방, 그이가 누워 주무시고 가신 침대 위에 아주머니가 누워 주무시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지요?”

크리스티아나: “어찌 그뿐이겠소. 마음 놓고 그이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이와 함께 주님을 숭배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두 가지 다 가능하리라고 믿어지는군요.”

자비심: “잠깐! 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크리스티아나: “예,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여기 왔다고 기뻐 연주하는 음악 소리 같이 들리는군요.”

자비심: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이 즐거워 연주하는 이 택 음악, 마음속 음악, 그리고 하늘 음악!”

이런 얘기를 한동안 주고받던 그들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을 깬을

때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에게 말을 걸었다.

크리스티아나: “잠자면서 당신이 웃던데 왜 웃었소? 꿈을 꾸 모양이지.”

자비심: “예, 꿈을 꿔어요. 참 길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웃었나요?”

크리스티아나: “웃고말고, 아주 자지러지게 웃던 걸. 하여튼 자비심 아가씨, 꿈 얘기를 들려줘요.”

자비심: “호젓한 곳에 저 혼자 앉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완강한 걸 탄식하며 울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얼마 오래 앉아 있지 않았는데, 슬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모여들면서 저를 보기도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같이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완강해진 것을 계속 한탄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제 팔을 보는 사람 중 더러는 조소하고, 더러는 절 바보라고 놀리고, 더러는 저를 밀쳤어요. 이때 제가 머리를 치켜 위를 바라보니 날개 달린 사람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같이 생각되었어요. 제게로 곧장 온 그분은 ‘자비심아, 너는 왜 괴로워하니?’ 하고 묻지 않겠어요? 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 분은 “안심하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분이 은과 금으로 만든 옷을 저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 주시고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 주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손을 잡은 그분은 ‘자비심아, 나하고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도 그분 뒤를 따라 황금문 앞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이 문을 두드리자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어 그분과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가 보좌 앞까지 갔어요.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내 딸아, 참 잘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해처럼 빛나고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아니 정말 해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아주머니의 남편을 본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꿈을 깼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웃었나요?”

크리스티아나: “웃었나요 라니! 그런 좋은 꿈을 꾸면서 좋아서 웃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 당신이 꾸는 꿈은 길몽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소. 천국 광경의 한 절반쯤 꿈에 봤으니까 마지막 절반 광경은 실제로 보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

되, 사람이 침대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을 꿀 때나 밤의 환상을 볼 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 치듯 교훈하시나니'라고(역주: 욥기 33:14~15) 그런 만큼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기 위해 반드시 깨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어도 마음은 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나 혹은 잠언으로나, 또 혹은 시늉이나 비수로 우리 마음에 교훈을 주실 수가 있어요. 몸이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비심: “그런 꿈을 꾸 게 참 기뻐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제 꿈이 이루어져 다시 한 번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티아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됐나 보오. 일어나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소.”

자비심: “이 댁 사람들이 혹시 저희더러 얼마간 머물라고 말하거들랑 그들의 청을 즐겁게 받아들여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더 머물면서 이 집 아가씨들과 잘 사귀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지각」이나, 「경건」이나, 「애정」이나, 다 한결같이 아주 안전하고 똑똑한 처녀들이라고 제게는 생각돼요.”

크리스티아나: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러.”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들은 준비를 갖추고 아래 방으로 내려갔다. 이 집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잠자리가 불편하지나 않았나 물었다.

자비심: “참 편했어요. 제 평생 유숙해 본 방 중에서 가장 좋고 편한 방이었어요.” 그러자 지각과 경건이 한꺼번에 말했다. “당신들이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으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접대하겠습니다.”

자비심: “그래요. 그럼 진심으로 호의를 받아들일겠어요.”

머물러 있기로 한 그들 일행은 이 집에 한 달 가량 유숙하면서 피차 펍으로 유익한 나날을 보냈다.

크리스티아나가 제 아들들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궁금히 생각하는 지각이 소년들에게 질문 좀 해도 괜찮은가 하고 물었다. 크리스티아나는 흔연히 허락했



다. 그래서 지각은 막내 아들인 야곱에게 먼저 묻기 시작했다.

지각: “야곱아, 널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말해 봐.”

야곱: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요.”

지각: “착하다. 널 구원해 준 이가 누군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야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지각: “참 착하구나. 허나 성부께서 널 어떻게 구원해 주셨니?”

야곱: “그의 은혜로.”

지각: “성자께서는 널 어떻게 구원해 주셨니?”

야곱: “그의 옳으심과 죽으심과 피와 생명으로.”

지각: “그럼 성령께서는 널 어떻게 구원해 주셨니?”

야곱: “그의 빛을 비치심과 기력을 회복시키심과 보전하심으로.”

그러자 지각은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어린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치신 것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막내가 대답을 참 잘 했으니까. 그 세 형들에게 똑같은 질문은 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에서 둘째 아드님에게는 다른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지각: “자, 요셉아(셋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으므로) 네게도 무얼 좀 물어볼까?”

요셉: “재주껏 대답하지요.”

지각: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요셉: “동생이 아까 말한 것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지각: “구원이라는 낱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요셉: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고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구원해 준다는 뜻이올시다.”

지각: “인간이 삼위일체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요셉: “죄는 지극히 크고 힘이 센 폭군이기 때문에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또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므로 불행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끌어내 구원해 주시는 것이올시다.”

지각: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지?”

요셉: “하나님의 이름과 은총과 정의 등이지요. 그리고 또 그가 만드신 생물들의 영원한 행복.”

지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요셉: “하나님의 구원을 즐겨 받아들이는 사람들.”

지각: “넌 참 착한 아이다, 요셉아. 네 어머니께서 널 잘 가르쳐 주셨고, 너도 어머니의 가르치심을 명심해 들었으니.”

그다음 지각은 둘째인 사무엘에게 말을 걸었다. “사무엘아, 내 질문에 너도 즐겁게 대답하러니?”

사무엘: “예. 물어보신다면 즐겁게 대답하겠어요.”

지각: “천당이란 무엇이지?”

사무엘: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은 나라이지요.”

지각: “지옥이란 무엇이지?”

사무엘: “죄와 악마와 죽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나라입니다.”

지각: “네가 천당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나?”

사무엘: “첫째는 하나님을 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아무런 권태나 피로를 느낌 없이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셋째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뵈 수 있는 것, 넷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다섯째는 이 세상에서는 누릴 도리가 없는 성령의 충만을 거기서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 “너도 참 착한 아이구나. 그리고 잘 배웠고.”

그다음 그녀는 딸이인 마태에게 말을 걸었다. “마태야, 내가 네게도 질문해도 괜찮겠지?”

마태: “좋아요.”

지각: “그럼 물어본다.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무엇이 존재하였으리라고 생각하니?”

마태: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첫날 이전에도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는 없었어요. ‘옛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역주: 출애굽기 20:11).”

지각: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마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지각: “네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니?”

마태: “예, 아주 많이.”

지각: “성경을 읽다가 이해 못 하는 대목이 나올 때 너는 어떻게 하니?”

마태: “하나님께서서는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 제가 알아 유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사 하고 기도드리지요.”

지각: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니?”

마태: “죽은 사람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장사 지내 땅속에 묻힌 시체 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시체가 썩은 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요, 둘째는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지각은 소년들 모두에게 말했다. “다들 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계속 명심해 들어야 한다. 어머니께서 더 가르치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말아야. 그리고 남들이 하는 좋은 말씀들을 언제나 귀 기울여 열심히 들어야 한다. 너희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말이다. 그뿐 아니라 천지만물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중에도 특히 너희 아버님이 순례자가 되도록 만들어 준 성경을 명심해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도 가능한 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신앙심을 계발시켜 주는 문제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언제나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즐겁게 응해 줄 테니.”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이 집에 유숙하기 시작한지 한 주일 만에 자비심을 찾아온 방문객 하나가 있었다. 자비심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 왔노라고 하는 이

사나이의 이름은 「쾌활」인데, 교양이 약간 있는 사람ियो, 신앙을 가진 척하지만 실은 속세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두서너 번 찾아온 그는 자비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청했다. 자비심은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여서 아주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싶어 하는 여자였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줄 긴 양말과 옷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여자였다. 그런 물건을 만들어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고 쾌활 씨는 그녀가 한 시도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데 크게 감복되어, ‘결혼만 해 주면 훌륭한 가정 주부가 되겠는걸.’ 하고 혼자 속셈하고 있었다. 쾌활 씨가 구혼하더라는 이야기를 이 집 식구들에게 털어놓은 자비심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 자신보다 이 집 식구들이 쾌활이라는 사람의 본색을 더 잘 알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단히 바쁜 사람이고, 신자인 척하기는 하지만 선한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된다고 그들은 말해 주었다.

그러자 자비심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이를 다신 만나지 말아야겠군요. 제 영혼의 방해물은 무엇이건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으니까요.”

그러자 지각은 그 사나이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복 만드는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그의 열정은 금세 냉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 사나이가 자비심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옷 만드는 데 열중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만날 무슨 일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소?” 자비심이 말했다. “제가 입을 옷도 만들고 남들이 입을 옷도 만들지요.”

그가 물었다. “그래 하루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그녀가 말했다. “장차 올 최후의 심판 날에 대비하여 선한 일을 쌓고 좋은 터를 닦아 두었다가 영생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역주: 디모데전서 6:18~9)’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예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옷들은 어떻게 처분하는 거요?”

그녀가 말했다. “혈벗은 사람들에게 입혀 주지요.”

이 말에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 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발을 꿇었는지 질문을 받으면 그는 “자비심은 어여쁜 여자이긴 하지만 머리가 좀 돌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영 발길을 끊자 지각이 자비심에게 말했다. “꽤할 씨가 머지않아 당신을 저버린다고 내가 말했지 않았소? 그렇소. 그는 필연코 당신을 악평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척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기는 하지만, 당신네 두 사람이 기질이 판판이기 때문에 두 분이 결합할 수는 없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자비심: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바라기만 했던들 남편될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 남성들도 제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물도 발견 못 했지만 제 마음의 상태를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저는 결합될 수가 없었어요.”

지각: “지금 세상에서는 자비심이라는 건 하나의 호칭에 불과할 따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지요. 자비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당신이 가진 바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져야만 되는데, 그런 정신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극히 드물지요.”

자비심: “흥, 절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사나이가 없으면 평생 처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고, 그렇잖으면 제 정신 상태를 남편으로 모실 수도 있지요. 제 성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 성질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후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 한 분이 있는데 꽤할 씨와 같이 천격스러운 사나이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언니는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 의가 상하고 말았어요. 결혼 후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버릇을 고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본 형부가 처음엔 아내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더니 나중엔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어요.”

지각: “그러면서도 그자는 신앙 고백자였겠지요. 틀림없지요?”

자비심: “예,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지금 세상은 그런 자들로 가득 차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따위 것들 하나도 맘에 들지 않아요.”

이때 크리스티아나의 말아들 마태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세가 얼마나 중한지 가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오래 전부터 명의라고 인정받아 온 늙은 의사 한 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크리스티아나는 그 의사의 왕진을 청하러 사람을 보냈다. 「노련」 씨라고 불리는 그 의사는 왕진을 왔다. 방 안으로 들어가 소년의 병세 진찰을 잠시 한 그는 식중독으로 심한 복통을 일으킨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마태에게 요즘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무슨 음식이라니요! 건강에 좋은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은 먹인 일이 없는데요.”

의사가 말했다. “소화되지 않은 채 위에 남아있는 어떤 음식을 애가 몰래 먹은 것이 분명한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하지 않고 저절로 나을 도리는 없습니다. 구토, 설사를 시켜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애는 꼭 죽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왜, 이리로 오는 길머리 좁은 문에서 조금 밖에 안 온 때, 형이 뭔가 주워 먹은 게 있지 않았어요? 길 왼쪽을 끼고 뺨은 담장 안에 심은 과일나무들 윗가지들이 담장 밖으로 뻗어 나와 있었는데, 그 가지에서 형이 과일을 따서 먹은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티아나: “그래 옳다. 그렇지, 애가 정말 그 과일을 따서 먹었지. 나쁜 녀석, 내가 야단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따 먹었지.”

노련: “소화 안 되는 무엇을 먹은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봤어요. 애가 먹었다는 그 음식물, 다시 말하자면 그 실과는 다른 어떤 해로운 음식물들보다도 제일 해로운 것이에요. 그것은 바알세불이라는 악마가 가진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이니깐요. 그 과일을 먹고 죽은 자가 참 많은데, 어째 아무도 당신에게 주의시키지 않았는지 참 이상한 일인데요.”

이 말에 크리스티아나는 울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아,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아, 저는 너무 부주의한 어미입니다! 애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련: “자,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구토, 설사를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크리스티아나: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재주껏 최선을 다해 치료

해 주세요.”

노련: “아니요, 난 부당한 것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설사약을 마태에게 먹였으나 효력을 나타내기에는 그 약의 힘이 매우 부족했다. 이 약은 염소의 피와 어린 암소를 불에 태운 재와 우슬초(역주: 출애굽기 12:22, 히브리서 9:19. 원래 향기 나는 약초인데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 여호와가 벌 줄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유대 사람들의 집을 구분하기 위해 우슬초 묶음을 피에 적서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일이 있음) 즙을 섞어 만든 약이었기 때문에 효험이 없었다는 소문이 돈다. 이 설사약이 효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본 노련 씨는 즉각 효험을 내는 약을 만들었다.

이 약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든 것(독자도 아시다시피 의사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별 이상야릇한 약까지 만드는 법이니까)이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든 이 약에 하나님의 언약 한두 가지와 적당한 양의 소금을 섞어 알약을 만든 것이었다(역주: 마가복음 9:49). 그리고 이 약의 복용법은 굵으면서 약 세 알을 회개의 눈물 한 홑에 타서 마시는 것이었다. 약을 만들어 마태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의 복통이 살을 에는 듯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 먹기를 싫어하는 것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자, 자, 어서 먹어.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소년은 말했다. “약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요.” 이때 어머니가 말했다. “이 약을 네게 먹이고야 말테니 그리 알아라.” 소년은 말했다. “약 먹이면 먹는 대로 곧 토해 버릴래요.”

크리스티아나가 노련 씨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 약 맛이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맛이 나쁜진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티아나는 약 한 알을 혀끝에 대 봤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 마태야, 이 약 맛이 꿀보다도 더 달다. 애야, 네가 만일 이 어미를 사랑한다면 동생들을 사랑한다면, 자비심을 사랑한다면, 네 목숨을 사랑한다면 제발 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 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달라는 짧은 기도를 올린 그는 법석을 떨면서 약을 먹었다. 약은 즉각 효험을 나타냈다. 구토, 설사를 하고 나자 그는 곧 잠이

들어 편히 쉬게 되고 열이 내리고 숨결도 고르게 되고 복통이 아주 물러갔다.

얼마 안 가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지각과 애정과 경건을 만나 자기가 병들었던 애기와 어떻게 치료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마태가 완쾌되자 크리스티아나는 노련 씨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도 고생하시고 돌봐 주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하면 만족하실까요?”

그가 말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에 따라 보답은 의과대학 학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크리스티아나: “그러면 선생님, 이 약이 병에도 듣습니까?”

노련: “이건 만병통치약입니다. 순례자들이 여행 도중 걸리는 모든 병을 고쳐 주는 약인데, 잘 만들어 잘 간수하면 생각 이상으로 오래 보존됩니다.”

크리스티아나: “그래요. 그럼 이 약을 열 두 곡만 조제해 주세요. 그 약만 가지고 다니면 다른 약은 소용없게 될 것이니까요.”

노련: “이 약은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만 효험이 있을 뿐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약이지요. 그렇지요, 이 약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적당히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착하신 크리스티아나 여사. 이 약을 사용할 때 내 처방대로 투약해야지 달리 썼다가는 효험을 보지 못할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티아나가 사용할 약, 그녀의 아들들이 사용할 약, 그리고 자비심이 사용할 약을 따로 준 의사는 마태에게 풋실과는 절대로 다시는 먹지 말라고 타 이르고, 모두 키스해 준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위에 언급한 바 있거니와 지각이 소년들을 보고 무슨 질문이든지 유익한 질문이 있으면 사양 말고 물어보라고 하고, 물으면 일일이 대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병들었던 마태가 지각에게 묻기 시작했다. “약이란 대개 다 입에 쓴 건 무슨 이유일까요?”

지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효험이 육체적 마음에는 불유쾌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마태: “약이 병을 고쳐 준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왜 구토, 설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각: “하나님의 말씀이 효험을 낼 때에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약이 육체를 깨끗이 씻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이 씻어 준다는 말이야.”

마태: “땅에서 붙는 불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태양의 광선과 좋은 영향력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배울 점은 무엇인지요?”

지각: “불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열렬히 타오르는 희망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해가 열과 햇살과 좋은 영향력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은 구세주께서 가장 높은 데 계시면서도 그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마태: “구름은 수분을 어디서 얻나요?”

지각: “바다로부터 얻지.”

마태: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지각: “성직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의를 받는 것.”

마태: “구름이 비가 되어 다 위로 쏟아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각: “성직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지.”

마태: “해가 무지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역주: 창세기 9:13).”

마태: “바닷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육지에 와서 샘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마태: “그러면 어떤 샘은 높은 산꼭대기에 솟아나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지각: “은총의 정신은 위대하고 권세 있는 소수의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솟아나는 동시에 가난하고 비천한 다수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솟아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지.”

마태: “불이 초 심지에 꼭 붙어서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각: “은혜가 마음에 불을 지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진정한 광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마태: “촛불이 광명을 유지하려면 심지뿐 아니라 밑초까지 전부 다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이지요?”

지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몸과 영혼을 다 바쳐 소모시켜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마태: “펠리컨이란 새는 제 주둥이로 저 자신의 가슴을 깊이 찌곤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지각: “펠리컨은 제 피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어린 자식들과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피도 아낌없이 흘리셨다는 사실이야.”

마태: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지각: “베드로가 지은 죄와 그가 회개한 얘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우지(역주: 누가복음 22:61). 그리고 수탉이 우는 것은 동이 튼다는 표시도 되는 만큼, 닭이 우는 소리는 그 무서운 최후심판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는 경고도 되지.”

그럭저럭 한 달이 지나갔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길을 다시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는 의사를 이 집 식구들에게 표시했다.

그러자 요셉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설명자 씨 댁으로 사람을 보내 용감 씨를 한 번 더 보내 주셔서 우리 여행 끝까지 보호해 주고 안내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착한 애로군.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구나.”

그래서 진정서 한 장을 쓴 그녀는 이 집 문지기인 신중 씨에게 부탁하여 좋은 친구인 설명자 씨에게 보낼 적당한 심부름꾼 하나를 구했다. 이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진정서를 읽은 설명자는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그 사람 보내줄 테니 안심하라고 전하게.”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길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이 집 식구들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이런 귀한 손님들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자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저희 집에 묵는 순례자들이 떠나시기 전에 오래 구경시켜 드리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구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시고 떠나시면, 길가면서 곱곰이 사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리하여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들과 자비심까지 모두 다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들은 실과 한 알을 손님들에게 보였다. 이브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기 때문에 둘 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그 문제의 실과였다. 실과를 보이면서 크리스티아나에게 그 실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것이 먹어 좋을 과실인지 혹은 독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실과의 사연 얘기를 그녀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실과를 손에 든 그녀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들여다봤다.

그다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그들은 야곱의 사다리대를 손님들에게 구경시켰다. 때마침 몇몇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크리스티아나뿐 아니라 그녀의 일행 전체가 사다리로 오르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았다. 이때 집 식구들은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다른 것을 보여 주려고 했으나 크리스티아나의 아들 야곱이 어머니에게 졸랐다. “여기 이 광경이 하도 신기하니 좀 더 오래 구경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도로 돌아선 그들은 이 유쾌한 광경에 홀린 듯이 구경하고 서 있었다. 그다음 그들은 황금으로 만든 닻 한 개가 매달려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갔다. 그들

은 크리스티아나에게 그 닻을 내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걸 당신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닻은 휘장 안에 언제나 놔두어 거친 풍랑을 만날 때 튼튼히 서 있게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역주: 히브리서 6:19). 크리스티아나가 닻을 내려서 가지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다 크게 기뻐했다. 그다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산 위로 그들은 갔다. 그곳에서 구경거리로 지금까지 남겨둔 제단과 장작과 불과 칼을 구경했다(역주: 창세기 22:1~13). 이 자리를 보고 난 그들은 손을 쳐들고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아브라함은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저 자신을 부정한 위대한 사람으로 다!”

이런 것들을 다 구경시키고 나자 지각이 손님들을 식당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식당 안에는 「버지날스」라고 불리는 건반을 가진 훌륭한 악기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지각은 손님들에게 이때까지 구경시킨 모든 광경을 가사로 지어 노래 불렀다.

이브가 먹은 실과를 당신들께 보였으니  
그것을 귀감삼아 행동을 삼가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다리도 당신들이 봤고  
닻 한 개 선물까지 받았거니.  
그러나 충분한 상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마침 이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용감 씨가 와서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모두들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얼마 전에 그가 무시무시한 거인 흉한을 참살하고 사자들의 아가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준 생각이 새삼 새로워서 그렇게 기쁜 것이었다.

그러자 용감 씨가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에게 말했다. “제 주인님께서 두 부인에게 따로 따로 포도주 한 병과 붉은 곡식 얼마와 석류 두 알씩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

고 소년들에게는 무화과와 건포도 얼마씩을 보내오셔서 행로의 피로를 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자 지각과 경건 두 처녀가 바래다주러 따라나왔다. 문간에 이르자 크리스티아나가 그동안 누구이건 문밖으로 지나간 사람은 없는지 문지기에게 물어봤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얼마 전 단 한 사람이 지나갔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실 왕의 길에 얼마 전에 큰 강도가 나타나 도둑질을 한 일이 있다고 그이가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 도둑놈들이 붙잡혔는데, 사형 선고를 받을 재판이 곧 열릴 것이라고 그이가 말했습니다.”

이 말에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무서워했으나 마태가 말했다. “어머니, 무서울 것 도무지 없어요. 용감 씨가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문지기에게 말했다. “저희가 댁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친절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보여주신 극진한 사랑과 친절에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이 조그만 물건을 드리고자 하니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천사의 모양을 새긴 금전 한 잎을 그의 손바닥에 놔주었다. 그것을 받은 그는 그녀 앞에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말했다. “당신의 옷이 언제나 흰 대로 있고, 머리에 기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비심 양도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며 많은 일을 계속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소년들에게 그는 말했다. “너희는 소년 시절의 욕심을 피하고 정중하고도 현명한 사람들의 경건을 본받도록 해라. 그리함으로써 너희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 모든 분별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도록 해라.”

문지기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한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돌출한 절벽의 언저리까지 올라간 것을 나는 꿈에 봤다. 무엇을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경건이 갑자기 소리질렀다. “어마!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일행에게 드리려고 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제가 되돌아가서 가지고 올테니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녀는 그 물건을 가지러 돌아갔다. 그녀가 가고 없는 동안 길 오른쪽 조금 떨어진 수풀로부터 극히 이상야릇하고도 유쾌한 가락으로 노래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크리스티아나는 듣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주님의 은혜  
내 평생 숨김없이 보여주셨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이  
내 평생 거처할 처소가 되리로다.

그녀가 다시 귀 기울여 듣자 아래와 같이 화답하는 노래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자비 영원토록 확실하도다.  
언제나 굳건하게 입증되는 그의 진리  
대대손손 영원토록 존속하리로다.

이때 크리스티아나는 그 이상한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고 지각에게 물어봤다.

지각이 말했다. “우리나라 새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노래 부르는 일은 흔하진 않지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하루 종일 노래 부르지만 다른 때는 별로 부르지 않아요. 이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려고 저는 가끔 이곳으로 오곤 하지요. 또 때로는 길들여 집에서 기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울할 때 이 새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이 사는 삼림과 숲과 고적한 장소들을 인간들도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지요(역주: 아가 2:11~12).”

이때 돌아온 경건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에서 여

러분이 구경한 모든 것의 개요를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 두세요. 보신 걸  
혹시 잊어버리실 때 이걸 보시면 기억이 새롭게 될 것이고 기억을 새롭게 하면 당  
신들의 품성이 도야(陶冶)되어 위안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그들은 겸손의 골짜기로 향하여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비탈은 가파  
르고 몹시 미끄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무척 조심해서 걸어 내려갔기 때문에 무사  
히 밑에까지 내려갔다. 겸손의 골짜기에 도착하자 경건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  
다. “당신의 남편인 크리스천이 더러운 악마 아폴리온을 만나 결사 투쟁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얘기를 당신이 못 들었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인께  
서는 안심하고 용기를 내세요. 여기 이 용감 씨가 당신들의 안내자 겸 보호자 노릇  
을 하고 있는 한 당신들은 고생 않고 편히 여행하리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하고 나자 경건과 지각 두 처녀는 순례자들을 안내자인 용감 씨에게 부탁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용감 씨가 앞서고 순례자들은 뒤따라 걸어갔다.

이때 용감 씨가 말했다. “이 골짜기를 우리가 무서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스  
스로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 한 여기서 우리를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  
천이 여기서 악마 아폴리온을 만나 쓰라린 투쟁을 벌였던 일은 사실임에 틀림없지  
만 그이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 산비탈 길을 넘어 내려오면  
서 여러 번 미끄러진 것 때문이었어요. 내려오다 미끄러지면 여기서 악마와 싸울  
것을 미리 각오해야 되지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무서운 일을 당  
했느니 하는 소문을 듣는 보통 인간들은 그곳에는 더러운 악마 혹은 요귀들이 웅  
크리고 있다고 상상해서 이 골짜기가 무서운 곳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지  
요. 그렇지만 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만이 그 결과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겸손의 골짜기라는 괴상한 명칭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어느 다른 골짜기와  
다른 점은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저기 좀 찾아봅시다. 크리스천이 이 장소에서 그  
렇게 어려운 수난을 겪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무엇을 혹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  
까요.”

이때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보세요, 저기 기둥 하나가 서 있어요. 기둥 위에  
무언가 쓰여진 것이 있나 봐요. 우리 가서 뭐라고 썼는지 봐요. 네.”

그래서 그들은 기둥으로 갔다. 기둥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이곳에서 악귀와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산비탈에서 여러 번 미끄러진 데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뒤에 오는 행객들에게 경고함.”

안내자인 용감이 말했다. “그것 보시오. 왜 이곳에서 크리스천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무엇을 이 근방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크리스티아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천이 이곳에서 그런 재난과 악운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이가 남보다 뭐 더 불명예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산비탈은 올라가기가 내려가기보다 쉬운 것이 보통인데, 특히 이 산비탈은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가파르거든요. 그이에 대한 말은 이제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수와 대항해 용감히 싸워 이긴 그이는 이미 안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혹 시험에 들 때 그이에 비해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빕시다. 하여튼 우리도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땅은 이 근처에서는 보기 드문 옥토요, 수확이 많은 땅입니다. 무척 기름진 땅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초원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처럼 여름철에 오는 사람으로 이곳 사정에 어두운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즐길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경치를 만끽할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얼마나 푸르고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그리고 이 겸손의 골짜기에 좋은 토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역주: 야고보서 4:6). 정말로 이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요. 이 골짜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언덕이니 산들이니 오르고 내리고 하는 수고 없이 곧장 천국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하지만 갈 길은 가야하는 것인 만큼 이러쿵저러쿵 더 얘기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며 가던 그들은 자기 아버지 소유의 양 떼를 지키는 양치기 소년 하



나를 봤다.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이었지만 얼굴은 아주 청초하고도 복스러워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소년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때 용감 씨가 말했다. “들어 보시오, 저 양치기 소년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그들은 들었다. 양치기 소년은 아래와 같이 노래 불렀다.

낮은 곳에 있는 자 떨어질 염려 없고,  
비천한 자 오만하지 않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나 지금 가진 것 적건 크건  
가진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이다.  
그리고, 주여, 당신이 나같은 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을 구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옵나이다.

순례의 길가는 자는 무거운 짐 잔뜩 지고 가야 하고  
이승에서 적게 가지는 자  
저승에서 큰 복 받으리니,  
그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큰 복이로다.

이때 안내자가 말했다. “저 소년의 노래 소리 들립니까? 저 아이는 가슴에 안심초(安心草)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비단 옷이나 우단 옷을 입고 사는 사람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그만하고 우리 얘기하던 본 화제로 돌아갑시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골짜기에 별장을 지으신 일이 있었지요. 별장에 와서 지내시기를 무척 좋아하셨고, 초원 위로 걸어 다니시기도 좋아하셨지요. 이곳 공기가 신선하고 기분 좋기 때문이었지요. 그뿐 아니라 누구나 이곳에 와 살면 이 세상의 소음과 분망(奔忙)으로부터 해방되지요. 세상 어느 곳이나 소음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오직 이 겸손의 골짜기에는 공허와 적막이 있

을 따름이에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명상할 때 술한 방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골짜기에는 사색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례자의 생활을 좋아 하는 사람들 외에 이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악마 아폴리온을 만나 그놈과 맞붙어 지독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이 이전에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천사들과 만나고 보석을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곳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 드려야겠소이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골짜기에 별장을 지어 놓으시고 와 사시면서 이 근처 산책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렸나요? 그렇지, 말씀드렸지요. 지금 덧붙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노잣돈을 주어 용기를 북돋아 주실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나 다니는 사람들에게 연금으로 해마다 얼마씩의 돈을 틀림없이 지불하고 있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한참 그들이 묵묵히 길을 가고 있노라니 사무엘이 불쑥 용감 씨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제 아버님과 악마 아폴리온이 이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셨다는 말은 알아 들겠는데 말입니다, 이 넓고 넓은 골짜기 어디쯤에서 싸우셨는지는 알 도리가 없 겠군요.”

용감: “이제 좀 더 가면 건망원이라는 초원 저쪽에 가서 길이 좁아지는데, 그 좁은 길에서 너의 아버지와 아폴리온이 싸웠단다. 정말이지 그 건망원이란 데가 이 골 짜기 안의 제일 위험한 곳이거든. 건망증이 왜 위험하나 하면 순례자들이 언제고 어떤 공격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받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곳에서 수난 겪은 사람 들은 너의 아버지 외에도 참 많아. 허나 그 이야기는 그곳에 당도한 때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 무얼 좀 찾아보기로 하자. 그때 그런 투쟁이 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어떤 표적 혹은 기념비 같은 것이 지금까지 분명 서 있으리라고 나는 단언한다.”

이때 자비심이 말했다. “우리가 이때까지 여행해 온 어느 곳 못지않게 이곳도 좋 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곳 분위기가 제 기분에 꼭 맞아요. 마차 지나가는 소리나 수

레바퀴 터드럭거리는 소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명상에 잠겨, 내가 대관절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뜻이 어디 있는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고즈넉한 곳이 제게는 좋아요. 이곳에서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면 그의 마음이 트여지고, 정신이 녹아 그의 눈은 헤스본 근처의 못처럼 눈물로 창일될 것입니다(역주: 아가 7:1~4). 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우물로 만들 것이며(역주: 시편 84:6),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비가 못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신자들에게 포도밭을 주신다는 곳도 바로 이 골짜기울시다. 그러므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치 아폴리온이라는 악귀를 만난 크리스천이 한 것처럼) 모두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용감: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여러 번 왕래했는데, 이곳보다 더 좋은 데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술한 순례자를 호위해 이곳을 지나다녔는데, 그들도 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 좋다고들 말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모하며,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봐 주리라(역주: 이사야 66:2).’고 조금 전에 언급한 바 있는 장소, 즉 크리스천이 아폴리온과 맞붙어 싸운 자리에 그들은 도달했다. 이때 안내자가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들과 자비심에게 말했다. “아폴리온이 대적하려고 마주 올 때 크리스천이 발붙이고 섰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당신 남편이 악마와 싸운 자국이 남아 있을 거라고. 자, 여기 이 돌 위에 당신 남편이 흘린 핏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군요. 그리고 또 아폴리온이 사용한 창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싸우는 두 적수가 각기 자기가 선 땅을 튼튼하게 하려고 발로 다진 발자국들을, 그리고 싸우느라고 둘이 다 발을 광광 올려 부스러진 돌 조각들을 좀 보세요. 사실 말씀이지 크리스천은 그 전투에서 대장부다운 기세를 발휘했지요. 그때 만일 헤라클레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이 가장 센 영웅)가 적에 대해 싸웠더라도 당신 남편보다 더 용감하게 싸우지는 못 했을 거예요. 패배당한 아폴리온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 도망갔지요. 우리도 그곳을 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기 기념비가 서 있

군요. 그 기념비에는 크리스천의 승리가 새겨져 있어 그의 영예는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길가에 있었으므로 그리로 가까이 간 그들은 비에 새겨진 글을 읽었다. 그 기록은 아래와 같았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크리스천과 아폴리온이  
피차 정복하려고  
가장 이상하면서도 가장 진실된 전투를 했다.

인간이 대장부답게 싸웠으므로  
악귀가 패주했으니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념비가 여기 서 있다.

이곳을 지나간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가에 다다랐다. 이 골짜기는 방금 지나온 검손의 골짜기보다 길이 더 멀고 많은 사람이 증언하다시피, 별의별 괴물들과 악한 것이 출몰했지만, 두 여인과 어린이들은 전보다 더 편안히 지나갈 수 있었다. 때가 마침 낮인데다 용감 씨가 수호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 골짜기에 들어서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 대단한 신음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다. 그리고 또 심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소리들이 소년들을 떨게 만들었고, 여자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침침해졌다. 그러나 안내자는 안심하라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조금 더 가자, 땅 아래 공동(空洞)이 있는지 그들이 걸어가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뱀들이 소리내는 것 같은 식식 소리도 들리기는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때 소년들이 말했다. “이 음울한 지대 끝이 아직 멀었습니까?”

그러나 안내자는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면서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발부리를 주의하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때 야곱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한다고 투정했다. 내가 보기에는 병이 아니라 공포증에 걸린 것 같았다. 어머니가 설명자의 집에서 받아 가지고 온 술 한 잔과 노련 씨한테서 얻어 가지고 온 알약 세 알을 야곱에게 먹였더니 금세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래 그들은 골짜기 한 중간쯤에까지 갔다.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저 앞에 무언지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인데.”

그러자 요셉이 말했다. “어머니, 뭐요?”

그녀가 말했다. “괴상하고 밍게 생긴 놈이, 얘야, 괴상한 놈이 보인단 말이야.”

요셉이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생긴 놈입니까?” 그녀가 말했다. “꼭 어떻게 생겼다고 묘사할 수는 없는 괴이한 형태인데, 지금 과히 멀지 않은 데까지 왔구나. 아, 아주 가까이 왔구나.”

용감 씨가 말했다. “히, 히,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내 가까이 오시오.”

괴물이 가까이 온 때, 용감 씨가 마주 나갔다. 용감 앞에 다가서던 마귀는 스스로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그들은 조금 전 “마귀에게 대항하라. 그리하면 그놈은 너희를 피해 도망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다. 원기를 약간 회복한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뒤를 돌아다보던 자비심은 사자 같이 보이는 맹수 한 마리가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 맹수가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데 소리를 지를 때마다 온 골짜기가 쨍쨍 울리는 것이었다. 순례자들의 안내자인 용감 씨만 빼놓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가슴 아픈 공포를 느끼는 것이었다. 맹수가 가까이 따라오는 것을 본 용감 씨는 행객들 뒤로 가 그들을 앞세웠다. 사자는 그냥 달려왔고, 용감 씨는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가 저항해 싸울 결심을 굳게 했다고 눈치챈 사자는 뒤로 물러서고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역주: 베드로전서 5:8~9).

그리하여 다시 호위자인 용감 씨를 앞세운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길 전체가 수령으로 되어 있는 곳에까지 이르렀다. 이 수령을 건너려는 준비도 갖추기 전에 안

개와 어둠이 그들을 둘러싸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때 순례자들이 말했다. “어마,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들의 안내자가 대답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떤 결과가 생기나 두고 봅시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은 서 있을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자 원수들의 떠들고 급히 달리는 소리가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것 같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수렁 속에 불타고 있는 불길과 연기도 더 똑똑히 보이는 것이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에게 말했다. “불쌍한 내 남편이 어떤 난관을 돌파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소. 이곳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 와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불쌍한 내 남편이 수렁 위를 밤중에 혼자 건너갔다니. 이 수렁을 다 건너가기 전엔 날이 새지 않았고, 그이 몸을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악귀들이 밤새도록 날뛰며 그이에게 덤벼 들었대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데라는 것은 직접 와 보기 전에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역주: 잠언 14:10).’라는 말씀 참 옳은 말씀이에요. 이 길을 가는 일은 정말 무섭고 어렵군요.”

용감: “이것은 큰 물 가운데로, 혹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산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는 사방이 둘러막힌 대지 안에 영원토록 갇혀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역주: 이사야 50:10).’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골짜기를 여러 번 왕래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나는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한 것은 아니고 구원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빚시다. 우리에게 광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명랑하게 해 주시는 동시에 이 수렁 안 악마들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악마들까지 모조리 다 꾸짖어 물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여 그들은 울며 기도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명과 구원을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길을 막았던 수렁이 온데간데없이 스러져 길을 막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골짜기를 다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골짜기 길을 그냥 걸어가야만 했는데 도중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러 그들을 크게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래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문간 집과 설명자의 집과 그리고 어젯밤 유숙한 집에서 만났던 기분 좋은 존재들이 이곳에는 하나도 없군요.” 그러자 소년들 중의 하나가 말했다. “아, 그렇지만, 이런 곳에 영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런 뿔 지나뵈야 우릴 위해 준비해 둔 집에 다다를 때 그 집이 얼마나 살기 좋은 데라는 걸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알아요.” 안내자인 용감이 말했다. “사무엘아, 너 참 잘 말했다. 대장부다워.” 사무엘이 말했다. “이 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광명과 선행을 제 평생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러자 안내자가 말했다. “머지않아 이곳을 벗어나게 될 거다.”

다시 걸어갈 때 요셉이 말했다. “이 골짜기 끝이 아직 안 보이나요?”

그러자 안내자가 말했다. “그런 소리 말고 네 발부리나 잘 살펴. 금세 함정 투성이 길 위를 걷게 될 테니.”

그래 그들 모두가 발부리를 주의해 보며 조심조심 걷기는 했으나 함정이 너무 많아 고생이 막심이었다. 함정 투성이 길 위로 걸어가는 동안 수렁 왼쪽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몸이 갈가리 찢어져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 그때 안내자가 말했다. “저 사람은 이 길을 걸어 가다가 실수해 저 꼴이 된 「부주의」라는 사람인데, 저 꼴로 어떻게 누워 있는지 무척 오래 되었지요. 저 사람이 마귀들에게 붙들려 참살당할 때 「주의」라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주의 씨는 주의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지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술한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안내자 없이 가다가 해를 입고 있지요. 불쌍한 크리스천! 그가 여기서 해를 입지 않고 요행히 피

해 나간 건 정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그이 자신도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곳에서 죽음을 모면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살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길 마지막까지 거의 다 간 그들은 길가에 있는 굴을 봤다. 이 굴은 이전에 크리스천이 지나가다가 본 그 굴이었다. 이 굴로부터 「첼퇴」(쇠몽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인 하나가 나왔다. 이 첼퇴라는 자는 궤변을 써 술한 젊은 순례자들을 망친 악한이었다. 용감의 이름을 부르며 도전하는 첼퇴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은 금지한다는 경고를 그렇게 여러 번 받고도 그냥 이러기냐?”

그러자 용감 씨가 말했다. “이런 일이라니 무슨 일 말인가?”

거인이 말했다. “무슨 일? 무슨 일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니. 하여튼 오늘 네 일의 최후 결단을 내 버릴 테니 그리 알라.” 용감 씨가 말했다. “아니, 싸우기 전에 무슨 일로 싸우는지 알기나 하고 싸우자.”

어쩔 줄 모르는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다.

거인이 말했다. “너는 도둑놈이란 말이야. 도둑놈 중에서도 가장 악질 도둑놈.”

용감 씨가 말했다. “그런 막연한 말은 집어치우고 자세히 말해.”

그러자 거인이 말했다. “사람을 납치해 가는 간교를 부리지 말란 말이야. 내 주인의 나라로부터 술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네가 납치해 가지고 이상한 나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 왕국이 약화된단 말이야.”

이때 용감이 대꾸했다. “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로, 내가 하는 일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야. 남녀노소 인간들을 어둠으로부터 밝은 데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세력 권내로 옮기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내 일이 네가 싸움을 걸어 올 근거가 된다면, 자 빨리 겨루어 보자.”

그러자 거인은 용감을 향해 걸어오고, 용감 씨는 거인을 향해 걸어갔다. 거인에게 향해 걸어가는 용감은 칼을 빼들고 거인은 첼퇴를 둘러뿔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잡담을 제하고 전투로 돌입했는데, 거인의 처음 몽둥이질이 용감 씨에게 적중되어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었다. 이것을 본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비명을 발했다. 그



리하여 용기를 가다듬은 용감 씨는 거인에게로 용감하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칼로 찢러 부상을 입혔다. 불을 뿜는 듯한 전투가 한 시간 동안이나 계속 되었는데, 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거인의 코로 쏟아져 나오는 김은 끓는 솥이 발산하는 김 같았다. 숨을 돌리려고 그들은 앉았다. 싸움을 하는 동안 용감 씨는 줄곧 기도만 하고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줄곧 한숨 쉬고 우는 것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었다.

좀 쉬어 숨을 돌린 그들은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 용감 씨의 힘센 일격이 거인을 거꾸러뜨렸다.

거인이 말했다. “아니, 좀 가만 있어. 내가 일어날 테니.”

그래 용감 씨는 관대하게 거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격투로 들어갔는데, 거인의 철퇴를 다루는 기술이 어찌나 묘했던지, 하마터면 용감 씨의 머리가 박살날 뻔했다.

이 위험을 느낀 용감 씨는 전력을 다해 달려들어 거인의 다섯째 갈빗대 아래를 쿵 찢었다. 칼에 찢린 거인은 기운을 잃기 시작하여 철퇴를 다시 쳐들 힘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용감 씨는 칼로 거인의 머리를 잘라 버렸다. 이때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기뻐 날뛰고 용감 씨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

기뻐 날뛰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일이 끝나자 그들은 그 자리에 기둥 하나를 세우고 거인의 머리를 매달아 놓고는 뒤에 지나오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적어 놔다.

이 머리의 주인은

순례자들을 괴롭히는 놈이었다.

용기 가진 내가 일어나

순례자들의 안내자가 될 때까지,

순례자들의 원수인 그놈을 내가 대항해 싸울 때까지

그놈은 모든 순례자들의 길을 막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욕을 보였다.

정로에서 약간 처진 언덕길로 걸어 올라가는 그들을 나는 봤다. 이 언덕 위에는 순례자들이 앞을 보도록 하기 위한 망대(望臺)가 서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의 절친한 친구 신의를 처음 본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 이 망대에서 그들은 앉아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첼퇴같이 흉악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앉아 먹는 동안 크리스티아나는 용감에게 부상이나 입지 않았나 물어봤다. 그러자 용감 씨가 말했다. “없습니다. 피부에 약간의 상처를 입은 외에는. 그리고 그 상처가 내 기를 조금도 꺾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얼마나 내 주인님과 당신들을 사랑하는가의 증거가 되어 이후 내가 받을 상이 더 지게 되는 은혜가 될 뿐이지요.”

크리스티아나: “하지만 선생님, 거인이 첼퇴를 들고 오는 것을 볼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용감: “나 자신의 능력이나 수완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의무이지요.”

크리스티아나: “그러나, 그놈 첫 공격에 선생님께서 거꾸러지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용감: “내 주님께서도 처음엔 거꾸러지셨지만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두신 걸 생각했지요.”

마태: “여러분 다 각기 맘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그 흉악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저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런 골짜기에서 우릴 구원해 주신 것은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신 증거가 되니까요.”

얼마 후 일어난 그들은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과히 멀지 않은 앞에 오크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 보니 나무 아래서 깊은 잠이 들어 있는 한 늙은 순례자가 있었다. 그의 입은 옷과 지팡이와 허리띠 모양으로 보아 순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내자인 용감 씨가 그 늙은이를 깨웠다.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는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여기서 뭘하고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용감: “아니 뭐 그리 놀라실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친구들이니까요.”

그러나 일어난 그 노인은 방어 태세를 취하고 서서 그들이 누군지 바로 대라고 따지는 것이었다. 그래 용감이 말했다. “저는 용감이라는 사람이온데 여기 이 순례자들을 모시고 가는 안내자입니다. 이분들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이군요.”

그러자 정직 씨가 말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소신의 등을 강탈해 간 그 강도 떼 일행인 줄 오해하고 슬그머니 겁이 나서 무례하게 군 것입니다. 지금 보아 하니 당신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군요.”

용감: “허허, 만일 우리가 그 강도들의 일행이었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위책을 강구하셨을까요?”

정직: “자위책 강구!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한사코 싸우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들어 싸우는 경우 설사 강도라 하더라도 날 해치지는 못 했을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독교 교인은 저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는 한 세상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으니까요.”

용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참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선생님은 정직하고 똑바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직: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된 순례자란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내게도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순례자란 가장 정복하기 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감: “저희를 만나게 된 것 참 반갑습니다. 선생님 성함과 고향이 어디신지 꼭 알고 싶는데요.”

정직: “내 이름은 대줄 수 없지만 고향은 대주지요. 나는 「우둔」이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인데 그 마을은 멸망할 도시에서 약 사십 리 떨어져 있지요.”

용감: “아, 그러시군요. 그곳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짐작이 갑니다. 선생님 성함은 정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에 얼굴을 붉히는 늙은이는 말했다. “추상적인 관념으로의 정직이 아니라 내 이름 자체가 정직이지요. 그런데, 내 성미가 이 이름과 합치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

지요. 그런데, 여보시오, 내가 우둔하기 그지 없는 마을에서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이름을 짐작했소?”

용감: “이 세상 일은 무엇이냐 다 알고 계시는 제 주인님한테 선생님의 말씀을 이 전부터 종종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멸망할 도시보다도 더 악질인 우둔 마을에서 어떻게 순례자가 생길 수 있을까 하고 늘 의아해 하고 있었어요.”

정직: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은 다른 데 주민보다도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냉정하고 더 무감각하지요. 하지만 빙산 위에 사는 사람에게라도 의로운 햇빛이 비치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수도 있지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용감: “정직 선생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 일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어요.”

그러자 이 늙은이는 모든 순례자에게 일일이 사랑스런 말로 인사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또 순례의 길을 떠난 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제 이름은 선생님께서 혹시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제 남편 이름은 크리스천이고 애들은 그이의 네 아들이에요.”

이 말을 듣는 늙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독자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는 기뻐 날뛰고, 미소 짓고, 그리고 무수한 축복을 크리스천의 가족에게 빌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의 남편 얘기는 참 많이 들었소. 그가 여행하던 얘기와 여행 도중 어떤 난관들을 극복했다는 얘길 다 들었어요. 이 세상 방방곡곡이 당신 남편의 이름으로 울리고 있다는 소식, 당신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겠지요. 그가 가진 믿음·용기·참을성 그리고 어떠한 상태 아래서도 진실성을 잃지 않은 그의 명성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지요.”

소년들에게로 얼굴을 돌린 그는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 소년들은 제각기 이름을 뱉었다. 그러자 그는 소년들에게 말했다. “마태야, 너는 징세원이었던 마태 같은 인물이 되되, 악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이 돼라. (역주: 유대가 로마의 영토였을

시절 로마 총독의 징세원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 사무엘아, 너는 믿음이 강하고 기도 잘 하는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되어라(역주: 사무엘상 3:19~4:1). 요셉아, 너는 보디발의 집에서 산 일이 있었던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 정조를 지키고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라(역주: 창세기 39:1~23). 야곱아, 너는 우리 주님 예수의 동생 같은 야곱이 되어 의를 행하는 인물이 되어라.”

그들은 자비심을 정직에게 소개했다.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들과 동행하기 위해 자비심이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왔다는 사연을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늙은이가 말했다. “아가씨 이름이 자비심이라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비심의 근원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자비심을 유지하여 도중 모든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여라.”

이 일이 있는 동안 안내자인 용감 씨는 너무 기뻐 웃는 낯으로 순례자 일행을 시종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일행이 다시 길을 걸어가다가 안내자가 늙은이에게 물어보았다. 역시 우둔 마을에서 순례의 길을 떠난 「공포」 씨를 혹 아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정직: “알고말고, 잘 알지. 그이는 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역주: 욥기 19:28). 그러나 그이는 내 평생 만나본 술한 순례자들 중 가장 말썽꾸러기였지요.”

용감: “선생님이 그 사람 성격을 똑바로 지적하시는 걸 보니 그이를 잘 아시는군요.”

정직: “잘 안다고! 오랫동안 내가 그이와 동행했으니까요. 천당에 거의 다 갈 때까지 동행했거든요. 저승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를 그가 처음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줄곧 나는 그와 동행했으니까요.”

용감: “내 주인님 댁에서부터 천당 문 앞까지 나는 그의 안내자가 되었었지요.”

정직: “그러면 당신도 그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알고 있겠군요.”

용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 직무니까요.”

정직: “그럼 좋소. 우리 그 사람의 얘기를 좀 합시다. 당신의 아내를 받아 여행할 때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좀 말해 주시구려.”

용감: “그가 바라고 가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줄곧 하더군요. 아주 작은 반대 의사 표시의 말도 그는 무척 무서워했고요. 절망의 수렁에서는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울고불고하며 여러 사람이 그를 앞질러 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럿이 붙들어 줄 테니 같이 가자고 권하기까지 해도 감히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는 소문을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사반대하더라고요. 하늘나라까지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 버리겠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조그만 난관만 만나도 풀이 죽고 누가 버린 지푸라기라도 길에 놓여 있으면 거기 걸려 넘어지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망의 수렁에서 월여(月餘)나 머물러 있던 그가, 어떤 청명한 날 모험을 강행해 수렁을 건넜대요. 어떻게 건넜는지는 나도 모르지요. 건너고 나선 자기도 어떻게 건넜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내 생각엔 그이는 절망의 수렁을 마음 속에 품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나 절망의 수렁을 품고 다니기에 그렇게 낙심을 잘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는 문 앞까지, 무슨 문인지 물론 알아차리시겠지요. 이 길머리에 서 있는 좁은 문 말입니다. 거기까지 도착했대요.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모험을 하기가 무서워서 두드리지 못하고 오래오래 서 있었대요. 문이 열려도 남들이 들어가라고 길을 비켜주곤 하면서 자기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으로 오기는 그가 남보다 먼저 오고도 술한 사람이 그보다 먼저 문 안으로 들어왔대요. 불쌍하게도 그는 문밖에 선 채 오들오들 떨며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양을 목격하는 사람은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는 거절하더라고요. 버르고 버르던 그는 마침내 문기둥 고리에 걸려 있는 망치를 벗겨 손에 들고 문을 한두 번 살짝 두드렸대요. 그래 문이 열리자 그는 종전처럼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래 문을 연 사람이 밖으로 나서서 말했대요. “여보시오, 떨고 있는 양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그는 땅에 고꾸라졌대요. 이 양반이 기절한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한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안

심하고 일어나시지요. 당신 들어오라고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요. 자, 들어와요. 당신은 축복받은 분이니까.” 이 말에 몸을 일으킨 그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몸을 떨더래요.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서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더래요. 그 집에서 한동안 대접을 받고 나서, 그 집 대접이 얼마나 융숭하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을 거지만, 대접하고 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면서 길을 떠나라고 권고했대요. 그래 그는 우리 집 문 앞까지 무사히 왔어요. 오긴 왔지만 문간 집에서 행한 것처럼 문을 열른 두드리지 못하고 우리 집, 즉 우리 주인님 설명자의 집 문밖에서 찢절매고 있었어요. 문 두드릴 용기가 안 나서, 며칠 밤 그 추운 데서 노숙했대요.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는 절대로 앓는다고 고집했대요. 그 당시 밤은 몹시 길고 추웠어요. 우리 주인님한테 전할 편지 한 장을 품에 품고 왔으면서도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을 집에 받아들여 잘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 튼튼하고 용감한 보호자 하나를 팔려 보내도록 해 달라는 사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두드리기를 꺼렸거든요. 이 가련한 사람이 문밖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이 됐대요.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크던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감히 자기가 문을 두드릴 엄두는 못 냈대요. 하루는 우연히 내가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웬 사람이 문밖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밖으로 나간 내가 그이더러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불쌍한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그이가 무얼 바라는지 나는 알아차렸지요. 그래 방안으로 들어온 나는 집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우리 주인님께도 보고를 올렸지요.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나더러 그리로 나가 그이더러 들어오라고 간청하라고 하시더군요. 그에게로 가서 간청했지만 열른 응하지 않아서 무척 진땀을 뻘어요. 결국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가 들어오자 우리 주인님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식탁 위에는 많지는 않으나 좋은 음식이 놓여 있었는데 그 음식도 우리 주인님이 그이 앞에 놓인 접시에 담아 주어야 했어요. 이때야 그는 편지를 우리 주인님에게 전하더군요. 편지를 읽은 주인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허락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하더군요. 당신도 아시려니와 우리 주인님 성질은 매우 유순하

신데다 무섭증 많은 사람을 특별히 돌봐 주시지요. 그래 극진한 대접을 한참 받은 뒤에야 공포 씨는 정신을 좀 차리고 안정감을 얻은 모양이더군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구경하고 난 그가 길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주인님께서서는 이전 에 크리스천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술 한 병과 맛있는 음식 얼마를 그에게 주었어요. 이리하여 내가 그분을 모시고 길을 떠났는데 내가 앞장서 걸었지요. 그런데 뒤따라 걸어오는 그는 말이 별로 없고 연방 한숨만 크게 쉬더군요. 세 사람이 목매달려 있는 곳까지 와 그들 꼴을 보더니 공포 씨는 자기의 최후도 저 꼴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십자가와 그 옆에 있는 무덤을 볼 때만은 그 이도 무척 기뻐하는 것 같더군요. 십자가를 좀 더 오래 보게 잠시 서 있자고 하기에 그대로 했더니 그 뒤에 조금 쾌활해지더군요. 우리가 곤고 산에 도착한 때 그이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두 마리 사자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군요. 그이가 염려하는 것은 여행 도중 겪는 고생이나 위험이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이가 주저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끌고 들어갔지요. 들어가자 그 집 아가씨들을 그에게 소개했지만 그녀들과 사귀기를 그는 무척 부끄러워했어요. 혼자 있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 듣기는 또 무척 즐기는 모양인지 가끔 병풍 뒤에 숨어서 아가씨들 얘기를 몰래 엿듣곤 하더군요. 옛 물건들을 구경하기 무척 좋아하는 그는 구경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새기고 깊은 망상에 빠지곤 하더군요. 얼마 뒤에야 그가 나에게 고백하는데 이미 묵어 온 두 집, 즉 문간 집과 설명자의 집에 묵을 때 무척 기뻐하는 했으나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 달라고 요청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집을 떠난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향해 산을 내려갔는데, 내 평생 이 사람만큼 언덕길을 잘 내려가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겸손하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말에는 행복한 생활을 만드시 하리라곤 나는 생각했어요. 겸손의 골짜기와 그 사람 간에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이를 모시고 여행하는 동안 그 골짜기에서처럼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 골짜기에서 그는 땅에 드러눕기도 하고, 땅을 안아보기도 하고, 그 골짜기에 핀 꽃에 입까지 맞추며 돌아다



니던 걸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는 그 골짜기 길을 이리저리 산책하더군요.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이를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이가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질색하는 분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곳을 너무도 무서워하는 그이가 겁에 질려 돌아가실 것같이 보이는 데 있었어요. ‘아, 도깨비들이 날 잡아먹을 거야! 도깨비들이 날 잡아먹을 거야!’ 하고 자꾸 울부짖었거든요. 제 재주 가지고는 그이의 겁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 골짜기에서 그이가 너무 큰 소리로 도깨비가 무섭다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도깨비들이 들었던들 용기 백배해 뛰어나와 그이를 해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저는 여러 번 통과했는데 그이가 통과할 때처럼 그곳이 조용한 일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어요. 공포 씨가 그곳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내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서 매우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러니 한 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허영의 저자를 지나올 때 그는 그 저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싸움을 걸 뻔했어요. 그 저자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너무나 과한 열정으로 비난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다 몰매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요술에 걸린 지역을 통과할 때도 그는 남들처럼 흥미해지지 않고 정신이 아주 말뚱말뚱했어요. 그러나 다리가 없는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척 우울해 했어요. 안심하고 주님의 얼굴을 봐올 목적으로 이렇게 멀리 찾아왔지만, 지금 강물에 빠져 죽어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강에서도 나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유별난 현상을 목격했어요. 이 강물 깊이가 내 평생 처음으로 아주 얇아졌단 말입니다. 그래 그는 무릎까지 채 차지 않는 물을 걸어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 천국 문을 향해 걸어 올라갈 때 용감인 나는 그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천국에서 그를 환영해 받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그렇고말고요. 그렇고말고요.’ 하고 말하면서 나와 작별했어요. 그 후 나는 그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정직: “그럼 그는 결국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용감: “예예, 그렇고 말고요. 그가 성공할 것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는 가장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였으니까요. 단지 그는 언제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자기 자신의 생활의 큰 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남들까지 괴롭힌 것이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정당당한 일도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겁이 나서 억제하는 사람이었어요(역주: 로마서 14:21).”

정직: “그럼 그렇게 착한 사람이 평생 것처럼 어둠 속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감: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한 가지 이유는 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어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슬프게 울어야 하니까요(역주: 마태복음 11:16~18). 그런데 공포 씨는 악기의 베이스 줄만 켜는 사람이거든요. 베이스가 음악의 기초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그이와 그이의 동료는 다른 음들보다는 더 음울한 소리를 내는 저음 나팔만 불고 있었던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느낌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나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조를 고르게 하려고 하는 연주가가 맨 처음 건드리는 줄은 대개 베이스 줄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당신의 음조로 맞추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맨 먼저 베이스 줄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 씨는 최종 날까지 다른 음악은 연주하지 못하고 베이스만 연주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불완전한 점이었어요. 내가 음악 연주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젊은 독자들의 기지가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뿐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좌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프를 켜고, 노래 부르는 악사들과 비교해 쓴 것을 모방해서입니다(역주: 요한계시록 8:2, 14:2~3).”

정직: “그이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는 상당한 열성가였군요. 여러 난관과 사자들과 허영의 저자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한 것은 단지 죄와 죽음과 지옥뿐이었으니까요. 죄가 그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데 의혹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용감: “옳은 말씀입니다. 죄의식과 죽음과 지옥만이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이 사실인데, 그것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약해서 괴로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순례자의 생활을 실제로 하는 데의 정신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같이 그가 걸어가는 길을 불이 막았던들(역주: 잠언 26:18) 공포 씨는 그 햇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에게 달려들어 싸울 용기를 가졌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을 언제나 억누르고 있는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에 대한 고뇌를 손쉽게 뿌리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공포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공포 씨와 나 사이에는 어떤 공통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표현 방법만은 달랐습니다. 커다란 고뇌를 그이는 밖으로 발산하는 데 반해 나는 마음속에 지니고 있고, 격심한 고뇌가 그이로 하여금 대접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집들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해 주는 데 반해, 내가 겪는 커다란 고뇌는 나로 하여금 그 집들의 문을 남들보다 더 요란하게 두드리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비심: “제게도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씨가 가지고 있었던 공포심이 제 마음속에도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바다인 지옥에 빠지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공포심과 낙원 안의 한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공포심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보다 몇 배나 더 컸습니다. 아, 천국 안에서 살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 세상 온갖 것을 다 내버려도 좋다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이때 마태도 말참견을 했다. “제 마음속에도 공포심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포심이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 고민했어요. 하지만 공포 씨처럼 착한 분에게도 공포심이 있었다고 하니 제가 무서워한 건 당연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야곱도 덩달아 말했다. “두려움 없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은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돼요.”

용감: “야곱, 너 말 참 잘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 획득의 시발점인 만큼 네 말은 정곡을 찌른 말이야. 그리고 시작 없는 사람에게는 중간이나 끝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노래를 불러 공포 씨와 고별하기로 하고 그이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지.”

공포 씨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신의 본성이 폭로될 우려가 있는  
언행은 무엇이건 행하기를 두려워했지요.  
당신은 지옥 불과 밑 없는 지옥 구덩이를  
몹시 무서워했지만,  
이 세상 누군들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소?  
당신처럼 지옥을 무서워하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스스로 멸망을 초래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시오.

그들이 얘기를 그냥 계속하며 걸어가는 것을 나는 봤다. 용감 씨가 공포 씨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자 곧 이어 정직 씨가 「자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정직 씨는 이렇게 말했다. “자의 씨는 자기도 순례자인 척하기는 했지만 그가 이 정로(正路) 첫 머리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했어요.”

용감: “그럼 그이가 어떤 경로를 밟아 길을 떠났는가를 당신이 그에게 직접 물어본 일이 있소?”

정직: “그러면요. 물어본 일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이는 어디까지나 고집

불통 자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간이나 이론이나 예증(例證)같은 건 전적으로 무시하고 무엇이건 제 마음에 내키는 일이면 제멋대로 실행하되 세상 아무것도 그의 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어요.”

용감: “그럼 그이는 대관절 어떤 원칙들을 지니고 있었나요? 당신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묻는데요.”

정직: “인간이 구원받는 데 선행이나 악행이 상관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순례자들처럼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해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지요.”

용감: “그래요? 그의 주장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악한 일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순례자들의 덕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뜻이라면 일리 없는 말도 아니지요. 왜 그런고 하니, 세상 누구도 악에서 전적으로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 실정이니깐요.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악에 빠지는 데 무관심한지, 그렇지 않으면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항상 경계하고 노력하는지가 문제지요. 경계하고 노력하면서도 악에 빠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당신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 그 자의라는 사람의 의견은 아무 노력 없이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이 용서된다는 뜻이지요?”

정직: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이는 그런 주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걸요.”

용감: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직: “성경 말씀이 자기 언행을 보증해 준다고 그러더군요.”

용감: “저런. 정직 씨,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정직: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 유부녀를 간통한 사실(역주: 사무엘하 11:2~4)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일을 저질러도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처와 첩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역주: 열왕기상 11:1~6) 자기도 축첩(蓄妾)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십보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집트 조산원들이 이집트 왕을 속여 모세를 살린 만큼(역주: 출애굽기 1:17~9) 자기도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남의 나귀를 무단으로

끌고 간 일이 있는 이상(역주: 마태복음 21:2~5)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엉큼한 꾀와 거짓말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일이 있는 만큼(역주: 창세기 27:1~30) 자기도 그런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감: “정말 너무나 상스러운 이론이군요. 그이가 그런 의견을 품고 있다는 걸 당신이 확언할 수 있소?”

정직: “그이가 그렇게 변론하면서 성경에서 예증을 들어가며 이론을 깨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은 걸요.”

용감: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억지 이론입니다.”

정직: “제 말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이나 다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아 놓은 사람들만은 탈선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었어요.”

용감: “하지만 그건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위증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전에 범죄한 일이 있었는데, 이미 범죄한 일이 있는 이상 앞으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방종한 범죄를 해도 괜찮다는 억설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어린이가 거센 바람에 불리거나 돌에 걸려 진흙 구덩이에 굴러떨어져 전신에 흙탕을 뒤집어 쓴 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진해서 흙탕물에 빠져 돼지처럼 뒹굴어야 한다는 억설과 같은 것입니다. 육욕의 힘에 그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언제나 옳지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지요(역주: 베드로전서 2:8). 스스로 죄에 빠지는 상습범까지도 경건한 사람이 가지는 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어린이의 배설물을 훔아 먹는 개가 “나는 어린이가 싼 구린내 나는 배설물을 먹었으니까 나도 인간성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억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하는 죄를 집어 삼키는 것이 덕성(德性) 소유의 표지(標識)가 될 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억지투성이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현재 신앙심이나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물론 그 사람의 이론을 강력하게 반박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반박을 듣고 그가 어

떤 대답을 했습니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정직: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잘하건 잘 못하건 자기의 의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말하던데요.”

용감: “너무나 해괴망측한 대답이었군요. 욕욕의 고삐를 풀어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이 부족해 욕욕의 고삐를 푸는 것도 나쁜 일인데, 죄를 범하면서 죄 짓는 것을 관대하게 봐달라고 탄원하는 것은 힘의 부족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전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우연히 미끄러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더러 일부러 함정에 빠지라고 권고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직: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고는 있으면서도 이 사람처럼 말로 발표하지는 않는 사람의 수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일이 경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 “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니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낙원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설에 현혹되지 않지요.”

크리스티아나: “이 세상에는 정말 기기묘묘한 의견들이 다 있어요. 죽을 때 임박해서 회개해도 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용감: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수작이지요. 한 주일 동안에 백리 길을 걸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여행을 자꾸 연기하다가 마지막 한 시간에 백리 길을 달리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정직: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지막 한 시간에 달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늙은 몸으로 이 길에 들어 여행을 계속한 지 무척 오래되었는데 별의별 사람이 걸어가고 걸어오는 것을 다 봤어요. 처음 여행 떠날 때에는 온 천하를 정복하거나 하려는 듯이 덤볐지만 며칠 못 가서, 광야에서 비명횡사하는 사람들처럼, 약속되어 있는 땅, 즉 천국은 구경도 못 하고 도중에 죽는 사람을 나는 봤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처음 길을 떠날 때에는 아무런 약속도 함이 없어 하루도 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이 생각되던 사람이 결국에는 아주 훌륭한 순례자가 되는 것을 나는 봤어요. 그

다음 길을 떠나자마자 부리나케 앞으로 달려가더니 얼마 안 되어 부리나케 되돌아 오는 자도 나는 봤어요. 처음에는 순례자의 언행을 아주 좋게 말하던 사람이 얼마 후에는 욕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나는 봤어요. 낙원을 향해 처음 길을 떠날 때에는 낙원이 꼭 있다고 단언하던 사람이, 낙원 거의 다 갔다가 돌아와서는 낙원이란 곳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나는 봤어요. 순례의 길을 가다가 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면 이러저러하게 해치운다고 호언장담하고 떠난 사람이 허위의 경보에 놀라 믿음과 순례자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리는 것도 나는 봤지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여행을 계속하고 있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 마주 뛰어오고 있는 것을 봤다. 그들 앞까지 달려온 그는 말했다. “신사 여러분, 그리고 연약하신 여성들,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도망가시오. 저 앞에 강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용감: “얼마 전 소신 씨를 습격했던 세 놈의 강도를 말하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그 놈들과 싸울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소.”

이렇게 말한 용감을 따라 여행을 계속하는 그들은 그 강도들을 발견하려고 이리저리 보살폈다. 그러나 강도들은 용감의 소문을 듣고 피해 버렸는지, 혹은 탄 행색을 노려 탄 데로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습격하러 오지는 않았다.

심한 피로를 느끼는 크리스티아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들들까지 좀 쉴 수 있는 여관이 가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자 정직 씨가 말했다. “얼마 안 가서 여관이 있습니다. 무척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 「가이오」(역주: 로마서 16:23)가 살고 있는 집이지요.”

그래 그들은 다 그 여관에 들기로 결정했다. 늙은 정직 씨가 가이오 씨를 극구 칭찬하는 소리에 그 여관에 꼭 들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여관 문 앞에 다다른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열고 들어갔다. 여관 문은 두드리지 않고 그냥 열고 들어가는 것이 풍속이었다. 문 안에 들어선 그들은 여관 주인을 불렀다. 여관 주인이 나타나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느냐고 그들이 물었다.

가이오: “당신들이 진실한 분들이라면 유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순례자들만



유숙시키는 여관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소년들은 무엇보다 더 기쁨을 느꼈다. 이 여관 주인이 순례자들을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방을 보여 달라고 했다. 여관 주인은 크리스티아나와 소년들과 자비심이 동숙할 방 하나와 용감 씨와 늙은 정직 씨가 동숙할 방 하나를 보여 주었다.

용감: “가이오 씨, 저녁 준비는 되어 있나요? 이 순례자들께서 오늘 참 먼 길을 오셨고 모두들 몹시 피곤해 하십니다.”

가이오: “지금 시간이 늦어서 밖에 나가 음식물을 사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지금 집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저녁을 차려 보도록 하지요.”

용감: “댁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차려도 좋습니다. 댁에는 맛있는 음식 재료가 떨어지는 날이 없다는 것을 나는 경험에 의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가이오는 「호미(好味)」라는 이름을 가진 요리사에게로 가서 여러 손님들 잡수실 저녁을 차리라고 분부했다. 요리사에게 지시하고 난 그는 다시 올라와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을 접대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게는 정말로 기쁨입니다. 저녁 짓는 동안 좋은 얘기나 주고받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어떨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가이오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자 가이오가 말했다. “이 품위 있고 나이 많으신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시고, 또 여기 이 젊은 아가씨는 누구의 따님이십니까?”

용감: “이 부인은 크리스천 씨, 이전에 순례자였던 크리스천의 부인이시고, 이 소년들은 그의 네 아들들이지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이 부인이 잘 아는 이웃 처녀인데, 이 부인에게 설득되어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소년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지금 그의 발자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누우셨던 곳이나 발자국을 보기만 해도 애들 가슴은 기쁨으로 뛰놀고, 그 자리에 그들 자신이 눕기도 하고 발자국을 밟으려고 기를 쓴답니다.”

가이오: “이 분이 크리스천의 부인이시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크리스천의 아들들?

나는 당신의 시아버님을 알고 있고 시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남편 가문은 훌륭하지요. 그의 조상들이 처음엔 안디옥에 살았었지요 (역주: 사도행전 11:26). 크리스천의 선조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지요. 남편한테서 그런 얘기를 당신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했던 것은 순례자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도(道)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다란 덕과 용기를 보여 준 분들이지요. 당신 남편의 친척들 중 진리의 수호를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은 사람들의 일화를 나는 많이 들었어요. 당신 남편의 직계 최초 선조인 스테반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시련을 겪었지요(사도행전 7:54~60). 그의 조상들 중의 하나인 야곱은 칼에 찔려 죽었지요(역주: 사도행전 12:1~2). 당신 남편의 옛날 조상들 중 유명한 바울과 베드로(예수의 제자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나시우스는 사자의 밥이 되었고, 로마누스의 삶은 뼈로부터 갈가리 도려냄을 받았고, 폴리카아프는 불에 타 죽었지요. 그 밖에도 몸이 바구니에 담겨 뜨거운 햇빛 아래 매달려 말벌들의 먹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루 속에 넣어 바닷물에 던져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지요. 순례자의 생활을 좋아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죽은 조상들의 수효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소년들 같이 훌륭한 아들들을 남기고 간 당신의 남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으렵니다. 애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아 잘 유지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아 아버지가 가 있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바랍니다.”

용감: “정말입니다. 애들은 장래성 있는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신 길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가이오: “그게 바로 내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가족이 이 땅위에 더욱 번성하여 지면에 무수히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 은인께서는 아들들과 약혼시킬 처녀들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들의 아버지뿐 아니라 조상들의 명성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정직: “이런 가문이 몰락하거나 대가 끊어진다면 그건 비극일 것입니다.”

가이오: “자손이 혹 감소될지는 모르나 아주 몰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

문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크리스티아나 부인께서는 제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여관 주인인 가이오는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자비심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자비심의 의향을 물어 그녀와 당신의 맏아들과 약혼을 시켜 가까운 친척이 되면 좋겠다고 나는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네 자손이 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리하여 약혼은 성립되고 얼마 후 결혼까지 했지만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본 얘기로 돌아간다.

가이오가 계속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여자들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받는 비난을 물리치기 위해 여인들을 두호(斗護)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죽음과 저주가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왔다고들 하지만(역주: 창세기 3:1~24)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준 것도 여인이었지요. 즉 성경에 ‘때가 차매 하나님 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쓰여 있으니까요(역주: 갈라디아서 4:4). 성경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모든 여자들이 여성의 조상 할머니인 이브의 행동을 얼마나 싫어하고 원망했는지는 추측할 수 있어요. 즉 모든 여인들이 자식 낳기를 무척 탐내면서, 행여 자기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올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한 자들은 남자나, 천사가 아니고, 여자였어요(역주: 누가복음 1:39~56).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피천(동전) 한 닢 갖다 드린 남자가 없는데 반해, 여자들은 그를 따르고 그녀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섬겼다는 기록을 나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역주: 누가복음 8:2~3).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자도 여인이요(역주: 누가복음 7:37~8), 예수님의 시체를 묻기 전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른 자도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운 것도 여인들이요(역주: 누가복음 23:26~7),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자들도 모두 여인들이었으며, 시체를 무덤 안에 들여놓을 때 무덤 곁에 지키고 앉아 있던 사람들도 다 여자였어요. 주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 맨 처음 그를 본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 준 사람들

도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यो, 그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선행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총을 우리들과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요리사의 전갈이 올라오고 한 사람이 들어와 상보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과 소금과 식빵을 차례차례 놓았다.

이때 마태가 말했다. “이 상보와 저녁 준비를 보니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식욕이 강해지는군요.”

가이오: “이승의 생활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교의로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왕이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 가장 큰 욕망이 네 마음속에 생기도록 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는 음식에 비해 보면 이승에서의 모든 설교, 모든 책들, 모든 의식은 하늘나라 식탁 위에 준비해 올려 놓는 빈 접시들과 소금에 불과한 것이지.”

이때 저녁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맨 먼저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제사 지내기 위해 불에 구운 짐승 고기의 쳐든 뒷다리 살 한 접시와 흔든 가슴살 한 접시였다(역주: 레위기 7:34). 이런 음식이 먼저 들어온 이유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나서 먹기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쳐든 뒷다리 살은 다윗 왕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치켜 올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흔든 가슴살은 다윗 왕의 심장이 들어있는 위치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그 악기를 가슴에 대곤 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두 접시 음식은 매우 신선하고도 맛이 아주 좋았으므로 그들은 참으로 맛있게 먹었다.

그다음 들어온 것은 피처럼 새빨간 포도주 한 병이었다.

이때 가이오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음대로 실컷 마시세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참된 포도를 짜서 만든 포도즙이니깐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신 그들의 기분은 참으로 유쾌했다(역주: 신명기 32:14, 사사기 9:13).

그다음 들어온 것은 빵가루를 많이 넣어 걸게 만든 우유를 접시에 담은 것이었다.

이것을 본 가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우유는 성장을 돕는 음식인 만큼 소년들이나 먹게 하지.”

그다음에는 버터와 꿀이 담긴 접시가 들어왔다. 그러자 가이오가 말했다. “많이들 잡수십시오. 판단력과 이해력을 증강하고 격려해 주는 좋은 음식이니깐요, 우리 주님께서 어렸을 적에 잡수신 음식이지요. 성경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하기 위해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역주: 이사야 7:15).

그다음엔 대단히 맛이 좋은 사과 여러 알이 놓인 접시가 들어왔다. 이때 마태가 말했다. “사과는 뱀이 우리의 시조 할머니인 이브를 꼬일 적에 사용한 과일인데 이걸 우리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러자 가이오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악마가 사과로 우릴 속였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 것은

사과가 아니라 범죄였다.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으면 피가 썩지만

먹으라고 권하는 사과를 먹으면 유익한 것이다.

주의 비둘기인 교회에 그대는 그의 잔을 마시고

사랑에 굶주린 자들아, 사과를 먹으라.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저는 얼마 전에 과일을 먹고 병들었던 일이 있어서 망설이는 거예요.”

가이오: “먹지 말라고 금지된 과일을 먹으면 병이 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일을 먹으면 아무 탈도 없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접시에 담긴 호두였다(역주: 아가 6:11). 호두를 보자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 중의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호두는 연약한 이를 상하게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이를.”

이 말을 들은 가이오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단단한 호두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하지요,  
아무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그러나 껍질을 깨뜨려 벗기기만 하면  
알맹이를 먹을 수 있소.  
(그래서 나는 호두를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으려오)  
여러분이 껍질을 깨뜨려 벗기고  
알맹이를 잡수시라고 가져온 것이니  
어서 잡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호두를 까먹으며 오랫동안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들은 여러 가지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다가 늙은 정직 씨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착하신 여관 주인님, 당신이 주는 이 호두를 까먹으면서 내가 제시하는 수수께끼 하나 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수수께끼입니다.”

남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물건을 내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사람.

선량한 가이오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까 하는데 흥미를 가진 일동(一同)은 그를 주목했다.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는 사람은  
주는 것보다 열 배도 더 되는 소득을  
천당에서 차지하지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말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푸시리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가이오가 말했다. 아! 이런 방면의 훈련을 나는 많이 받았지. 경험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 교육 방법은 없거든. 누구에게나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 배웠고,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소득이 많다는 걸 경험으로 확인했거든.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스스로 부한 체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요(역주: 잠언 11:24).”

그러자 사무엘이 어머니인 크리스티아나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 집 주인 참 착한 분이예요. 이 집에서 좀 오래 머무르기로 하고 이 집 떠나가기 전에 마태 형님과 자비심이 결혼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속삭임을 엿들은 가이오가 말했다. “그렇게 해 주면 나도 참 좋아, 애야.”

그래서 한 달 이상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비심과 마태는 결혼해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 집에 유숙하고 있는 동안 자비심은 종전대로 코트와 기타 여러 가지 의복을 손수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했다. 이 일 때문에 그녀는 순례자들 간에 평판이 꽤 좋았다.

저녁 식사 때 얘기로 화제를 다시 돌려야겠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소년들은 곧 잠자리에 들고 싶어 했다. 여행 중 상당한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가이오가 사람을 불러 소년들을 침실로 데리고 가 보이라고 하자 자비심이 자기가 그들을 침실로 데려다 재우겠노라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녀의 안내에 따라 침실로 들어간 소년들은 숙면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자지 않고 얘기로 밤을 새웠다. 가이오와 손님들은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잠시도 이별하기 싫어하여 그냥 마주 앉아 얘기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이다. 주님께 대한 얘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들의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한참하고 있노라니 아까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제공했던 늙은 정직 씨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래 용감이 말을 걸었다. “아니, 선생께서는 꽤 졸리신 모양이군요. 정신을 차리시고 제 수수께끼 하나 풀어보세요.”

그러자 정직 씨가 말했다. “어디 들어봅시다.”

그러자 용감 씨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려면 먼저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외국 가서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본국에서 죽어야 한다.

정직 씨가 말했다. “하! 어려운 수수께끼인데. 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말대로 행하기는 더 어렵겠군요. 자, 여관 주인장, 수수께끼 푸는 수고는 당신에게 넘기지요. 아무쪼록 좀 풀어 주시오. 난 가만히 듣기나 하게.”

가이오가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선생님께 물은 것인 만큼 선생님의 대답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늙은 신사인 정직 씨가 말했다.

죄악을 극복하려면 먼저 은총에게 정복당해야 하고

구생(求生)을 바라는 자는 그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

가이오가 말했다. “옳게 풀었소. 굳은 신조와 좋은 경험이 이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첫째, 은총이 스스로 그 자태를 나타내 그의 영광으로 인간의 영혼을 정복하기 전에는 죄악을 반항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뿐 아니라 마귀의 밧줄인 죄악에 결박되어 있는 영혼이 먼저 그 결박을 벗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악을 대항할 힘이 생길 수 있겠소? 둘째로, 어떤 인간이건 자기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를 은총의 한 살아 있는 모범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 혹은 은혜가 나변(那邊)에 있는 지를 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생각난 김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에요. 순례의 길을 떠난 두 사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젊었을 적에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늙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강력한 자아부패와 맞붙어 싸워야 하는데 반해 몸이 쇠약해진 늙은이에게는 대적해 싸워야 할 자아부패가 거의 없었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는 늙은이 못지않게 경쾌한 걸음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내의 걸모습은 꼭 같아 보이지만 받은 은혜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누구일까요?”

정직: “물론 젊은이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가장 큰 적수를 대항해 싸워 이기는 것은, 곧 가장 강한 투쟁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투쟁, 즉 젊은이가 극복해야 할 난관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난관과 싸우는 늙은이와 발걸음을 맞추어 행진한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노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자아기만(自我欺瞞)에 빠지는 경향을 나눈 바 있어요. 즉 나이 먹어 자연적으로 정력이 쇠퇴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과 싸워 이긴 것처럼 자아기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허망한 일을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늙은이들인 만큼 은혜를 받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충고해 줄 자격의 소유자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만 늙은이의 부패성 감퇴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리 큰 투쟁 없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젊은이들은 은혜받기 위해 결사 투쟁하여야만 되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 동행하게 될 때에는 마음속에 은총이 작용하는 것을 보다 더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젊은이 측이지요.”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침에 온 가족이 깨어 일어나자 크리스티아나는 아들 야곱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한 장을 읽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사야 오십삼 장을 읽었다. 그가 읽기를 마치자 정직 씨가 물었다. “성경 말씀에 왜 구세주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을까?”

그러자 용감 씨가 말했다. “첫번째 구절의 뜻부터 알려 드리지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던 시절의 유대인 교회는 종교적인 활기와 정신을 거의 다 상실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두번째 구절은 불신자들을 두고 한 말이지요. 즉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 눈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들은 주님의 외양만 보고는 그 모습이 초라하다고 믿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귀금속이란 으레, 보잘것없는 껍데기, 돌이나 흙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은 귀금속을 발견하고도

보통 돌인 줄로 알고 도로 내버리는데 불신자들은 것처럼 무식한 자들이지요.”  
가이오가 말했다. “그말 참 잘 하셨소. 그런데 때마침 당신네들이 제 집에 와 계시고 용감 씨는 무기 다루는 데 재주가 비상한 분인 줄 내가 알고 있는 이상, 자, 어떻게습니까. 조반 먹어 힘을 돋우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별판으로 나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나 살펴 보면 어떻까요. 여기서 약 오 리 되는 곳에 「살선(殺善)」이라고 불리는 거인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놈이 이 근처 주님의 길에 자주 드나들며 행인들을 무척 괴롭히고 있어요. 그놈이 웅거하고 있는 소굴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놈은 상당한 수의 도둑놈 떼의 두목인데, 이 근처에 다시는 출현 못 하도록 처치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그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용감 씨는 검과 투구와 방패로 무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살선이라는 거인이 사는 곳으로 간 그들은 「심약」이라는 사람을 손에 들고 있는 거인을 발견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마음 약한 사람을 거인의 부하들이 붙잡아다가 바친 것이었다. 심약의 몸뒤짐을 살살이 하고 난 거인은 그를 산 채로 뜯어먹으려고 하던 참이었다. 거인은 사람 고기 먹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그러나 때마침 무기를 든 용감 씨와 그의 친구들이 굴 어귀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인은 뭘 하러 왔나 대라고 호통치는 것이었다.

용감: “넌 죽이려고 왔다. 하나님의 길 위로 걸어가는 수많은 순례자를 붙잡아다가 죽인 복수를 하러 우리가 왔다. 그러니 굴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무기를 든 거인이 굴 밖으로 나오고 싸우기 시작한 그들은 한 시간쯤 싸우고는 숨을 돌리느라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때 살선이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내 땅을 침범했느냐?”

용감: “아까 말한 대로 순례자들이 흘린 피를 보복하려고 왔다.”

그러하여 그들은 전투를 다시 시작했다. 거인이 용감 씨를 뒤로 밀치는 데 성공했으나, 도로 앞으로 나선 그는 용기를 가다듬고 거인의 머리와 옆구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그의 손에 들렸던 무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달려든 용감 씨가 다시 일격을 가해 살선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 버렸다. 그 잘린 머리를 여관까지 가지

고 왔다. 그리고 순례자인 심약 씨도 데리고 여관으로 왔다. 집에 다다르자 식구들에게 살선의 머리를 구경시킨 그들은 그 머리를 높이 매달았다. 이전에도 악한들의 머리를 잘라 오면 매달아 놓곤 했는데, 그것은 이후에도 순례자들을 죽이는 놈이 있으면 목을 잘라 매달 테니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다음 그들은 심약 씨에게 물었다. “어쩌다가 그놈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소?” 그러자 가련한 심약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병든 몸입니다. 게다가 죽음의 하루 한 번씩 으레 제 집 문을 두드리곤 하기 때문에 집에 그냥 있다가는 절대로 무사할 것 같지가 않아 순례의 길을 떠나 여기까지 여행해 온 것입니다. 제 부모님까지도 출생하신 제 고향은 「불확실」이라는 마을입니다. 나는 육체나 마음이나 간에 힘이란 한 톨어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 평생 순례자의 길에서 지날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신다면 별별 기어서라도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 길머리에 있는 문간 집에 내가 도달했을 때 그댕 주인님은 내 연약한 몸과 박약한 정신도 허물하지 않으시고 후하게 대해 주셨을 뿐 아니라 여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주시고 또 끝까지 성공하라고 빌어까지 주셨어요. 설명자 댁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극히 친절환 대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곤고 산 산길에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그의 하인 하나가 날 업어다 날라 주었어요. 다른 순례자들도 저를 극진히 도와주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저와 오랫동안 동행해 주기는 싫어하면서도 나를 앞질러 갈 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마음이 약한 자도 주님께서는 위안해 주신다고 알려주고 나서야 자기네 걸음으로 빨리 들 갔어요. 그러다가 「공격가(攻擊街)」에 제가 다다르자 아까 그 거인이 나타나 싸움 준비를 하라고 도전해 왔어요. 그러나 기막히는 일로 저같이 약한 놈은 싸움 준비는커녕 강장제 약이 필요했어요. 그리하여 그 거인이 날 잡았어요. 그러나 나는 확고한 신념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놈에게 끌려 굴속까지 가게 된 것은 나는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끌려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놈이 날 죽일 리 없고 살아서 도로 나오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에게 강제로 납치 당해 간 순례자가 그 고난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 쏟아 주님 믿기를 계속하기만 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 원수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물건을 강탈당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당신도 보시다시피 나는 살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켜 제 목숨을 건져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판 놈들의 습격을 받을 것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어요. 뛰어갈 수 있을 때에는 뛰어가고, 떨어 수 없을 때는 걸어가고, 걸어가가지조차 벅찰 때에는 기어서라도 기어이 가기로 결심했어요.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내 앞에 놓인 길을 그냥 가기로 단단히 결심했던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리 없는 강 건너 편에 가 있어요.”

정직: “얼마 전 당신은 혹시 순례자인 불안 씨와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심약: “알다 뿐이었습니까. 그이의 고향은 멸망할 도시에서 북으로 사(四) 위도(緯度) 떨어져 있고, 제 고향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둔이라는 마을이지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었지만, 그이가 바로 삼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삼촌의 기질이 제 기질과 아주 비슷했지요. 저보다 키가 약간 작지만 용모는 상당히 비슷하지요.”

정직: “당신이 불안 씨를 잘 알 뿐 아니라 친척간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미리 짐작은 했었어요. 당신 두 분의 얼굴이 상당히 흰데다 눈결과 말씨까지 비슷하기 때문이었어요.”

심약: “우리 두 사람을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이가 가진 성품을 그대로 다 제가 닮았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아니지요.”

가이오: “심약 선생, 기운을 내시고 즐겨워하세요. 당신이 오신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환영하는 바이오니 원하시는 게 있으면 주저 말고 요구하세요. 무슨 요구건 제 하인들이 즐겁게 받아 이행해 드릴 것이니까요.”

그러자 심약 씨가 말했다. “이건 참 예기하지 못했던 과분한 환대올시다. 아주 캄캄한 밤중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 같군요. 내 앞길을 영 막아 버릴 심산으로 거인 살선이란 놈이 날 붙들어 두었던 것은 내가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것처럼 되었군요. 내 돈주머니만 강탈하고는 지금 날 청해 주신 가이오 선생 덕으로 오도록 그 거인이 꾸민 것일까요? 그럴 리는 물론 없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군요.”

심약 씨와 가이오가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 문 앞에서 소리 질렀다. 한 육 리 떨어진 곳에서 부정이란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외치는 것이었다.

이 말에 심약 씨가 말했다. “불쌍하군! 그이가 벼락을 맞아 죽다니? 내가 이곳까지 오기 며칠 전 나를 따라잡은 그는 나와 동행하게 되었었지요. 살선이라는 거인이 날 붙잡을 때까지 그는 나와 동행해 왔는데 동작이 빠른 그는 날썰게 도망치고 나만 붙들렸지요. 그러니 그는 죽기 위해 도망가고, 나는 살려고 잡혔던 셈이 된 것 같군요!”

금방 살해당하리라고 생각했던 자가  
그 비참한 궁경에서 구원받는 일이 가끔 있어,  
죽음의 얼굴을 가진 섭리가 비천한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도 가끔 있구나.  
나는 붙잡히고, 그는 도망하더니  
손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그은 그는 죽고  
손이 묶였던 내가 도리어 살아났구나.

이때쯤 마태와 자비심이 결혼했고, 가이오는 자기 딸 포이베(역주: 옛날 그리스 신화로 달이라는 뜻)를 마태의 동생인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십여 일간 더 가이오의 집에 묵은 그들은, 순례자들이 보통 하는 대로 즐겁게 나날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가이오는 환송연을 베풀어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꼭 떠나야만 할 시간이 다 되자 용감 씨가 가이오에게 숙박비 청구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가이오는 순례자들을 잠재우고 대접한 비용을 순례자들로

부터 직접 받지는 않는 것이 이 여관의 풍습이라고 했다. 순례자들 유숙비는 적아 두었다가 일 년에 한 번씩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받기로 계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역주: 누가복음 10:30~35). 일 년 동안 순례자들의 유숙비가 얼마가 되건 자기가 돌아올 때 다 갚아 준다고 약속하고 사마리아인이 떠나갔다는 것이다.

그러자 용감 씨가 가이오에게 말했다. “가룩한 가이오 씨, 형제진 모르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행인 전부를 정성껏 후대해 주는 당신의 사랑은 교회 앞에서 한 가지 큰 증거로 제시될 거고, 행객들의 여비까지 이월하는 당신의 착한 마음씨와 행위는 정말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이오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어른들에게는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심약 씨에게 더 간곡한 고별인사를 하고, 그들이 여행하면서 마실 음료도 갈라 주었다.

그들이 문으로 향해 나갈 때 심약 씨는 주저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것을 본 용감 씨가 말했다. “여보시오, 심약 씨, 어서 이리 와요. 우리 다 함께 길을 떠나야 해요. 내가 당신의 안내자도 되어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같이 가요.”

심약: “글쎄요! 하지만 당신들은 모두 정력적이고 건강한데,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약한 몸이니 나에게 적당한 동행자가 필요해요. 여러 모로 연약한 내가 당신들과 동행하면 나 자신에게 벅찬 짐이 될 뿐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짐이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거니와 나는 몸과 마음이 다 약하기 때문에 남들은 능히 견뎌 내는 난관에도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남처럼 웃지도 못 할 것ियो, 화려한 옷을 입기도 싫어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받는 것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실례되는 것도 돌보지 않고 어떤 일을 감행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못 하니 더 괴롭기만 합니다. 진리의 진부를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무식한 교인이에요. 남들이 주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롭기만 해요. 나는 힘이 센 사람들 틈에 외톨이로 사는 나약한 자요, 건강한 사람들 틈에 외따로 사는 병신입니다. 나는 멀리받는 등(燈) 같은 신세입니다(역주: 욥기 12:4~5).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용감: “그렇지만,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몸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드리는 사명을 띠고 온 몸입니다. 당신은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오신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가 기다릴 거고, 부축해 드리기도 할 것이며, 당신을 위해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가 희생할 것이며, 당신 앞에서는 미심한 변론은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을 당신만 위해 마련하겠습니다. 당신을 뒤에 두고, 우리 끼리 떠나 가기는 정말 싫으니까 위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가이오의 문 앞에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노라니 손에 두 개의 지팡이를 쥔 절름발이 하나가 가까이 왔다. 「주저(躊躇)」라는 사람인데, 그 역시 순례자였다.

이때 심약 씨가 주저 씨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요? 방금 나는 나에게 적합한 동행자가 없어 한탄하던 참인데 당신은 내 맘에 드는 동행자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선량하신 주저 씨, 우리 서로 도와가며 동행하기 바랍니다.”

주저: “기쁘게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착하신 심약 씨, 다행히 이렇게 우리 둘이 만났으니 따로 떨어져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요. 지팡이 한 개 빌려드리지요.”

심약: “성의를 감사하나 그만두십시오. 절름발이가 되기 전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 개가 달려들면 지팡이가 소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저: “심약 씨, 나 자신이나 내 지팡이가 당신에게 소용이 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길을 다시 떠났다. 용감 씨와 정직 씨가 앞서고,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들이 뒤따르고 심약 씨와 지팡이 쥔 주저 씨가 맨 뒤에 따랐다.

이때 정직 씨가 말했다. “용감 씨, 지금 우리가 길을 떠났으니 우리보다 앞서 간 순례자들의 행적 중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용감: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해 들려드리지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간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폴리온이라는 악마를 만났었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들으셨겠지요. 그리

고 음분 마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불만, 그리고 치욕 등 네 명의 사기꾼 악한들을 길에서 만난 신의가 얼마나 곤경에 빠졌었는지도 반드시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길을 가노라면 그런 종류의 악한들을 만나기 마련이지요.”

정직: “예, 그런 얘긴 다 들었어요. 선량한 신의가 치욕과 만나 겨룰 때 제일 심한 욕을 봤지요. 치욕은 의지력이 아주 강한 놈이었나 봐요.”

용감: “그렇지요. 모든 인간 중에 치욕이 가장 나쁜 이름을 가진 놈이라고 순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요.”

정직: “그런데 크리스천과 신의가 수다쟁이를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다쟁이 역시 비상한 놈이었지요.”

용감: “그 자야말로 뻔뻔스러운 바보 천치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상한 일이지요.”

정직: “그자도 신의를 매혹시키려고 했지요.”

용감: “그래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재빨리 신의에게 수다쟁이의 본색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리하여 크리스천과 신의가 동행하다가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들이 허영의 저자에서 어떤 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 전도사가 예언해 주었지요.”

이때 그들의 안내자인 용감 씨가 말했다. “크리스천과 신의가 허영의 저자에서 당할 일을 예언해 준 전도사를 만난 자리가 바로 이 근처지요.”

정직: “그래요? 그런 예언을 하기란 무척 어려우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용감: “물론 어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예언함으로써 전도사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들은 두 마리의 사자같이 용맹한 분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부싯돌 같았지요. 허영의 저자 법정 재판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없이 꾀꾀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정직: “정말 신의는 용감하게 고난을 견디었지요.”

용감: “참으로 용감하게 행동했지요. 그리고 그의 용감한 죽음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지요. 희망과 그 밖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신의의 용감스런



죽음을 목격한 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요.”

정직: “정말 그렇군요. 당신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니 말씀을 계속하세요.”

용감: “허영의 저자를 통과한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난 사람 중 사심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지요.”

정직: “사심이라고요! 어떤 자였나요?”

용감: “아주 나쁜 놈이었지요. 순 위선자였으니까요. 세상 풍조에 따라 종교를 믿는 자인데, 얼마나 교활한지 신앙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고생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는 자이지요. 경우에 따라 신앙 방식을 고치는 데 능했고,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교활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데 따라 그는 자기의 의견을 변경할 뿐 아니라, 의견 변경을 변호하기까지 하는 자였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그의 종말은 사심 때문에 비참했고 그의 자손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허영의 저자가 있는 허영의 마을이 뻗히 바다라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다. 그 마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된 그들은 무슨 방법으로 그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 좋을까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더러는 이러자고 하고, 더러는 저러자고 하여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용감 씨가 말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순례자들을 모시고 이 마을을 여러 번 통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 하나를 잘 사귀어 두었어요. 그이는 구브로 태생인데 이름은 「나손」입니다(역주: 사도행전 21:16). 그이는 노제자인데 그의 집에서 우리 쉬어 가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내가 그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늙은 정직이 좋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아나도 좋다고 말했다. 심약 씨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 다 좋다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그들이 이 마을 교외에 다다른 때는 황혼이 깃들 무렵이었다. 그러나 용감 씨는 나손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집으로 곧장 가 문밖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 질렀다. 이 집안에 있는 노인은 용감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어 주어 그들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집주인인 나손이 말했다. “오늘 몇 리나 걸으셨소?”

그래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친구인 가이오의 집에서 떠나 당일에 다 왔소.”

나손이 말했다. “참 멀리서 오셨군요. 걸어오시느라고 몹시 피곤하시겠군요. 자, 앉으십시오.”

그래 그들은 모두 앉았다.

그러자 그들의 안내자인 용감 씨가 말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나는 장담합니다.”

나손: “예, 환영하고 말고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사양 말고 말씀하세요. 제 힘 닿는 데까지 공대(恭待)해 드리겠습니다.”

정직: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편히 쉴 자리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손: “쉬실 자리는 보시는 바와 같고 좋은 친구는 겪어 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용감: “옳은 말씀이요. 이 순례자들을 유숙하실 방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손: “모시지요.”

이렇게 말하고 난 나손은 손님들 각자에게 따로따로 유숙할 방을 구경시킨 뒤 아주 훌륭한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잡자리에 들기 전 이 식당에 모여 앉아 저녁 식사나 들자고 집주인이 말했다.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얼마간 쉬면서 여독을 풀 그들은 원기를 회복해 명랑해졌다. 그러자 정직 씨가 집주인에게 이 마을에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물었다.

나손: “불량한 사람들 수효와 비교해 보면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 분 계시지요.”

정직: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선량한 사람을 보는 것이 바다 위로 항해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로 달이나 별들을 보는 것처럼 반가운 일이니까요. 그러자 나손은 발을 굴렀다. 곧 이어 그의 딸인 「은혜(恩惠)」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나손이 딸에게 말했다. “은혜야,

너 우리 친구들인 「통회(痛悔)」 씨와 「성인(聖人)」 씨와 「애정(愛情)」 씨와 「무위(無爲)」 씨와 「참회(懺悔)」 씨한테 가서 그이들을 오늘 밤 안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한두 분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니 좀 오셔달라고 말씀드려라.”

이리하여 은혜가 그이들을 일일이 방문했고, 그들은 곧 왔다. 서로의 인사가 끝나자 그들은 모두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다.

그러자 이 집 주인인 나손 씨가 입을 열었다. “이웃 친구 여러분 보시다시피 손님 몇 분이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모두 순례자이십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인데 시온 성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티아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분은 크리스천의 부인이십니다. 그의 친구인 신의 씨와 함께 우리 마을에서 고난을 당하신 유명한 크리스천의 부인이십니다.”

이 말에 놀란 그들은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은혜가 우리더러 오라고 말할 때 크리스티아나를 만나볼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젠 참 놀랍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안부를 묻고 동석한 소년들은 아들들인가 물었다. 그렇다는 그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소년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왕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 아버지처럼 만들어 너희 아버지가 편히 사시고 있는 천국으로 너희도 데려가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그들이 도로 자리에 앉자 정직 씨가 통회 씨와 그 밖의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지금 이 마을 형편이 어떻습니까?”

통회: “장이 설 때마다 우린 굉장히 바쁘지요. 자유행동이 방해받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기가 무척 힘들지요.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난관에 견뎌 내려면, 매일 시시각각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아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직: “지금 당신네 이웃들은 좀 안정되어 있나요?”

통회: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해 진 셈이지요. 크리스천과 신의가 우리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와서는 이

곳 주민도 무척 온건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씨가 뿌린 피가 지금까지도 그들 양심에 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이를 불태워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는지 그 뒤엔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이를 불에 태워 죽인 직후에는 우리도 거리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도 나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신앙 고백자라는 명칭만도 징그러웠지만 어떤 동네 (아시다시피 이 마을은 상당히 크지요)에서는 종교 신앙이 존경받을 만큼 사태가 변했지요.”

이렇게 말하고 난 통회 씨는 일동을 향해 물었다. “순례의 길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행로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정직: “길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경험을 우리도 겪었지요. 어떤 때엔 우리 길이 안전했고, 어떤 때는 불안했으며, 언덕길을 올라가야 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내려가야 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평탄한 때는 드물었습니다. 언제나 순풍을 만난 것도 아니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친절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중에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옛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을 발견했어요. 즉 선량한 사람은 고난을 반드시 겪는다는 말입니다.”

통회: “고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으셨는지요?”

정직: “그건 우리의 안내자인 용감 씨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이뿐이니까요.”

용감: “서너 차례 잘 겪었지요. 처음엔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두 놈의 악한이 우릴 괴롭혔지요. 그다음엔 흥한이라는 거인, 첼퇴라는 거인, 그리고 살선이라는 거인들이 우리를 괴롭혔지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만난 이 살선이라는 거인에 대해서는 그놈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도리어 그놈을 괴롭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지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와 전체 교회의 주인인 가이오(역주: 로마서 16:23)’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날 가이오 씨가 우리더러 무기를 들고 나서서 순례자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찾아나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맥 근

처에 상당히 소문난 원수가 하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만) 그런데 그놈의 소굴이 어디 있는지를 나보다 가이오 씨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놈이 그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우리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그놈이 살고 있는 굴 어귀를 마침내 발견했어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용기를 북돋았지요. 그래 우리는 그 굴 어귀까지 가까이 갔지요. 가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놈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 불쌍한 사람 심약 씨말입니다. 이분을 붙잡아 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죽여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우리를 보자 먹을 것이 또 생겼나보다고 생각했는지 불쌍한 심약 씨를 굴속에 남겨두고 굴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맹렬한 기세로 그에게 달려들고 그도 역세계 대항해 왔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를 거꾸러뜨리고 목을 잘라 길가에 매달아 앞으로 그런 악한 짓을 하려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했지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여기 심약 씨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은 곧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받은 양과 같은 사람이니깐요.” 그러자 심약 씨가 말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번 경험이 나에게는 고통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방 내 뼈까지 그놈이 갉아먹을 것 같이 덤빌 때 그것이 내게 고통이었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무기를 든 용감 씨와 그의 친구들이 굴 어귀까지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엔 성인이 말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용기와 깨끗한 생활 두 가지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길에서 만나는 원수들과 싸울 수 없고,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순례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엔 애정 씨가 말했다. “이런 경고가 당신들에게는 필요 없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길을 가는 모든 문외한들과 순례자들 중 순례자라고 자처하기는 하면서도 실은 문외한인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위 씨가 말했다. “사실 그렇습니다. 행인들 중에는 순례자가 입어야 하는 의복도 입지 못하고 순례자가 필요로 하는 용기도 못 가진 자들이 수도룩합니다. 그런 자들의 걸음걸이는 고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두 발이 제각기 따

로 놀아 한 발은 안으로 한 발은 밖으로 굽어 몸에 딱 붙은 바짓가랑이가 뒤로 치지고 하여 옷 한쪽은 엉마처럼 되고 또 다른 한쪽은 구멍이 뚫려 그들의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엔 참회 씨가 말했다. “그런 것들이 참된 순례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순례자들이 은혜를 받긴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순탄한 여행을 하기도 불가능하지요.”

식탁 위에 저녁 음식이 차려질 때까지 그들은 이런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을 먹어 피곤을 풀고 원기가 회복되자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상당히 오랜기간 그들이 허영의 저자의 나손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손은 자기 딸 둘을 크리스티아나의 두 아들과 결혼시켰다. 은혜를 사무엘에게 아내로 주고, 마르다는 요셉의 아내로 삼았다.

조금 전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이 허영의 저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 마을 형편이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으레 머무는 동안 자연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고, 주민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봉사를 제공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언제나 원하는 자비심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많이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녀는 이 마을에서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 착한 기질을 가진 은혜와 포이베와 마르다도 제각기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녀들은 모두 임신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리스천의 이름이 후세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 마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근처 삼림으로부터 어떤 괴물이 나와서 이 마을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다.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괴물은 어린이들을 납치해 제 소굴로 데리고 가서, 자기 새끼들과 함께 암괴물의 젖을 빨아먹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 중에는 이 괴물을 대적해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괴물이 오는 소리만 듣고도 모두 도망가는 것이었다.

이 괴물의 모습은 세상 어떤 짐승과도 같지 않았다. 몸집은 용 같으면서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역주: 요한계시록 12:3). 어린이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라고 열심히 교육하고 돌아다니는 놈이면서도 한 여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괴물이 인간에게 목숨이 아까우냐, 영혼이 아까우냐 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영혼보다 목숨을 더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그의 조건을 받아들여 영혼을 죽이고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었다. 이때 용감 씨는 나손 댁에 머무는 순례자들을 방문 오는 선량한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그 짐승에게 싸움을 걸기로 약속했다. 싸워 이기면 이 마을 주민들을 이 괴물의 아가리와 발톱으로부터 구원하여 잡혀 먹히지 않도록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서었다.'

그리하여 용감 씨, 통회 씨, 성인 씨, 무위 씨와 참회 씨는 각기 무기를 들고 괴물을 만나러 나갔다. 원수들을 대하자 괴물은 일어서면서 처음에는 경멸하는 눈초리로 쏘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선량한 사나이들은 억세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힘껏 싸워 괴물을 후퇴시켰다. 괴물을 후퇴시킨 그들은 나손 씨 댁으로 일단 돌아왔다.

독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괴물이 읍내에 나타나서 어린이들을 습격하는 데는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용감 씨를 비롯한 용사들은 이 시기에 때맞추어 괴물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다가 들어오면 곧 달려들어 공격하곤 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매 그 괴물은 부상당했을 뿐 아니라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레 그 뒤부터는 전처럼 이 마을 어린이들을 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근래 어떤 사람은 괴물이 입은 상처로 인해 죽었음에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감 씨와 그의 친구들의 명성은 이 마을에서 크게 떨치게 되고 허영에 빠진 주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손 댁에 머무는 순례자들은 심한 박해는 받지 않게 되었다. 주민 중에는 물론 두터지처럼 빛을 못 보고 이해력이 짐승만도 못 한 자들도 더러 있어서 괴물을 물리친 사람들과 순례자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의 용기와 모험심에 무관심한 자들도 있었다.

이러저러 순례자들이 길을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그레 그들은 여행 떠날 준

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작별인사를 하려고 친구들을 오라고 하여 서로 의논한 결과 길 떠나기 전에 제각기 시간을 따로 정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보호를 비는 기도를 드렸다. 친구들은 다시 여러 가지 물건, 즉 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물건과 여자와 남자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물건, 그리고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순례자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들이 길을 떠나자 적당한 곳까지 친구들이 바래다주고, 이별하기 전에 한 번 더 제각기 하나님에게 보호를 비는 기도를 올리고 헤어졌다.

그리하여 용감 씨를 앞세운 순례자 일행은 여정에 올랐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몸이 약하므로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걷게 되었고, 이에 따라 딱한 사정에 놓인 주저 씨와 심약 씨를 동정하는 마음은 더 커졌다.

허영의 저자 사람들로부터 떠나오면서 친구들의 작별 인사를 받은 순례자들은 얼마 안 가서 신의 씨가 사형 집행 받은 장소에 다다랐다.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춘 그들은 신의로 하여금 십자가를 그만큼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세삼 감사를 드리고 신의가 그렇게 용감하게 박해에 응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마을에 큰 유익을 준 것을 회상하여 거듭 감사를 드렸다.

감사드린 뒤 다시 걸어가는 그들은 크리스천과 신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의가 죽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을 따라 나선 희망 씨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탐욕 산에 다다랐다. 이 산에 있는 은광을 탐내는 데마스 씨가 순례의 길을 버리고 광산을 향해 간 곳이 곧 이 산이요, 사심 씨도 정로를 버리고 은광을 찾아 나섰다가 자멸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런 일들을 회상했다. 그러나 그들이 탐욕 산꼭대기에 서 있는 소금 기둥을 보자, 이전에 크리스천이 놀란 것같이 그들도 놀랐다. 악취가 나는 못이 되어 버린 옛날 소돔 마을이 뻗히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 세워진 소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도 유식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뒤에 남기고 온 재물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도록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후세에 교훈의 표지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남



들이 받는 형벌을 보면서 저 자신이 직접 벌을 받지 않는 한 아무런 감응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새삼 깊이 생각했다.

기쁨 산 이쪽에 흐르는 강변에 그들이 도착한 것을 나는 보았다. 강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쪽 강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식상(食傷)을 낫게 해 주는 약이었다. 거기 있는 초원은 사시장철 푸르네, 누구든 마음 놓고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곳이었다(역주: 시편 23:1~6).

강 이쪽 편 초원에는 양 치는 우리와 외양간이 여러 개 있었다. 그리고 양치기들과 순례의 길을 가는 여인들이 여행 중에 낳은 아기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은 집 한 채도 있었다. 그리고 연료의 정을 가지고 어린 양 새끼들을 품에 안고 새끼 달린 어미 양들을 친절하고도 상냥하게 돌봐 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양을 기르는 직책을 맡긴 것이었다.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는 머느리 뱃에게 그들이 낳은 아기들을 이 사람에게 맡기라고 권고했다. 아기들을 그가 이 집에 맡아 기름으로써 강변에서 자라며 보호받고 도움받고 양육을 받아 이들은 앞날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기 중 하나라도 길을 잘못 들거나 집을 잊어버리면 그이가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요, 몸이 상하면 싸매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역주: 예스겔 34:16). 여기서 그들은 의식주에 곤란을 절대로 느끼지 않을 것이며 도둑이나 강도들의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기들을 맡아 기르는 이 사람은 그가 맡은 아기들 중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돌봐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아기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권면을 받을 것이며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받을 것이니, 그것은 너희도 알다시피 적지 않은 혜택이다. 그리고 또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이곳에는 깨끗한 물과 즐거운 초원과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맺는 과수도 많이 있지 않나. 바알세불이란 악마의 과수원 나뭇가지가 담 밖에까지 뻗어 나왔기 때문에 마태가 멋모르고 따먹었다가 병에 걸렸던 그런 독한 과일이 아니라, 쇠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가져다 주고, 건강한 자에게는 그 건강이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는 좋은 열매가 맺어 있단 말이다.”

이 말을 들은 머느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이곳 양치기에게 맡겼다. 시

어머니의 권고에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이 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탁 아소라는 것을 알게 되어 용기를 더 얻은 것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길을 다시 떠났다. 이전에 크리스천과 그의 동행자인 희망이 셋길 초원으로 들어갔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의혹의 성으로 끌려가 감금되어 고생했던 일이 있는 그 올타리 친 층계에 다다른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의논했다. 즉 그들의 힘도 꽤 세진데다 용감 씨 같은 군센 안내자와 함께 여행하게 된 이때, 거인을 때려잡고 그놈의 성을 허물어 버려 혹시 감금되어 있는 순례자들이 있으면 구원해 가지고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논이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부정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겠느냐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만 좋으면 들어가도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용감 씨는 이렇게 말했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 없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는 죄를 대적하여야 하고 악을 이기며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절망의 거인과 더불어 싸우는 것만큼 선한 싸움이 어디 또 있겠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놈의 생명을 빼앗고 또 의혹의 성을 허물어 버리려는 시도를 해보렵니다. 그러니 누구 나와 함께 가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정직이 “내가 가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도 가요.” 하고 마태와 사무엘과 야곱과 요셉 등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이 말했다. 그들은 지금 건장한 청년들이었다.

그래 십약 씨와 쌍지팡이 짚고서야 걷는 주저 씨더러 남아 있으면서 여자들을 보호하라고 부탁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모두 싸우러 갔다. 절망의 거인이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린아이이라도 능히 그들을 끌고 갈수 있을 것이므로 아무 염려도 없는 것이었다(역주: 이사야 11:6~7).

이리하여 용감 씨, 늙은 정직과 네 청년은 절망의 거인에게 도전하려고 의혹의 성을 향해 걸어갔다. 성 문에 다다른 그들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늙은 거인은 문으로 오고, 그의 아내인 시기가 남편 뒤를 따랐다.

거인이 말했다. “나, 절망의 거인을 어떤 놈이 건방지게 이렇게 괴롭히느냐?”

용감 씨가 대답했다. “나, 용감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보호해 주는 천국 왕의 사자들 중의 한 명이다. 내가 명령한다. 이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라. 그리고 너도 싸울 준비를 해라. 나는 널 죽이고 이 의혹의 성을 허물어 버리려고 왔으니.”

이때 절망의 거인은 자기가 거인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자기를 정복할 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내가 천사들마저 정복했는데 용감이 과연 누구이기에 감히 자기를 무섭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레 무장을 갖춘 그는 밖으로 나왔다. 머리에는 쇠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불 흉패를 붙이고, 발에는 쇠로 만든 전투화를 신은 그는 손에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여섯 명의 사내들이 그를 앞뒤로 공격했다. 거인의 아내인 시기가 남편을 도우려고 나오자 늙은 정직이 단 한 매에 그녀를 쓰러뜨렸다.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 끝에 절망의 거인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나 죽기 싫어하는 그는 속담에 아홉 개의 생명을 가졌다는 고양이처럼 몸부림쳤다. 그러나 용감은 거인의 머리를 잘라내기까지 결사적으로 무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나자 그들은 의혹의 성을 허물기 시작했다. 절망의 거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곽을 허무는 일은 쉬운 일이었으나 완전히 허무는 데 이레가 걸렸다. 허물고 보니 거의 굵어 죽게 된 낙심 씨와 그의 딸 겁쟁이가 발견되어 구출되었다. 생명을 건진 사람은 이들 둘뿐이고 지하실 감옥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었고, 성 마당 여기저기에는 술한 시체가 쌓여 있었다. 이 일을 이룩한 용감 씨 일행은 낙심 씨와 그의 딸 겁쟁이를 그들의 보호 아래 두었다. 그들 둘이 비록 폭군인 절망의 거인의 포로가 되어 의혹의 성 안에 감금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거인의 머리만을 들고 (몸은 돌무더기 아래 묻어 주고) 정로로 돌아온 그들은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동행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이 절망의 거인의 머리인 것을 본 심약과 주저는 무척 유쾌해 하며 기뻐했다. 그런데 필요할 때에만 연주하는 것이었지만 크리스티아나는 비올을

컬 줄 알았다. 그녀의 만머느리 자비심은 류트를 연주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즐거운 때 한 곡조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하자 주저 씨는 춤을 추고 싶었다. 그래 낙심의 딸인 겁쟁이의 손을 잡은 그는 춤추며 길 위로 오락가락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쥐고 추는 춤이기는 했지만 정말 잘 추는 춤이었다. 그리고 겁쟁이라는 여자도 음률에 잘 맞추어 춤을 제법 잘 추었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낙심 씨는 음악에 별 흥미가 없었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굶은 지라 춤추는 것보다도 먹을 것을 더 바라는 것이었다. 그래 당장 기운을 돋워 주기 위해 크리스티아나가 그에게 술을 한 병 주고 나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늙은 신사는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의혹의 성은 허물어지고  
절망의 거인은 머리를 잘렸지만,  
죄악은 능히 성곽을 재건·유지할 수 있고  
절망의 거인을 재생시킬 수도 있느니라.

이런 모든 일이 끝난 뒤 용감 씨가 절망의 거인의 머리를 큰 길가 기둥에 매다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이전에 크리스천이 순례자들에게 의혹의 성 영지 안에 발을 들여 놓지 말라고 경고하는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바로 옆에 기둥을 세우고 거인의 머리를 매다는 것이었다. 이 기둥 아래 대리석 비를 세우고 그 위에 아래와 같은 시를 새기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이름만 듣고도 순례자들이 무서워 떨던  
그놈의 머리가 여기 매달려 있다.  
그놈의 성곽은 헐리고  
그놈의 아내인 시기도  
용감한 용감 씨가 죽여 버렸다.

그놈이 잡아 가두어 두었던  
낙심과 그의 딸 겁쟁이를 용감이 구원해 냈다.  
그러니 만일 의심하고 주저하는 자 있거든  
눈을 들어 저 머리를 보라,  
그러면 만족을 얻으리라.  
의심하던 절름발이도 춤을 추어  
공포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의혹의 성을 허물어 버리고 절망의 거인을 죽여 버리는 용감성을 보인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기쁨 산 근처에 도착하자 이전에 크리스천과 희망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경하며 기분을 돋우던 장소까지 그들은 갔다. 이전에 크리스천을 맞이했던 것과 꼭 같이 친절하게 맞이하여 기쁨 산 위까지 안내하는 양치기들을 그들도 거기서 만났다.

용감 씨(양치기들은 용감을 잘 알고 있었다)의 뒤를 쫓아오는 무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는 그들은 말했다. “선생님, 동행하는 이가 참 많군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자 용감 씨가 대답했다.

첫째로 크리스티아나 여사와 그녀의 일행  
즉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리로 왔소.  
북극을 둘러 도는 북두칠성처럼  
지남침(指南針)따라 도는 배의 키와 같이  
죄악을 떠나 은총을 향해 가는 그들이 아니었던들  
지금 여기까지 올리 없소.  
그다음엔 순례의 길 떠난 온 늙은 정직 씨  
그리고 독실하다고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주저 씨  
그리고 뒤에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심약 씨

그다음에 오는 분은 선량한 낙심 씨와 그의 딸 겁쟁이  
우리 여기서 영접받을 수 있는지  
그렇잖으면 그냥 지나쳐 앞으로 가야 할는지?  
솔직하게 가르쳐 주기 바라오.

그러자 양치기들이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군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즐겁게 맞아들이는 자들이니까, 어서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나 감시하고 계십니다(역주: 마태복음 25:40). 그러므로 약한 것이 우리 접대에 걸림돌이 될 순 없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순례자들을 대궐 문계로 데리고 가서 다시 말했다. “자, 들어들 가십시오. 심약 씨, 들어가지요. 주저 씨, 들어가십시오. 낙심 씨와 따님 겁쟁이도 들어가십시오.” 용감에게로 머리를 돌린 양치기들은 이렇게 말했다. “용감 씨, 이 분들을 일일이 지명해 들어가시자고 청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해 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비롯해 저 건장한 분들은 자유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용감 씨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은총이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신들이 진실로 주님의 양치기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당신들은 이 병든 사람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지 않고(역주: 에스겔 34:21) 도리어 대궐로 들어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 준 것으로 보아 정말 주님의 목자들이십니다.” 이리하여 몸이나 마음이 약한 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용감 씨를 비롯한 남은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다 자리에 앉자 그들 중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양치기들이 말했다. “어떤 음식을 원하십니까? 여기서는 탐식하는 자를 경계하는 동시에 약하신 분들에게 적당한 음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양치기들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과 맛 좋은 음식과 영양 가치가 많은 음식을 차려 순례자들을 대접했다. 식사를 끝내자 제각기 적당한 침실로 가서 잠을 잤다. 아침이 왔다. 산은 높고 날씨는 청명했다.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기 전

에 몇 가지 신기한 것들을 구경시켜 떠나 보내는 것이 양치기들의 버릇이었으므로, 손님들이 세수하고 조반을 마치자 그들을 모시고 들로 나가, 처음엔 이전에 크리스천에게 구경시켰던 것들부터 먼저 구경시켰다.

그다음 그들은 순례자들을 어떤 새로운 장소로 모시고 갔다. 처음 간 곳은 신기(神奇) 산(山)이었다. 말을 자꾸 지껄이는 사람 하나가 저 멀리 산록을 뒹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을 본 순례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양치기들에게 물었다.

양치기들이 대답했다. “천로역정 제 일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은혜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이유는 순례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굴러내릴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천로(天路)를 가기 위해서는 몸을 굴려서라도 가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용감 씨가 말했다. “내가 저분을 잘 알지요. 그이는 남들보다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그들은 또 판 곳으로 갔다. 무죄(無罪) 산(山)이었다. 그 산에는 흰옷 입은 사람 하나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편견」이라는 사람과 「악의」라는 사람 둘이서 진흙을 그 흰옷 입은 사람에게 자꾸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흙을 아무리 끼얹어도 잠시 뒤 흙이 모두 흘러 떨어지고 그의 옷은 흙이 조금도 묻지 않은 채 희고 깨끗한 것이었다.

그러자 순례자들이 말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양치기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 이름은 「경건」이고, 그가 입고 있는 흰옷은 그의 생활을 결백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흙을 던지는 자들은 그의 행복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무리 흙을 끼얹어도 보시다시피 흙은 그의 옷에 조금도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백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건 다 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결백한 사람들을 더럽히려고 애쓰는 자들은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선 금방 그들의 결백을 빛나게 하고 또 그들의 의로움이 대낮처럼 빛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들이 간 곳은 자선(慈善) 산이었다. 어떤 사람이 피륙을 필로 앞에 쌓아 놓고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감을 연방 나눠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피륙은 조금도 축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 순례자들이 말했다. “저것은 대관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치기들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요. 남을 추겨 주는 사람은 자기도 반드시 추김을 받게 될 것이지요. 선지자에게 빵을 준 과부의 집 밀가루 통 안에 있는 밀가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양치기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또 딴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바보」라는 사람과 「무지」라는 사람 둘이서 흑인 이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씻겨 주고 있는 것을 봤다.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자꾸 씻겨 주지만 씻겨 줄수록 흑인은 더 검어지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는 순례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양치기들에게 물어봤다.

그래 양치기들이 설명해 주었다. “악한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량하다는 명예를 얻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아도 결국에는 선량해지지는커녕 더 가증한 악한이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선량해지지 못하고 더 악해진 것과 같이 위선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의 아내인 자비심이 시어머니인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 언덕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길을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도 편하다면 말씀입니다.”

그래 크리스티아나가 며느리의 의사를 양치기들에게 전달했다. 그래 그들은 지옥 문 가로 갔다. 그 문은 산허리에 있었다. 이 문을 연 양치기들은 자비심더러 한참 동안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했다. 그래 그녀는 귀를 문가에 대고 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평화와 생명을 향하는 길로부터 나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 준 우리 아버지에 화 있을지어다.”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 내 생명을 구원했으나 영혼은 잃어버렸으니,



이렇게 되기 전에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면 좋았을걸.”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런 곳에 오기 전에 나 자신을 억제할 것인데.”

그러더니 이 젊은 여자가 서 있는 발 아래 땅이 흔들리고 신음하는 것 같았다. 겁을 집어먹은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떨면서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남녀건 누구건 이런 곳에서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구경시키고 난 양치기들은 순례자들을 대로로 도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집에서 가능한 한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나 나이 젊고 임신 중인 자비심은 이 집 안에서 본 어떤 물건을 몹시 가지고 싶었으나 요구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다. 그녀가 어딘가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미를 알아차린 시어머니가 왜 머리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식당 벽에 거울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싶어서 마음에 걸려요. 그걸 못 가지면 꼭 유산하게 될 것만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한다고 양치기들에게 내가 말해 주지. 안 준다고 하지는 않을 걸.”

며느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제 욕심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별 소릴 다 한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도리어 정숙한 일이야.”

그래 자비심이 다시 말했다. “그럼, 어머니, 어머니 좋을 대로 하시되 그 물건을 팔지 않겠느냐고 양치기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이 거울은 참으로 희귀한 거울이었다(역주: 고린도후서 3:18). 이 거울 앞면을 들여다보면 보는 사람 자신의 모습이 실물 그대로 보이고, 거울을 돌려 뒷면을 들여다보면 순례자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얼굴과 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 거울을 본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들었는데 그 거울 속에 가서 면류관을 쓴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못 박혔던 구멍이 뚫린 채 있는 주님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 거울은 특별한 것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

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한다. 그의 사는 모습이거나 죽은 모습이, 세상에 사실 때 모습이, 하늘나라에 사시는 모습, 수치당하시는 모습이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계시는 모습, 고난받으려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거나 다스리려 세상에 오시는 모습 등 다 볼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머느리의 말을 전하려는 크리스티아나는 양치기들(그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에게로 가서 말했다. “지금 임신 중인 머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집에서 본 어떤 물건을 꼭 가지고 싶어 하는 모양이요. 그걸 못 가지면 유산할 것 같다고까지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경험: “그녀를 이리 데리고 오세요. 데려 오세요. 가능한 한 무엇이고 다 그녀에게 드릴 용의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그래 그들이 자비심을 불렀다. 그녀가 오자 그들이 말했다. “자비심, 가지고 싶은 게 대관절 무엇이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말했다. “식당 벽에 걸려 있는 큰 거울이요.”

그러자 성실이 식당으로 달려가 거울을 떼어다가 그녀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

그러자 머리 숙여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보아 제가 당신들의 눈에 잘 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들은 다른 젊은 여인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물건을 주고 그녀들의 남편들을 크게 칭찬했다. 용감 씨 측에 가담하여 절망의 거인을 죽이고 의혹의 성을 허물어뜨린 공을 치하하는 것이었다.

크리스티아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 준 양치기들은 이어 그녀의 네 머느리들의 목에도 목걸이를 각기 걸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 주고 이마에는 보석을 붙여 주었다.

순례자들이 길을 다시 떠나기로 마음먹자 양치기들은 평탄한 여행하기를 빌어 줄 따름, 이전에 크리스천과 그의 동행자에게 경고해 주었던 주의는 환기시켜 주지 않는 것이었다.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물에 능통한 용감 씨가 그들을 모시고 가는 한 미리 주의시킬 필요 없이 위험이 임박할 때마다 용감 씨 자신이 주의 주는 것이 더 적절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과 그의 동행자가 양치기들로부터 미리 주의받았던 것을 씹먹을 입시에 잊어버려서 못 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에 임박해서 주의 주는 것이 미리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길을 다시 떠나는 그들은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다.

보라, 순례자들의 심신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주는  
휴식처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그리고 내세의 생명을 목표로 삼고,  
높은 데 있는 집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를  
그들이 얼마나 흔쾌하게 대접해 주었는가를 보라!  
순례 도중에도 우리가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구경시켜 주었고,  
어디를 가건 우리가 참된 순례자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  
그들은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을 우리에게 주었다오.

양치기들과 작별하고 길을 떠난 그들은 얼마 안 가 이전에 크리스천이 배교 마을에서 온 변절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곳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들의 안내자인 용감 씨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곳이 바로 크리스천이 변절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변절의 등에는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지요. 그 사람에게 대해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소. 그는 남의 권고는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어서 한번 타락한 뒤에는 세상 누구에게도 설득되지 않았지요. 그가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더러 십자가와 무덤을 보라고 타일렸지만 이를 갈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는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노라고 단언했대요. 그가 좁은 문까지 오기 전에 전도사를 만났는데, 전도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로로 들어서라고 권고했지요. 그러나 이 완강한 변절은 전도사의 충고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전도사를 모욕할 목적으로 담을 뛰어넘어 전도사의 손을 피했지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걸었다. 이전에 소신이 강도들을 만나 고난당했던 장소에 다다르자, 손에는 긴 칼 한 자루를 들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것을 그들은 봤다.

이때 용감 씨가 말했다.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이름은 「진리의 용사」입니다. 순례자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지요. 도중에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에게 달려들어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하면서 삼자택일하라고 하더군요. 하나, 그자들의 동료가 되어줄 것인가? 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셋,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가? 첫째 제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나는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도둑놈들에게 내 운명을 던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자 그들은 둘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고 명령조로 나오더군요. 그래 나는 말했지요. ‘내 고향이 내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 안 했던들 고향을 버리고 떠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요, 고향 생활이 내게는 전적으로 부적당할 뿐 아니라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고 이 길을 택한거요.’ 하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셋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그들이 묻더군요. 그래 나는 말했지요. ‘내 목숨은 그렇게 가볍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건방지게 나더러 삼자택일을 하라니 하는 걸 용납할 수 없으니 내 일에 간섭 하다가는 너희 목숨이 위태하게 될 테니 그리 알라고 호통쳤지요. 그랬더니 그 세 놈이 즉 「황두(荒頭)」라는 놈과 「경솔(輕率)」이라는 놈, 「독단(獨斷)」이라는 놈, 세 놈이 한꺼번에 칼을 빼들더군요. 나도 칼을 빼들었지요. 이렇게 되어 나 혼자 세 놈을 대항해 세 시간 이상 싸웠어요. 보시다시피 그놈들이 용감하게 싸웠다는 표적이 내 몸에 인이 찍혀 남아 있고, 나도 그놈들에게 많은 부상을 입혔지요. 방금 그놈들이 도망쳤어요. 아마 당신네들이 오는 인기척을 듣고 도망갔나 봐요.”

용감: “혼자서 세 놈을 대항해 싸우다니 그건 정말 당신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요.”

진리의 용사: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적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

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고 노래 부른 이가 있지 않습니까(역주: 시편 27:3). 그뿐 아니라 혼자서 한 군대와 맞붙어 싸웠다는 기록을 어디서 읽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한 개를 가지고 과연 천 명의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감: “구해 달라고 왜 소리치지 않으셨소?”

진리의 용사: “왜라니요. 주님께 속으로 간구했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저는 족했어요.”

용감: “정말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셨소. 어디 당신 칼 좀 봅시다.”

그래 그는 칼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칼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던 용감 씨는 말했다. “아니! 이 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든 칼이구려.”

진리의 용사: “그렇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알고 사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손에 이런 칼 한 자루만 쥐어 주면 감히 천사들과도 겨뤄 볼 수 있지요. 이런 칼을 다루는 법만 잘 아는 사람이면 손에 쥐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칼날은 절대로 무뎠을 일이 없지요. 이 칼날은 살만 찢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찢어 쪼개지요(역주: 히브리서 4:12).”

용감: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싸우셨는데 그래도 피곤해지지 않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는군요.”

진리의 용사: “칼이 내 손에 붙기까지 나는 계속 싸웠어요(역주: 사무엘하 23:10). 칼과 내 손이 맞붙자 칼은 내 팔에서 돌아난 것같이 느껴졌고, 피가 내 손가락들을 통해 흐르는 것을 감각하게 되자 나는 더 용감하게 싸웠어요.”

용감: “참 잘하셨습니다. 죄에 결사적으로 반항하느라고 피까지 흘렸군요. 자, 그럼 여보시오, 당신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해 주시오. 우리는 당신의 동료가 되고 싶소.”

이리하여 그를 일행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그의 상처를 씻겨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대접해 기운을 회복시키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함께 길을 걸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용감 씨는 진리의 용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

졌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의 용사와 동행하게 된 것이 정말로 기쁜데다 (만나는 사람 중에 수완가를 발견할 때마다 그는 기뻐하는 것이었으므로), 동행자들 중에는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완가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첫 질문은 진리의 용사의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이었다.

진리의 용사: “내 고향은 「어두운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내가 출생했고, 부모님은 아직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용감: “어두운 마을이라고요. 그 마을이 멸망할 도시와 같은 해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용사: “그렇습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향에 와서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즉 어떻게 그이가 아내와 자식들을 다 버리고 혼자 순례자의 생활을 취했다는 사연을 들려주었어요. 그이가 길가는 도중에 그를 방해하려고 나타난 뱀을 죽였다는 얘기와, 어떻게 해서 그가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여행 도중 유숙하는 곳마다에서 어떻게 그이를 영접했으며, 특히 그가 천국 때문에 다다랐을 때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마중 나오고 나팔 소리 요란하게 그이를 영접했다는 얘기도 들려주었어요. 그이가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가자 성내 모든 종들이 즐겁게 울렸고, 그에게 황금옷을 입혀준 얘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지금 그걸 모두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않으렵니다. 한 마디로 줄여 말씀드리자면, 크리스천의 여행에 대한 진담 씨의 얘기가 저도 그의 뒤를 어서 속히 따르고 싶은 느낌으로 제 가슴을 가득 채워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를 붙들지 못했지요. 그래 부모님과 작별하고 이처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용감: “그럼 좁은 문을 통과해 오셨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리의 용사: “그럼요. 그렇고말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 정로에 들어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진담 씨가 말해 주었으니까요.”

이때 용감 씨가 크리스티아나에게 향하여 말했다. “자, 보시오. 당신 남편이 순례의 길을 가던 일과 순례자로써 성취한 성과가 원근 사방에 널리 전파된 것을.”

진리의 용사: “아니, 뭐요? 이분이 크리스천의 부인이십니까?”

용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그분의 아들들이지요.”

진리의 용사: “그래요! 그럼 이분들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용감: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용사: “이거 정말 기쁜 일이군요. 착한 크리스천! 그가 함께 떠나자고 할 때엔 반대하고 떠나지 않았던 가족이 뒤따라 천국 대문까지 온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용감: “그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지요. 자기 자신이 그곳에 살게 된 것이 가장 기쁠 것이요, 그다음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기쁠 것에 틀림없지요.”

진리의 용사: “가족을 만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때에는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알아보게 될는지 못 알아보게 될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용감: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자 선이 복받는 것을 즐길 줄 알게 된다면 어찌하여 남을 몰라 보고 남이 복받는 데 즐거워할 줄 모르게 될까요? 그뿐 아니라 친척들은 우리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로인데, 그곳에서 설사 친족 관계가 분해된다 한들 친족들을 그곳에서 못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더 즐기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요?”

진리의 용사: “글쎄요. 당신의 말씀은 얼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경위에 대해 더 물어보실 말씀은 없습니까?”

용감: “있지요.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순례자가 되는 걸 찬성하십니까?”

진리의 용사: “웬걸요, 반대하셨지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날 집에 그냥 있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지요.”

용감: “반대하는 이유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용사: “순례자의 생활은 게으른 생활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게으름 피우기를 싫어하는 자라면 순례자의 생활을 장려하지는 절

대로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감: “그 밖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용사: “글쎄요. 순례의 길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지요.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이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감: “그 길의 어디가 위험하다고 지적하시던가요?”

진리의 용사: “몇 군데를 집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시던데요.”

용감: “예를 들면?”

진리의 용사: “크리스천이 거의 질식해 죽을 뻔한 절망의 수렁이 위험한 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문을 두드리고 서 있으면 바알세불이라는 악마의 성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활 쏘는 사수들이 화살을 쏘아 죽이려 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깊은 삼림, 어두운 산, 곤고 산, 두 마리의 사자, 그리고 살벌과 철퇴와 살선 등 세 놈의 거인이 다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잠복·출몰하고 있어서 크리스천도 그것들한테 생명을 빼앗길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또 도개비들이 우글우글하고, 밤낮 어둡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덫 등이 숨겨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절망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와 의혹의 성, 그리고 그 성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길을 떠나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요술에 걸린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생을 다 겪고 목적지까지 거의 다 가도 다리 하나 놓이지 않은 강이 내가 서 있는 자리와 하늘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용감: “그것이 전부입니까?”

진리의 용사: “천만에요. 길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그 길에서 몰아내려고 애쓰며 행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기꾼들도 우글우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감: “그런데 그런 얘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진리의 용사: “속세 현자 씨가 속이려고 길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허례와 상선이 늘 길에 서서 행인들을 꼬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심이니, 수다쟁이니, 데마스 파위들이 잡으려 들 거고, 아침하는 자는 날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애쓸 것이며, 쫓내기 무지라는 자가 나와 함께 천국 대문으로 가는 척하고 동행하다가가는 대문 밖에까지 가서는 언제나 산허리에 있는 구멍에 빠져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곤 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용감: “그런 이야기만으로 당신의 용기를 꺾기에는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의 말씀은 이쯤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진리의 용사: “어디,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잠깐. 길 꼬트머리까지 가면 영광스런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가끔 하는 말만 믿고 길을 떠나 상당히 먼 여행을 감행하고도 결국 허탕치고 고향으로 되돌아와서는 그런 뜬소문만 듣고 집을 뛰쳐나가 여행을 떠났던 자기들이 바보였다고 투덜거리는 바람에 온 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이전부터 여러 번 있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허탕친 사람들의 이름까지 대시는데, 예를 들면 고집쟁이, 유순, 회의, 겁쟁이, 변절, 무신론자, 기타 여러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중 더러는 펍 멀리까지 여행해 가서 행여 천국을 발견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말하고, 그들 모두가 다 여행에서 본 것은 터럭 만큼도 없다고 말하더라는 얘기까지 부모님께서 내게 들려주셨어요.”

용감: “당신의 용기를 꺾으려고 그 밖에 또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까?”

진리의 용사: “예. 순례자인 불안 씨는 길가는 동안 언제나 혼자 고독하여 단 한 시간도 편히 지낸 일이 없었다는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낙심 씨는 길가는 동안 노상 굴었다는 얘기도 들려주셨고, 그렇지요,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한 소문을 퍼뜨린 크리스천 씨도 하늘나라 면류관을 써 보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가며 끝까지 걸어갔는데도 결국엔 시커먼 강물에 빠져 한 걸음도 더 못 가고 숨 막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용감: “그래 그런 말씀도 당신의 용기는 끝내 꺾지 못했던 말이지요?”

진리의 용사: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전부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용감: “어떻게요?”

진리의 용사: “진담 씨의 말이 옳다고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모든 잡음을 물리쳤지요.”

용감: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승리였군요, 믿음의 승리.”

진리의 용사: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 길에 나섰고, 도중에 나를 방해한 모든 것들과 대결해 싸웠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지요.”

참된 진리 깨달은 사람은  
이리로 오시오,  
바람이 불거나  
기후가 나쁘거나 관계없이  
그는 이 길을 굳게 지켜  
여행을 계속합니다.  
순례자 된다고 맹세한 그의 결심  
아무런 낙망도 굽히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그를 둘러쌀지라도,  
그런 얘기들 자체가  
갈피 못 잡을 낭설일 뿐,  
그의 힘은 더 한층 세지지요.  
사자도 그는 무서워하지 않고  
거인들과 겨루어 싸울 때에도  
순례자 될 권리를  
그는 포기하지 않소.

도깨비들과 더러운 악귀들도  
그의 용기를 꺾을 수 없고,

종말에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소.  
망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인간들의 낭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순례의 길 걸어가길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요술에 걸린 지역에 다다르자 그곳 공기가 자연 그들을 졸립게 했다. 요술에 걸린 정자 한 채가 서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 전체에 가시덤불이 자라나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요술에 걸린 정자 안에 누구든 들어가 앉든지, 혹은 잠이 들었다가는 이 세상에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씩 줄 지어 이 수풀을 꿰뚫어 걸어가고 있었다. 안내자인 용감 씨가 맨 앞에 서고 진리의 용사가 맨 뒤에 따랐다. 혹시 어떤 악귀나, 용이나, 거인이나, 도둑놈 따위가 일행의 후면으로 습격해 와서 해를 끼칠까 두려워 진리의 용사가 맨 뒤에 호위하고 걷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매우 위험한 지대라는 것을 아는 그들은 제각기 칼을 뽑아 손에 들고 행진했다. 용감 씨의 명령에 따라 십약 씨는 용감 씨 바로 뒤에서 걷게 하고, 낙심 씨는 진리의 용사의 감시와 비호를 받으며 걷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서로 격려하며 길을 걸었다.

얼마 못 가 짙은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었다. 그래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말을 주고받아 알아차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가장 건장한 남자들도 걸어가기 힘이 드는데 육체와 마음이 다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당하는 곤란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앞서 가는 용감 씨와 맨 뒤에 따르는 진리의 용사가 격려를 계속했으므로 그들은 비교적 쉽게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은 먼지와 진흙 투성이어서 걸어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게다가 연약한 행인들에게 휴식을 주고 음식을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해 줄 수 있는 여관이나 음

식점이 이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불평과 험뜯거림과 한숨만이 충만해 있었다. 한 사람이 덤불에 걸려 쓰러지다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진흙에 빠져 헤어날지 못해 애쓰고, 어린이들 더러는 진흙 속에 신발을 잃어버렸다. 하나가 “난 넘어졌다.” 하고 소리지르면 다른 하나는 “히! 너 어디 있니?” 하고 소리 지르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날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빠져나갈 도리가 없구나.”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침내 한 정자 앞에 이르렀다. 처마는 정묘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푸른 초목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보통 긴 의자들과 등받이가 높은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어 아늑하게 보이고 순례자들에게 휴식과 상쾌한 기분을 약속해 주는 것 같은 정자였다. 그 밖에 피곤한 행객이 비스듬히 기대고 앉기 알맞은 폭신한 안락의자도 한 개 놓여 있었다. 험악한 길에 휘둘린 순례자들에게 이런 정자가 하나의 유혹인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나 일행 중에는 한 사람도 그 정자에 들어가 쉬어 가자고 말만이라도 내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게 된 이유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안내자인 용감 씨의 충고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는 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대개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용감 씨가 주의를 환기시키곤 하는 것인데,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릴 뿐 아니라 그 위험성의 성질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어 그때그때 순례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체적 욕망에 굴복하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냥 지나치는 정자의 명칭은 「게으른 친구」였다. 지쳐 버린 순례자들 중 다만 얼마라도 이 정자에서 쉬어가도록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마련해 놓은 정자였다.

까딱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지역까지 그들이 걸어간 것을 나는 꿈에 봤다. 날이 밝다면 그릇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순례자들에게 넉넉히 알려줄 수 있으면만, 지금 날이 매우 어두웠으므로 안내자 자신도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모든 길을 그린 지도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는 불을 켜들고 (그는 언제나 부싯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어서) 그 지도 혹은 책을 펴 살펴봐야 새길로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순례자들에게 지시했다. 만일 이때 거기서 그가 지도를 펴 보지 않았던들 그들은 필경 진흙 수렁에 빠

저 질식해 죽었을 것이었다. 왜 그런고 하니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그것도 가장 평탄하고 깨끗한 길 저쪽 끝머리에 깊이가 얼마지 모르는 수렁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례자들을 빠뜨려 죽이려고 일부러 파 놓은 수렁이었다.

이때 나는 생각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그런 지도를 꼭 가지고 가면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지도를 꺼내 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다른 한 채의 정자를 발견할 때까지 그들은 요술에 걸린 지역 안을 그냥 걸어갔다. 이 정자는 바로 길가에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정자 안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부주의(不注意)」와 「과담(過談)」이었다. 순례의 길을 떠나 멀리 여기까지 온 그들은 여독이 나서 이 정자 안에 들어와 좀 쉬려고 앉아 있다가 그만 깊은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을 본 순례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머리를 저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情狀)이 가련하다고 생각되어 머리를 젖는 것이었다. 잠자고 있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고 제 갈 길이나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서 깨워 보려고 시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한 동안 의논했다. 결국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자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은 정자 안에서 절대로 의자에 앉지도 말고 그 밖의 좋은 설비 하나도 이용하지는 말자는 조건부로 가결된 것이었다.

정자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잠자는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 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내자가 그들 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모양) 깨우려 했으나 그들 둘에게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안내자는 그들 둘의 몸을 마구 흔들면서 할 수 있는 양껏 잠을 방해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었다. “돈이 생기면 갚아주지.”

이 말에 안내자는 머리를 저었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칼을 내 손에 잡고 있을 힘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테다.”

이 말에 어린이들 중의 하나가 깔깔 웃었다.

그러자 크리스티아나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내자가 대답했다.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잠꼬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때리든지 찌르든지, 그 밖의 어떤 방해를 놔도 그런 대답 밖에 못 합니다. 바다 물결이 자는 몸을 들이대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배 돛대 위에서 자거나 하는 것처럼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으면서 ‘잠이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역주: 잠언 23:34~5).’고 잠꼬대하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잠자면서 잠꼬대를 할 때에는 믿음이나 이성의 지배를 받는 말이 아닌 허튼소리를 주워 섬기는 것이지요. 순례의 길을 가던 이 사람들이 이 정자 안에 들어와 앉은 일이 잘못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껄이는 잠꼬대도 모순이요, 요령부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나서는 심중팔구는 이런 꼴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요술에 걸린 지역은 순례자들의 원수가 마련돼 놓은 마지막 함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 길 거의 끄트머리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함정이지요. ‘순례의 길 떠난 바보들이 지치게 되면 앉아 쉬길 갈망하게 되겠지. 그런데 어느 때 제일 지치게 될까? 여행이 거의 끝나게 될 때가 아닐까?’ 하고 원수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술에 걸린 지역은 비 국교도의 예배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 그리고 그들의 여행이 종말을 고하는 근처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각기 자기반성을 해야 되고, 한번 잠들면 세상 누구도 깨울 수 없는 잠을 든 이 두 사람 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떠는 순례자들은 어서 다시 길을 가기를 원했다. 단지 나머지 길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등불을 켜 길을 비춰 달라고 안내자에게 간구하는 것이었다(역주: 베드로후서 1:19). 그래서 안내자는 등에 불을 켜 비춰 주어, 캄캄한 어둠 속이었지만 나머지 길을 편히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래 그들은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에게 길을 좀 편하게 해 달라고 울부짖음으로 호소했다. 이 호소가 효과를 발하여 얼마 더 안 가 바람이 일어나 안개를 멀리 쫓아버려 공기는 맑아졌다.

그러나 아직 요술에 걸린 지역을 다 벗어나지는 못 했으므로 여행이 편해진 것은 아니고 단지 피차 모습을 알아볼 수 있고 걸어가는 길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뿐이

었다.

요술에 걸린 지대를 거의 벗어날 무렵 얼마 멀지 않은 앞에서 누군가가 괴로운 듯이 신음하는 것 같은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살펴보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 하나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눈도 하늘을 쳐다보며 무언지 진지하게 높은 데 계신 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에게로 상당히 가까이 갔으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똑똑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말을 끝낼 때까지 그들은 가만 가만 더 가까이 갔다. 말을 끝낸 그는 일어서자마자 하늘나라를 향해 달음박질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용감 씨가 그 사람을 불렀다. “아, 여보시오! 보아하니 천국을 향해 가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동행하기로 합시다.”

이 말에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은 그를 따라 잡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정직 씨가 말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분인데.”

그러자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아, 그래요. 누구데요?”

정직 씨가 말했다. “내가 살던 곳에 살던 사람인데 이름은 ‘불굴’이지요. 정말로 곧고 착한 순례자입니다.”

그들이 아주 가까이 가서 대면하게 되자 불굴이 늙은 정직에게 말을 걸었다. “아! 정직 아저씨 아니십니까? 아저씨도 예까지 오셨군요.” 정직이 말했다. “그렇소. 당신이 예까지 확실히 온 것처럼 나도 확실히 예까지 왔소.”

불굴 씨가 말했다. “참 반갑습니다. 아저씨를 이 길에서 만나 뵈니 정말 기쁩니다.” 정직 씨가 말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나도 참 기뻐소.”

이 말에 얼굴을 붉히는 불굴 씨가 말했다. “아니, 그래 제가 꿇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단 말씀입니까?” 정직이 말했다. “그래, 분명히 봤소. 그리고 당신이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뻐소.”

불굴이 물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늙은 정직이 말했다. “생각! 무슨 생각을 내가 했으리라 생각되오? 이 길 위에 정직한 사람 하나가 더 있으니 차차 우리 동행이 돼 주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불굴이 말했다. “아저씨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허나 제가 아저씨와 함께 동행할 자격이 없으면 저 혼자 여행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정직이 말했다. “옳은 말씀이요. 하지만 당신의 경외심이 강한 것을 보아 순례자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다른 영혼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소(역주: 잠언 28:14).

진리의 용사: “말씀 잘 하셨소. 그런데, 불굴 씨, 무슨 일로 끌어 앉아 있었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에게만 무슨 특별한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러신 겁니까?”

불굴: “글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요술에 걸린 지역 안을 여행 중 아닙니까. 이 지역 내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즉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또 멀리 이곳까지 와 가지고도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여행이 제지당하고 만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 그리고 이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에 의해 죽는가를 또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아무런 폭행도 받지 않고 조용히 죽어가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동안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자다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이때 불굴의 말을 중단시키는 정직 씨가 말했다. “정자 안에서 잠자는 두 사람을 당신도 봤소?”

불굴: “그럼요. 부주의와 과담 두 사람이 잠들어 있더군요. 제가 알기에는 그들 둘은 몸이 썩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제 말씀을 마저 들어주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에 빠진 채 걷고 있노라니 옷 잘 입은 늙은 여인 하나가 가까이 오더니 세 가지를 제게 주마고 제의하더군요. 즉 그녀의 몸과, 돈주머니와 그녀의 침대,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나는 무척 지치고 매우 졸렸으며, 부엉이 새끼처럼 불쌍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실을 그 마녀가 아마 알고 날 유혹하려고 했나봐요. 내가 한두 번 그녀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그녀는 내 물리침을 모르는 척하고 미소로 대해 주더군요. 그러자 나



는 꼴을 냈지만 그녀는 끄떡도 안 하더군요. 다시 자기의 몸과 돈지갑과 침대를 나에게 내맡기겠다고 하는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만일 내가 그녀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요. 그녀는 자기가 이 세상 주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지요. 자기 이름은 마담 「포말(泡沫)」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이 말에 나는 그녀를 더 멀리 했지만, 치근 치근 따라오는 그녀는 계속 나를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들도 보신 것과 같이, 땅에 꿇어 앉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치켜 올리고, 구하면 도와주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에게 울며 기도드렸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오기 직전에 그녀는 달아나 버렸어요. 그녀가 달아난 뒤에도 나는 계속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 여인은 좋지 못한 계락을 꾸미고 있으며 내 여행을 중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은 나는 그녀의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직: “마녀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여인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그녀를 본 일이 있었거나 그렇잖으면 그녀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읽은 것 같이 생각되는군요.”

불굴: “아마 보시기도 하고 읽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정직: “마담 포말이라! 키가 크고 준수하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여인이 아니요?”

불굴: “맞습니다. 꼭 맞아요. 바로 그렇게 생긴 여인이었어요?”

정직: “말이 청산유수고, 말끝마다 미소를 던지고?”

불굴: “예, 그것도 꼭 맞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꼭 그렇더군요.”

정직: “옆구리에 큰 돈주머니를 차고 돈을 만져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듯이 돈주머니에 자주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까?”

불굴: “꼭 그래요. 아저씨께서 그녀 묘사를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녀가 줄곧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면서 묘사하시더라도 그 이상 더 잘 묘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직: “만일 그렇다면 그녀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훌륭한 화가였고, 그녀의 모습

과 행동을 글로 쓴 사람은 여실하게 잘 썼구먼.”

불굴: “이 여인은 마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술로 인해 이 지역이 요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건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그것은 대단 도끼 아래 놓인 단두대에 머리를 얹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이 현혹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될 것입니다(역주: 야고보서 4:4). 순례자들의 원수들의 화려한 모습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그녀의 마술이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순례자의 생명을 도중에 매수해 멸망시킨 것도 그녀의 짓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입담이 굉장히 좋아서 그녀의 두 딸들은 언제나 순례자들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이승의 생활이 어느 곳 생활보다도 더 좋다고 찬양하며, 이승의 생활이 탁월하다고 선전하고 다니지요. 그녀는 과감하고도 면면한 매춘부 매한가지여서 아무 남자하고나 맞서 얘기하기 좋아하지요. 가난한 순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는 그녀는 돈 많은 부자들은 대단히 존대하지요. 어떤 곳에 간교한 피로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있으면 그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칭찬하지요.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회여서, 성찬이 준비된 연회는 빼놓지 않고 언제나 꼭 참석하지요.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는 그녀가 여신이라는 소문을 내게 하여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요. 속임수를 쓰는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 놓고, 그녀 자신만큼 잘 속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지요. 누구건 그녀를 사랑하거나 존대해 주면 그런 사람들의 자식의 자식들과도 함께 살아 준다고 그녀는 약속합니다. 어떤 특수한 장소에서, 또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그녀는 돈을 물 쓰듯 쓰며 돌아다니지요. 남에게 따름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며 남자들의 품에 안기기를 무척 좋아하는 그녀이지요. 자기의 소유물들을 칭찬하는 데는 피로를 모르고 자기를 가장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자기 권고를 좇기만 하면 왕관과 왕국을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 대부분 추종자들을 교수대로 보내고, 교수대로 보내는 사람 수요의 만 배도 더 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여자가 곧 그 마녀입니다.”

불굴이 말했다. “아, 그러니 내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옹했더라면 그녀가 날 어디로 끌고 갔을는지 모르겠으니 말입

니다.”

용감: “어디로 라구요! 어디로 끌려갔을지는 하나님 외엔 알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대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수에 떨어뜨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역주: 디모데전서 6:9) 했을 것임에 틀림없지요. 마녀가 인간을 침륜과 멸망에 떨어뜨린 예를 들자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것,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한 것, 유다를 꼬여서 스승이요 주님이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은 것, 그리고 데마스가 경건한 순례자 생활을 포기하도록 설득당한 것 등이지요. 그런 만큼 그녀가 인류를 해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임금과 백성 간에 이간을 붙인 자가 그 마녀요, 부모와 자식들간 불화를 가져오게 한 것도 그녀요, 이웃지간 불화를 가져오게 한 것도 그녀요, 부부지간 불화를 가져오게 한 것도 그녀이며 한 인간의 육체와 마음 간에 이간을 붙이는 것도 바로 그 마녀의 농간입니다. 그러니 착한 불굴 씨, 당신은 당신의 이름 뜻과 마찬가지로 굳세게 꺾이지 않고 모든 일을 성취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는 순례자 일행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무서워 떨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순례자들을 노리고 있으며  
원수들 또한 얼마나 많고,  
죄 범하기 쉬운 길 또한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인간 하나도 없도다.

몇 개의 수렁은 위태위태하게 피했지만,  
다른 수렁에 굴러 떨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니,  
끓는 솥 기어이 피하는 자들 중에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 참으로 많도다.

순례자들이 빨라 땅에 들어서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다. 이 땅에는 태양이 밤낮 가

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피곤해진 그들인지라 이곳에서 얼마간 휴식하기로 그들은 걱정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순례자들이면 누구나 다 공동으로 살려고 예비한 땅인데다 여기저기 있는 과수원들과 포도밭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였으므로 순례자들은 무슨 과일이건 다 먹고 싶은 대로 따 먹을 자유가 부여되어 있었다.

휴식과 식사로 잠시 후 기운은 회복했지만 모든 종들이 계속 울리고 우아한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잠은 들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숙면하고 난 때처럼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상쾌한 것이었다. 그리고 “더 많은 순례자가 이 마을로 들어왔다.” 하고 외치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수다한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 천국의 황금문으로 오를 갔다.” 하고 외치며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빛나는 사람들 한 무리가 방금 이 마을로 내려온 것을 보니 더 많은 순례자가 길에 나선 것이 분명하다. 빛나는 사람들이 이리로 오는 목적은 순례자들이 여행 도중 겪은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는 데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순례자들은 거리거리를 거닐기 시작했다. 그들의 귀는 하늘나라의 묘음(妙音)으로 가득 차고, 눈은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는 환희로 가득 차다! 그들의 육체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이 지역 안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 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이 장차 건너야 할 강물을 떠서 먹어 보니 입 안에서는 약간 쓴맛이 돌더니 삼키고 나자 아주 단맛이 도는 것이었다.

옛날부터의 모든 순례자의 명단이 이곳에 비치되어 있고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유명한 행적 기록도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국으로 건너가는 강물이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에는 불고 또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에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즉 어떤 사람이 건널 때에는 물이 거의 다 말라 버리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이 건널 때에는 홍수가 나 양쪽 강둑에 넘쳤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이 마을 어린이들은 임금님의 화원으로 들어가 꽃을 꺾어 화환을 만들어 순례자들에게 갖다 주기를 즐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장뇌(樟腦) · 두릅 · 사

프란 · 창포 · 육계(肉桂) 등 여러 가지 향초가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유향(乳香) · 몰약(沒藥) · 침향(枕香) 등 여러 가지 향나무가 무성해 있었다. 순례자들이 기거하는 주막들과 방에 이런 향료를 두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그들이 강을 건너갈 시각이 이를 때 강 건너기 직전에 이런 향료를 몸에 바르는 것이었다.

강을 건널 기쁜 날을 기다리는 순례자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간 살고 있노라니 어떤 날 하늘나라로부터 우체부 하나가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짝 퍼졌다. 순례자였던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에게로 오는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 그녀가 유숙하고 있는 집이 어디인가 물어 그녀의 집을 확인한 우체부가 집으로 찾아와 편지를 전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착한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소식을 전달하노니 열흘 이내로 천국으로 와서 영원불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노라.”

이 편지를 크리스티아나에게 읽어 주고 난 우체부는 어떤 표지를 꺼내 보이며 자기가 정말 우체부라고 증명하면서 어서 속히 길 떠날 준비를 하라고 독촉했다. 그 표지는 한 개의 화살인데, 살 꼬트머리를 사랑으로 날카롭게 간 것이었다. 이 화살이 그녀의 심장에 쉽게 꽂히고, 꽂혀 있는 그 화살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작용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날에 꼭 강을 건널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강을 건널 때가 온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가 일행 중 제일 먼저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크리스티아나는 그녀를 안내해 준 용감 씨를 불러 사정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다고 말하는 용감 씨는 자에게도 그런 편지를 전해 주는 우체부가 와 주었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여행을 다시 떠나는 데 필요한 준비는 어떤 것인지 알려 달라고 그녀가 그에게 부탁했다.

그래 그는 그녀에게 이러저러하면 된다고 알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강가까지 바래다주겠노라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식들을 다 불러 축복해 주고, 그들의 이마에 인 찍힌 표적이 그대로 다 잘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또 입고 있는 옷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고 희게 보전한 것을 보니 안심도 되고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

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모든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아들과 며느리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우체부가 올 것을 대기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안내자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다 하고 난 그녀는 진리의 용사에게로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떤 장소에서나 언제나 진실된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하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을 돌봐주십시오하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애들이 약해지는 것 같은 기미를 보이거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들도 모두 다 정숙했으니 그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굴 씨에게 가락지 한 개를 주었다.

그다음 늙은 정직 씨를 찾아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 간사한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정직 씨가 말했다. “시온 산으로 가실 길을 떠나시는 날 일기가 청명하기 바라고 강 건너실 때에는 물이 말라 마른 신 신은 채로 건너시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날이 궂던 마르던 간에 저는 가기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행 중 일기는 어쨌든지 천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곳에 편히 앉아서 휴식하고 또 젖은 몸을 말릴 시간의 여유가 넉넉할 것이니까요.” 낙심이라는 착한 사람과 그의 딸인 겹쟁이가 함께 크리스티아나를 보러 왔다. 그들에게 그녀는 말했다. “절망의 거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고, 의혹의 성에서 구원되어 나온 것을 두 분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당신들을 해방시킨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쪼록 깨어 있어서 언제나 경계하고 공포심을 버리고 끝까지 희망을 걸으세요.”

그다음 그녀는 심약 씨에게 말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빛 속에서 사는 동시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금님이신 하나님을 뵈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살

선이라는 거인의 아가리로부터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지요.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시기 전 주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기를 잘하는 약점을 뉘우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당신 자신의 그런 허물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힌 채 그의 앞에 서지 않아도 좋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꼭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다. 그녀가 여행 떠나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군중이 거리를 메웠다. 그런데 강 저쪽 언덕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말과 마차들이 우글우글했다. 그녀를 태우고 천국으로 모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마차들이었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강가까지 환송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면서 강으로 들어섰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말한 마지막 발언은 이러했다. “주여, 당신과 함께 거하며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 저는 지금 가옵니다.”

강 건너 쪽에서 크리스티아나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이 그녀를 태우고 시야 밖으로 사라지자 그녀의 자식들과 친구들은 각기 자기네 처소로 돌아갔다. 천국 문까지 간 그녀는 부름을 받아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전에 그녀의 남편인 크리스천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의식을 거행하면서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떠나가자 그녀의 자식들은 울었다. 그러나 용감 씨와 진리의 용사가 조울 잘 된 심벌과 하프로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자 울음을 그치고 제각기 처소를 찾아 헤어졌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천국의 우체부 하나가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주저 씨에게 오는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주저 씨를 찾아 만난 우체부는 말했다. “절름발이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야 걸을 수 있는 당신이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시는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다음 부활절 다음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저녁을 잡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오시라는 전갈을 하려고 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행 떠나실 준비를 곧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말 우체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내가 네 금잔을 깨뜨리고 은줄을 풀어 놓았노라(역주: 전도서 12:6).”

그러자 동행해 온 순례자들 일행을 다 청해 놓은 주저 씨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조만간 당신들도 부르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리의 용사에게 자기 유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가 남길 유산이라고는 지팡이 두 개와 남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은 없었으므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두 개의 지팡이를 내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렵니다. 아들도 이 지팡이를 짚고 내 뒤를 따라오되 나보다는 백 배나 더 뜨거운 희망을 품고 여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때까지 길 안내를 해준 용감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길을 떠났다. 강가에 다다른 그는 말했다. “강 건너 쪽에는 나를 태워다 줄 마차와 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지팡이들은 소용없게 됐소.”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말은 이러했다. “반갑도다. 생명이여!”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얼마 뒤 심약 씨가 반가운 기별을 받았다. 그가 유숙하는 방문 밖에서 나팔을 불고 난 우체부가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당신을 모시고 오라시는 우리 주인님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당신은 우리 주인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우체부라는 증거 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창으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니라.’(역주: 전도서 12:3)”

그러자 친구들을 청해 모아 놓은 심약 씨는 자기에게 기별이 온 일과 기별을 가져온 우체부가 정말 사자라고 증명해 주는 표적을 받았노라고 알려주었다. 그다음 그는 말했다. “나로서는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 유서를 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니고 다니던 약한 마음은 내버리고 길을 떠나렵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약한 마음은 소용없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순례자라 할지라도 약한 마음은 물려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자마자 진리의 용사께서 그것을 거름 무더기 속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그는 떠날 날에 이르자 남들과 마찬가지로 강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믿음과 인내를 꼭 붙잡으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강 저쪽으로 건너갔다.

여러 날이 지나간 후 낙심 씨가 부르심을 받았다. 마을로 들어온 우체부가 아래와



같은 편지를 그에게 전했다. “떠는 사람이여, 오는 주일에 당신이 하나님을 곁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모든 의혹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기쁨을 소리 높이 외치시오.”

그리고 우체부는 말했다. “내 전갈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이 말을 들으시오, ‘그에게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니라.’(역주: 전도서 12:5)”

이 말을 들은 낙심 씨의 딸인 겁쟁이가 자기도 아버지와 함께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낙심 씨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와 내 딸 둘 다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혔는지 당신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뿐 아니라 내 딸까지 쓰고 싶은 유서는 이렇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낙망과 공포 근성은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날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인간 아무도 상속받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죽자마자 그런 근성들은 딴 사람들 속으로 기어들어 가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근성들은 유명일 따름으로 우리가 처음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접한 것입니다. 한번 접하자 도무지 떼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 가게 되면 곧 딴 순례자에게 접하려고 사방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을 귀감으로 하여 당신들에게는 절대로 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부녀가 떠나갈 날이 오자 강가로 그들은 갔다. 낙심 씨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밤이여, 잘 가거라! 낮이여, 잘 오라!”

그의 딸은 노래 부르며 강을 건넜는데 그 가사를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세월이 흐르자 얼마 뒤 마을에 나타난 우체부가 정직 씨 주소를 물었다. 그래 그의 집을 알아가지고 찾아온 우체부가 그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 사연은 아래와 같다. “오늘부터 이제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통지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니라(역주: 전도서 12:4).’

그러자 친구들을 불러 모은 정직이 말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유서는 남기지

않으립니다. 내가 지닌 정직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 뒤로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전해 주시오.”

그가 떠날 날이 오자 그는 강가로 갔다. 이때 강물이 불어 강 언덕 몇 군데로는 물이 넘쳐흘렀다. 그러나 이전 어느 때 정직 씨가 양심이란 사람과 이 강에서 만날 약속을 한 바 있었다. 약속을 지키는 양심 씨가 와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정직 씨가 마지막 한 말은 이러했다. “은혜가 주관한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다.

그후 우체부가 다시 나타나서 진리의 용사를 부른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그를 부르는 것이 참된 부르심이라는 증거로 우체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졌느니라(역주: 전도서 12:6)”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술한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이곳에 다른 이상 오면서 받은 모든 고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칼은 내 뒤를 따르는 순례자에게 유물로 줄 것이며, 내 용기와 재주는 그것들을 능히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립니다. 내 몸에 받은 술한 상처는 내가 그냥 가지고 나에게 상금을 주실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 대신 싸웠다는 증거로 제시하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날이 오자 강으로 가는 그를 따라 많은 친구들이 환송 나갔다. 강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말했다. “죽음아, 네가 쏘는 살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말했다. “무덤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이리하여 그는 강을 건너갔고, 강 저쪽 언덕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그 뒤 불굴 씨(요술에 걸린 지역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을 때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발견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펼쳐든 우체부가 마을로 들어왔다. 그 편지에는 그의 주인인 주님께서 더 오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니 생활을 바꿀 준비를 갖추라는 사연이 쓰여 있었다. 편지를 읽은 불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우체부가 말했다. “아니, 뭐, 내가 전해 드리는 편지의 참됨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될 말씀을 드리지요. ‘두레박 바퀴가 우물 위

에서 깨어지리라.”(역주: 전도서 12:6)”

그러자 그의 안내자인 용감 씨를 찾아간 그는 말했다.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좀 더 오래 당신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는 불행이었지만, 당신을 만나 동행하는 나날이 나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올 때 아내와 어린 자식들 다섯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대 당신에게 신신당부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속세로 도로 돌아가시거든 (좀 더 많은 순례자를 호송하기 위해 당신은 주인님 댁으로 도로 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누구건 한 사람 제 집으로 보내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이미 생겼고, 장차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제 가족에게 잘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구나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행복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축복 아래 살고 있다는 실정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행한 얘기와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아들들이 어떻게 남편과 아버지 뒤를 따라 나섰는지 그 사연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의 임종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죽어 어디로 갔다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 주도록 해 주세요. 가족을 위해 올리는 기도와 흘리는 눈물 밖에는 그들에게 보낼 것이 없습니다만,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이런 애정을 알려 그들이 이해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불굴 씨가 이 모양으로 세상 일을 정돈해 놓은 후, 급히 떠나야 할 때가 이르자 그도 강으로 내려갔다. 이 때 강물은 수심이 낮고 아주 고요했다. 그리하여 강 한 중간에서 걸음을 멈춘 불굴 씨는 이쪽 강변에 아직 서 있는 친구들에게 향하여 말했다. “이 강이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 강 얘기만 듣고도 무서워 편 일이 많았소.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강 한가운데 편히 서 있고, 옛날 이스라엘 족속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굳게 섰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나도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혀에는 쓰고, 배에 들어가서는 차갑지만, 저쪽 언덕에서 나를 맞아 인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생각을 할 때 내 심장은 솟불 피운 양 뜨거워집니다. 지금 나는 여행의 종말에 도달해 있어 곤고의 나날도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받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뵈려고 지금 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전하는 말과 믿음만 가지고 살아 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친히 뵈고, 또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될 주님에게로 지금 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에 살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나는 무척 좋아했고 그가 걸으신 발자취를 보기만 하면 그 발자취 위에 내 발을 얹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서 사향 고양이에게서 얻은 향로를 담아 두는 함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 어떤 향료보다 더 향기로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이 내게는 가장 달콤한 것이었고 그의 얼굴에 대하고 싶은 내 욕망은 햇빛을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욕망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나는 영양 섭취 음식물처럼 받아들였고, 내 약점을 치유하는 해독제로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볼드사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을 피하게 해 주셨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내 발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얼굴이 변함과 동시에 육체적 힘은 정신력 앞에 굴복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이 말이 끝나자 그의 자태는 친구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강 건너편 넓고 넓은 지대에 강 건너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나팔수들, 피리 부는 자들, 노래 부르는 자들, 그리고 현악기를 타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며, 이들 악사들의 뒤를 따라 천국의 아름다운 문을 향해 하나씩 둘씩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은 장쾌하기 그지없는 광경이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뿔라의 땅까지 데리고 간, 네 아들과 네 며느리가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그곳을 떠나 버렸다. 내가 떠난 뒤 어떤 사람이 내게로 와서 전해 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도 살아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신도들을 늘이기 위하여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또다시 그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면 이 책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 그럼, 독자들이여, 그동안 안녕히.

지은이 소개 | 존 버니언 (1628~1688)

17세기 영국의 소설가이자 설교자. 베드퍼드셔의 벅촌에서 땀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직업을 이었다. 겨우 읽기 · 쓰기만을 배운 그는 1653년, 16세 때에 크롬웰의 의회군 수비대에 들어가서 국교신앙 강제에 항거하는 국회의 청교도파 승리를 위해 싸웠다. 1660년 찰스 2세가 등극하여 왕정이 복고되어 국교신앙이 다시 강요되고 국교 외의 종교가 탄압받아 존 버니언도 12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시기 집필한 《천로역정》 제1부는 1678년에, 제2부는 1684년에 출판되었다.

옮긴이 소개 | 주요섭 (1923~1997)

《사랑 손님과 어머니》와 《인력거꾼》을 쓴 소설가 겸 영문학자. 평양 출생. 중국 상하이 후창대 학사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베이징 푸런대와 경희대 교단에 섰다. 코리아타임즈 주필을 지내고 영자지 코리아헤럴드의 전신인 코리아리퍼블릭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리얼한 하층민의 생활을 그린 작품부터 휴머니즘과 애정을 다룬 작품까지 폭넓은 창작 세계를 선보였다.

## 천로역정

©사단법인 올재

---

발행 | 2013년 10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화란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 · 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ISBN | 978-89-97876-10-5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